김일성화와 세계

공 업 출 판 사
주체99(20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김일성화와 세계

김 택 영

공 업 출 판 사
주체99(2010)

장편실화도서 《김일성화와 세계》를 내면서

김일성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신뢰하고 흠모하여 대양건너 머나먼 남방의 한 섬나라에서 피여나 온 누리에 아름답게 만발하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

진분홍보라색의 꽃잎과 꽃모양새가 정결하고 우아하여 특이하게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를 자아내는 **김일성**화는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들의 다함없는 위인숭배심을 자양분으로 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 백만송이, 천만송이로 만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화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김일성**화는 주체의 해발로 세계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며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여난 위인칭송의 꽃입니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이 꽃에는 얼마나 숭고하고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태양은 만물의 어머니이고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원천이며 그 빛은

우주를 비쳐주는 무한대한것이다.

태양의 열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안아키우는 한없이 따사로운것이며 태양의 인력은 머나먼 거리에 있는 행성까지도 거대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위력한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가장 신성하고 가장 위대한것을 태양에 비겨왔다.

태양의 위대함을 체현한 불멸의 꽃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자주시대에 와서야 태여나게 되였다.

그 꽃이 바로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겁고 열렬한 위인숭배심에 떠받들려 피여난 태양의 꽃 **김일성**화이다.

김일성화에는 빛나는 예지와 뛰여난 천품, 숭고한 풍모와 높은 덕망 그리고 태양의 위대함과 은혜로움을 한몸에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 온 세계 진보적인류가 우러러받들고 따르며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희세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영원한 태양의 모습이 어려있다.

세계에는 수천수만가지의 꽃들이 피여나 2억 5천만여년의 력사를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이 기나긴 세계화초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김일성**화처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꽃, 보면볼수록 매력과 애착을 가지게 하는 아름답고 진귀하며 깊은 뜻을 안고있는 꽃은 일찌기 없었다.

참으로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여난 위인칭송의 꽃이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며 우리 민족이 세계로부터 받아안게 된 크나큰 긍지의 꽃일뿐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몸

바칠 각오를 굳게 다지게 하는 충성의 꽃이다.

출판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과 **김일성**화 명명 45돐에 즈음하여 장편실화도서 《**김일성**화와 세계》를 출판한다.

책에는 저자가 오래동안 국내외에서 사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전사, 제자가 된 영예가 얼마나 고귀한가에 대하여 직접 체험한 사실가운데서 그 일부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위인흠모, 위인칭송의 목소리가 감명깊게 서술되여있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중심에 놓고 서술한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 그리고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절감하게 될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차 례

꽃에 대한 사랑

그 모습 우러르며

다함없는 칭송

김일성화의 탄생

남방의 4월

숭고한 도덕의리

꽃의 세계는 아름답다

명화중의 명화

태양절을 맞으며

누리에 만발하는 태양의 꽃

꽃에 대한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대소한의 맵짠 추위가 계속되고있던 주체64(1975)년 1월 중순 어느날,

사람들의 관심속에 두상의 화분이 포근히 보온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

해당부문 일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그 화분들이 놓여있는 대기실로 나오시였다.

대기실의 앞상우에는 특이하게 아름다운 두상의 화분이 놓여있었다.

남방식물의 독특한 정서를 자아내며 대나무처럼 마디진 줄기들, 거기에서 보기 좋게 휘늘어진 가지들과 시원스럽게 쭉쭉 퍼져간 잎새들, 가지끝에 물기를 머금고 피여나 다치면 손끝을 감미롭게 감싸줄것만 같은 진분홍보라색의 꽃송이들…

활짝 핀 꽃송이를 손수 만져보시고 향기도 맡아보시며 한동안 꽃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일성화가 옳습니다.

10년전에 수령님께서 보시고 매우 곱다고 하신 그 꽃이 옳습니다.

밑에 있는 꽃잎에 이렇게 흰점이 있었습니다.

김일성화는 백날동안 아름답게 피여있다고 합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 꽃을 처음 보겠는데 소감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꽃이 류별나게 아름다와서 첫눈에 마음에 든다고 말

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의 말을 긍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일성화는 정말 특이하게 아름답습니다.

김일성화는 주체사상신봉자들에 의하여 모진 광풍속에서도 스러지지 않고 아름답게 피여난 불멸의 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에 의하여 10년전 열대의 섬나라에서 태여난 불멸의 꽃 **김일성**화.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어버이수령님께 또다시 보여드리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시종 화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참으로 돌이켜보면 꽃 한송이, 나무 한그루를 가꾸시여도 언제나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워오신 장군님이시였다.

어느해 4월초 청명하고 신선한 아침이였다.

봄물결 설레이는 수도의 거리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길가에서 꽃밭을 가꾸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을 보시고 차에서 내리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주 지나다니시는 길이기에 꽃을 아름답게 피우려 한다는 전사들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왕 꽃밭을 만들바에는 수령님께서 잘 보실수 있게 도로와 좀더 가까이에 면적을 더 넓게 잡도록 몸소 꽃밭자리와 규모까지 정해주시고는 다음날 아침 그곳에 나가시여 삽을 드시고 군인들과 함께 꽃을 심으시였다.

청신하게 개인 하늘에는 아롱진 흰구름이 양무리들처럼 흘러가고있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전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해방후 어느날 수령님께서 계시는 창문가에 백리향 몇그루를 심으시였습니다.

꽃향기가 백리까지 간다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 사람들은 꽃나무를 옮겨 살리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 나무가 살지 못할것이라고 하였지만 우리 어머님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끝내 꽃을 피웠습니다.

밤새워 일하시던 수령님께서는 피곤이 몰려올 때면 창문을 여시고 그 꽃향기를 맡군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잠시 추억을 더듬으시였다.

…연분홍진달래꽃이 떨기떨기 피여나는 어느 봄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자루가 긴 호미를 들고 해방산기슭에 오르시였다.

어느덧 해빛은 설피여지고 서쪽하늘가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였다.

어머님께서는 커다란 너럭바위곁에서 백리향 몇그루를 뜨시고는 그 꽃나무를 수령님께서 일을 보시는 집무실쪽의 정원에 정히 심으시였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윽고 전사들을 둘러보시며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하였는데 우리 전사들의 충성심을 가지고 무엇인들 못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군군인들에게 어느 꽃은 얼마후에 피는것이니 꽃에 비닐박막을 씌워주고 그안에 백열등을 켜놓으며 어느 꽃은 해빛을 특별히 많이 요구하니 어떻게 해주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식물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이상으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동행한 일군의 머리속에는 그 언제인가 한 청년동맹일군에게 자신께서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그에 대하여 좀 아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령님께서 하도 꽃과 나무를 사랑하시기에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어려서부터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

였고 그 과정에 꽃과 나무를 사랑하게 되였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감회깊이 되새겨졌다.

병사들은 장군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꽃밭을 아름다운 화원으로 만들었다.

뜻깊은 4월의 명절날 아침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꽃밭옆을 지나시다가 차를 멈추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활짝 피여난 꽃들을 바라보시며 잠시 향기로운 꽃향기를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밤새 쌓였던 피곤이 풀리고 마음이 젊어지는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의 일을 회억하군하시였다.

정말 꽃이란 단조로운것 같지만 인간생활에는 지극히 유정한것이다.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친 1970년대의 마지막해가 저물어가던 주체68(1979)년 12월 중순 어느날 밤, 사람들은 행복의 요람속에 깊이 잠들고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밤도 집무실에서 지새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화로 도시경영부문의 한 일군을 찾으시여 다정하신 음성으로 도시와 마을에 꽃가꾸는 일을 어떻게 조직하고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이는데 거리에 꽃을 가꾸는 일을 물으시니 일군은 한동안 그이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책상우에 세계 여러나라들에 나가있는 재외대표부들에서 보내온 꽃씨와 꽃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정성껏 가꾸어 많이 번식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지금 평양시에 좋은 꽃들이 얼마 없다고 하시면서 화분과 꽃관목들을 많이 가꾸어 거리에도 놓고 가정들에도 공급해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보내는 꽃씨와 꽃뿌리를 잘 가꾸어 수령님의 탄생 70돐때에는 평양시가 화려한 꽃으로 단장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거리와 공원에 록화사업을 잘하여 해마다 4월의 명절이 다가오면 꽃들이 활짝 피게 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가르치심이였다.

아직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경축행사를 벌써 눈앞에 그려보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사업이 공장에서 그 어떤 제품을 만드는것과 달리 생물체를 기후풍토에 순화시켜야 하는 일이라는것을 헤아리시고 이처럼 예견성있게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끝났으나 되새길수록 깊은 뜻이 안겨오고 뜨거운것이 가슴에 차고넘쳐 일군은 오래도록 수화기를 놓지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벌써 추운 겨울날에도 진달래꽃을 피우시고 눈속에 파묻혔던 은방울꽃뿌리를 찾아내시여 화분에 심어 정성들여 피운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드리시였고 그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어느 한 곳의 정원을 꾸릴 때에는 현지에 나오시여 나무심기를 지도하시며 일군들에게 한그루의 나무나 꽃, 약초를 심어도 바람이 불면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약초냄새, 꽃향기가 흘러들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뜻깊은 4월의 봄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 자라는 꽃들과 함께 위도와 경도를 넘어 지구의 곳곳에 있는 아름답고 고운 꽃들을 평양의 거리마다 활짝 피워 수령님을 그윽한 꽃향기속에 모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그대로 현실로 되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이하는 수도는 마치 꽃동산을 방불케 하였다.

주체71(1982)년 4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도의 어느 한 네거리에서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거리에는 곱고 향기로운 꽃들이 망울을 터치고 활짝 피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거리의 풍치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기쁨에 넘치신 어조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길가에 이렇게 꽃을 잘 피운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꽃을 보고는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피워주고 가꾸어주신 한송이한송이 아름다운 꽃들은 오늘 수령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들의 그리움의 꽃으로 이 땅우에 더욱 아름답게 만발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천만리길에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들꽃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비행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 부대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곳이였다.

잊지 못할 추억의 갈피를 더듬으시며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녀병사를 부르시였다.

잠시후 키도 그리 크지 않은 평범한 한 녀병사가 엎어질듯 달려와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녀병사를 정겹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이 동무가 바로 몇해전… 비행장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에 들꽃묶음을 드렸던 동무입니다.》

《들꽃소녀》! 그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소녀였다.

군복입은 그의 모습이 더없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우신듯 자애로운 시선으로 녀병사를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 비행장을 현지지도하신지 44돐이 되는 날에 … 비행장을 현지시찰하면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외진 곳에 세워놓은 현지지도표식비앞에 희한한 꽃다발이 아니라 들판에 흔히 있는 꽃을 가지고 만든 들꽃묶음이 놓여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전에 현지지도를 하신 바로 그날에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찾으셨던 추억의 갈피를 더듬어보시는 장군님의 마음은 한없이 뜨거우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차에서 내리시여 수령님의 령도사적을 전하는 현지지도표식비를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화강석표식비앞에 놓여있는 꽃다발을 손에 드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동안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방금 꺾어다놓은듯 싱싱한 꽃묶음에서는 물씬 향기가 풍기였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담겨진 꽃다발앞에서 장군님께서는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기특한 꽃다발의 주인공을 꼭 찾아내고 그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속에 평범한 학생에 불과하였던 나어린 소녀는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아는 《들꽃소녀》로 되였다.

어제날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들꽃묶음을

들었던 소녀, 그가 오늘은 혁명의 총대를 굳세게 틀어잡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장군님의 병사로 자라났다.

...

이렇듯 한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보시고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은 저 하늘의 태양에도 비길수 없이 한없이 뜨거우시였다.

그처럼 뜨거운 마음을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장군님 열대의 섬나라에서 조용히 피고있던 **김일성**화를 우리 조국의 대지에 억세게 뿌리내리도록 해주시였고 오늘은 들가에 피여나는 한떨기 꽃을 보시고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끓이시며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려 헌신의 날과 날을 이어가고 계시는것 아니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축복하는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다.

유명한 란초육종가

어느날 수잔나 까싼은 친근한 동료인 란초육종가 씨. 엘 분트를 찾아갔다.

씨. 엘 분트는 육종장에서 연구사업에 몰두하고있었다.

《수잔나, 오래간만이네. 그동안 왜 그리도 까딱하지 않았나.》

《괜히 자네한테 방해군이 되면 어쩔려구.》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정답게 웃었다.

수잔나와 분트는 동업계에서 일하면서 인정적인 측면에서도 막역한 사이였다.

분트는 성격상 민감하면서도 허물이 없고 상냥하면서도 열정적이였고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력이 비상한 사람이였다.

그런가 하면 수잔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친절하지만 일단 사업에 들어가서는 요구성이 강하였다(후날 수잔나는 보고르식물원에서 원장사업을 맡아하게 되였다).

《분트씨, 그래 새로운 란꽃육종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여가고있나?》

《괜찮게 진행되여가네.》

육종사업이란 조용한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였다. 그것은 생물체를 유전적으로 개량하여 보다 리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새 품종으로 만들어내는 그자체가 곧 인간의 창조적활동이기때문이다.

육종원리와 방법, 육종기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데 기초하여 새로운것을 창조하는 사업에 몸을 바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트에게는 이처럼 즐거운 일이 없었다.

분트는 프라망족에 속하는 도이췰란드계의 인도네시아식물학자였다.

네데를란드에서 살고있던 분트가 도이췰란드계 선친가문사람들을 따라 네데를란드의 동인디아회사에 속한 《쟈와》호에 몸을 싣고 인도네시아경내에 들어서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한 곳은 쑬라웨씨섬의 최남단 해안도시 우쥼빤당이였다.

쑬라웨씨섬은 인도네시아의 한개주로서 이 나라 다섯개 큰 섬중의 하나였다. 이 섬에는 10여개의 화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여 가는 곳마다에는 온천이 있었다. 년평균기온은 26℃정도였다. 이 섬을 생김새가 해파리같다고 하여 토배기사람들은 해파리섬이라고도 하였다.

동쪽에는 말루꾸제도와 이리안섬, 서쪽에는 깔리만딴섬, 서남쪽에는 수도 쟈까르따가 있는 쟈와섬이 있었다.

우쥼빤당은 쟈까르따에서 2 900여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분트에게도 번화한 수도 쟈까르따에 가서 살고싶은 욕망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엄청난 생활비용은 그에게 원만한 연구사업조건을 보장해줄수 없었다.

원주민들은 통나무배를 타고 분트가 사는 바다가마을에 드문히 찾아왔다. 그들은 유럽의 색다른 물건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네 물건들과 바꾸자고 졸라대기도 하였다.

날이 감에 따라 쏠라웨씨는 분트가 생활해나가는데 안성맞춤한 곳으로 인정되였다. 특히 우증빤당은 열대식물이 많고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관광지이면서도 북쪽에 있는 필리핀의 마닐라와 남쪽에 있는 오스트랄리아의 브룸을 련결하는 중계무역지대여서 그의 마음을 안착시켜주는데서는 말없는 고무와 위안으로 되였다.

분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꽃을 사랑하였고 꽃에 대한 관찰력이 비상하였다.

남방의 섬나라 열대의 밀림속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분트의 마음속 한곳에서는 장차 식물학자가 되고싶은 천진란만한 꿈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럴만 한 사연도 있었다.

도이췰란드 서북부와 네데를란드의 동북부지방에서는 해마다 4월 마지막주 토요일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꽃명절을 즐기고있었다.

사람들은 새옷을 떨쳐입고 히야신스, 수선화가 만발한 꽃밭에 모여들었고 거리들에서는 꽃차와 꽃배의 행렬이 유표하게 주목을 끌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큰 말을 타고 대렬의 선두에 서서 길을 열고 그뒤로 수십명으로 이루어진 악대가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가 하면 뒤이어 대형꽃자동차행렬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꽃자동차우에는 꽃으로 만든 백조 세마리가 있었다. 앞자리에는 흰백조, 그다음은 검은백조, 노란백조 순위로 배치되였다.

그리고 꽃으로 만든 참대곰을 태운 자동차가 또 꼬리를 물었다.

형형색색의 자동차대렬의 꽃물결흐름을 보노라면 참으로 눈이 모자랄 지경이였다.

꽃자동차행렬과 함께 류창하게 울려퍼지는 악대의 노래소리는 민속적인 명절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사람들은 흩어질줄 몰랐다. 그들은 마을과 그 주변에 아름답게 펼쳐진 꽃포전을 돌아보면서 그윽한 꽃향기속에서 마음껏 즐기였다.

분트는 어려서부터 희한한 이 광경을 인상깊이 바라보며 자랐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류달리 꽃을 사랑하게 된 분트는 한생을 식물학연구에 바치였다.

그는 수많은 품종의 꽃을 육종하였는데 그가운데는 란꽃이 제일 많았다. 그는 비상한 관찰력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란꽃을 연구하는것을 육종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분트는 란꽃이야말로 가장 리상적인 꽃을 키워낼수 있는 아름다운 품종이라고 생각하였다.

화초재배초기 분트는 호텔과 호화주택의 장식을 위한 관상용식물에 신경을 쓰면서 꽃을 가꾸었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점차 학자다운 그의 진지한 성미는 과학적 탐구와 새 품종의 육종에로 떠밀어 분트는 돈벌이보다 어디까지나 식물학연구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이것을 신성한 일로 생각하였다.

그는 들가에 절로 피여나는 보잘것없는 꽃을 보고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 생각만을 무르익히였다.

식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육종의 열매가 이루어질수 없고 그 일은 대통로가 아니라 수많은 돌박산, 오솔길을 걸어야만 하였다.

하루동안에 그린 그림은 1년이 가도 팔리지 않지만 1년동안 모지름을 쓰며 그린 그림은 하루에 팔리는 법이다.

육종사업은 비상한 탐구력과 완강한 인내력을 요구하는가 하면 무수한 실패의 언덕을 넘고 이름할수 없는 고뇌를 겪어야 하는 일이였지만 분트는 이보다 더 보람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수잔나, 당신도 알지만 지금 내가 각별히 힘을 넣어 육종하고있는 란과식물은 꽃피는 식물가운데서 왕관을 쓸 품종이야. 신심이 있어.

지구상에 분포되여있는 란과식물은 아직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대체로 500～800속에 2만 5천～3만종으로 보고있지 않나.

이것은 전체 종자식물의 거의 10%를 차지하고있거든. 정말 거대한 집단이지.》

《옳은 말일세. 이런 방대한 종수를 포함하고있는 란과식물을 분류체계화하는데만도 여러 세기에 걸치는 식물분류학자들의 진지한 노력이 깃들어있지 않나.》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란과식물은 다른 과의 식물에 비하여 종의 분화빈도가 높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종을 한정짓기가 힘든 일이였다. 이로부터 종이라고 하는 분류학적인 기본단위를 어떻게 정하겠는가 하는것은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많이 론의되여왔다.

란과식물의 분류는 식물분류학의 과학적토대를 확립한 린네(1707－1778년)에 의하여 시작되였다. 그는 1757년에 발표한 저서 《식물종》의 제1판에서 란과식물을 8속 21종으로, 그후 제2판(1763년)에서는 102종으로 분류하였다.

린네에 의한 종의 개념은 《종은 형태적으로 불련속적이다.》라고 하는 리론에 기초하여 정립된것으로서 학자들은 이것을 형태종이라고 불렀다.

린네의 식물분류에 기초하여 린드레이는 란과식물에 대한 상세한 관찰을 진행하여 1 980여종의 란과식물을 수꽃술이나 꽃가루덩이의 성질을 지표로 7개족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오래간만에 만난 기회에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초계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종을 결정하는데 형태만이 아니라 이여의 분포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란과식물에서 종사이는 물론이고 속사이섞붙임도 인위적으로 가능하여 믿을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사이잡종, 속사이잡종들이 만들어지고있기때문이였다.

원산지들에서는 자연적인 종사이잡종이라고 생각되는것들도 많은데 어떤 종에서는 몇해를 단위로 새 변종들이 형성되고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다른 식물들에서는 거의 볼수 없거나 매우 드문 현상이였다.

따라서 란과식물은 분류학상의 기본단위인 종의 개념과 진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있다.

란과식물의 이러한 특성은 원예가들로 하여금 보다 아름답고 새로운 꽃을 만들수 있는 가능성을 안겨주고있었다.

여러 속사이에서까지 섞붙임이 가능한것은 다른 과의 식물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현상으로서 란과식물의 진화수준을 반영한다고도 볼수 있다. …

수잔나는 밖에 나가 수려한 나무그늘밑에서 담배 한대를 피우고나서 다시 온실에 들어와 직사광을 맞을수 있는 화분들을 그늘에 옮겨놓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그에게 분트는 괜한 수고라는듯 어깨를 으쓱이며 말하였다.

《여보게 수잔나, 고맙네. 그대로 둬두라구. 이 품종은 꽃대가 자라면서 그끝에서부터 꽃송이가 될 원기들이 련속적으로 분화되여나가기때문에 해빛을 받는 량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꽃대의 생장이 멎으면서 꽃송이가 많이 분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거든.

그래서 꽃대로부터 첫 꽃이 피기 시작하여 분화된 꽃송이들이 완전히 필 때까지도 해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것이 그리 나쁘지 않아.

이 발육단계에서 꽃송이들은 비교적 빨리 커지면서 빛합성동화산물을 많이 요구하거든.》

분트는 연구사업에서 언제나 자신심을 중시하였다. 자신심은 성공의 첫째 비결이였고 열쇠였다.

그렇다고 그는 언제한번 자기의 육종사업에 대하여 만족한적이 없었다. 사색하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 과정이 곧 성공의 문을 여는 길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다.

《그런데 여보게 수잔나, 최근에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해비침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거든.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미국의 원자탄이 떨어진 다음부터 해마다 태평양연안지대의 섬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네.》

인류의 동산인 지구는 전쟁대륙이 아니건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미제는 태평양상의 마셜제도를 비롯하여 산호섬들에서 핵무기시험을 계속하고있었다. 이것은 유기체의 생장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지 않을수 없었다.

인류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물론 동식물도 자연환경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있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였다.

때없이 바다가에 강풍이 일고 폭우가 내리는것과 같은 변덕스러운 기후는 섬사람들의 생존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였다.

그러나 분트는 이러한 난관에 절대적인 포로가 되지 않았다.

《여보게 분트, 보르네오섬 목장장이 이야기하는데 요즘 젖소들의 젖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네. 생활력이 강한 거부기까지도 그 마리수가 줄어들고있네. 그래서 마닐라에는 〈거부기보호협회〉까지 조직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는 꿀벌과 같은 곤충과 심지어 조류까지도 무리로 죽어가는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있거든. 그 원인을 해명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지.

지금 과학자들은 꿀벌은 말할것도 없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곤충이 줄어들면 지구환경과 생태계 특히는 농작물의 생육에도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말하고있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하찮게 생각되는 곤충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미구에 지구는 멸망의 위험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예언하였네.

현재 지구상의 농산물 대부분이 곤충에 의한 꽃가루수정방식으로 생산되고있는데 꿀벌이나 나비 그리고 이여의 곤충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농업생산에 치명적인 후과가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야.》

《이런 조건에서 우리 식물학자들은 꽃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네. 특히 요즈음 꽃잎에 윤택이 없고 나무잎이 생육기간전에 떨어지고 단풍이 아름답게 들지 않는것과 같은 현상은 결코 무심히 대할 문제가 아니야.

꽃을 등지는것은 인류의 문명을 등지고 인간의 고유한 정서를 짓밟는 란폭한 행위와 다름없네.

어쨌든 나는 새로운 란과식물을 꼭 육종해낼 결심이네.》

분트가 그처럼 사랑하는 란과식물은 기묘하고 아름다운 꽃모양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예로부터 매우 진귀한 보물처럼 여겨져왔다.

동방에서는 란꽃을 꽃중의 왕으로 칭하였고 서방에서는 값진것으로 일러왔다.

동양의 꽃점들에서 사람들이 참대나 매화꽃나무와 함께 보춘화나 풍란과 같은 란꽃을 자주 보게 되는것이 바로 그런 실례였다.

옛날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에 란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였다.

모란, 수정란, 진주란, 향설란, 룡설란, 군자란 등 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은 20여종도 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란과식물인것은 아니였다.

반대로 란과식물이면서도 보춘화, 석곡과 같이 란이라는 이름

이 들어가지 않은것도 있었다.

그러므로 꽃이름만 가지고서는 란과식물들을 정확히 구별하기가 힘든것이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속에서는 란과를 란초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흔히 동방나라들에서 불리우는 란초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붓꽃과의 붓꽃에 붙여온 이름이였다.

지난 기간 란초와 구별하기 위하여 과의 이름을 란과로 부르는것이 상례였다.

동방에서나 서방에서나 할것없이 란과식물이 품위가 있고 진귀한 꽃으로 일러지게 되는것은 식물진화에서 그 개체가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였다.

흔히 종의 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진화가 왕성하다고 보는것이 보편적이다.

실제로 란과식물의 종수는 종의 수가 두번째로 많다고 하는 국화과의 1만 4천여종보다 훨씬 많은 수자를 기록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진화의 흐름을 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분트를 비롯한 여러 육종가들의 고심어린 노력속에 보다 우수한 형질들이 무겁게 루적되여 새로운 란꽃이 날이 감에 따라 하나의 리상적인 재배종으로 완성되여가고있었다.

이 꽃이 앞으로 분트의 한생에서 주목할만 한 공적으로 되리라는것을 그자신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수잔나는 분트의 새 품종연구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분트내외의 바래움속에 조용히 이곳을 떠났다.

분트는 육종장에서 늘 침식을 잊고 일하였다.

그의 안해 스리크는 그가 넘어라도질가봐 늘 잔근심과 리별하지 못하고있었다. 과연 꽃다발을 엮는 일이 이렇게 휴식도 없이 간고한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스리크는 분트가 직사광을 막느라고 온실의 유리지붕에 깔았던 발

을 펴고 거둘 때면 의례히 그 일을 자신의 몫으로 담당수행하군 하였다.

어느날 아침 스리크는 그에게 자기가 방해하지 않겠으니 어디 마음드는 곳에 가서 한 며칠 마음을 푹 놓고 쉬고 오라고 권고하였다.

분트는 스리크를 정겹게 바라보고나서 《좋소. 그렇게 하지.》 하고 여느때없이 시원히 대답하였다.

하루라도 떨어지게 되는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스리크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뻤다. 그는 남편이 떠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분트는 묵직한 려행용가방을 받아들고 히쭉 웃고는 홍안시절처럼 안해의 볼우물을 손가락으로 찔러주었다. 스리크는 행복의 미소를 머금고 정찬 눈으로 남편을 바래워주었다.

분트가 떠나간 후 지루한 한나절이 찌물쿰속에 지나가고 사위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하나, 둘, … 별이 하늘을 장식하였다.

그런데 저쪽켠 온실끝 모서리에서 한점의 불빛이 새여나왔다. 스리크는 조용히 그리로 달려갔다.

창밖으로는 화분을 마주하고있는 분트의 모습이 비껴왔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예요? 분명 내가 바래워드렸는데. …》

《어떻게 되긴. 나는 지금 휴식하는중이요.

여보, 땅을 떠난 농민이 있을수 없듯이 온실이나 연구실을 떠난 휴식이란 나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줄뿐이요. 그래그래, 그런 휴식은 참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지.》

분트는 호탕하게 웃었다.

하긴 육종전문가가 화원을 떠나 좋은 꽃을 얻어낼수 없는것이다.

분트는 눈을 뜨면 종일 온실에서 살다싶이하였다.

스리크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글썽하여 두손으로 분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나 분트에게는 안해의 주먹이 솜방망이처럼 부드럽게 생각되였다.

참으로 학자로서의 분트의 성품과 재능은 휴식을 모르는 근면성에서 싹텄고 이 자그마한 육종장에서 다져졌다.

분트는 성격이 침착하고 온순하고 조용한편이였지만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진지하고 탐구심이 강하였다. 그러면서도 생활에서는 활달하고 락천적이였다.

락천성과 불타는 열정, 그것은 분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게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일류급의 학자로 성장하였다.

그가 수십년세월 고심하면서 육종한 품종은 식물분류학적으로 종자식물문 속씨식물아문 한싹잎식물강 란목 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이였다.

그는 늘 화초들을 자기의 《자식》이라고 말하군 하였다. 그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분트의 애정과 열정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것이였다.

진리를 따르고 정의에 살려는 그에게 막을수 없는 지향과 락관을 안겨준것은 명백하게 란꽃이였다.

이 꽃이 미구에 누구에게나 사랑스럽고 쉽게 리해될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하여 란은 날이 갈수록 분트에게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되였다.

그 모습 우러르며

수카르노와 호지명의 소담

1960년대 당시 수카르노대통령은 이름난 정치가였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의 아버지, 민족적영웅으로 불리우는 수카르노는 쁠럭불가담운동발기자의 한사람으로서 당시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고 관록을 지니고있는 저명한 국가정치활동가였다.

수카르노는 1927년 반둥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당인 인도네시아국민당을 조직하고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독립운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1929년 네데를란드식민지통치당국에 체포투옥되였으나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1931년에 석방된 후 새로 조직된 인도네시아당 《카르린드》의 당수로 되였다. 이 당이 1933년에 비법화되면서 그는 다시 체포되여 플로레쓰섬의 엔데에서 류형살이를 하였다.

1938년 쑤마뗴라섬의 뎬구렌으로 이송되여 가있던중 1942년 일제침략군의 락하산부대가 투하되기 직전에 탈출에 성공하였다.

수카르노는 지하조직과의 련계밑에 일제의 식민지강점정책을 반대하고 민족통일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웠다.

일제가 패망한 후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초대대통령으로 되였으며 국민당을 복구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비호밑에 감행된 영국, 네데를란드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으로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1948년말에 네데를란드강점자들에 의해 다시 체포되여 반가섬에 감금되였다가 1949년 7월에 쟈까르따로 돌아온 수카르노는 기세를 늦추지 않고 예속적인 《헤그협정》의 파기투쟁을 힘있게 지도하였다.

네데를란드식민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수카르노는 1963년 5월 림시인민협상회의에서 다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임명되였다.

그는 집권기간 《판챠실라》(5개원칙 즉 신앙, 민족주의, 인도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정치의 지도원칙으로 삼고 나라의 번영과 반제자주를 위해 적극 힘썼다.

저명한 사회활동가였던 그에게는 웰남의 호지명주석을 만나는 기회가 적지 않았다.

호지명주석은 웰남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온 오랜 혁명가였다.

한번은 아시아의 령토안정과 자주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호지명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그때 호주석은 수카르노에게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인상담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웰남을 방문하시였을 때 이야기도 하였다.

《수카르노각하,

나는 **김일성**동지를 잊을수 없습니다. 그이는 젊음에 넘치고 얼마나 소탈하신지 모릅니다. 늘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지요.

담화를 하실 때면 어찌나 열정적이고 친절하신지 곁눈한번 팔새없었습니다.

김일성동지와 마주앉으면 그이의 〈포로〉가 되고마는것은 당연한 일이였습니다. 그이는 정치로부터 군사, 경제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식견을 소유하고계십니다. 백과사전과 같은 두뇌를 가지신분입니다.》

길지 않은 담화였지만 수카르노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파가 일었다.

이날 호지명은 이런 여담도 하였다.

《조선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3년간의 전쟁에서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이러한 재더미우에서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우던 전후복구건설시기 조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표단단장을 통하여 나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선물인즉 나의 부인의 옷감이였습니다.》

그러자 수카르노는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호지명에게 부인이 없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호지명은 흔연한 기색으로 흰수염을 쓸어만지며 시치미를 뚝 떼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그 옷감을 펼쳐보았습니다. 고맙던 나머지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사람이 여간 좋아하지 않을것이라고, 천색갈도 몸에 꼭 어울리겠다고, 정말 멋들어지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수카르노는 듣다 못해 또 손으로 입을 막으며 그만 더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한마디 건네였다.

《주석각하, 각하에게 안해가 없다는것을 동남아시아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주석각하, 아마도 **김일성**각하께서는 먼곳에 계시다나니 주석에게 아직 안해가 없다는것을 필경 모르실수도 있었겠지요.》

호지명은 이번에도 그 말을 듣는둥마는둥 또다시 제나름대로 말을 이었다.

《대통령각하, 머나먼 지경을 넘어온 귀중한 선물인데 내가 시무룩해하면 대표단성원들이 섭섭해할것 같아 그런 〈연극〉을 좀 하였습니다.

본의아니게 〈부인의 옷감〉 주인공이 되고보니 나도 명배우가 된것 갈더군.》

두 수반은 서로 무릎을 치며 평민들처럼 호탕하게 웃어대였다.

《호주석, 그 〈연극〉은 연출만 잘하면 과시 세계적명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김일성**각하께서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될 생활경희극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였습니다.》

수카르노의 음성은 롱조이면서도 저으기 흥분된 어조였다.

《그러면 〈연출〉은 누구를 시킨다?…》

《호주석, 그거야 응당 내가 해야지. 이 수카르노가…》

《아니요, 이 부문에 능한 사람은 캄보쟈의 시하누크요.》

《호주석,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들은 또 한번 크게 웃었다.

호주석은 차 한고뿌로 목을 추기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생각다 못해 그때 우리 외교일군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더러 조선대표단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사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연극〉을 하고보니 가슴이 알찌근하더란 말이요.

사실말이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나에게 부인이 없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오.

가정을 이루라고 늘 친형제처럼 의견을 주시였거든.

김일성동지께서 왜 나에게 녀성의 옷감을 보내주시였겠습니까? 생각해보시오.》

이야기가 끝나기 바쁘게 수카르노는 검은안경을 번뜩이며 대답하였다.

《〈호주석, 이제는 조국을 찾았으니 빨리 늙은총각신세를 면하고 오붓한 가정을 꾸리시구려〉라는 뜻이 분명한가 봅니다.》

《맞았네.

수카르노각하, 바로 **김일성**동지는 이런 하해같은 덕망을 지니고계

시는분이십니다.

나는 그날 깊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 외사일군들을 찾아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를 조선대표단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의 생활적세부에 지나지 않은것이였지만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천하를 움직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덕망은 대륙과 대양을 넘어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로투사들에게도 청춘의 활력과 락관을 부어주었다.

그날 호지명은 수카르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이의 풍모에 매혹되여 뜨거운것을 느끼군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격동에 넘치는 정치연설도 잘하시고 유모아도 많이 알고계십니다.

혁명가들이란 가장 정서적인 인간들입니다.

모든 혁명가들은 **김일성**동지처럼 뜨거운 인간애와 풍부한 정서를 가져야 합니다.》

호지명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보니 수카르노는 자기가 입을 막으며 웃음을 터친것이 야속하게 생각되기만 하였다.

수카르노는 저도모르게 하루빨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워야겠다는 충격을 금할수 없었다.

정말 동무따라 강남간다는 옛 풍설이 과연 빈말이 아닌가싶었다.

(거대한 강물도 곬을 잘 타야 바다에 흘러든다.)

수카르노는 속으로 되뇌이였다.

《대통령각하, 오늘 우리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덕분에 많이 웃기도 하고…》

호지명의 말이였다.

《주석각하, 인간생활은 웃음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하기에 웃음은 사업과 생활에 풍만한 정신적안정을 안겨주는 값진 보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각하께서 안겨주신 품위있고 뜻이 깊은 웃음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무상의 친화력과 설득력을 부어주었습니다. 강요할수도, 훔칠수도 없는 이런 웃음의 세계는 금을 주고도 살수 없습니다.》

《대통령각하, 옳은 말씀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웃음의 세계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고무가 차넘치고있습니다. 실로 이런 웃음의 세계는 례사로운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자기의 믿음과 친분적인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다방면적인 식견, 다정다감한 생활정서가 내포되여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주어진 문제의 내용을 단숨에 포착하고 판단하는 무비의 통찰력과 새로운것을 부단히 도출하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안목이 내재되여있습니다.

물론 력사에는 출중한 위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톤이 쉑스피어가 될수 없고 다윈이 베토벤이 될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분야에서 능수가 된다는것은 굳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흔히 정치나 경제를 알면 문학예술이나 군사를 잘 모르는것이 상례입니다.

뛰여나다고 하는 인물이 큰것을 내다볼줄 모르고 명성있는 전략가가 사소하고 가까운 일에 암둔하다는것도 바로 이러한 한계점에서 론의되는 문제일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는 모든 분야에 다재다능한 박식가, 실천가이십니다.

나는 그이의 사상리론을 따르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세계가 열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대한 다재다능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성의 특징입니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시는 순결무구한 생활세부는 우리 혁명사업의 촉진제이고 생명활동의 윤활유입니다. 사람이 뜻에 살고 정에 살자면 **김일성**동지와 같으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날 호지명은 몇해전에 중국의 주은래총리를 만났던 일을 상기하였다.

그때 호지명과 만난 주은래는 탐스럽고 빛갈 고운 사과를 그앞에 내놓았다.

그런데 주총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사과라고 하면서 껍질을 벗기면 안되는것이라고 하였다.

사과에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그 글은 붓으로 쓴것이 아니였다.

사과를 딸 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선, 단결이라는 글을 종이에 새겨 사과에 붙이시였다. 해빛을 받지 못한 부분은 글자의 형태를 뚜렷이 나타내고있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은 무한히 사색이 풍부하고 감정정서가 다감하고 뜨거운분이시였다.

이날 수카르노는 마치도 수령님을 만나뵈옵기라도 한듯한 기분에 사로잡혀있었다.

그후 수카르노는 웰남출판물과 TV화면을 통하여 본 자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특히 주체46(1957)년 7월 평양에서 있은 위대한 수령님과 호지명주석의 력사적상봉에서 수카르노대통령이 받아안은 감흥은 대단히 컸다.

수뇌분들의 상봉이라기보다 오랜 전우나 다정한 형제분들의 상봉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주석의 심중을 헤아리시여 오랜 시간 그와 함께 많은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어느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도 없는 새 사회건설경험을 깊이 체득하고 귀국하게 된 호지명은 너무 늦게 수령님을 만나뵈온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호주석은 그때 나는 3일간의 짧은 기간에 3년동안 배워도 다 못배울 참으로 많은것을 배웠다, 조선에 더 있으면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계속 받고싶다라고 진정을 터놓았다.

하노이로 돌아온 호지명은 당과 정부의 간부들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김일성**동지보다 나이로 보면 스무살이상이나 우이고 혁명투쟁에도 먼저 나섰습니다. 하지만 혁명투쟁의 길에서 **김일성**동지는 나의 스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전국의 어린이들을 돈 한푼 안받고 공부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할아버지는 박호라고 부르며 나를 따르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돈을 받으며 공부시키고있습니다.

우리도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어린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킬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호지명주석과 윁남인민의 경모의 정은 수령님의 윁남방문을 계기로 절정을 이루었다.

호지명은 자그마한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프랑스어로 된 한권의 소책자를 읽고있었다.

조선에서 출판된 외국문도서였는데 제목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농업협동화경험》이였다. 그런데 호지명은 이 책을 읽은데만 그치지 않고 번역까지 하고있었다.

보좌관이 일이 바쁜데 왜 주석께서 번역하는가고 물으니 그는 《이 책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이 담겨져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며칠후 이 책은 윁남어로 출판되여 수도는 물론 지방에까지 배

포되였다.

호지명주석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받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대통령의 흠모의 마음은 수령님의 웰남방문을 수록한 기록영화화면을 보는 과정에 더욱 높아갔다.

1958년 11월 28일, 웰남의 수도 하노이는 명절일색, 환영일색으로 단장되여있었다.

키높이 자란 열대상록수들이 찬연한 해빛속에 푸른 잎새를 펼친 거리거리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군중들의 물결로 춤바다를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하노이의 하늘가에는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수령님께서는 호지명주석과 인사를 나누시고 굳게 포옹하시였다.

지난해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이께 매혹되였던 호지명주석은 웰남땅에서 또다시 수령님을 뵈옵게 된 커다란 기쁨으로 하여 격동된 심정을 걷잡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지명주석의 안내를 받으시며 환영군중대회장으로 가시였다.

하노이의 빠딘광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7만여명의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웰남의 출판보도물들은 저저마다 이처럼 성대한 군중대회가 있어본적은 력사에 없었다고 전하였다.

열대의 폭양도 마다하지 않고 몇시간전부터 모여와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고있는 수만군중들의 물결은 장엄하였다.

어제는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여 나라를 해방시키고 청소한 공화국을 이끌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시였으며 오늘은 재가루 날리던 페허우에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하시여 지난날 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식민지나라를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으로 온 세상에 존엄을 떨치게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친선의 사절로, 친근한 벗으로 맞이하는 웰남인민의 열광적인 환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하노이시장이 환영연설을 하였다.

그다음 만장의 환호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웰남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친선의 정을 담아 연설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연설을 마치고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자리에 돌아오시였다.

호지명주석은 연설을 통하여 웰남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신 그이께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지명주석의 손을 맞잡고 높이 흔드시였다.

수만명의 군중들은 폭풍 같은 환호로 설레이였다.

잠시후 사회자가 대회폐막을 알리려고 연탁앞으로 나갔다.

이때 《가만!》하는 호지명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나왔다.

주석단은 물론 수만명군중들의 눈길은 호주석에게로 집중되였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연탁앞에 나섰다.

《여러분, 원래 이 대회에서 나의 발언은 예견되여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김일성**동지를 모신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발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수령이시며 웰남인민의 친근한 벗이십니다!》

그러자 《위대한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울리였다.

아름다운 고무풍선들이 둥실둥실 춤을 추며 하늘중천에 날아올랐다.

호주석의 연설은 계속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미일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절세의 영웅이시고 새 사회건설의 탁월한 령도자이십니다.

지금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로 질풍같이 달려 세계를 경탄시키고있습니다.

동포들!

우리도 조선형제들처럼 천리마를 탈수 있겠습니까?》

군중은 한 목소리로 《탈수 있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천리마의 기세를 안겨준 **김일성**동지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만세를 부릅시다.》하고 호지명은 선창을 하였다.

순간 《**김일성**동지 만세!》의 장엄한 환호성이 또다시 천지를 진감하였다.

연탁에서 흰 수염을 쓸어만지는 호지명의 얼굴에는 자못 가벼운 미소가 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사업에 대한 천성적인 재능과 특이한 정신적기질, 혁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특출한 실천력이 날이 갈수록 호지명을 감동시켰던것이다.

그는 손을 흔들며 군중을 향하여 짧으나 열정에 넘친 불같은 연설을 계속하였다.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민족적영웅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제를 타승한 그 기세로 지금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있습니다. 우리도 조선형제들과 같이 천리마를 타고 달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방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는데 나는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형제들과 경쟁하자는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합니까?》

호주석의 열정넘친 호소에 격동된 군중은 일시에 목소리를 합쳐 또다시 우렁차게 대답하였다.

《찬성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

수카르노는 기록영화화면에서 저으기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는 행사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가슴속에 투쟁의 불을 지핀 호지명은 《경쟁은 웰남인민과 조선인민간의 단결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면서 단결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였다.

그에게는 별도의 연설문대본도 없었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선창을 떼고 수만군중들의 대합창을 지휘하였다.

그때 호지명주석은 칠십을 바라보는 고령이였다.

호지명주석으로 말하면 웰남공산당을 창건하고 건국을 위한 8월혁명과 그후의 반프랑스항전을 승리에로 이끈 오랜 혁명가로서 동남아시아인민들속에서 명망이 높고 국제로동운동의 이름있는 활동가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오랜 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지고있는 세련된 국가지도자였다.

이러한 그가 이처럼 기뻐하며 열정에 넘쳐있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고있는 수카르노는 기록영화를 감상한다기보다 자기도 그 환영군중대회주석단에 오른 감정이였다.

지금껏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었던 군중대회의 이채로운 광경은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흠모하는 호주석과 웰남인민이 격식없이 펼친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화폭이였다.

기록영화는 수카르노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더욱 끓어넘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이 세계사회계의 이목을 모으고있던 때에도 그들의 정의의 투쟁들에 사심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불비쏟아지는 치렬한 전구인 웰남땅을 밟으신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만해도 그리 많지 못하였다.

웰남혁명의 승리와 동남아시아에서의 반제자주위업수행에 새기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웰남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지역 나라 인민들속에서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수카르노에게는 호지명주석이 위대한 수령님을 고대중국의 전설적인물인 요임금과도 비교할수 없는 뛰여난 세계적인물이시라고 하면서 선하고 참된 정사를 베푼 요임금은 신화적인물이지만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인민이 받드는 현실적인 위인이시며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하던 말의 참뜻이 더욱 깊이 새겨졌다.

조선해방사에 비낀 위인의 영상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갔다.

조선방문을 앞두고 수카르노는 정부각료들과 정치사회계, 학계의 인사들과 함께 흘러간 력사의 갈피속에 새겨진 동남아시아와 극동, 유럽의 정치정세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력사란 정말 평탄하지 않습니다. 가혹하기도 하고 평온하기도 하고…》

세계지도를 보며 수카르노는 낮으나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였다.

정부각료들은 그의 말을 무심히 듣지 않았다.

풍파사나운 세월을 거슬러보면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쑈도이췰란드는 유럽땅을 짓밟으며 침략전쟁의 총포소리를 크게 울리였다.

한편 《쏘일중립조약》을 체결한 일제는 아시아를 통채로 삼키려고 갖은 모략을 다하였다. 극동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제의 진출은 알프스산악을 경악케 한 십자군원정을 초월하는 초토화정복전

쟁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엄혹한 포화속에서 도이췰란드의 전격전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를 강점하고있던 네데를란드가 프랑스와 함께 유럽전선에서 패배의 쓴맛을 본데 이어 영국의 지위가 현저히 떨어진 사실은 동남아시아의 정치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였다.

중일전쟁의 궁지에서 헤여나려고 몸부림치던 침략자들은 이러한 정세변화를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로 보고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에 열을 올리였다.

1942년 네데를란드강점자들대신 2개사단무력으로 인도네시아땅에 기여든 일제는 이 나라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통치와 탄압에 열을 올리였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땅에서는 또다시 반일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영국의 식민지인 말라이와 필리핀에도 공격의 화살을 돌리였다.

…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국방차관인 륙군중장 이드함 할리드가 조용한 발걸음으로 연탁에 나섰다.

그는 석쉼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던 시기인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까지 태평양지역에서는 미,영제국주의와 기타 련합국들을 한편으로 하고 일본제국주의를 다른편으로 하여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인민들을 식민지노예화하려는 일제와 미,영 등 서방제국주의렬강들간의 모순에 의하여 화산처럼 폭발된 이 전쟁은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침략전쟁이였습니다.》

태평양전쟁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쏘도전쟁에서 자기의 동맹국인 파쑈도이췰란드가 불필코 승리하리라고 믿으면서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기지에 있는 미제태평양함대를 불의에 공격하는것으로 시작되였다.

같은날 일제는 싱가포르에 대한 공격도 개시하였다.

이것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심리적충격을 안겨주었다.

진주만에 첫 타격을 가하고 25분후에 일제는 또다시 160대의 비행기로 폭격을 들이대였다.

이 시간으로 말하면 병사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아직 본격적인 새 일과에 들어가기 전이였다.

장교들은 여느때처럼 전날밤에도 늦게까지 진탕망탕 놀아대다가 곤드라져 깨여나지 못한 상태였다.

일본의 불의적인 공격에 미군은 10여척에 달하는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을 일조일석에 바다에 수장당하는 비극적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비행장에 있던 비행기는 날개를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절반이나 녹아났다.

일본도 29대의 비행기와 5척의 잠수함을 손실당하였다.

륙해공군을 태평양전선에 집중시키고 진주만에 대한 불의의 공격으로 일시 군사적우세를 보이며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일제는 그때로부터 한달도 못되는 1942년 양력설에는 마닐라를 함락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전쟁초기에 벌써 필리핀, 먄마, 말라이, 타이,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들을 강점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인디아,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에까지 로골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

할리드의 설명은 계속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기간에만도 강점지인 우리 나라와 필리핀, 웰남 등지에서 500여만명의 인민들을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귀축같은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전쟁 첫시기에 일제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물우에 뜬 부평초처럼

행방없이 날뛰였습니다.

쏘련군대가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한 이후인 1943년 5월부터 미제국주의는 숨을 몰아쉬고 비로소 반공격전으로 넘어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에 아무러한 결정적인 군사적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전쟁을 계속 끌었습니다. 그대신 미제는 세계인민들을 원자탄으로 놀래우며 국제문제처리에서 제놈들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자탄개발을 다그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로스 알모스남쪽에서 800여리 떨어진 알마가르도에서 첫 원자폭탄시험을 하였습니다.

15일후인 7월 30일에는 원자탄 〈어린소년〉과 〈패르맨〉을 〈인디아나〉 배편으로 마리아나군도의 어느 한 섬에 운반해갔습니다.

그후 한주일이 지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라니움 235폭탄이였습니다.

원자탄이 폭발할 때 높은 열을 발산하면서 강한 폭풍이 일다가 열이 식으면서 버섯형태의 검은 먼지기둥이 하늘높이 치솟아오르는 과정에 방사성물질을 주위에 뿌려놓음으로써 생명체들이 참혹하게 생명을 잃고 건물과 구조물들이 사정없이 파괴되고 불타버리였습니다. 히로시마만 하더라도 97%의 건물이 파괴되였습니다.》

국방차관 륙군중장 할리드는 여기까지 말하고 물 한고뿌로 목을 추기였다.

대통령은 아무말없이 설명을 묵묵히 듣기만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미국전략폭격통계국에서는 원자탄투하로 나가사끼에서 약 3만 3천여명이 죽고 6만여명이 부상당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자탄 한개가 폭발한것이였습니다.

미국은 줄곧 침묵을 지키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나가사끼에 두개의 원자탄을 투하하였습니다.

폭발된 원자탄에서 약 2 000m 떨어진 곳에 투하된 다른 하나의 원자탄은 불발되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손상도 받지 않은채 땅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과연 뜻밖의 일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미국이 원자탄제작에 바삐 서두른것은 당면하게 히틀러 파시스트와 그 동맹국들을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히로시마, 나가사끼의 원자탄참화에 대하여 세계보도계는 조발의 참새떼처럼 제나름대로 떠들어대였다.

…

할리드의 설명은 수카르노가 모르고있는 문제는 아니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화제거리가 아니였다. 그의 설명에서 수카르노는 조금도 지루감을 느끼지 않았다.

국방차관의 설명이 끝나자 수카르노는 책상모서리를 붉은 연필로 똑똑 두드리며 잠시 그를 바라보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자탄으로 일본을 굴복시켰다고 봅니까?》

이 질문은 수카르노가 자신에게 제기하는 심중한 물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모임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침묵을 깨뜨리려는듯 이드함 할리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초점들이 일시에 그에게 집중되였다.

《대통령각하, 그것은 응당 쏘련의 힘을 제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이마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검은색의 안경을 책상우에 벗어놓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웰남의 호지명주석은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한바 있습니다.

〈히틀러나치스군이 패망하자 1945년 8월 9일 쏘련군대는 대일

작전으로 만주작전을 시작하였고 항일명장 **김일성**장군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에게 조선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하달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며 노도와 같이 조국에로 진격하였습니다.

일제의 주력군인 백만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은 완전히 격멸소탕되였습니다.

일제의 멸망은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인민들의 반일투쟁에 더욱 유리한 정세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력사에 기록된바와 같이 일제는 1945년 8월 15일에 패망하였습니다.

이날 일본천황은 피를 토하며 긴의자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일제의 항복으로 하여 태평양전쟁도 막을 내리게 되였습니다.〉

과시 호지명주석의 론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견해도 다를바 없습니다.

나는 순간적흥분이나 외적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력사적현실로부터 **김일성**각하를 마음속으로 존경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참가자들은 한사람같이 우렁찬 박수를 보내였다.

대통령은 담배 한대를 절반쯤 태우고나서 말을 이어나갔다.

《인디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200여년만에 독립하였다는 것은 세계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웰남은 근 100년, 우리 나라는 300년도 넘어서야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제가 강점한 때로부터 40년만에 해방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잘 알수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 가을의 하늘은 높아도 음산하게 파도치는 도쿄만에 정박하고있는 《미쑤리》호 전함우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국제적의식이 거행되였다.

인류를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멸망과 더불어 반파쑈력량의 승리로 종결되였다.

관동군사령관이였던 참모총장 우메즈는 세계의 면전에서 항복서에 서명하고 참혹한 패전의 쓰디쓴 고배를 삼키면서 백두광야에서 빨찌산대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에 의하여 무적불패를 자랑하던 백만관동군이 여지없이 녹아나던 때를 몸서리치게 회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수난많던 력사의 풍운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으며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될수 있은것이다.

수카르노대통령은 항일무장투쟁의 혁혁한 총화이며 피어린 결산인 조선의 해방사를 통하여 민족적해방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날이 갈수록 가슴속에 뜨겁게 그려보게 되였다.

승전을 기록한 령장

수카르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이고 한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해내는 성격의 인물이였다. 그는 조선방문을 앞두고 여전히 동남아시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정세연구를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내여 쟈까르따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이스마라 하디의 강의안을 심중히 참고하고있었다.

...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는 세계제패를 목적으로 새 전쟁도발준비를 미친듯이 벌

리고있었다.

월가의 두목들은 도이췰란드파시스트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침략전쟁보자기속에서 많은것을 물려받아 자기의 침략전쟁도발에 리용하였다.

미제국주의의 세계제패계획은 이미 히틀러, 게링그, 다나까, 도죠이전에 작성되여 바야흐로 그들의 침략야망과 탐욕은 당시보다 로골화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종결직후 악명높은 죤 포스터 덜레스는 미국민족실업가련맹대회에서 《미국은 반드시 〈세계의 정신적지도권〉을 장악하여야 한다. 19세기는 영국에 속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이다.》라고 떠벌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이 얼마나 극도에 달하였으면 영국작가 버나드쇼가 왜 미국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는가고 묻는 기자의 물음에 《나는 미국으로 가는것을 두려워 한다. 그것은 나자신이 〈자유의 녀신〉상을 바라보기조차 불쾌하기때문이다.》라고까지 대답하였겠는가.

미제국주의자들은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여당과 야당의 《자유》및 악명높은 다당제를 허울좋게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 미국에서 자유를 가지고있는 정당은 부르죠아지의 정당 즉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제국주의의 전투적정당 즉 전쟁정당인것이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적자유를 고수하며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진보적경향을 가진 정당과 민주주의단체들은 례외없이 가혹한 탄압을 받고있었다.

미국정부는 미국공산당을 교살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였고 그들의 활동에 걸음걸음 불리한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모든 민주주의적인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전쟁방화를 배격하고 평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면 그것은 가차없이 《반아

메리카적》이고 《파괴적》인것으로 락인을 받게 되였다.

력사는 도이췰란드파시스트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통하여 세계제패의 허무맹랑한 계획은 그 조직자들을 파멸에로 이끌어간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제는 저들의 포탄이 닿을수 있는곳은 그 어디나 미국의 국경이 될수 있고 미국의 락하산이 내릴수 있는 곳은 어디나 아메리카의 뒤동산과 같다고 떠들어대였다.

그 실례로 미제는 조선에서도 파렴치하게 전쟁을 도발하였다.

평화적도시들을 폭격하다못해 절간과 꽃밭에까지 폭탄을 던지며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미제의 랭혹한 잔인성과 피에 주린 만행에 조선인민은 물론 진보적인류는 분노를 터치며 항거해나섰다. …

쟈까르따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이스마라 하디의 강의안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카르노대통령에게 깊은 자극을 주었다.

수카르노는 지구의를 돌리며 조선쪽에 눈길을 주었다.

그는 이스마라 하디의 강의안에 근거하여 고위급인물들과 함께 조선전쟁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료해하고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조선인민이 영웅적투쟁을 벌려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주권과 독립, 세계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력사에는 크고작은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조선전쟁과 같이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장비수준에 있어서 대비조차할수 없이 우세한 적과 청소한 나라가 결사전을 벌린 가렬처절한 전쟁은 없었다.

미제는 조선전선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 등 도합 200여만명의 대병력과 막대한 전쟁장비를 들이밀었다.

미제는 공화국을 압살하고 전 조선을 지배하려고 미쳐날뛰면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에게 세균탄과 화학탄까지 대량적으로 퍼부었으며 무차별적인 포격과 폭격을 가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산과 들, 도시와 마을들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세계는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안고 조선을 주시하고있었다.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공화국이 과연 세계 《최강》을 뽐내는 미국의 무력침공을 물리칠수 있겠는가.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인민들의 관심은 총포성 울부짖는 조선으로 쏠리였다.

그것은 조선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빚어지는가에 따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될수도 있고 침체될수도 있기때문이였다.

또한 조선전쟁의 승패는 새로운 세계대전의 폭발을 막는가 막지 못하는가 그리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당시 미제는 조선전쟁을 기회로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었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인민을 잘못 보고 덤벼들었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진두에는 강도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력사는 정의의 전쟁에 궐기한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전체 군민들에게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미제가 《조선에서의 전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다.》고 호언장

담하며 38°선을 넘어 북으로 밀려들던 그 시각 호탕하게 웃으시며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우습게 안다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연자약한 모습이 수카르노의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이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탄복해마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프랑스신문 《유마니떼》 기자를 비롯한 외국기자들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조선인민군과 인민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국제녀맹조사단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 성원들과 외국인들을 만나시여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의 검은 속심과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놈들의 야수적만행을 낱낱이 폭로하시였다.

…

수카르노는 턱밑을 쓸어만지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국은 전조선을 삼키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다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조선땅에서 인류전쟁사상 가장 야수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례진것은 시체와 죽음뿐이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은 10대에 벌써 비범한 예지로 시대와 력사발전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투시하시고 멸적의 장검을 뽑아든 천재적인 명장이십니다.》

이때 인도네시아군사령관 틀루크만이 발언하였다. 그로 말하면 군부에서 인기있는 장성이였다.

《**김일성**장군은 20성상 항일무장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일제의 대군을 락엽처럼 쓸어버리고 조선을 해방시킨분이십니다.》

그는 무게있게 한마디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수카르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조선전쟁시기의 신문을 펼쳐들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걸 좀 보시오. 제2차 세계대전종말후에 미제의 호전장군 맥아더는 자기의 글에서 〈**김일성**장군이 평양에 입성하였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가 한반도를 다 차지할것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을 녹여낸 그가 제주도까지 그렇게 하는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많은 약소국가들이 그를 구세주처럼 바라보고있다. 아메리카대통령이였던 후버가 벌써 오래전에 이에 대해서 말한바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우려와 두려움을 대변한 당연한 고백입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일승전과 력사적인 조국개선을 두고 미국은 두려움을 금할수 없었다.

강도일제를 패망시킨 그길로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북반부를 그냥 두고서는 세계제패야망실현은 고사하고 아메리카합중국의 존재도 유지할수 없음을 간파한 미국이였다. 하기에 미제는 해방후 서둘러 조선의 38°선 이남지역을 강점하고 신식민지정책을 실시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였다.

대통령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끝내 북침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무모한 망동이고 시대착오적인 광증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령토도 작고 청소한 조선앞에서 마침내 전쟁개시 3년만인 1953년 7월 27일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쓰디쓴 참패는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있어본 일이였습니다.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쪼각났습니다.

〈영원한 번영〉을 자랑하던 미국은 파멸의 내리막길로 질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저들의 〈강대성〉에 대한 추억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수카르노는 굳어진 버릇처럼 굵은 연필뒤등으로 또다시 책상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였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6.25전쟁에서 조선의 승리를 두고 미국의 패망장군 클라크는 회고글에서 〈북조선군이 성공을 거둔것은 **김일성**장군의 유능한 지휘때문이였다.〉고 하면서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였다.〉

〈승리없는 전쟁, 이것은 미국력사에는 없는 술어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땅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승리없는 휴전에 조인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장군처럼 적에게 패배를 인정시킬수 있는 능력과 령군술을 지닌 위인만이 승리자입니다.

나는 아직 **김일성**각하를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김일성**각하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존경합니다. 조선은 우리 나라처럼 화승대조차 변변한것이 없던 나라였지만 **김일성**장군은 한 세대에 항일전쟁과 반미전쟁에서 포악무도한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전설적영웅이십니다. 실로 **김일성**장군이시야말로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수카르노의 얼굴에는 자못 밝은 빛이 어리였다,

그 이튿날 수카르노는 문예물 같은 잡지를 펼치였다.

《이것을 좀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슨 시입니까?》

교육상이 물었다.

《쏘련시인 그리바쵸브가 조선전쟁때 쓴 〈**김일성**장군〉이라는 서사시입니다. 당신이 이 한대목을 읊어보시오.》

《제가 어떻게…》

《그래도 나보다야 더 잘 읊겠지…》

수카르노는 쏘파에 몸을 잠그었다.

교육상은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더니 자기의 감정대로 시를 읊어내려갔다.

…

잠도 없이 교대도 없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장군은 명철한 지혜를 펴시고
강철의 의지를 벼르신다

폭격소리에 강산이 뒤울리며
땅크들이 육박전에 내닫는 전선에서
3천리를 굽어살피시며
령장은 걸으신다

모든것을 들으시며 보시며
모든것을 알으시며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르치신다
사단과 군단만이 아닌
3천만을 결전에로 불러일으키신다

폭격에 무너지고 불탄 조선에
아직은 명절이 오지 않았건만
전쟁의 어려운 이 시각에도

령장은 벌써 승리를 내다보셨다

…

《이 시인은 레닌상 수상자이고 쏘련 사회주의로력영웅이라고 합니다. 군사분야가 아닌 세계적인 문단에서까지 이렇게 **김일성**장군을 승리의 구세주로 노래하였습니다.

나는 문학가는 아니지만 이 시는 불길처럼 내 심장을 뜨겁게 해주고있습니다.

시인이 이 서사시를 창작하고있던 때는 아직 조선전쟁이 결말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조선인민의 승리를 확신하게 된것은 **김일성**각하의 현명한 령도력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였기때문이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은 피압박인민의 영웅이십니다.

미국이 세계를 좌우지한다고 하지만 그 미국을 길들이는분은 바로 **김일성**장군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며 대통령은 창가에서 잠시 밖을 내다보고는 다시 의자에 몸을 던지고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인디아의 유명한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에 대하여 물었다.

교육상은 며칠전에 대통령으로부터 과업을 받았기에 그에 대하여서는 여유있게 설명할수 있었다.

대통령이 교육상에게 사전에 과제를 준 까닭이 있었다.

타고르는 생전에 조선에 대한 지지와 동경의 시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문단을 통하여 국제적련대성의 주제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한 작가였다.

《대통령각하, 타고르는 68살되던 해에 서정시 〈조선〉을 썼습니다.

그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 있던 조선의 암담한 현실에 깊은 관심과 동정을 품고있었던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시에서 조선은 반드시 일떠서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확신을 깊은 서정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 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통령은 한손으로 턱을 고이고 교육상을 지켜보았다.

상은 저으기 감정을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대통령각하, 이 시는 미래에 대한 의미심장한 락관적감정을 담고있습니다.

이 시는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동남아시아인민들속에서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수카르노는 요즘 각 분야에 걸쳐 조선에 대한 자료를 폭넓고 진지하게 파고드는것이 얼마나 유용한 문제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그는 미제와의 결전에서 승전을 기록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깊은 사색에 잠기였다.

가네포의 축포

가네포란 이름은 신흥세력경기대회의 준말로서 발전도상나라인민들과 체육인들의 친선과 단결을 두텁게 하며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행한 경기대회였다.

제1차 가네포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1962년 8월 인도네시아는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제4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스라엘과 중국대북의 선수단이 입국하는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인도네시아올림픽위원회를 처벌하는 란폭한 결정을 제멋대로 채택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틀고앉아 흉심을 품은자들은 주권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이모저모 반기를 들고나섰다.

이들의 그릇된 처사에 수카르노는 백년을 양처럼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사자처럼 사는편이 낫다고 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하였다.

그 다음해인 1963년 2월 인도네시아민족전선회의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탈퇴하고 신흥세력경기대회를 조직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두달후인 4월 25일에는 쟈까르따에서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기자대회가 소집되였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대표단을 포함한 40여개 나라의 대표들과 옵써버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대회에 축전을 보내주시였다.

축전은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랑독되였다.

대회에서 수카르노대통령이 연설하였다.

대회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의하여 빚어진 국제긴장상태와 관련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 호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신흥세력경기대회조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196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쟈까르따에서는 가네포준비위원회가 열리였다.

이 회의에서 가네포를 조직한다는것을 정식 선포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가네포에 참가할것을 초청하였으며 제1차 가네포를 그 발기국인 인도네시아가 주최하여 쟈까르따에서 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 가네포가 1963년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게 되였다.

야자수 우거진 인도네시아의 수도 쟈까르따는 가네포로 날이 밝고 가네포로 해가 저물었다.

유난히 붉은 아침해가 솟아오르면 먼저 눈에 띄우는것이 거리에 펄럭이는 오색기발과《가네포의 성공을 위하여》,《불타올라라 가네포》라고 쓴 구호들이였다.

날마다 대표단들이 도착하는 쟈까르따부두와 비행장일대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우리 나라 대표단이 도착하였을 때에도 부두에서부터 시내중심지로 향하는 로상에서 쟈까르따시민들은 공화국기발이 날리는 자동차를 향하여 《코레아》,《코레아》라고 소리치며 두손을 흔들어주었다.

제1차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경기대회 즉 가네포의 홰불은 동부쟈와주에 있는 마두라성에서 타올랐다.

인화식 연설에서 동부쟈와주 지사 비요노는 가네포의 홰불은 반제반식민주의투쟁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세찬 불길이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홰불은 쑤라바야시를 거쳐 가네포개막날에 쟈까르따에 도착하여 봉화대에 지펴졌다.

수도의 간선도로들과 대회장인 세나얀의 붕카르노경기장은 가네포참가국들의 국기와 각 색기발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여있었다.

경기장에는 《가네포는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경기이다》,《가네포는 신흥세력들간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할것이다》,《우리는 전진할것이며 후퇴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쓴 대형프랑카드들이 걸려있었다.

경기장안은 물론 경기장밖에도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었다.

수카르노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정부 요인들, 각 정당지도

자들, 가네포조직위원회 지도성원들, 각국 대표단단장들이 주석단에 올랐다.

맑은 하늘가에는 축포가 터져올랐다.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인민들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유럽지역에서 온 2천여명의 체육인들과 수백명의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각국 체육인들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군악대의 장중한 주악에 맞추어 각국 체육인대렬이 51개 대회참가국 기발을 든 기수들을 따라 행진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체육단은 공화국기발을 높이 들고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선수들은 분렬행진을 끝마치고 경기장에 정렬하였다.

인도네시아 체육상 말라디가 연설하였다.

그는 1억 인도네시아인민의 명의로 가네포개막식에 참가한 2 800여명의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가네포는 체육분야에서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호는 《우리는 전진할것이며 후퇴하지 않을것이다》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수카르노대통령이 제1차 가네포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21발의 축포가 남방의 하늘에 터져올랐다.

3시간동안 진행된 가네포개막식은 신흥세력들의 친선과 단결의 뚜렷한 시위로 되였다.

경기대회 개막에 앞서 가네포예술축전이 진행되였다. 예술축전에서 우리 나라 예술단은 첫막을 올리였다.

이 나날 조선, 인도네시아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정은 두터워져만 갔다.

각 종목별경기는 개막식이 진행된 다음날인 11일부터 기본경기장인 붕카르노경기장을 비롯하여 여러 경기장과 체육관들에서 일제히 시작되였다.

가네포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발휘한 경기성과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도네시아 체육상은 경기성적들을 실은 신문과 통신자료들을 안고 매일과 같이 수카르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수카르노는 기쁜 표정으로 그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상이 이번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통령각하, 가네포는 각하께서 발기하고 개막도 각하께서 선언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인상깊은 대회입니다.》

《대통령각하, 여기에 조선의 륙상선수와 〈와르타 바크리〉신문사 기자가 나눈 인터뷰가 인상깊게 실려있습니다.》

대통령은 신문에 실린 사진을 주의깊게 바라보고나서 기사를 읽기 시작하였다.

...

나는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였습니다. 어느해 공장에서는 체육경기대회가 조직되였는데 그때 나는 녀자 100m, 400m 달리기경기에 나가 1등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달리기명수로 지목된 나는 도에서 진행된 공장별체육경기대회와 중앙체육경기들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어머니당은 나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겨 중앙급의 어느 한 체육단에서 생활하도록 하여주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체육인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여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가 국제륙상경기대회에 참가하여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을 때에는 나라의 첫 공훈체육인칭호까지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해에 진행된 국제륙상경기에서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을 때에는 어린 처녀의 몸으로 국제경기에 나가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친것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내각전원회의에서까지 저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제1차 가네포에 참가하기 위해 맹훈련을 하고 있던 어느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체육인들을 몸소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훈련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체육인들은 경기에서 불굴의 투지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먼길을 떠나가는 자식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갖추어 줄것이 없는가 마음을 쓰는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일군들에게 체육선수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의료일군들을 데리고 가며 좋은 약을 더 가지고 갈것과 외국에 가면 그리운것이 제 나라의 음식인데 쌀과 고추장 같은것도 충분히 가지고 가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헤여질 시간이 되자 수령님께서는 곁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기념으로 사진이나 찍자고 하시며 뒤줄에 서있는 저를 친히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주시였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힘과 열정이 되여 이번 체육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되였던것입니다.

이번 가네포 800m, 400m달리기경기에서 1등을 하고 시상대에 오른 제가 공화국기발을 보며 눈물을 흘리자 기자들은 왜 그러는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는 모를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눈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던것입니다.

이름없는 선반공을 공훈체육인으로, 세계 신기록보유자로 키워주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의 품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세계가 다 아

는 륙상계의 패권자로 될수 있었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체육인들처럼 행복한 선수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

여기까지 읽고난 수카르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창문가에 다가가 정원을 내다보며 속으로 되뇌이였다.

(조선, **김일성**각하와 인민, 수령과 체육인…)

이때 체육상이 그에게 또 다른 신문을 펼쳐드리였다.

가네포의 소식을 실은 《쟈까르따 타임스》였다.

거기에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조선의 력기선수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었다.

기자 ; 어떻게 되여 세계 신기록을 세울수 있었습니까?

선수 ; 우리 나라 서북쪽의 자그마한 농촌마을에서 자란 저를 이렇듯 당당한 력기선수로 훌륭히 키워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영예의 금메달로 승리의 보고를 드리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가슴부풀어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

수카르노는 두눈을 살며시 감고 자신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시 조선인민은 그 누구라할것없이 모두 **김일성**각하를 따르고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자기자신이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께로 마음이 끌리여감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가네포의 페막을 앞두고 수카르노는 체육상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주목할만 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체육상은 힘들지 않게 대답을 하였다.

《대통령각하,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륙상, 력기, 궁술 등의 5개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3개는 조선선수들이

하였습니다.》

수카르노는 점도록 침묵속에 잠겨있다가 무겁게 말을 뗴였다.

《정말 조선은 천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기자들은 앞으로 조선에 대한 소개기사를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가네포의 축포는 우리로 하여금 **김일성**각하를 더 잘 리해하고 조선을 더 가깝게 하는 측면에서도 성과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네포의 축포, 정녕 그것은 수카르노대통령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준 계기였다.

남남협조의 길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자본의 침투를 합리화하려는 목적밑에 들고나온 이른바 《남북협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남남협조》라는 투쟁전략을 새롭게 내왔다.

당시 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남북협조》란 저들이 발전도상나라들과 호상교류하고 협조하면서 다같이 잘살게 한다는 《호상의존론》에 기초한것이였다. 다시말하여 《남북협조》는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을 제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기 위해 고안해낸 신식민주의적인 략탈론이였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을 서방나라들의 경제체계에 얽매여놓고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려는 한갖 위장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 새로 독립한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새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서방나라들은 수입제한조치와 부등가교환, 관세장벽 등 각종 인위적인 차단물을 만들어놓고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음으로 양으로 저애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어려운 사정과 실태를 악용하여 《원조》를 미끼로 이 나라들에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야심적인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힘을 합쳐 자체로 살아나갈 길을 개척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대부분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며 귀중한 경험을 쌓고있는 조선에 눈길을 돌리였다.

많은 발전도상나라 지도자들과 인사들이 새 사회건설을 위한 옳은 길을 찾기 위해 우리 나라를 찾아왔다.

스리랑카 역시 그러한 나라중의 하나였다.

스리랑카는 인디아반도의 남동쪽에 있는 섬나라로서 인디아양에서 아시아주, 오세안주를 잇는 주요한 배길에 놓여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지하자원은 많지 못하지만 보석이 많은것으로 하여 보석의 나라, 진주의 나라로 불리우고있었다.

스리랑카의 녀성활동가이며 스리랑카 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였던 테자 구나와르다나는 1963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스리랑카는 우리 나라와 아직 대사급외교관계가 없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후 그는 수카르노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수카르노대통령에게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조선의 모범을 세계가 따라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락후와 빈궁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선에서처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기하였다.

수카르노는 그의 의견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였다.

《대통령각하, 나는 다음해에 아시아경제토론회를 **김일성**각하의 지도를 받으며 평양에서 할것을 제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각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다시 테자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나는 녀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나는 원래 제국주의와의 〈평화적공존〉을 원치 않습니다.

며칠전에 시하누크를 만났는데 그의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토론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경제토론회가 주체53(1964)년 6월 16일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스리랑카대표단은 테자 구나와르다나가 인솔하였다.

그는 아시아경제토론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인도네시아대표단은 인도네시아협조국 국회의원 페르디난드 룬트람바가 인솔하였다.

아시아경제토론회에는 34개 나라에서 온 9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락후와 빈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선에서처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평양선언이 채택되였다.

평양선언에서는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국가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배제하지 않으며 호상지지와 협조를 더욱

촉진시켜준다는것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선언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반대하는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편파적인 낡은 틀에 더 머물러있게 하며 독립국가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반동적행위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회의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평양선언을 지지찬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속에서도 각국 대표단성원들을 접견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접견석상에서 난관앞에서 반드시 자력갱생을 해야하며 모든것이 부족한 때에는 극복하고 있을 때에는 아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경제적자립이 없는 나라는 정치적자주권도 가질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아시아경제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들을 위하여 내각에서는 연회를 차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연회에 참석하시여 연설을 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진행된 아시아경제토론회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네시아공화국대표단 단장은 귀국한 날 저녁 대통령궁전에서 수카르노를 만났다.

대통령은 식사시간도 미루고 그의 보고를 중단함이 없이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다.

《대통령각하, **김일성**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발휘하고있는 자력갱생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혁명정신, 천리마운동의 영웅적기개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습니다.

공고한 경제적자립을 실현함으로써만 완전한 정치적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것을 저는 이번 평양토론회에 참가하여 **김일성**각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빚어낸 빈곤하고 락후한 면모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믿음직한 길은 조선을 따라배우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카르노는 그의 보고를 긍정하였다.

수카르노의 심장은 소리없이 평양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대통령은 그날 룬트람바와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하고싶은 마음에서 예견하지 않았지만 그와 동석식사까지 하였다.

(나는 아직 **김일성**각하를 만나본적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그리며 살았다.

절세의 영웅을 모르는 인간은 자기 민족을 번영에로 이끌수 없다.)

수카르노는 룬트람바와 정답게 담소를 하며 이렇게 되뇌이였다.

다함없는 칭송

천리마의 나라

수카르노는 드디여 조선을 향하여 만리창공에 몸을 날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거창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은 그는 수령님을 자기 나라에 모시고 조언을 받을것을 열렬히 희망하여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인도네시아방문이 연기되자 자신이 먼저 우리 나라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른것이다.

대통령과 일행은 1964년 11월 1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우리 인민은 인도네시아의 민족적영웅이며 국제활동가인 수카르노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과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었으나 두 나라 인민들은 과거처지의 공통성,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밀접한 련계를 맺고있었다.

적도의 구슬띠, 동남아시아의 화원으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나라 인민의 정을 안고오는 친선의 사절을 맞이한 비행장은 환영일색으로 들끓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여 수카르노대통령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수카르노대통령은 환영군중들앞에서 연설

을 교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수카르노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쌓아올린 고귀한 업적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정력적인 투쟁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시면서 대통령각하가 우리 인민에게 표시하고있는 두터운 친선의 정과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우리를 감동시키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당신들이 보신바와 같이 비행장에서 외투를 입지 않고 내린 나는 지금 벌써 외투를 입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기후가 차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나의 도착을 아주 친선적으로, 형제적으로 열렬히 환영하여주기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인도네시아대통령의 자격으로서만 온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번영하며 정의로운 새 제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는 인도네시아인민들이 당신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가지고왔습니다.

조선인민과 우리 나라 인민은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깊은 친선의 정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래전부터 몹시 귀국을 방문하고싶었으며 당신들과 만나고싶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또한 나에게 조선방문을 권고하였습니다. 례를 들어 호지명동지가 그랬고 모택동동지가 그랬습니다.》

연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시고 시내로 향하시였다.

환영연도에서는 20여만명의 평양시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평양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푸르른 하늘은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공해가 없는 맑은 공기로 하여 수카르노의 마음은 줄곧 상쾌하였다.

수도를 가로지르면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우에는 가끔 흰구름이 가벼운 그림자를 비끼고있었다.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에 이끌려 수카르노는 참관로정에서도 늘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사방으로 뻗어간 도로들이 도시의 골격을 이루고 그 도로를 따라 공공건물과 살림집, 상점들이 늘어서있었다.

자본주의나라 도시들과는 달리 거리에는 상품선전을 위한 그 어떤 잡다한 간판이나 광고판도 보이지 않았다.

첫눈에 건전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려진 도시가 안겨왔다.

공장들은 교외에 나가있었으며 필요이상의 자동차들로 교통질서를 문란시키고 대기와 물을 오염시킬수 있는 걱정도, 도시안에 소음장애도 없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에 넘치고 침착하였으며 녀성들의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치마저고리차림은 설명이 없이도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짙게 풍겨주고있었다.

시민들의 밝은 얼굴표정에서 인도네시아사절들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모든 정력을 다바쳐 일하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과 미래에 대한 자신심을 힘들지 않게 엿볼수 있었다.

숙소에 돌아온 수카르노는 수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지난 3년간의 전쟁때 미제는 평양시에만도 무려 42만 8천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도시를 페허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도 참관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을것입니다. 미제는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지껄여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선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있지만 조선

은 100년이 아니라 10년남짓한 기간에 이처럼 훌륭히 복구건설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수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이 평양을 혁명의 수도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있습니다. 지금 평양이 전쟁에서 완전히 페허로 된 재더미우에 솟아난 도시라고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조선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을, 남들이 달릴 때 날아야 한다는 높은 정신력과 배짱을 가지고 일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에 감복하며 수원들도 자기들이 느낀 소감을 숨김없이 표현하였다.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수카르노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회장은 10여만 군중들로 가득차있었다.

군중대회에서는 수카르노대통령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나는 당신들의 벗이며 당신들의 동지입니다, 나는 1억 400만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친선적인사와 동지적인사, 혁명적인사를 당신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의 벗이신 **김일성**각하와 전체 조선인민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굳은 악수를 나누신 후 두 손을 맞잡고 높이 흔드시며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계시는 우리 수령님의 태양같이 환하신 모습은 수카르노에게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었다.

군중대회가 끝난 후 차를 타고 만수대언덕에 이른 수카르노대통령은 차창밖으로 창공에 날아오르는 천리마동상을 쳐다보았다.

사나운 폭풍을 맞받아 힘차게 나래를 펼친 천리마의 기상은 한없이 웅용하였다.

천리마란 말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세기적승리와 변혁을 이룩하며 줄달음치고있는 주체시대의 자랑스러운 시대어였다.

천리마는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갈이 달리는 조선인민의 승리의 력사를 시사하고있었다.

억센 그 기상은 투쟁하고 전진하는 조선의 자랑찬 모습이였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수카르노는 대표단을 안내하는 일군에게 천리마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인민은 천리마동상을 보며 세기를 주름잡아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 무한대한 열정과 기백을 온넋으로 느끼고있으며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그는 천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하여 일찌기 천리마동상을 세우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나날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전후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완수해나가고있던 때 혁명의 수도 평양에 천리마동상을 세울것을 발기하시고 주체48(1959)년 11월 중순 어느날 창작가들이 만든 천리마동상초안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동상초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작가들에게 한필의 말에 로동자와 농민을 형상한 남녀를 태우고 로동자가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높이 들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순간 창작가들의 가슴은 크나큰 흥분으로 끓어넘쳤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찾아볼수 없는 심오한 철학적내용과 미학적내용이 담겨져있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히 빠른 속도를 상징하는것이므로 날개를 달아주는것이 좋겠다고 말을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문제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말의 속도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던 창작가들에게 대번에 창작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그때까지 창작가들은 동상조각에 높은 속도를 형상하기 위하여 세계의 이름있는 미술가들의 작품을 수많이 참고해보았으나 그 어떤 실마리도 찾아낼수 없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말에 날개를 달도록 가르쳐주심으로써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뽑아낸 강선로동계급의 기적, 평양속도로 자랑떨친 건설에서의 기적 등을 훌륭히 형상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일군들에게 천리마라는것은 속도를 상징하는것만큼 천리마동상을 세우는데서도 그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창작가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천리마동상건립을 완공함으로써 주체50(1961)년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에 제막식을 진행하였다.

동상은 도로면에서 48m의 높이에 놓여있으며 그 질량은 140t에 달한다.

실로 천리마동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로동당시대의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불굴의 정신력을 상징하고있었다.

계속하여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동상제막식에 나오시여 붉은 테프를 끊어주신데 대하여 덧붙여 이야기해주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몹시 흥분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천리마동상은 내용과 형식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말을 석탑우에 올려놓은 동상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것으로 되여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달아주신 천리마의 날개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남들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디디는 혁명

적기상을 떨칠수 있게 되였습니다. 실로 천리마는 한번 날아 천리를 가는 전설의 천리마이고 시대의 천리마이며 기적의 천리마입니다.

전쟁의 페허우에서 조선은 천리마를 타고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사람들이 조선을 왜 천리마의 나라라고 하는가 하는것을 이번 조선방문을 통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기념비들이란 해당 시대의 력사적사실과 사건을 담고 세워진다.

많은 기념비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천리마동상도 이 땅에 천리마가 나래쳤던 1950년대 후반기의 가슴벅찬 사실을 길이 전하기 위해 세워진 력사적기념비이다.

하지만 전후복구건설의 힘찬 노래소리의 여운이 짙던 1960년대초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 건립된 천리마동상은 력사의 어느 한 시대의 단편적인 위훈과 기적만을 담고있는것이 아니였다.

어제날 빈터우에서 가능보다 불가능이 많았고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많았던 그때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력사앞에 소리칠만한 승리와 영광을 가득히도 안아온 모든 기적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무비의 정신력을 이룩한 승리이며 위훈이였다.

백두광야에서 항일유격대가 무슨 힘으로 아시아의 《맹주》로 날뛰던 일제의 백만대군을 타승할수 있었던가.

정규무력으로 탄생한지 2년밖에 안되는 인민군대가 무슨 힘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을 꺼꾸러뜨릴수 있었던가.

원쑤들이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조선인민은 무슨 힘으로 이렇듯 락원을 건설할수 있었던가.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리고 기가 꺾이여 노예가 될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겠다는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이 전승의 축포를 터쳐올리게 하였고 벽돌한장 성한것이 없던 전후 재더미우에서 복구건설에서도 영웅조선의 기상

을 떨쳐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이 페허우에 나래쳐 전설속의 천리마가 현실속에 기적의 천리마로 날아오르게 되였던것이다.

조선이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승리와 영광의 전로정은 말그대로 천리마대진군의 용용한 투쟁사였다.

수카르노는 비록 좀 늦은감은 있으나 그래도 지금 조선을 방문하고있는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체류기간 수카르노는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공연과 집단체조 《천리마의 조선》을 관람하였으며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학생들의 예술공연도 보았다.

11월 3일 오후, 평양대극장에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수카르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명예원사칭호를 수여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이어 수카르노대통령이 위대한 수령님을 초청하여 옥류관에서 연회를 차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연회에 앞서 문화성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가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공연을 잘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노래종목도 친히 선정해주시고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한다는 방도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연회에서 연설한 수카르노대통령은 지난 1개월반동안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방문이 가장 성과적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연회분위기가 고조되자 수카르노대통령과 수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인들도 이날 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연회공연이 잘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통령과 함께 연회장을 나서실 때 예술인들은 복도에 줄지어 서서 손님들을 바래우며 인도네시아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수카르노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 예술인들의 손을 잡고 노래를 함께 부르는것이였다.

이 광경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화성의 한 일군에게 무슨 노래인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정중히 대답을 올리였다.

《수령님, 인도네시아민요 〈리별의 노래〉입니다.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나라 민요 〈아리랑〉처럼 이 노래는 인도네시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선정해주신 노래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아주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수카르노대통령과 수원들이 숙소로 돌아간 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휴계실에 들리시여 연회행사가 잘되였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명년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겠는데 그때에 우리 예술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잘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정중히 바래워드리시고나서 일군들에게 방금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가실 때 예술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였는데 지금부터 그 준비를 잘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다음날에도 전화로 문화성의 책임일

군을 찾으시여 수령님을 모시고 갈 예술단의 구성과 공연종목준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방문기간 수카르노대통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특히는 수령님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되였다.

그는 우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오랜 기간의 투쟁과정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지도자인 수카르노가 그처럼 기뻐하며 열정에 넘쳐 우리나라 방문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있는것을 목격한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영광과 긍지로 부풀어오르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다음해 봄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리게 될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회의 10돐기념행사를 계기로 자기 나라를 국가방문해주실것을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초청을 쾌히 수락하시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이 떠나는 날인 11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이날 아침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인디아의 신화에 의하면 누구든지 갈파타루라는 나무아래 서서 자기의 념원을 말하면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나무아래에 선다면 무엇을 념원하겠습니까.

김일성각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오직 그 한가지 념원뿐입니다. 부디 안녕하시고 행복해주십시오.》

이것은 탁월한 령도로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대통령의 최대의 경의이며 끝없는 례찬이였다.

평양비행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굳은 악수를 나누신 후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특별비행기는 리륙하여 서북쪽으로 기수를 돌리였다.

수카르노는 돌아가는 도중 비행기안에서 그리고 귀국하여서도 자주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워야 한다고…

주은래와 마주앉아

수카르노가 탄 비행기는 비행도중 중국의 상해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수카르노를 마중하여 비행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주은래총리가 나와있었다.

회색중산복차림을 하고 서있는 그의 귀밑에는 얼기설기 흰서리가 섞여있었다.

중국의 동쪽해안으로부터 50㎞ 떨어진 황포강반에 위치하고있는 상해시는 중국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의 전반적발전을 추동하는데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중요한 도시였다.

수카르노는 장강의 지류 황포강반의 서쪽기슭을 따라 달리는 차창밖으로 상해의 중심구역인 외탄거리를 내다보았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상해에 머무르면서 주은래총리와 일련의 국제문제, 극동과 동남아시아정세에 대하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은래총리는 수카르노대통령에게 조선방문인상에 대하여 조용히 물었다.

《주은래각하, 나는 조선에 하나의 벗으로 갔다가 오늘은 벗으로뿐아니라 전우가 되여 돌아옵니다. 한번 만나 낯을 익히고 두번 만나

형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한번 만나 전우가 되여 돌아옵니다.

김일성각하는 친근한 벗이며 나의 형제입니다.

김일성각하는 잊을수 없는분이십니다. 그이는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자애로운 웃음과 함께 풍만한 정서와 인간애로 처음 만나는 사람도 구면친구로 만들어주시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나에게 그렇게도 조선방문을 권고한 모택동각하에게 총리각하를 통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각하의 인사를 꼭 모주석동지에게 전해올리겠습니다. 각하의 조선방문결실이 좋다고 하니 나도 기쁩니다.》

주은래총리는 수카르노대통령과 함께 담배에 불을 붙이고나서 격식없이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동지들에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때가 있었다고 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슴속에 정답게 회고할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라고, 혁명하는 사람들의 정은 국적과 언어, 신앙의 장벽을 모른다고,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퇴색이나 조락이 없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다시한번 그려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인도네시아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수카르노대통령의 열렬한 애국심을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오랜 친구처럼 뜨겁게 대해주시는 그이이시야말로 태양의 빛과 열로 온 인류를 품에 안아주시는 자애로운분이시였다.

그래서 인간애는 민족애를 낳고 민족애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낳는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주은래총리는 계속하여 올해에 동북 길림성에 있는 길림육문중학교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건립한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이 동상은 석청동으로 세운것으로서 중국땅에 처음으로 건립된 다른 나라 국가수반의 동상이였다.

수카르노는 저으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그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중국에 칼 맑스의 동상을 먼저 세우자는 사람도 있었고 레닌의 동상을 먼저 세우자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모택동주석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결론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당과 정부,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중국국내혁명전쟁시기 중국인민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주석은 그처럼 존경하였던것이다.

모택동주석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건립하는 중대사를 주은래총리에게 위임하였다.

주은래총리는 베이징미술학원을 졸업하고 영화촬영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조각가를 동상창작가로 선정하였다.

그는 미술부문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이였다.

장개석이 대만으로 유인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는 자기를 키워준 조국의 품을 버리지 않았다.

조각가는 주총리에게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이 모셔진 사진자료를 요구하였다. 너무도 응당한 요구였다.

중국정부에서는 지체함이 없이 조선정부에 이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사진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사코 반대하셨다는것이였다.

하는수 없이 조각가는 이미 출판물에 수록된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사진을 참고하는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조각창작을 위해서는 너무도 불충분한것이였다.

그때 주은래총리는 창작일군들이 직접 길림에 찾아가 수령님께서

다니시던 길림육문중학교를 방문도 하고 동북의 혁명전적지들에대한 답사도 하게 하였다.

중국인민은 누구나 그이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그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실뿐아니라 중국인민의 벗이며 전우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을 떠나 중국의 만주땅에 와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고 조선의 해방을 위해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셨고 중국인민의 항일구국투쟁과 국민당반동군벌들을 반대하는 국내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도와나서시였다.

《정말 총리각하는 오늘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김일성**각하의 동상을 왜 길림육문중학교에 세웠습니까?》

수카르노는 진중하게 물음을 제기하였다.

《동상을 길림육문중학교에 세우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주은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길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뜻깊은 곳이였다. 길림은 만주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로서 당시 형형색색의 사상조류가 집결되여있던 곳이였다.

길림육문중학교는 1910년대에 신흥사회계에서 세운 경향성이 좋은 학교였다.

말하자면 정의와 인륜법도를 중시하는 학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시절에 선진사상탐구와 함께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시고 그것을 확대해나가시면서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군중들속에 절대적권위와 신망을 지니신 공인된 지도자로 알려지게 되였고 그이의 지도밑에 군중의 반일운동은 료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렇게 되자 당황망조한 일제는 1929년 가을 중국반동군벌들을 부

추겨 반일운동지도자들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동지들과 함께 반동경찰에 체포되시여 길림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게 되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감옥의 철창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고 혁명조직들을 계속 지도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구상하시였다.

주체19(1930)년 봄에 출옥하신 후 그이께서는 혁명조직들을 수습정비하고 군중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들에 나가시여 본격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비밀활동장소로서 북산공원, 강남공원을 많이 리용하시였다.

강남공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니신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송화강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이였다.

산천이 아름다운 곳에서 명문수재가 나온다는 뜻을 담아 학교이름도 길림육문중학교로 명명하였던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에서 길림은 잊을수 없는 력사의 땅이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도 중국은 항일구국투쟁에 이어 미국의 지원과 부추김을 받는 장개석국민당반동군벌들을 반대하는 국내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때의 고충이란 이루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시기 나라가 갓 해방되고 새 조선건설에서 난관도 많았지만 중국혁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시였다.

…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6억인민의 경모의 마음을 담아 중국땅에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그이께서 다니신 길림육문중학교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가려는 중국인민의 념원이 담겨져있습니다.

나라가 분렬되여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시련속에서도 **김일성**동지께서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계시는것도 세계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주은래와 수카르노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잊을수 없는 회억을 안고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가볍게 활주로로 미끄러져갔다.

흘러가는 구름의 언덕우에서 살며시 눈을 감고 수카르노는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망망한 구름떼들은 해빛에 분홍색으로 물들어 마치 꽃바다를 련상시켰고 시창밖으로는 험한 산발들이 련련히 안겨왔다.

(발견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위대한 인간에 대한 발견이다.

뉴톤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면 나는 인류인력의 중심을 발견하였다.

그 중심은 바로 **김일성**각하이시다.

이제 몇달후이면 **김일성**각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그이께 무엇을 올려야 하는가?

그이께서는 나에게 천리마의 정신을 안겨주시였다.

수카르노각하, 어서 대답해보시오.)

수카르노는 자신에게 스스로 무거운 질문을 제기하고있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접대원처녀는 수카르노대통령의 사색을 방해할가싶어 은쟁반에 음료를 받쳐든채 저만쯤에서 주춤하고있었다.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의 언덕을 가볍게 날아넘고있었다.

잠시후 대통령은 접대원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서만 있습니까. 어서 가져오시오.》라고 한마디하였다.

그제서야 긴장하게 서있던 접대원처녀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대통령의 앞탁에 잔을 놓았다.

대통령은 담배를 붙여문채 또다시 창가림을 제끼고 시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생각할수록 만리창공에 머리를 쳐든 저 히말라야산줄기의 주물랑마봉우에 거연히 안겨오는 이 행성의 제일명인은 위대한 **김일성**각하가 분명하였다.

사상의 천재, 군사의 명장, 경제의 박식가, 인덕의 화신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또 만날수 있으랴.

명백한 론리, 부드럽고 웅심깊은 굴림의 말투, 겸허하신 자세, 인자하신 미소, 다감다정하신 그 눈빛을 수카르노는 순간도 잊을수 없었다.

어느덧 비행기는 인도네시아경내에 들어섰다.

독립의 아버지를 반기는듯 고국의 정다운 섬들이 하나, 둘 바다우에 진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흘러간 크레믈리종소리

주변구역에 나갔다가 수도로 들어서는 수카르노의 사색은 밑창없이 깊어져갔다.

승용차는 그리 길이 좋지 못한 수도의 교외에서도 여전히 속도를 내고있었다.

수카르노는 자동차의 률동에 몸을 내맡긴채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다가 부지중 부관에게 말을 건늬였다.

《쓰딸린은 역시 뛰여난 인물이야. 그렇지 않소?》

부관은 얼결에《그렇습니다, 대통령각하.》라고 대답하였다.

《무슨 근거로?...》

수카르노의 반문이였다.

부관은 앞의자에서 뒤쪽으로 약간 머리를 돌리고나서 조용히 대답하였다.

《대통령각하, 쓰딸린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에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그래, 그 말도 옳지.》

수카르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리고나서 며칠전 대통령궁전 의례국장을 통하여 쟈까르따주재 《쁘라우다》 특파기자에게 요구하였던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 쏘련의 출판보도자료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부대표단을 이끄시고 처음으로 쏘련을 공식방문하신 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다음해인 주체38(1949)년이였다.

방문기간 쏘련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존경심을 안고 그이를 극진히 환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쏘련방문을 환영하여 당시 세계혁명의 원로로 존대받고있던 쓰딸린은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까지 초청하여 크레믈리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쓰딸린은 친선의 정이 흘러넘치는 연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축배사를 하였다.

축배사에서 그는 2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동방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여주신 국제주의자, 참다운 혁명운동의 귀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쏘련이 오늘과 같이 평화적인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같으신 진정한 혁명가들의 투쟁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연회참가자들을 둘러보며 우리모두 열렬한 박수로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제의하였다.

순간 장내에는 크레믈리성벽을 울리는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가 열

광적으로 터져올랐다.

연회가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춘삼월의 차거운 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크레믈리 쓰빠쓰끼탑에서 장중한 시계종소리가 열두번을 울린지도 이슥한 때였지만 쓰딸린과 함께 조용히 정원을 거니시였다.

크레믈리궁전에는 여느때없이 불이 그대로 켜져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은 자욱한 밤안개속에 잠긴 크레믈리성벽에 부딪쳐 외부에는 광폭되지 않았다. 다만 하늘만 벌겋게 물들이였다. 보석별이 유난히 빛나는 쓰빠쓰끼탑의 둥그런 대형시계가 또다시 모스크바의 고요를 깨치며 밤 두시를 알리였다.

일상생활에서 과묵한 성미인 쓰딸린은 습한 공기속에서도 대통을 입에 물고 담배연기를 뻐금히 빨아들이였다.

신중하고 의지적이며 유능한 지휘능력과 결단성을 소유한 이 백전로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나란히 보폭을 같이하며 밤가는줄 모르고 있었다.

체류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 문화협정에 관한 문건에 서명하시였다.

쏘련정부를 대표하여 쓰딸린이 서명하였다.

협정조인식이 끝난 후 쓰딸린은 두 나라 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협정이 체결된것과 관련하여 크레믈리에서 또다시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쓰딸린은 짜리시대에는 로씨야와 조선사이에 친선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볼쉐위크들은 일본과 짜리로씨야가 서로 전쟁을 할 때에 벌써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여 싸웠다, 동방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령도하시면서 첫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여주었다고 감회깊이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은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맞이하여 식민지동방에서 제일 처음 주권을 자기의 손에 틀어쥐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에 힘차게 들어섰다고 하면서 새 민주조선의 탄생으로 하여 쏘련의 동쪽변강의 안전이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하였다.

쓰딸린은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여 그이께 신형방탄승용차《짐》을 선물로 드리였다. 성격이 과묵하고 좀해서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쓰딸린이 생애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준 일은 그리 흔치 않았다.

이 사실만 놓고보아도 쓰딸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흠모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자동차는 줄곧 야자수수림을 가로지르고있었다.

그 수림을 일별하고나서 수카르노는 다시 자료에 눈길을 주었다.

쏘련공산당 제19차대회가 진행되던 때 쓰딸린의 초청으로 쏘련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스크바 크레믈리궁전에서 그와 오래동안 담화를 나누시였다.

쓰딸린은 주머니에 늘 간수하고 다니는 작은 수첩과 빨간연필까지 꺼내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몇자씩 적어놓기도 하였다.

쓰딸린은 우리 수령님께 앞으로 조선을 강국으로 만들고 발전도상나라들을 잘 도와주며 미제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해주실데 대하여 부탁하였다. 이것은 그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

흘러간 력사를 더듬어보는 수카르노의 머리에는 1959년 1월 1일 바띠스따독재정권을 타승한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가 전우들에게 하였다는 말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때 피델 까스뜨로는 《동무들! 우리는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신념으로 싸워 이겼소. 앞으로도 우리의 무기는 그 위대한 신념일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처럼 싸웁시다. 새 조국도 **김일성**동지처럼 건설합시다.》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어느해 가을,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사전통지도 없이 아바나에 자리잡은 조선대사관을 찾았다고 한다.

지방으로 지도사업을 나가던 길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영화를 보고싶어 들렸다는것이였다.

그는 야밤삼경이 지나도록 여러편의 기록영화들을 보았다.

영화가 끝나자 그는 《기록영화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령도방법은 모든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모범입니다. 부르죠아정객들은 군중들앞에서 연설이나 하면 되지만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은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정사를 의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로부터 몇해후 여름에도 까스뜨로수상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또다시 조선대사관에 찾아왔다.

그는 의례격식을 떠나 일군들과 한탁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진정한 벗이십니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인덕은 세계를 움직이고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교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수카르노는 제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 깊은 심연에 잠겨있었다.

부관은 대통령의 표정을 넌지시 지켜보기만 하였다.

수카르노는 승용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이렇게 되뇌이였다.

(조선은 지금까지 자기 식의 독특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창조와 건설의 기념비를 세워왔다. 그 누가 만들어놓은 국가건설공식이나 처방을 가지고 살아온 나라가 아니다. 만일 조선인민이 **김일성**각하를 수령으로 모시지 못하였다면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도 마련할수 없었을것이며 빈부의 차이가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조선이야말로 신화가 아닌 현실속의 리상국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김일성**각하께서 모처럼 우리 나라를 방

문하게 되시는 날이 …

그때 나는 그이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는 종전과 다름없이 자신에게 물음을 제기하고있었다.

(중국에서는 동북땅에 지구의 파동에도 흔들림없는 동상을 세워드리고 쏘련에서는 신형방탄승용차를 선물하였는데 이 수카르노는 **김일성**각하께 무엇을 올려야 하는가.)

대통령의 사색은 끝없는 세계에로 줄달음쳐갔다.

그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유명한 식물학자가 오래동안의 고심어린 탐구끝에 키워낸 란과계통의 아름다운 꽃이 떠올랐다.

(력사의 년륜속에는 전장에서 무공을 떨친 장군도 많았고 뛰여난 령도예술로 인민의 기억속에 남는 위인들도 있었다.

력사와 인민은 그들을 칭송하는데 린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상에 식물이 생겨 수억 수천만년, 이 땅우에 인간이 태여나 수백만년, 그 언제 그 어느 나라 화초사의 갈피에 위인칭송의 꽃이 있었던가?!…)

수카르노의 가슴속에는 이리안섬의 쟈야산폭포수와도 같은 격파가 뜨겁게 솟구쳐올랐다.

대통령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이 근래에 와서 그는 다른 사업은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수령님을 맞을 준비에만 골몰하였다.

날자를 따져보아도 불과 4～5개월이라는 기간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모든 행사일정을 특색있게 하겠는가에 대하여서만 골몰하였다.

대통령은 정부각료들에게 극비로 과업도 주고 그들앞에서 장시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

인도네시아와 조선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아시아, 태

평양지역에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나라들이며 세계정치 및 경제생활에서 날이 갈수록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인민은 오래전부터 **김일성**동지를 잘 알고있다.

그이의 존함은 근로인민대중의 해방투쟁리념에 대한 충실성의 상징이다.

진리성은 력사앞에 공정하고 언제나 심원하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인간과 그의 진정한 사상을 따르는것보다 더 참다운것이 없다.

김일성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것은 우리 인도네시아인민들에게도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있다.

나는 조선을 방문하고 **김일성**각하로부터 무상의 활력과 청신한 기분을 받아안았다.

그이의 사상은 인류의 불멸의 정신이다.

19세기 로동계급은 맑스를 알게 되여 세기적인 잠에서 깨여났고 로씨야피압박근로대중은 레닌을 따라 아브로라의 포성을 울리였다.

20세기 력사의 흐름은 **김일성**각하를 떠나서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나는 〈인터나쇼날〉로 시작된 세계혁명이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필승할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진다.

김일성각하는 참으로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분이시다.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김일성**각하께서는 나에게 자력갱생의 참뜻을 배워주었고 천리마를 안겨주시였다. 천리마의 정신은 력사의 어느 한 시대를 장식한 힘과 위훈에 대한 단순한 상징이 아니며 그것은 조선뿐아니라 우리 인도네시아사람들에게도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조선에서 **김일성**각하께서는 나에게 천리마시대에 자력갱생의 정신

으로 돌에서 뽑은 비날론천으로 만든 옷을 선물로 주시였는데 나는 이 옷을 황금보다 더 귀한 자력갱생제복으로 생각하고있다.

수백년을 헤아리는 공업력사에서 비날론공업의 력사는 세계적으로 시작에 불과한데다가 석회석과 무연탄을 기본원료로 하여 비날론을 생산하는것 자체가 섬유공업에서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각하께서 간고한 투쟁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으로 시대를 개척해나가고계시는것을 우리는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었다.

위대한 인간을 리해하는 능력은 각자의 재능과 식견에 따라 다르다.

내가 너무도 그이를 늦게 만난것이 후회된다.

우리는 사상도 재능도 정열도 인품도 반드시 **김일성**각하를 따라배워야 한다.

유명한 쏘련의 작곡가 바스네르는 노래 〈조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에서 조국은 모스크바 크레믈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계의 어느 창작가가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면 나는 불필코 앞으로는 평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대답할것이다. …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군사령관, 대통령궁전 의례국장과 함께 이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되여있는 장소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쟈까르따는 물론 반둥이며 찌빠나스궁전과 보고르 등을 구체적으로 시찰하였다.

어느날 대통령궁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선물문제가 정식 의정으로 토론되였다.

이딸리아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명화 《몬나리자》를 모사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미켈란제로의 조각 《다비드》를 형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유리제품을 올리자는 안도 제기되였다.

그 모든 제안들은 수카르노의 찬성을 받지 못하였다.

어느날 수카르노대통령은 소문없이 보고르식물원을 찾았다.

보고르식물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대통령별장이 있는 까닭에 수카르노는 이 식물원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었다.

수카르노가 이 식물원을 찾은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언제인가 이곳에 온적이 있던 수카르노대통령은 식물원원장으로부터 류다른 한 란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그때 상쾌한 식물원의 향기속에서 매혹을 자아내며 피여난 그 란꽃은 수카르노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입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되듯이 꽃도 미감과 정서에 맞아야 기분이 좋은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였다.

대통령은 이날 새로 육종하였다는 그 란꽃을 보기 위하여 식물원을 찾은것이였다.

그 꽃은 인도네시아의 오랜 식물학자 씨.엘 분트가 인생의 총화작으로 수십년동안 고심하여 새로 육종해낸것이였다.

분트는 오래전부터 자기의 친근한 벗인 보고르식물원 원장 수잔나까싼의 도움을 받으며 이 란꽃을 쑬라웨씨섬 마카싸르에서 육종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새로운 란꽃을 육종하는데 성공한 분트는 그것을 수잔나까싼에게 보내여왔다.

《원장선생, 이 꽃이름이 무엇입니까?》

《대통령각하, 아직 이름을 달지 못했습니다.》

《왜 달지 못했습니까?》

《대통령각하, 육종도 어렵지만 이름을 달기는 더 어려운것 같습니다. 모처럼 오셨던김에 각하께서 고견을 주시면 행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수카르노는 아무 말없이 심중한 안색을 짓다가 어딘가 만족한 기분으로 빙그레 웃었다.

《하여튼 왔던김에 꽃에 대한 설명이나 듣고 갑시다. 나는 오늘

시간을 좀 내였습니다.》

원장의 설명은 조용하면서도 정열적이였다.

대통령은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줄곧 우아하고 아름다운 란의 모양새가 미구에 사람들에게 매혹적이며 깊은 인상을 안겨주리라는 것을 은근히 확신하고있었다.

원장의 설명에서 보다 중점을 둔것은 꽃의 특성과 육종경로였다.

《대통령각하, 이 꽃은 야생원종 4종과 1개의 변종 그리고 10개의 인공잡종을 서로 섞붙임하는 과정에 육종되였습니다.

그것들은 어느것이나 다 그 모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그대로도 재배가치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 꽃은 여러가지 생태적조건에 적응하면서 형태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원종들의 좋은 점만을 골라서 만들어 낸 품종이므로 꽃의 전반적인 생김새와 꽃기관 하나하나의 구조를 세세히 관찰해보면 그 아름답고 립체적인 조형미야말로 앞으로 진화의 극치를 이루게 될것이라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의 말을 긍정이나 하듯 대통령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대통령의 기분상태는 저으기 평온하였다.

《대통령각하, 란과식물들은 여러가지 생태적조건에 적응하면서도 형태적으로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꽃의 육종경로와 거기에 참가한 야생원종들의 특성을 정확히 리해하자면 응당 석곡속의 일반적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석곡속의 분포지역은 대단히 넓습니다.

석곡이 자생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의 남부지역으로부터 일본의 남부, 중국 대북섬, 필리핀, 인도네시아 더 나아가서 뉴질랜드의 스튜어트섬까지 남북 8 000㎞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솔로몬군도와 피지섬, 사모아섬, 뽈리네시아의 여러 섬들과 따히티섬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국의 남부, 라오스, 윁남, 타이, 인디아, 먄마,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여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지역에 분포된 석곡속은 해풍이 세찬 열대지방 해변가의 망그로브숲으로부터 만년설을 이고있는 히말라야산중턱까지의 각이한 생육조건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에는 없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서유럽식민주의자들은 동남아시아의 열대지방으로부터 알곡과 광물자원은 물론 화려한 란과식물들을 경쟁적으로 수집하여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여 그곳에서 재배방법이 세워지고 쉬붙임에 의하여 새로운 품종들이 육종된 다음 이것들은 다시 상업적판로를 통하여 동남아시아로 되돌아오게 되였습니다. 그런데로부터 이 란과식물이 양란이라고도 불리워지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확한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열대란이라고 부르는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그래야지.》

대통령은 그의 설명에 련속 긍정을 표시하며 흥미를 가지고 원장을 쳐다보았다.

원장은 설명을 계속하였다.

《이 꽃의 출발원종들은 적도를 중심으로 한 북남의 두 회귀선사이에 분포되여있습니다.

비교적 진화되였다고 하는 한싹잎식물의 란과식물중에서도 이 꽃의 형태와 구조는 진화의 극치를 월등하게 내뿜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속에서 그 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고있습니다. 1952년에 아메리카에서 〈로잔 핑카〉로 불리우는 심비디움란초가 한포기에 4 500US$로 팔리워 세계기록집에 명기된 경이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며 또다시 란을 세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만약 이 꽃을 우리 나라에 최고의 국빈으로 오시는 **김일성**각하께 그이의 존함을 모시여 올린다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입

니다.

내가 오늘 보고르식물원에 소문없이 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카르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원장은 《대통령각하의 발기대로 이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하여 그이께 드린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인민들의 마음이 대통령각하의 마음과 다를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만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생각합니다.》하고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명하였다.

대통령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온몸에는 새힘이 넘치였다.

《앞으로 4월 15일을 계기로 꽃을 만발하게 피울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온 세계가 경축하는 **김일성**각하의 탄생일입니다.》

대통령의 그 물음에 원장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선뜻 머리를 들었다.

《념려마십시오. 대통령각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확신적이였다.

대통령은 저으기 안심되는듯 원장과 친절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승용차는 조용히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서산마루로 지는 해가 야자수수림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문소식이 출판보도물에 공개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이의 위대한 령도업적을 소개하는 강연회가 련일 조직되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민족어와 조선말로 전국에 보급되였다.

그 노래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카르노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과 함께 길림육문중학교의 정원이 꿈결에서처럼 안겨오고 크레믈리 종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김일성화의 탄생

인도네시아로 가시던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을 공식방문하시기 위하여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신 날은 주체54(1965)년 4월 9일이였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을 보좌하시였다.

이것은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진행하신 외국방문으로서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신 빛나는 력사적장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시던 도중에 특별비행기는 중국의 오랜 도시 곤명에 착륙하였다.

중국방문이 아니고 통과지점이였지만 곤명비행장은 환영일색으로 단장되여있었다.

비행장과 숙소사이의 연도에서 수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북과 징을 울리며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무개차에서 그들의 뜨거운 환영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빈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건강을 두고 걱정되는바가 많으시였다.

조국을 떠나오기 며칠전에 수령님께서는 몸이 편치 않으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외국방문을 미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였고 이 문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까지 상정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이쯤한 일에 굴복하여 할일을 미루어본적이 있었는가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동지 한사람을 얻기 위해서도 수백수천리길을 걸었는데 이만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겠는가고 하시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어이 먼길을 떠나게 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병세는 무개차를 타고 영빈관으로 오시는 과정에 다시 도지기 시작하였다.

숙소에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열로 하여 몹시 불편해하시였다.

의사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상태를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은 저으기 괴로우시였다.

그런데 이날 저녁 중국공산당 운남성위원회 서기처 제1서기와 운남성성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곤명시도착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중국측의 성의는 정말 뜨거웠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건강때문에 그 성의를 받아들일수 없는것이 못내 안타까우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외무성 부상(당시) 허담을 부르시여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곳을 공식방문하시는것이 아니라 통과차로 들리신것만큼 중국측에서 차리는 연회에 참가하시지 않아도 실례될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의례격식에 꼭 매달려야 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

모든 의례행사를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잘 보호하는데 복종시켜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연회에 참가하시지 못하신다는것을 중국측에 말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허담은 곧 중국동지들과 마주 앉았다. 그는 중국측의 고마운 성의를 받아들일수 없는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곤명시당의 책임일군은 여간 아쉬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도 이에 동의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허담은 천천히 대답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중국동지들의 고마운 성의를 마다하면 실례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결단을 내리였습니까?》

허담은 한동안 침묵하였다.

《수령님의 신변을 책임진 우리의 젊은 사령관의 결단입니다.》

그제서야 운남성책임일군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얼마전에 여기 곤명시에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들린적이 있었습니다. 의례격식에 따라 연회에 꼭 참가시켜달라는 우리의 청원을 받고 보좌성원들은 대통령을 안내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고열로 신고하고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간 괴롭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을 놓고보면 조선동지들은 정말 자기 수령을 보위하는데서 모범입니다.》

진심에 넘친 그의 말을 들으면서 허담은 의례행사를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에 복종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날의 결단은 외교관례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허담은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고계시는 장군님의 심혈을 다는 알지 못하였다.

영빈관으로 돌아오니 퍼그나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 계시는 침실에 불이 꺼진것으로 보아 분명 그이께서 미열로 자리에 누우신것이라고 생각하며 허담은 조용조용 응접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응접실의 안락의자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앉아계시였다.

그이께서는 허담에게 피곤하겠는데 어서 가서 자라고, 정 피곤하면 깨울터이니 그때 교대하자고 말씀하시였다.

허담이 자기가 응접실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말씀드리자 장군님

께서는 그의 등을 무작정 떠미시였다.

하는수없이 복도로 밀려나온 허담은 호실로 들어가 쏘파에 가볍게 몸을 기대였다.

응접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실 그이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간이였다.

문득 잠에서 깨여난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밤 2시였다.

허담은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조심조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다가가 살며시 문을 열었다.

초저녁에 앉아계시던 바로 그자리에 그대로 앉아 방금전에 수령님의 체온을 잰 체온기를 들여다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그를 보자 조용하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대시며 조심히 걸어 복도에 나오시였다.

그가 교대하러 왔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방금전에 교대하였다고 하시면서 가서 푹 자라고 또다시 허담의 등을 떠밀어주시였다.

하는수 없이 그는 호실로 돌아와 다시 쏘파에 몸을 맡기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잠들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의지의 힘으로 졸음을 쫓고계시였다.

방안을 거닐기라도 하면 다소 졸음을 몰아내실수도 있으련만 혹간 발자국소리라도 나면 모처럼 잠드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깨여나실가 걱정되시여 그대로 쏘파에 앉아계시였던것이다.

삼라만상이 잠든 야밤삼경에 무겁게 실린 피로를 쫓아내면서 안락의자에 앉아 밤을 새운다는것은 사실 헐한 일이 아니였다.

어느덧 새벽 3시반이 되였다.

소스라쳐 잠에서 깨여난 허담은 황급히 응접실로 갔다.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길에 새벽잠을 모르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벌써 의사의 진찰을 받고계시였다.

그리고 장군님께서는 응접실에서 그 진찰결과를 기다리고계시였다.

허담은 간밤에도 홀로 지새우며 보내신 그이앞에 차마 얼굴을 들고나서기가 면구스러웠다.

고개를 숙인채 응접탁을 바라보던 허담은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많은 량의 커피가 들어있던 커피통의 밑창이 드러나보이였다.

그이께서 졸음을 쫓기 위하여 커피를 마신것이 틀림없었다.

커피통을 제때에 치우지 않아 간밤의 일이 로출되였다는것을 간파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일을 비밀에 붙이라고 당부하시며 커피통을 치우시였다.

이때 의사가 침실에서 나와 장군님께 어버이수령님께서 간밤에 열이 많이 내리시기는 하였지만 아직 수령님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응접실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열이 내리니 온몸이 거뜬하다고 하시며 가볍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 불편하신 몸으로 당장 떠나시지 말고 여기서 하루이틀 더 치료하고 회복되신 다음에 천천히 떠나시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정중히 말씀을 올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좀 괴로와도 가야지 그 나라에서는 행사일정을 다 짜놓고 모든것을 다 맞물려놓았겠는데 안가면 어떻게 하겠소. 병이 더하기야 하겠소. 의지가 강하면 병도 머리를 숙이는 법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였다.

하루만 더 있다가 떠나시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전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이 상태로 떠나시면 정말 저희들은 마음을 놓을수가 없습니다.

《나도 동무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나도 치료하고 떠나면 몸이 덜 괴로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것도 뒤로 미루고 떠났는데 이렇게

도중에서 지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령님,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더 말을 잇지 못하시였다.

《지금은 나의 몸에 열이 좀 있지만 기온이 높은 열대지방인 쟈까르따에 가서 땀을 흠뻑 흘리면 열이 내리고 병이 뚝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병이 나면 약을 써야 하지만 명약중의 명약은 강한 의지입니다. 나는 견디여낼테니 우리모두 웃으면서 외국방문일정대로 길을 떠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적과의 대결만이 아니라 혁명앞에 가로놓인 온갖 시련과 난관, 슬픔과 괴로움, 피로와 아픔, 병마까지도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꿋꿋이 이겨내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일군들은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눈시울을 적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결심대로 일행은 어차피 떠날수밖에 없었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수륙만리의 먼 항로를 따라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하늘길은 변덕스러운 열대지방의 기류를 뚫고나가야 하는 험한 길이였을뿐아니라 제국주의세력과 군사동맹을 맺고있는 나라의 상공도 통과해야 하는 순탄치 않은 비행길이였다.

모두 떠날 차비를 하고 응접실을 나설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허담을 부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어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경애하는 장군님의 얼굴색이 창백한가고 물으시였다.

허담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간밤에 있은 일을 그대로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다 듣고나시여 떠날 차비를 서두르시는 장군님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난밤에 나의 몸에서 열이 많이 난것 같습니다. **김정일**동무가 나의 건강이 념려되여 밤을 새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

고있었습니다. 그의 지성에 감동됩니다. 그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백날밤이라도 새울것이며 모든것을 다할것입니다.》

그런데 어이된 일인가.

비행기가 인도네시아령공에 들어섰을 때 수령님을 그처럼 괴롭히던 고열은 씻은듯이 사라져버리였다.

이때의 일을 두고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번이나 추억깊이 회고하시였다.

주체78(1989)년 11월 중국방문의 나날 베이징 낚시터국빈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곤명에서 있었던 일을 감회깊이 되새기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를 만나본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매우 건강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할수 있은것은 **김정일**조직비서의 남달리 뜨거운 마음과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나의 건강에 대하여 제일 관심하는 사람은 **김정일**조직비서입니다. 그는 나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사람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생애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일들이 무수히 많으시련만 수령님께서 이때의 일을 자주 회고하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천만사람의 정성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같은 지성이 눈물겨웁도록 헌신적이고 세심하였기때문이였다.

적도의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태평양서부에 자리잡고있는 인도지나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은 그 나라 말로 섬이 많은 인디아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여기서 네시아라는 말은 많은 섬이라는 뜻이였다. 원주민들은 누산타라라로 불렀는데 1945년 8월 나라가 독립된 후 정식 인도네시아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는 태평양서부와 인디아양사이의 적도지방에 구슬띠처럼 놓여있어 적도의 구슬띠로 불리우고있다.

그중에서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천여개뿐이다.

이 많은 섬들을 인도네시아사람들은 바다의 별이라고 자랑하고있다.

가장 큰 섬은 쑤마뜨라섬, 쟈와섬, 깔리만딴섬, 쑬라웨씨섬 그리고 서부지역이 이 나라 령토로 되고있는 뉴기니아섬 등이다.

수도 쟈까르따가 있는 쟈와섬의 면적은 국토의 7%를 차지하지만 나라의 정치적중심지로서 인구의 약 70%가 여기에 집중되여있었다.

쟈와섬은 토착민들의 말로 열대지방의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곡물의 섬이라는 뜻에서 유래된것이라고 한다.

수도 쟈까르따라는 이름에는 영광의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져있는데 이것은 16세기 20년대 말엽에 쟈와섬원주민들이 이곳에 침입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격퇴한것을 기념하여 지은것이였다.

그전에는 네데를란드식민주의자들이 침략하여 도시이름을 제나라 지명으로 비따비아라고 불렀다.

쟈와섬 다음에 중요한 지대는 대양의 섬이라는 뜻을 가진 쑤마뜨라섬이다.

가장 높은 산은 쟈와산인데 그 높이는 5 000m를 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운데로는 적도선이 가로질러 지나가고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해양성기후이다. 나라의 어느곳에서나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은 대체로 25～30℃인데 때로는 40℃를 넘고있다.

년중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정오가 되면 해가 너무 내리쬐여 맨머리로 나다니기가 어려워진다. 낮에는 한쪼각의 구름도 얼마나 그

리운지 모른다. 나무잎새 하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깃들 때면 숨이 막혀 호흡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때면 길가에는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보기 힘들다. 뜨거운 공기와 함께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생길 때 마침내 해가 가리워진다.

이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먼곳에서부터 우뢰소리가 들리면서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번개가 번쩍이고 소낙비가 쏟아질 때면 나무가지들이 부러져나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 소나기를 인도네시아사람들은 옛날부터 스코르라고 불렀다.

아침에 해가 뜰 때면 하늘에 구름한점 없다가도 해가 높이 뜨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점차 무더위가 용을 쓰기 시작한다.

스코르는 거의 매일 오후에 한시간정도 강하게 내린다. 비가 멎으면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 자유롭게 움직인다. 스코르가 찌물쿠는 더위에 얼마간 길들여진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열대림이 무성한 나라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벼를 많이 심으며 2모작을 하고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키니네, 후추, 천연고무, 커피, 야자, 차, 사탕수수등의 열대지방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키니네, 후추, 천연고무생산량은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있다. 최대의 천연가스, 원유수출국으로 되여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의 아침으로 불리우는 발리섬은 그 경치가 아름답고 력사유적이 많으며 주민들의 독특한 민속풍습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지로 되고있다. 그리고 쟈와섬에 있는 유명한 고적들인 보로부두르불교유적이나 힌두교의 시바사원은 10세기 이전에 벌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이 적도의 섬나라에 그렇게도 존경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된다는 기쁨으로 어느새 날이 가는지 알수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쟈까르따에 도착하시기 전날 수카르노는

대통령궁전 의례국장을 불렀다.

《대통령각하, 찾았습니까?》

《음, 오늘 여러번 불러 안됐습니다. 거기 좀 앉으시오. 또 토론하고싶은 문제가 있구만.》

《무슨 문제입니까?》

국장은 수카르노의 얼굴표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기분상태는 어둡지 않았다.

《의례국장, **김일성**각하께서 비행장에 도착하실 때 말입니다. 그이께 누가 꽃다발을 드리게 되여있습니까? 재확인하고싶어 찾았습니다.》

《예, 메가와띠가 드리는것으로 예견하고있습니다.》

메가와띠는 수카르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였다.

《대통령각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의례국장은 대통령이 의견을 가지고있지나 않겠는가 하여 주동적으로 설명을 더해올리였다.

《대통령각하, **김일성**각하와 대통령각하의 사이는 전우의 관계일뿐아니라 벗의 관계이라는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일성**각하를 국빈으로뿐아니라 가문에서도 친척처럼 정답게 맞아들일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고려하는 측면에서 메가와띠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도 아마 다른 의견이 없을줄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수카르노는 《좋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응당 **김일성**각하께 내 딸이 직접 꽃다발을 드리게 하는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오. 참 의례국장이 생각을 잘하였소.

이번에 **김일성**각하를 맞이하는 사업은 나라의 대사일뿐아니라 형제적친분관계를 두터이하는 우리 가정의 전대미문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메가와띠의 어머니에게 쟈까르따에서 비행장행사가 끝나면 곧 반둥에 내려가 영접준비에서 이상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라고 그의 제의를 지지해주었다.

의례국장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대통령각하, 그래서 다른 연회행사때에도 **김일성**각하앞에서 메가와띠가 민속춤을 추어올리도록 공연종목을 짰습니다.》

수카르노는 못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주체54(1965)년 4월 10일 오후 1시 10분경,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특별비행기는 국경령공으로부터 화살표형태로 편성된 열한대의 인도네시아공군제트기 모범대대의 호위를 받으며 께마요란비행장에 착륙하였다.

뜨거운 해볕이 불소나기를 내리붓는듯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쟈까르따는 명절분위기로 끓어번지였다.

이날 수도 쟈까르따는 휴식일로 선포되였다.

이러한 사변은 인도네시아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였다.

거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 만세!》, 《**김일성**각하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구호들이 나붙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수카르노대통령의 대형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그리고 거리에는 환영문이 세워지고 두 나라 국기가 바람에 나붓기고있었다.

조선과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천리마와 황소의 드센 발굽아래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쇠사슬이 끊어져나가는것을 보여주는 직관물들이 곳곳에 세워져있는가 하면 쟈까르따의 라지오와 TV는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특별방송을 련속 방영하였다.

라지오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퍼져 시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과 함께 략력을 제1면에 정중히 실었으며 그이의 인도네시아방문을 환영하는 기사를 특집하였다.

벌써 며칠전부터 수령님의 인도네시아방문을 환영하여 쟈까르따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였다.

시민들은 아침일찍부터 명절옷차림을 하고 활기에 넘쳐 비행장과 거리에 떨쳐나섰다.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의 고위관리들,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과학, 예술, 문화계인사들과 륙해공군 및 경찰사령관들의 영접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굳게 포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함께 연설을 교환하시였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서 **김일성**각하의 인도네시아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나는 오래전에 존경하는 **김일성**수상각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것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상각하께서 작년 8월 17일 건국절행사때 우리 나라에 오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수상각하께서는 사정이 허락치 않아 오시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어깨겯고 싸워나가는 전우이며 새 생활창조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나아가는 형제라고 하시였다.

연설을 마치신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열대에 오르시여 륙해공군 및 경찰 4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이때 수카르노대통령은 부관한테서 양산을 받아 펼쳐쥐고 수령님가까이에 서서 열대의 폭양을 막아드리였다.

인도네시아재정상은 수카르노대통령이 이토록 선의를 표시하고 있는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지난해에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가슴깊이 간직한 수카르노대통령은 인도네시아땅에서 다시 그이를 만나뵈옵게 된 크나큰 기쁨과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었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

별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전후 폐허우에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하시여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을 세상에 빛내주시는 위대한분을 친선의 사절, 친근한 벗으로 맞이한 인도네시아인민의 기쁨은 이를데 없었다.

4월 10일 오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을 의례방문하시고 그와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이날 저녁 수카르노대통령은 독립궁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인도네시아의 최고훈장인 인도네시아공화국훈장 제1급을 수여해드리였다.

훈장을 수여해드리면서 수카르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하께서는 인도네시아인민들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벗이며 나의 벗입니다. 각하께서는 인도네시아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심으로써 우리를 크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이 나라의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민의 투쟁에 직접적인 도움으로 됩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의 감사의 정의 표시로 이 훈장을 받아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하시였다.

훈장수여식이 끝난 후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쟈까르따의 국가궁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에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나는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아주 많은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조선은 우리 나라보다 인구가 적으나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으며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전인류를 경탄케 하는 거대한 건설성과들을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적고 기후조건이 불리할뿐아니라 땅도 비옥하지 못하지만 인민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에 대한 수요를 원

만히 충족시키고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조선에 비하여 인구도 수배나 많고 땅도 비옥하고 기후조건도 훨씬 좋지만 쌀을 수입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천도 충분히 생산하고있습니다.

나무나 돌에서 천을 짜서 수요를 충족시키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그러한 나무나 돌이 많은데 천을 수입하고있습니다.

조선에 갔을 때 나는 조선소년단원들이 어떻게 학습하며 생활하고 있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의 리상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은 벗이며 전우입니다.

두 나라 인민은 반제투쟁에서뿐아니라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에서도 전우입니다.

김일성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이나 나의 조선방문은 매우 유익한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는 **김일성**각하께서 우리 나라에 오래 머무르시지 못하는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될수만 있으면 좀더 오래 머물러주셨으면 한다고 절절히 말씀드리였다.

연회에서는 인도네시아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에서 예술인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조선말로 훌륭히 불러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쟈까르따의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대소에 도착하실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계실 방을 먼저 돌아보시고 곧

전망로대에 오르시였다.

참대로 엮은 팔걸이의자앞에는 탁상이 있었다.

그우에는 관망경이 놓여있었다. 로대는 서서도 앉아서도 시내를 한눈에 관망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가볍게 얹으시고 관망경으로 쟈까르따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열대지방도시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야자수와 고무나무들이 가로수를 이루거나 건물들을 둘러싸고있었고 종교의식장인 교회탑들이 군데군데 우뚝 솟아있었다. 그것 역시 이슬람교와 불교, 그리스도교를 숭배하는 남방의 나라들에서 어슷비슷하게 느낄수 있는 특유의 풍경이였다.

관망경에 비끼는 도시의 이 풍경은 퍼그나 인상적이였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의 하나인 쟈까르따는 옛 거리와 새 거리 그리고 항구구역으로 나뉘여져있는데 새 거리의 중심부에는 독립광장이, 그 주변에 정부청사들과 교육, 문화기관, 력사유적들이 있었다. 독립광장가운데는 137m의 높이를 가진 독립기념탑이 웅건하게 솟아있었다. 탑의 서쪽과 북쪽은 꽃과 록음이 우거진 공원으로 되여있고 탑입구가 있는 북쪽공원에는 수십개의 분수가 못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었으며 탑꼭대기에는 순금으로 만든 불꽃조각품이 있었다.

대통령궁전은 이슬람교사원과 함께 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도시의 남쪽으로는 산발이 주마등처럼 쭉 뻗어갔다.

눈가에서 관망경을 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손을 높이 드시고 교외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시며 허담에게 말씀하시였다.

래일 수령님께서 반둥으로 가실 길이 저 길인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허담은 그이께서 로대로 나오신것이 단순히 쟈까르따시내를 부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실 로정을 수원들에게 알려주어 수령님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관

심을 돌리도록 깨우쳐주시려는 의도에서였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낄수 있었다.

날새도 깃을 펴기 숨가빠하고 그늘에 닭알을 묻어도 익어간다는 열대의 폭양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이께서는 이제 수령님께서 가시게 될 길들과 뜻깊은 행사장들인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청사며 붕카르노경기장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시였다.

허담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허담에게는 의문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에 몇번 와본 전문외교일군들도 그렇듯 속속들이 알수 없는 도시의 구조를 이곳에 처음 오시는 그이께서 어찌면 그리도 손금보듯 아실가 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후에 그이께서 조국을 떠나시기 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인도네시아방문을 원만히 보좌하시기 위하여 그 준비사업의 첫 공정으로 쟈까르따에 대한 료해를 구체적으로 하시였다는것을 알고서야 제나름의 의문을 풀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상한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지고계신다는것은 일군들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있는 사실이였다.

주체48(1959)년 쏘련공산당 제21차대회가 진행될 때 쏘련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 레닌그라드에 들리신 일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네바강반에 있는 《아스트라》호텔에 숙소를 정하시였는데 그때 로대에서 시내를 부감하시고는 거리가 몇갈래로 뻗어나갔고 어디에 어떤 건물이 솟아있다는것과 또 호텔옆 공원입구에는 동상이 서있고 그너머로는 원형지붕을 가진 극장이 있다는것 등 레닌그라드거리의 전경을 죄다 기억하고계시였다.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비상한 관찰력과 기억력으로 쟈까르따시내를 속속들이 료해하고계신다고 생각하니 허담은 방해라도 될가싶어 몇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하늘에 오래 남는다는 적도의 노을도 점차 멀어져 어느덧 어둠이 거대한 공간을 메웠다.

찌물쿠는 남방에서의 첫 밤은 고요히 깊어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래일 반둥으로 갈 비행기탑승안도 짜시고 승용차행렬안도 작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밖에 나오시여 부드러운 밤의 정적속에서 시내의 야경을 부감하시였다.

마치도 불야성을 이룬 쟈까르따 도시전체가 어둠을 박차고 하늘에 치달아오르는듯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몸을 놀리신 후 다시 방안에 들어가시여 집무탁을 마주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도를 펼치고 빨간색연필로 반둥에 동그라미를 그으시였다.

반둥으로 말하면 시거왕기사단이 있고 수카르노에게 이모저모 압력을 가해보려는 우익계층의 흑색두뇌진이 자리잡고있는 중심적인 곳이였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측에서는 비행기편과 자동차편을 다 준비하고있었는데 둘중에 어느편으로 가는것이 더 좋겠는가를 우리측에 문의하여왔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서뿔리 결론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먼저 반둥으로 가는 길을 밟아보기로 결심하시였다.

다음날인 4월 11일, 간밤에도 잠간 눈을 붙이시였던 그이께서는 사위가 아직 고요에 잠긴 때에 벌써 밖에 나와계시였다.

쟈까르따에서 맞으시는 첫아침이였다.

별들은 차츰 줄어들고 하늘이 높아지더니 신비로운 려명은 온 누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나무그림자들은 희미해지고 누기 찬 정원의 수림속에서는 메새들이 노래가락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쪽하늘은 망망한 어둠속에서 아직 채 깨여나지 못하여서인지 바다처럼 검푸른 빛을 띠고있었다.

숙소 앞마당의 작은 호수는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며 고요히 설레이는데 휘늘어진 버들가지들이 물속에서 미역을 감고있었다.

대자연의 소산인 새 아침은 우아하면서도 장엄한 기분을 안겨주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둥쪽으로 떠나시였다.

인도네시아 고위인사들과 우리측 수원들이 그이와 동행하였다.

허담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흥분으로 부풀어올랐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위한 길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차창밖으로 줄곧 눈길을 던지시는 그이의 안색에는 피로가 질게 어려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만을 바라시는 고결한 마음이 비낀 그이의 안광은 별처럼 빛나고있었다.

푸른 하늘에는 방금 딴 목화송이를 련상케 하는 구름장들이 널려있는가 하면 어떤것들은 불그스레 홍조되여있는것도 있었다.

해빛이 뜨거워서인지 날씨는 류달리 잠풍하였다.

억만줄기 찬란한 해살을 뿌리며 태양이 완연하게 대지에 얼굴을 드러내자 붉게 타는 아침노을에 물들어 금시 녹아서 떨어질것만 같은 자주빛 구름장들이 동녘의 찬란한 서광과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이런 신묘하고 아름다운 색채는 수시로 변하여 도무지 그 색조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흰구름사이로 남빛 심연이 서서히 열리고 태양이 얼굴을 내밀고 대지를 굽어볼 때면 만물이 하나같이 세차게 움씰거리는듯 하였다.

파릇파릇 물이 오르는 춘파작물들이 길량옆으로 흘러가버리는 속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도로의 안전상태와 주변의 지형지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계시였다.

그이께 허담은 차안에서 순간이라도 휴식하실것을 말씀올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는 일이라면 천리라도 가보아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시는 길을 먼저 밟아보는것은 우리 전사들의 초보적인 도리이고 임무입니다. 우리모두는 너나없이 수령님의 호위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안녕은 곧 우리 인민의 안녕이고 우리 당의 안녕이며 우리 조선의 안녕입니다.

그이의 이 말씀은 수행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동차편은 안심되지 않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카르노대통령의 전용비행기편으로 반둥에 가시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는 곧 인도네시아측에 전달되였다.

수카르노의 의례담당 보좌관들과 호위성원들은 이른새벽에 일사천리로 직접 현지를 밟아보시고 자신의 결심을 내놓으시는분이 과연 누구이며 무슨 직무를 맡아보시는가를 극성스럽게 물었다.

인도네시아에 오는 도중 중국의 곤명에서 받았던 딱한 질문그대로였다.

허담은 심중의 생각을 터놓고싶었지만 그이께서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고 물어볼수도 있겠는데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 따져물으면 수령님의 호위사업을 방조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해주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그저 우리의 젊은 사령관이시라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들앞에 소개하는수밖에 없었다.

쟈까르따에서 반둥으로 가는 로상에서 수카르노의 보좌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행사조직을 두고 만점이라고 여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쟈까르따로부터 반둥까지는 500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둥에 도착하시기에 앞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반둥비행장을 돌아보시였다.

이것을 보고 수카르노의 호위부장은 허담에게 《당신네 〈젊은 사령관〉은 땅을 주름잡아 다니신다.》고 탄성을 터쳤다.

만점짜리 행사를 조직하고계시는 《젊은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는 곧 수카르노에게 보고되였다.

《인도네시아 속담에 〈명장의 슬하에서 명장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각하는 하늘이 낸 위인이시오. 그 슬하에 있는 〈젊은 사령관〉도 분명 위인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수카르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조선의 〈젊은 사령관〉처럼 **김일성**각하의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일렀다.

4월 11일,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는 서부쟈와섬의 소재지인 반둥시는 환영일색으로 장식되여있었다.

반둥시는 수도 쟈까르따에서 동남쪽으로 18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다.

해발고가 700m 되는 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현대적인 아빠트들과 고색창연한 절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것이 한눈에 안겨왔다.

도시는 수려한 록음속에 잠기고 네거리들에는 화단들이 특색있게 조성되여 하나의 꽃밭을 련상시키였다.

거리거리에는 두 나라 기발과 오색기들이 나붓기였다.

반둥의 날씨는 여전히 맑게 개이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비행기에서 내리였다.

서부쟈와성장, 반둥시장, 주둔군 지휘성원 그리고 수카르노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 내려간 대통령의 부인이 비행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비행장에서 환영의식이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함께 무개차에 오르시여 성청사로 향하시였다.

적도의 폭양아래 남방특유의 가로수들이 짙은 그늘을 던지고있는 연도에 겹겹히 늘어선 수십만군중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시민들은 《**김일성**각하 만세!》, 《조선 만세!》를 조선말로 웨치였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자주,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 반둥회의 10돐을 앞두고 반제투쟁의 공동전선에 확고히 서있는 미더운 조선의 귀빈을 반둥에 모시게 된 시민들의 기쁨은 그 어디에 비길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도네시아체류기간 이 나라 외교력사에서 그 어느 나라 수반도 받아보지 못한 특혜와 특전을 받으시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인도네시아림시인민협상회의에 초청하였다.

인민협상회의란 인도네시아의 국회와 같은것이였다.

초청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야 손님에 불과한데 무슨 명분으로 귀국의 내정을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겠는가고 하시였다.

이때 수카르노대통령은 펄쩍 뛰며 이번 협상회의는 수상각하의 방문날자를 맞추어 조직한 회의인데 주인공이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방청으로 참가하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수령님께서는 이 회의에 귀빈으로 참석하시게 되였다.

회의에는 수카르노대통령을 비롯하여 림시인민협상회의 의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많은 국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주재 각국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카르노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서

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박수로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별히 마련된 좌석에 대통령과 함께 앉으시였다.

림시인민협상회의 의장은 회의를 선언하면서 다른 나라 국가수반이 인도네시아림시인민협상회의에 참가한것은 력사적으로 **김일성**각하께서 처음이라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친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이어 수카르노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였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력갱생, 자립경제의 기치밑에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하여 선언하는 방향전환의 연설을 하였다.

대통령은 《 이 자리에 유명한 자력갱생의 창시자이시며 자립경제건설의 대담하고 성공적인 실천가이신 존경하는 **김일성**수상각하께서 앉아계십니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순간 장내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울리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연설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현단계투쟁을 개괄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이 가지는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인 1947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고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라고 하시였다고, **김일성**각하의 정확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여놓았기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어떤 외부세력에도 예속되여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수카르노는 계속하여 인도네시아도 조선의 경험을 본받아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것을 호소하면서 **김일성**각하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신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허담은 어이하여 수카르노대통령이 이 회의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무궁한 번영의 길로 이끄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였다.

허담에게는 하많은 력사의 기록중에서 특별히 여운을 새기며 머리속에 잊혀지지 않는것이 있었다.

대일전쟁이 일어나기 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쥬다노브를 만나신적이 있었다.

당시 쥬다노브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겸 비서의 직무를 맡고있었다.

쥬다노브는 젊음과 활기에 넘치신 위대한 수령님을 한참이나 우러러보다가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김일성**동지, 한가지 물어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해방한후 몇년동안이면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해방하는것도 힘든 문제이지만 건국투쟁도 역시 간고한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도록 침묵하고계시다가 2～3년간이면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확신에 넘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서 쥬다노브는 전혀 뜻밖이라는듯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것은 얄따회담에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가 거만스럽게 신탁통치를 들고나오면서 조선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것이라고 떠벌이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은 나라의 해방을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국가건설을 해나갈수 있는 견실한 지도핵심과 광범한 애국력량이 준비되였고 풍부한 투쟁경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능숙한 조직력과 강력한 동원력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쥬다노브는 저으기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 해방이 되면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쏘련이 어떤 형태의 지원과 성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다시 질문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이 도이췰란드와 여러해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앞으로 또 일본과도 큰 전쟁을 치르어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주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존재해왔다, 새 조선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해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쏘련의 정치적지지이다, 쏘련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적극 지지해주고 조선문제가 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쥬다노브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탄복을 금치 못하면서 얼마전에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 정객이 자기를 찾아와 자기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뒤떨어진데다가 전쟁피해가 막심하여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쏘련이 큰 집이 된셈치고 도와줄것을 부탁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인가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자력갱생은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정신이고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인민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언제나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시련의 언덕과 가시덤불길을 넘고넘으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왔다.

자력갱생, 간고분투함으로써 조선인민은 포악무도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았으며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웠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던 어느날 뜻하지 않게 한 수행촬영가가 갑자기 몸이 불편한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한시도 촬영을 중단할수 없었다. 조국으로부터 수천수만리 떨어진 외국땅에서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화면에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각이 그에게 끝없는 열정과 힘을 안겨주었던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병적증상을 가늠하고계시였다. 그의 몸이 심상치 않다는것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즉시 의사를 부르시여 긴급대책을 취하시였다.

그의 병은 열대지방에서 간혹 걸리게 되는 급성질환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근심어린 안색으로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시였다.

치료를 마친 의사는 숨막히는 열풍과 고온환경에서 갑자기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제때에 대책을 세웠으니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큰일날번 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없이 안도의 숨을 쉬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건강해야 수령님께서 마음을 놓으실수 있고 수령님의 인도네시아방문로정을 빠짐없이 영화문헌에 수록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촬영가들의 건강에 대하여 각별하게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다심한 사랑이 있어 촬영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외활동과정을 력사적화폭으로 훌륭히 수록할수 있었다.

《 열대수림속의 미인 》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대통령의 환대는 더없이 뜨겁고 각별하였다.

수카르노는 수령님을 높이 존경하면서 그이께서 지방참관을 하실 때마다 동행하고 수령님의 호위사업에도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4월 12일 반둥시를 떠나실 때였다.

보고르로 가는 길에서도 수카르노대통령은 여전히 수령님과 동행하였다.

이날 아침 호위부장은 수카르노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대통령각하, 조선의 〈젊은 사령관〉께서 척후병이 되여 선발차로 먼저 떠나려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일성**각하의 신변호위사업에 내가 관심을 더 돌리겠습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반둥으로부터 보고르로 가는 400여리 로상에 전례없이 많은 경찰들을 배치하고 특별경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어느새 자동차대렬은 시내를 벗어나 높은 산과 계곡이 련련히 잇닿은 산악지대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하늘을 찌를듯 곧추 뻗어 올라간 시원한 줄기에 열매가 주렁진 코코아나무며 큰잎사귀들이 부채살같이 사방으로 펼쳐진 만보루나무들은 고원의 미풍과 속삭이는듯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못 고요하기만 하였다.

자동차가 쉬임없이 달리는 연도의 도시와 마을들에서는 명절옷차림을 하고 두 나라 기발을 든 시민들과 청년학생들, 귀여운 어린이들이 길 량옆에 두겹세겹 줄지어 위대한 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찌바나스궁전에 이르렀을 때였다.

《각하께서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수령님께 수카르노가 정중히 말씀드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산천경개를 바라보며 오다나니 피곤을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에서 잠시 휴식하시였다.

아름다운 민족의상을 입은 처녀들이 경쾌한 주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였다.

거리들에서는 민속풍의 무도회가 진행되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잡고 허물없이 춤판에 섞이기까지 하였다.

뿐짝지구에 들어설 때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멀리서부터 깊은 골짜기에까지 조선말로 메아리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르에 도착하시기 전에 리웅구눙에 들리시여 서부쟈와의 릉선을 타고 펼쳐진 평원지대를 부감하시였다.

이곳은 15세기말부터 유럽식민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땅에 기여들었을 때 용감한 쟈와섬의 원주민들이 창과 활, 몽둥이를 들고 침략자들을 물리친 력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팔을 허리에 얹으시고 아아한 산발앞에 펼쳐진 평원지대를 조용히 바라보시였다.

적도를 안고도는 태양이 머리우에 높이 걸린채 파란 풀들을 뜨거운 열로 말리우고있었다.

공기마저 말라붙은듯 나무가지에서는 잎새의 설레임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종달새는 맑은 목소리로 하늘중천에서 자유로이 노래부르고 흰구름 같은 양떼들은 서서히 무연한 둔덕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있었다.

얼마후 자동차대렬은 뿐짝을 떠났다.

드디여 보고르시내가 멀리서부터 서서히 안겨왔다.

보고르는 쟈까르따에서 남쪽으로 100여리 떨어진 쟈와섬의 서부에 있는 도시이다. 여기는 살라끄화산과 게데화산의 옛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돌박산지대였다.

년중에 320여일간은 우뢰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에서

는 보고르를 우뢰의 도시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문하시였을 때에는 단 한번의 우뢰소리도 없었다.

이곳 사람들은 하늘도 위인을 알아본다고 못내 기뻐하였다.

거리의 곳곳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고 환영프랑카드들이 펼쳐져있었다. 그리고 두 나라 국기가 고느적한 남방의 바람에 나붓기고있었다.

이쪽에서 처녀들이 춤을 추는가 하면 저쪽에서는 사자의 탈을 쓴 남성가무대렬이 흥에 겨워 돌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보고르궁전에 이르시였다.

궁전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먼 려정을 오신 수령님께서 잠시나마 피곤을 푸시기를 바라며 그이를 이곳에 모시였다.

수카르노는 이때까지 그 어느 나라 수반이 와도 이 궁전에 안내한 일이 없었다.

어느새 석양은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노을로 채색된 저녁하늘은 무성의 음악을 연주하는듯싶었다.

황혼이 깃들자 짙어가는 어둠은 밤의 장막과 벗이 되여 은회색으로 변하고 그것도 차츰 색이 바래지면서 고요한 땅거미를 야릇하게 불러왔다.

이날 저녁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만찬을 베풀었다.

대통령은 만찬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김일성**각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예술인들과 이 나라 방문중인 우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이 진행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연전에 문화성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요사이 수령님께서 섭씨 4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시여 쉬임없이 대외사업을 하시고 저녁에는 주무시지 못하고 가르치심을 받으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느라 몹시 피로하셨다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대외활동으로 겹쌓인 피로도 푸실새 없으신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된다고 하시며 만찬회의 한 순간만이라도 피곤을 푸시게 예술인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게 하자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기 며칠전 일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평양대극장에 나오시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할 인도네시아방문예술단공연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화성의 한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수령님을 모시고 가는 예술단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가는 예술단은 종전에 나라들사이의 문화협정에 따라 외국에 순회공연을 가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예술단의 매개 성원들은 수령님의 안녕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다같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일군은 이번 공연이 다른 때 외국방문공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예술단성원들이 공연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는 친위전사의 임무를 다같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언제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먼저 놓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어 이날 만찬회에서 우리 예술인들은 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4월 13일,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인도네시아의 꽃밭으로 불리우는 보고르식물원으로 안내해드리였다.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 식물원은 수려한 밀림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보고르식물원은 1817년에 창설되였다.

해마다 확장되여 그 면적이 백수십정보로 늘어난 식물원은 드넓은 야외재배장과 대형온실로 이루어져있었다.

야외식물원에서는 1만여종의 열대식물이 자라고 온실에서는 2천여종에 수만그루의 품종이 재배되고있었다.

이 식물원은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열대식물원들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꼽히는 식물원이였다.

식물표본만 하여도 75만여점에 달하였다.

식물원의 중심에 있는 련못에는 비가 올 때 그 잎을 하나만 뜯어 써도 처녀총각이 큰 우산을 쓴것과 같다고 하는 오니바스라는 식물의 넓은 잎사귀들이 물면에 띄워져있었다.

식물원의 넓은 공지에서는 해종일 수많은 사슴들이 뛰놀고있었다.

식물원은 그윽한 향기를 뿜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식물원원장 수잔나 까싼은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나서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존경하는 각하의 보고르식물원방문은 백수십년의 력사를 가진 우리 식물원에서 처음으로 되는 최상최대의 경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식물원의 학자들과 로동자들은 모두 일손을 멈추고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수카르노가 우리 수령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흠모하였는가 하는것은 보고르식물원을 참관할 때 더욱 깊이 느끼였습니다. 보고르식물원은 력사가 오래고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난 식물원인데 볼만 하였습니다. 식물원에는 란과계통의 꽃들과 선인장류를 비롯하여 열대지방의 희귀한 꽃들이 피여있어 마치 세계화초박람회를 참관하는듯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이 직접 짠 로정에 따라 야외수목원을 먼저 돌아보시였다.

이어 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식물원중심에 자리잡고있는 온실로 안내해드리였다.

온실에서는 향기로운 꽃나무인 오르기쯔며 200여종의 바나나나무들 그리고 진귀한 모양을 가진 갖가지 종류의 선인장 등 수많은 열대식물들이 자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실에서 서로 다른 지방의 오르기쯔를 교잡하여 새로운 종류의 품종을 만들어내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온실에서는 가지각색 수많은 꽃들중에서도 이 나라 사람들이 각별히 사랑하고있는 여러가지 란꽃들이 저저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있었다.

줄기를 비틀며 뻗어오른것이 있는가 하면 붓대처럼 곧게 자란것도 있었다. 마치 화초박람회를 방불케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꽃들을 돌아보시다가 류달리 아름다운 란꽃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잎새에 연지를 바른듯한 그 란초꽃은 미묘한 향기를 풍기며 유정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꽃은 진분홍보라색이였고 큰것은 7～8㎝정도였다. 잎은 버들잎새모양이였다.

세상에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이름도 없는 이 꽃을 수카르노대

통령은 이미전부터 잘 키우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대통령의 심중에는 이 이름없는 꽃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고싶은 생각이 조용히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꽃잎의 색갈이며 모양새가 비길데없이 아름답고 고상한데다가 연하면서도 억세게 마디지여 푸르러 시원하고 탄탄한 줄기 또한 매력이 있어 수령님께서는 꽃잎을 주의깊게 눈여겨보시고 친히 향기도 맡아보시였다.

수령님께 식물원원장이 간단명료하게 꽃에 대하여 해설해드리였다.

《존경하는 **김일성**각하, 이 꽃은 식물원의 이름있는 식물학자가 오래동안의 고심어린 탐구끝에 키워낸 란과계통의 꽃입니다.

한번 피면 두석달동안 지지 않고 계속 피여있는 특이한 꽃입니다.》

아름다운 봄나비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듯한 모양, 기묘하게 이루어진 꽃의 구조와 그것의 매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하게 균형을 잡은 째임새, 진분홍보라색의 선명하고 단아한 색갈 등 보면볼수록 우아하면서도 진귀한 감을 자아내는 꽃이였다.

대통령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모처럼 먼길을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상에 태여나 첫 개화기를 맞는 이 꽃을 보시며 한순간만이라도 피곤을 푸실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란꽃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꽃이 아름답고 향기도 좋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대통령에게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고 이 꽃의 육종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 꽃은 한생을 꽃육종에 바쳐온 인도네시아의 이름있는 식물학자 씨.엘 분트가 오랜 세월 온갖 심혈을 바쳐 새롭게 육종해낸 아름다운 꽃이라는것을 수카르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꽃을 피우되 반드시 영웅의 나라, 천리마의 나라 조선에서 위대하신

귀빈께서 오시는 때에 만발하게 하자는것이 이미전부터 품어온 대통령의 소망이였고 보고르식물원의 일군들과 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의 발기대로 원장과 학자들은 이 꽃을 우리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오시는 때를 맞추어 피우는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대통령은 수시로 꽃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드디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쟈까르따에 오시는 때를 같이하여 꽃은 아름답게 피여났다.

식물원의 학자들과 직원들은《열대수림속의 미인》이라고 환성을 올리였다. 이것은 결코 그들의 순간적인 흥분이나 즉흥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기있게 만발하는 란초꽃을 보며 기뻐하시자 수카르노대통령은 분명 이때라고 생각하였던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심사숙고하며 토론하고 결심해온 문제를 그이께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존경하는 **김일성**수상님, 수상님의 사상은 위대하여 세계를 움직이시기에 수상님은 온 세계를 가지고계시는것이나 같습니다. 수상님이시야말로 자주시대를 밝히는 태양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수상님의 존함을 모셔 **김일성**화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경륜이 고상하면 자랑하고싶고 업적이 크면 만대에 노래하고싶은것이 인간의 참다운 심정이다.

식물원원장도 대통령의 발기를 지지하여 이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하도록 해주시였으면 하는 자기의 절절한 소망을 표시하였다.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내야 한 일도 별로 없는데 꽃에까지 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

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한없이 겸허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통령과 식물학자들의 성의는 고마왔지만 그 제의를 굳이 사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에 대통령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각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니 응당 높은 영광을 지니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올리였다.

대통령은 자기의 의사를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수카르노의 진정의 고백이였고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을 대변한 숭고한 감정의 토로였다.

하지만 한없이 겸허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사양하시면서 조용히 식물원을 나서시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그후 이번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보좌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꽃에 **김일성**각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해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보고르궁전에서 오찬을 하는 기회에 수령님께 대통령의 의사를 말씀드리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제기해 올리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평양식물원(당시)을 더 잘 꾸릴데 대한 문제와 그전날 저녁에 있었던 예술공연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수카르노대통령과 화기에 넘친 분위기속에서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일련의 국제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회담이 끝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의 안내를 받으시며 5천여명이 참가한 보고르고등학교학생들의 집회에도 참석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끝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려는 수카르노대통령과 보고르식물원학자들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한채 지방참관일정은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방참관을 마치고 수도로 돌아오신 날 저녁 쟈까르따 국가기구회관에서는 인도네시아－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친선모임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수카르노대통령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로 되였다.

수카르노는 대통령궁전 의례국장을 찾았다.

《내가 오늘 저녁 당신에게 특별임무를 주겠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지금 국가기구회관에서 두 나라 친선협회의 주최로 친선모임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아마 모임에서 다채로운 예술공연까지 하고나면 시간이 퍼그나 걸릴것입니다.

이 친선모임에 **김일성**각하께서 참가하시였습니다.

그러니 **김일성**각하를 보좌하시는 〈젊은 사령관〉도 각하의 곁에 계실것입니다.

이 기회에 끝에 **김일성**각하의 존함을 모시는 문제를 다시 상정시켜야 하겠습니다.

4월 15일은 **김일성**각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는 **김일성**화의 명명문제를 무조건 락착지어야 합니다.

벌써 1945년에 남태평양연안지역에서 꼬스따리까 인민당소속 바나나생산부문 로동자들이 **김일성**주석각하에 대한 경모와 칭송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세포〉를 결성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때인 1950년 11월에 중국에서는 베이징 제5중학교에 〈**김일성**반〉을 내왔습니다. 이러한 실례는 그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김일성각하는 한없이 너그러우시면서도 강인담대한분이십니다.

그이는 위훈과 실천을 중시하지만 명예를 바라지 않는분이시기에 이 문제를 아무리 제기해올렸댔자 소득이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령관〉에게 다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황금은 잃었다가도 찾을수 있지만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카르노의 가슴속에는 만민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보고르식물원에서 새로 육종한 란꽃에 꼭 모셔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더 굳어졌던것이다.

의례국장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각별한 총애를 받고있는 인물이였다. 중대사가 제기되면 수카르노는 많은 경우 그에게 위임하군하였다.

성격이 온화하고 호방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분망한 기질을 소유하고있는 그는 대통령에 대한 충의가 깊고 효도가 지극한 사람이였다.

《대통령각하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의례국장이 나간 후 대통령은 쏘파에 앉아 제나름대로 얼굴에 화기를 담고있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만이 유쾌하게 울어대였다.

수카르노는 라지오를 틀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힘있고 장중한 노래선률은 상념을 날려버리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의례국장은 허담을 만나 대통령의 분부를 받고 왔다는것을 강조하고나서 꽃에 **김일성**각하의 존함을 모시도록 허락해달라는것을 또다시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허담은 의례국장을 대기시키고 장군님께 제기된 문제를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몇번이나 머리를 끄덕이시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용히 방에 들어서시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반가운 눈빛으로 그이를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카르노대통령은 이번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뿐아니라 **김일성**수상영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도네시아 인민들과 만민의 마음을 담아 꽃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웬만하면 물러서고 말겠는데 지방참관을 마치고 수도에 돌아와서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여 오고있는것을 보면 아마 대통령은 수락받을 때까지 기어코 물러서지 않을것 같다고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이라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이이시였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류의 지성과 관련한 이 문제만은 꼭 결론받을것을 결심하시고 쉽게 방에서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시며 웃음을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육종한 꽃에 인도네시아인민만이 아닌 만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자고 하는것이니 그 소망과 뜨거운 지성을 받아주시는것이 어떤가고 다시금 말씀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도록 아무 말씀없이 웃음을 짓고계시였다.

수령님의 안광에는 따뜻한 빛이 어려있었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자신보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찬양의 표시로 그 제기를 받아들일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수천만년의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신 꽃이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현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 력사적사변을 세계화초사에 기록한 날은 바로 4월 13일이였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지구우에는 수천수만종의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여나고있다. 그속에는 자기의 아름다운 색갈과 향기로 화초계를 장

식한 유명무명의 꽃들이 헤아릴수없이 많다.

하여 꽃이름에 대한 유래도 여러가지였다.

해바라기나 백일홍과 같이 꽃의 특성과 관련하여 부르는 이름도 있고 히야신스와 같이 고대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왕자의 이름을 붙인것도 있었다. 그리고 다리아나 게르베라와 같이 과학자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꽃도 있다.

하지만 **김일성**화와 같이 뜻이 깊고 특이하게 아름다운 꽃은 일찌기 없었다.

실로 **김일성**화의 탄생은 수령님에 대한 인류의 매혹과 신뢰가 낳은 귀중한 열매였고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위인의 존함을 모시고 싶어하는 시대와 인류의 지향과 념원의 반영이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끝없는 례찬이였다.

민족의 긍지와 영광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생겨나거나 차례지는 것이 아니며 나라가 크다고 하여 지니게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위인을 모신 민족,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는 위대한 민족만이 지니게 되는것이다.

탁월한 인민의 수령을 모실 때 인류력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시대는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차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력사가 인민대중의 원한과 피눈물로 얼룩지게 되는것이다.

정녕 우리 인민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수령님과 같으신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인민의 행복한 삶이 꽃피는 주체의 새 세상을 건설하여 잃었던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일수 있게 되였으며 높은 자주정신과 민족적자부심을 만방에 떨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끝없이 흠모하고 신뢰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온 세상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였기에 **김일성**화가 인류력사에 첫 위인칭송의 꽃으로 이 세상에 태여날수 있게 되였고 태양의 꽃시대가 누리에 펼쳐지게 되였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운 꽃이나 식물학발전의 산물만이 아니라 위인이 있어 삶의 앞길에 위대한 진리가 있고 위대한 시대가 있듯이 절세의 위인을 떠난 칭송의 꽃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담은 천하제일명화로서의 태양의 꽃 **김일성**화는 인류의 보화, 자주시대의 불멸의 꽃이며 명실공히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결정체이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탄생한 때로부터 40년 세월이 지난 어느날 이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로부터 꽃은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와 축원의 상징으로 되여왔습니다. 꽃은 그 형태와 특징에 따라 이름을 단것도 있고 사람의 이름을 단것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봉선이라는 처녀의 이름을 단 봉선화가 있고 중국에는 당나라시기에 소문났던 미인의 이름을 단 양귀비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볼 때 원예학자나 식물채집자의 이름을 단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꽃에 위인의 이름을 단 일은 없었습니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보고르식물원에서 피여난 진귀한 꽃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여 그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한것은 인류를 위하여 그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인민들의 높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현지에서 이런 감동적인 사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가,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 된 영예가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것을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김일성화의 탄생은 우리 인민모두의 기쁨이였고 더없는 궁지였고 행복이였다.

수카르노는 한 나라나 민족의 지경을 넘어 수십억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의 존함을 담아 세계최초의 위인칭송의 꽃을 그이께 명명하여 올렸다고 생각하니 그 자부심과 긍지로 하여 끓어오르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실로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뜨거운 심장없이, 열화와 같은 사랑이 없이 부를수 없는 위인숭배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수카르노는 수정같이 맑은 잔에 《액체금》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위스키를 부었다.

그리고는 의례국장에게도 한잔 권하였다.

술잔에는 우정도 담기고 약속도 담기고 기쁨도 넘치는 때가 있는것이다.

수카르노는 이밤 뜻이 깊은 마음으로 잔을 쭉 들었다.

그날밤 수카르노대통령은 오래동안의 고심어린 탐구끝에 키워낸 란과계통의 명화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기쁨으로 하여 좀처럼 자리에 들수 없었다.

꽃의 진정한 매력이란 아름다운 모습에서뿐아니라 그 향기와 깊은 뜻에서 견인력이 큰것이다.

《예로부터 실버들가지가 봄을 안고온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김일성**화가 누리에 봄빛을 안아올것이오.

한편의 노래를 통해서도 한 나라, 한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알수 있듯이 역시 한송이 꽃에도 력사가 비끼고 만민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의례국장, 정말 수고 많았소.》수카르노의 말이였다.

《대통령각하, 수고랄게 있습니까.

김일성화의 명명을 발기하신것도, 결정적시각에 조선의 젊은 사령관을 찾아가도록 하신것도 대통령각하가 아닙니까.》

《하긴 이 수카르노가 **김일성**각하앞에서 설사 패배자가 되여도 수치스러운것이 없지만 **김일성**화의 명명문제에서만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여야지 그렇지 못하면 수카르노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기분상태는 하늘중천에 닿았다.

《국장, 우리 나라의 유명한 시인 루스땀 에펜디는 원망이라는 시에서 인도네시아인민의 축원의 마음을 절절하게 노래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보시오, 이 잡지에도 실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카르노가 붉은색연필로 아래단에 밑줄을 그은것이였다.

수카르노는 석쉼한 목소리로 한 대목을 읊었다.

...

언제면 이 땅에

쇠고리를 채우지 않은

자유로운 손으로 심은

꽃으로 뒤덮일것인가

...

《그가 꽃의 세계를 그리며 노래한 미래는 꼭 오고야 말것입니다.》

수카르노의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가 어리였다.

《인민에게 성실한 인간은 응당 력사에 길이 빛나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월이 흘러도 단추구멍에 아름다운 꽃을 꽂으면 10년 젊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김일성**각하께서늘 영원한 꽃향기속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이의 태양의 존함으로 하여 력사는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것입니다.》

인류력사의 방향타를 자주와 진보에로 돌려놓으신 20세기의 위대한 태양.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만민의 열렬한 흠모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인간을 그처럼 숭배하는 까닭에 수카르노는 요즘 날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걷잡을수 없는 심정에 파묻히였다.

남방의 4월

공식방문의 마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 14일 오전에 쟈까르따교외에 있는 영웅묘지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오후 2시에는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강의를 하시였다.

강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강의를 들으려고 모여온 인도네시아의 정계, 사회계, 학계인사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 림시인민협상회의 부의장이며 인도네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들과 위원들, 정부의 지도간부들, 각 사회단체와 지방의 책임일군들, 쟈까르따시내의 과학자들,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발전도상나라의 수많은 학자들이 강의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의는 결국 국제적인 강의로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몇몇 우리 수행원들과 함께 먼저 강의장소로 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강당주변을 돌아보시고 이어 강당으로 들어가시여 천정이며 응접실, 영사실, 연탁이 놓인 주석단모서리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살펴보시였다.

이미 인도네시아측에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놓고 경찰들까지 요소요소에 배치하고있었건만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는데서는 절대로 외교관례만을 따라서는 안되며 타향만리 이역에 왔어도 주재국의 성의를 따르면서도 철두철미 우리의 법도대로 해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변함없는 의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행원들이 서야 할 자리를 일일

이 지적해주시고나서 연탁가까이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시였다.
열대의 찌물쿠는 무더위를 힘겹게 참아내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허담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날씨가 여간 무덥지 않은데 여기 일은 저희들이 책임적으로 담당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괜찮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을 잘 보좌하자고 여기에 왔지 무엇때문에 왔겠는가고 하시며 조용히 발걸음을 떼시였다.
그이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빠른 걸음으로 강당입구로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석단에 모셔드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친위병》이 서야 할 바로 그 장소에 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고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력사적인 강의를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의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발전과정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문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문제 그리고 남조선혁명에 대한 문제 등을 심오하게 분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의는 처음부터 청중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로 하여 수령님의 강의는 여러번 중단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탁으로부터 몇걸음 떨어진 무대의 한쪽 모서리에 서계시였다.
무더위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는 성새가 되시여 움직일줄 모르고 서계시는 그이의 모습이야말로 호위전사의 귀감이시였다.

수령님의 강의는 한시간반동안 진행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인도네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연단에 나섰다.

그는 연설에서 **김일성**동지의 력사적강의는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을 위해서뿐아니라 전체 인도네시아인민을 위해서도 매우 귀중하다고 하면서 《나는 **김일성**동지의 강의안을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의 지정과목으로 제정할것을 제의합니다.

나는 **김일성**동지께서 여전히 건강하시여 조선인민을 잘 령도하시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대렬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바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렁찬 박수갈채와 환호로 그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였다.

강당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퍼졌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 원장은 과학원의 명의로 된 선물을 드리였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통령궁전에서 인도네시아공화국 내각 제1부수상과 제2부수상, 최고자문리사회 제1부의장, 민간공업상 등의 요직인물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식방문을 끝내시면서 이날 저녁 쟈까르따의 국가궁전에서 수카르노대통령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회공연준비가 걱정되시여 연회장무대에 나오시였다.

문화성의 일군이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인사를 다정히 받으시면서 오늘 저녁 행사는 이 나라가 조직하는 행사가 아니라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

에 대한 공식방문을 끝내시면서 마련하는 행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때문에 연회공연을 잘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연회공연을 그처럼 중시하시는 그이의 말씀을 뜨겁게 받아안는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예술단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공연을 보다 광범히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던 일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우리 예술단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은 인도네시아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극장은 련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쟈까르따시민들은 물론 이 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손님들까지 공연을 보지 못해 안타까와하였으며 관람권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헤아려 이 나라가 열대지대인것을 고려하여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하게 하시였다.

순간에 걸린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주재국 공연협회회장도 《당신들은 우리 나라에서 인도네시아사람들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의자에 앉으실 사이도 없이 무대우에서 연회공연종목을 하나하나 검토해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예술인들에게 오늘 저녁행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관련된다고, 지금 인도네시아사람들이 일치하게 말하고있는것처럼 이 나라에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이 왔다갔지만 이번에 우리 수령님께서 오신 방문의 나날처럼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려본적은 아직 없었다고 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온 세상사람들이 열렬히 흠모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태양

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드디여 연회시작시간이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격식도 없이 맨뒤에 있는 의자에 자리를 잡으시고 행사의 전반흐름을 살펴보시였다.

장중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카르노대통령과 함께 연회장에 들어서시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두 나라의 국가주악이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 연설을 하시였다.

수령님의 연설은 우렁찬 박수로 하여 자주 중단되였다.

그다음 수카르노대통령이 연설하였다.

그는 자신을 이처럼 성대한 연회에 초청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고 **김일성**각하의 인도네시아방문의 나날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크나큰 경사이고 명절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민들에게 있어서 력사적인 큰 사변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연회장을 향하여 《존경하는 **김일성**각하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인민의 어버이이십니다.

김일성각하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축을 아니 세계의 축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나는 **김일성**각하를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김일성**각하를 따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라고 소리높이 웨치고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의라도 얻으려는듯 그렇지 않는가고 정중히 묻기까지 하였다.

대통령의 물음에 화답하듯 장내에서는 또다시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옆에 서있는 한 일군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것 보라고, 대통령이 자기 연설에서 자기가 우리 수령님을 따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고 하면서 수령님께 자기 연설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어본다고 하시며 한 나라 대통령도 우리 수령님께 어떻게 하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고 얼마나 애쓰고있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사상과 업적으로 온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존경을 받고계신다고 하시며 이제 우리 예술인들이 공연만 잘하면 된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이날 연회공연은 참가자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하나의 실수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공연이 끝난 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술단단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공연이 자신께서 의도한대로 아주 잘되였다고, 예술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이르시였다.

친히 공연종목으로부터 련습조직, 출연순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며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격정으로 부풀어올랐다.

연회행사에 참가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궁전에 들어선 수카르노는 제1부수상 겸 외무상을 찾았다.

외무상은 지체함이 없이 대통령앞에 나타났다.

《외무상, 래일은 참 중요한 날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각하, **김일성**각하의 탄생일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외무상을 넌지시 쳐다보며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래일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날 서방에서 〈자본주의번영〉의 상징을 요란스럽게 제창하며 무거운 안개의 장막을 뚫고 보란듯이 대양에 나선 〈타이태니크〉호가 영국에서 출항하여 3일만에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얼음산과 충돌하여 빙산의 제물로 침몰되였었지요.

이 비극적인 경악으로 자본주의아성이 처량한 장송곡속에 여지

없이 랭동되여 그 〈위상〉이 세계비화의 표본으로 되던 때에 동방에서는 **김일성**각하의 탄생으로 만물을 소생시키는 인류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게 되였습니다.

정말 4월 15일은 력사적으로 대단히 뜻이 깊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각하, 그리고 4월 16일은 우리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외무상의 쟁쟁한 대답이였다.

타향에서 맞으신 탄생일

뜻깊은 새날이 밝아왔다.

4월 15일 아침, 수카르노대통령은 탄생 53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축하방문하였다.

대통령은 수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여 그이께 꽃바구니를 드리고 지성어린 선물을 올리였다.

선물은 인도네시아의 전설에 나오는 용맹한 장수가 가루다라는 천년자란 왕새우를 타고있는 장면을 예술적으로 형상한 조각품이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드리였다.

《**김일성**각하, 이 가루다는 인도네시아의 천리마입니다. 가루다우에 타고있는 무적장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김일성**각하이십니다.》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대통령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인도네시아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로부터도 축전과 선물을 받으시였다.

쟈까르따국가궁전에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와 인도네시아종합대학 학위학직수여위원회의 공동결정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명예공학박사칭호를 수여하는 의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통령과 함께 수여식장에 들어서시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우렁찬 박수로 환영하였다.

수여식장에서는 인도네시아국가와 우리 나라 국가인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인도네시아종합대학 총장이며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뜻깊은 날에 **김일성**각하께 명예공학박사칭호를 수여해드리게 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것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락후한 식민지유산을 청산하고 가혹한 전쟁의 페허로부터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들을 일떠세우신 각하께 명예공학박사칭호를 수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을 우리는 무상의 행복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라고 연설하였다.

얼마전 수카르노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한 종합대학총장 수만뜨리박사는 **김일성**각하는 희세의 걸출한 정치가이신데 그이께 사회과학박사칭호를 수여해드리는것이 어떠한가고 문의하였다.

그의 말에 수카르노는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그 제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간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방문을 통하여 수카르노는 많은것을 느끼였다.

…조선은 전후 페허우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은 영웅적나라였다.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서 백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는 제국주의자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고 세계를 경탄시킨 조선의 공업력사의 기적적인 변혁의 기본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근본바탕에는 **김일성**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뿌리깊이 자리

잡고있다.

김일성각하께서는 전쟁이 끝난 후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주체적 공업발전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길지 않은 조선의 공업건설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로선이 있었기에 조선은 온갖 시련을 헤치고 자체의 믿음직한 공업기지들을 창설할수 있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기둥을 세울수 있었다.

정녕 재더미우에서 떨쳐일어나 전설속의 천리마를 타고 창공을 날으는 조선의 현실은 말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력갱생력사의 거창한 화폭이였다.

그리하여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쏠라닥거리며 횡설수설하던 온갖 잡소리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최단기간내에 균형적이며 다방면적인 자립적공업토대가 창설될수 있었다.

세계에는 공업발전의 요인과 그 전망에 대하여 밝힌 리론들이 많다. 그 대다수는 나라의 지리적조건이나 공업의 기술장비토대, 생산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기술기능수준과 같은것에 치중한것이였다.

그러나 **김일성**각하께서는 한토막의 강재, 한줌의 세멘트가 귀하던 전후시기 《쎄브》에 들어 성능높은 기계도 받아가면서 저들이 주는 지표나 생산하라고 하던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시였고 일시적난관을 모면하기 위하여 외자를 끌어들여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에서 관광업이나 발전시키자고 하던 그릇된 주장에 추호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어도 자체의 공업토대에 의거하여 민족경제를 건설해나가는데 모든 힘을 넣으시였다.

김일성각하께서 공업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고 공업화의 력사

적과업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기 위하여 중공업을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에 기초하여 완비하신것은 실로 세계공업발전사를 놀래운 위대한 공적이였다.

…

수카르노대통령은 과시 위대한 수령님과 같으신 위인은 이 세상에 더는 없다는것을 명백히 깨닫게 되였다.

대통령은 다시 말을 이었다.

《20세기는 기계제산업의 시대입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기계제작공업이 대단히 발전하고있습니다.

기계공업 같은것은 유럽나라들에서나 발전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관념을 대담하게 깨뜨려버리신 **김일성**각하께 명예공학박사칭호를 수여해올리는것은 너무도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견해에 수만뜨리박사는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명예공학박사칭호를 수여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수여식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나서 이것은 자신에게 인도네시아인민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의무를 지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공동성명이 쟈까르따의 독립궁전에서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수카르노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조인하시였다.

조인식이 끝난 다음 허담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전날에도 수행원들과 대사관일군들을 만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의의깊게 맞이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래일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생신날을 맞으며 수령님을 축하해드려야 합니다. 이국에서 맞는 4.15명절준비를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대사관에서 작성한 생일상차림표를 친히 보아주시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국수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며 수령님의 생신날에는 국수를 진지상에 올리도록 해야 하겠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국수를 대접해야 하겠다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허담의 뇌리에는 언제인가 수령님께서 고난에 찬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회고하시면서 한번은 행군도중에 생일날을 맞게 되였는데 평양랭면생각이 나는걸 겨우 참았다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4월 15일 이른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나라 땅은 대사관이라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대사관에 모실수 있겠는가를 알아보시려 남먼저 현지에 나오시였다.

인도네시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은 쟈까르따의 독립광장가까이에 자리잡고있었다.

대사관청사는 그리 크지 않은 2층짜리 건물이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대사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손이 모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여다니는 한 일군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그의 안내를 받으시며 응접실과 취사장을 거쳐 연회장소인 회의실로 들어가시였다.

의자를 들어내고 식탁을 들여놓은 회의실은 넓고 환하여 연회장으로는 그저그만이였다.

연회탁배치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앉으실 의자색갈과 높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정원쪽으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때 뜨거운 해빛을 가리우기 위하

여 림시로 설치한 지붕을 보시고 그것 참 좋다고, 잘했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정원 한쪽에서는 대사관의 가정부인들이 국수누를 차비를 하고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였다.

자기들앞에 서계시는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라는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가정부인들은 《정말 명절중의 명절이지요. 날마다 이런 명절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 와서 생활하는데다가 이미전에 그이를 뵈온 사람이 없었고 또 수원들과 다름없이 수수한 남방옷차림을 하시다보니 가정부인들은 그이를 미처 알아뵙지 못하였던것이다.

수령님을 이역만리에서 그것도 생신날에 모시게 되는 한없는 기쁨과 행복감속에서 바삐 돌아가는 대사관부인들을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허물없이 솥뚜껑까지 열어보시였다. 가마에서는 물이 설설 끓고있었다.

야전식이로구만. 국수가 잘될것 같습니다.

《예. 물이 펄펄 끓을 때 국수를 누르면 잘되여요.》

녀인의 정겨운 대답이였다.

음식맛은 예로부터 감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주부의 솜씨에 달렸다고 일러왔습니다. 그러니 최대의 성의를 다하도록 합시다.

수령님의 진지상에 올리기 위하여 동무들이 마련하는 이 국수는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진수성찬에도 비길수 없을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든 음식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드시게 된다고 생각하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구만요. 우리모두 있는 성의를 다하겠어요.》

그이께서는 대사관가정부인들과 이렇게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연회준비를 보살피시였다.

허담이 어떤 때에는 녀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귀띔해주려고 하면

그이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정답게 나무라군 하시였다.

시간이 흘렀다.

연회준비는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사관일군들에게 연회상을 차리는 문제로부터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문제 그리고 수령님을 바래워드리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준비가 다 된것을 보시고서야 그이께서는 대사관을 나서시였다.

그때에야 대사관일군을 통해 자기들과 그 어떤 격식이나 간격도 없이 이야기도 다정히 나누고 일손도 도와주신 그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라는것을 안 대사관가족들모두는 그자리에 펄썩 주저앉았다.

《이 일을 어쩌나!》

이것은 너무도 때늦은 뉘우침이였다.

오전 11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대사관으로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대사관구내에는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조국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적도의 땅에서 꿈결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싶었던 간절한 소원이 그대로 4월의 환호성이 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서도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하신 풍모에 그이를 미처 알아뵙지 못한 자책감과 아쉬움이 그대로 환희에 실려 만리창공에 끝없이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신 연회장에는 기쁨의 파도가 설레이였다.

연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53돐을 축하하는 축배사가 있었다.

이어 모두가 일어서 어버이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축원하여 축배를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회상을 둘러보시며 조국에서보다 더 잘 차렸다고, 이역땅이지만 조국의 산해진미가 다 있다고 감격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뜻깊은 이날을 예견하시여 조국을 떠날 때 미리 준비하도록 하신것이였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보기에도 시원한 《평양랭면》이 상에 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반가워하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이역땅에서 〈평양랭면〉을 보게 되누만. 누가 이런 생각을 해냈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생각하신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리고는 잠시 좌중을 둘러보면서 그이께서 어디에 앉아계시는가를 살펴보았다.

허나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회장에 계시지 않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사관에서 이렇게 식사를 잘 준비하는줄 알았더라면 수카르노대통령을 데리고 함께 왔을걸 그랬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뜻깊은 날 수카르노대통령의 마음도 다를바 없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점심에도 또다시 모시려고 하였지만 조선대사관계획에 특별히 양보하다보니 저로서는 뜨겁게 부풀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신날에도 오후에 면담할 사람들이 많아 자신께서는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겠는데 그대신 국수를 많이 들겠다고, 동무들은 마음놓고 술을 많이 들라고 하시며 앞에 놓여있는 음식그릇들을 일군들앞에 옮겨놓게 하시였다.

수행원들과 대사관일군들모두가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어 국수를 드신 수령님께서는 **《국수를 잘 말았기때문에 국수맛**

이 좋습니다. …국수를 참 맛있게 들었습니다.》 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회가 끝날 때까지 종시 연회석상에 앉지 못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이 끝난 다음에야 그이께서는 자그마한 응접실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사관을 떠나시면서 일군들과 가족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어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고는 더운데서 앓지 말고 일을 잘하라고 당부하시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대사관일군들과 가족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그이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아직 철이 채 들지 않은 어린이들도 수령님의 품에서 떨어지기 싫어 두손을 쳐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들의 모습을 정겹게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바래드리신 후 대사관성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매우 만족해하십니다. 수령님께서 만족해하시는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대사관동무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령님에 대한 영접도 잘되고 음식도 잘 준비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처음부터 미처 알아뵙지 못하여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연회준비일손을 거들어달라고 청을 드렸던 대사관가족들모두는 몸둘바를 몰라하면서 두손으로 그이의 손을 꼭잡고 놓을줄 몰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차안에서 손을 흔들어주시였다.

길량옆에서 열풍에 흐느적거리며 서있는 야자수들을 뒤에 남기고 승용차는 서서히 미끄러져갔다.

대사관일군들과 가족들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못박힌듯 그자리에 서서 이렇게 아뢰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무랍없이 행동한 이 녀인들을 용서해주십시오. …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허담이 초대소에 도착하였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용히 《사향가》를 부르시며 남방의 훈향이 한껏 차넘치는 정원을 산책하고 계시였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잊지 못할 타향의 봄날에 항일의 녀전사에게 불러주시던 그날의 노래.

대동강에 얼음이 풀리고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면 만경봉에 진달래가 붉게 피고 초가집울안에도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군 하였다고, 타향에서 봄을 맞으니 조국산천이 더욱 그립다고 하며 부르시던 그날의 만강을 생각하시는가.

그 언제 그 어디에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그리도 뜨거우셨기에 수령님께서는 만리 타향에서 맞으시는 이 생신날에도 《사향가》를 부르고계시였다.

진달래꽃 만발한 만경대의 봄을 안고 걸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

평생, 대동강물 아름다운 조국을 한품에 안고 걸어오신 수령님의 한평생을 뜨겁게 되새겨주는 노래.

진정 《사향가》는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을 관통하는 위대한 인생의 선률이 새겨진 노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색에 방해라도 될가봐 허담의 팔을 가볍게 끌어당기며 그 자리에 멈춰서시여 더 다가가지 않으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나무숲이 우거진 주변은 자못 조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추억깊으신 음성으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 이역땅에서 생일상을 받고보니 지나온 인생행로가 회억됩니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나는 불우한 시대에 태여나 이역땅에서 소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내면서 생일쇠는것을 모르고 살아왔다.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생일날에 음식을 사먹으라고 돈을 좀 쥐여주군 하였는데 나는 그 돈으로 책을 사군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일제와 싸우느라고 생일을 쇠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나는 반생동안은 생일을 한번도 쇠여보지 못하였다. …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을 돌이켜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미여지는듯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오늘 조국을 멀리 떠나 이역땅에 와서 동무들이 차린 생일상을 받았을 때 크게 감동도 되고 기쁘기도 하였으며 지난날 이역땅에서 생일을 한번도 쇠지 못한 쓰라림이 가셔지는것 같습니다. …》

그러시고는 《동무들, 고맙소! 고맙소!》라고 거듭 외우시였다.

소담한 정원에서 시작되여 저 멀리 인디아양으로 흘러가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허담은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의 세계에 다시한번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함께 반둥회의 10돐기념행사에 참가하려고 인도네시아에 오는 캄보쟈대통령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마중하시기 위하여 께마요란비행장에 나가시였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시하누크친왕과의 첫상봉이였다.

시하누크친왕은 비행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뜻깊은 탄신절에 타향에 와서까지 자기를 위해 이렇게 비행장에까지 나와 마중해주시니 그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고 허리를 굽히며 뜨겁게 말씀드리였다.

이것을 목격한 수카르노대통령은 축하를 받으셔야 할 날에도 오히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고결한 풍모에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고국도 아니고 타향에서 맞는 생신날에도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에 인도네시아정객들은 물론 시하누크친왕의 수행원들모두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였다.

언제나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허담의 눈앞에는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이듬해 4월 15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중화군 삼정리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수령님께서 포전에 오시였다는것을 뒤미처 알게 된 리의 일군들은 포전으로 막 달려나왔다.

보리밭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옷자락은 벌써 새벽이슬에 흠뻑 젖어있었고 신발에는 진흙이 묻어있었다.

온 나라 인민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느라 하루의 휴식도 모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날만은 시름을 놓으시고 겹쌓인 피

로를 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었건만 그이께서는 밭머리에 앉으시여 일군들과 함께 농사일을 의논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주체53(1964)년 4월 15일,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이날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여 전국모범소년단열성자대회를 축하하는 음악무용서사시 《혁명의 후비대》 공연을 보시면서 학생소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참으로 뜻깊은 4월의 봄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가신 사랑의 날과 날들을 말과 글로써 어찌 다 표현할수 있으랴. …

그 이튿날인 4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정계획대로 고위인물들과 담화를 진행하시고도 시간이 모자라시여 웰남의 범문동수상과는 다음날까지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이때로 말하면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웰남의 여러 지역에 유독성화학물질을 살포하여 수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집짐승과 농작물들에 혹심한 피해를 준 천인공노할 만행을 스스럼없이 감행하였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구국항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지해주시고 호지명주석의 령도밑에 웰남인민이 북부웰남을 수호하고 남부웰남을 반드시 해방할것이라는 확신을 뜨겁게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 세상에 반제투쟁이 없는 평화가 있을수 없고 자주가 없는 친선단결이 있을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한마디한마디 힘주어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범문동수상의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의 접견을 통하여 웰남의 범문동수상은 어이하여 호지명주석이 사회주의건설과 반제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한 투쟁

에서 그이를 그토록 칭송하고있는가를 절실히 느끼였고 이번 반둥회의 10돐기념행사에 자기를 파견해준 목적도 더 정확히 알수 있었다.

며칠후 웰남신문 《년전》에는 범문동수상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소식이 실리였다.

반둥회의 10돐기념행사

력사적인 반둥회의 10돐이 되는 1965년 4월 18일이였다.

10년전인 1955년 4월 18일부터 24일사이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는 수카르노의 발기에 의하여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반둥회의에는 발기국인 인도네시아와 인디아, 먄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 수리아, 에짚트 등 모두 29개 나라가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평화와 전쟁문제,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의 우호, 협조의 촉진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공동콤뮤니케와 《세계평화와 협조를 촉진시킬데 대한 선언》이 발표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정견과 신앙, 인종의 차이를 초월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며 나라들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리념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민족적독립과 새 생활창조를 위한 길에서 강화되고 발전되여온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관계와 단결의 력력한 시위였다.

반둥회의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처음으로 절박한 국제문제들을 집체적으로 모여앉아 토의하고 자주의 길로

나갈데 대한 확고한 립장을 천명한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그후의 국제정세발전에 긍정적영향을 주었다.

반둥회의 10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행사는 쟈까르따의 붕카르노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행사에 참석하시였다.

행사에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1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그리고 저명한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 앞서 응접실에서는 먼저 각국 대표단단장들의 서명이 진행되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의 제기와 각국 대표단단장들의 일치한 지지찬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수표를 하시였다.

《김일성》

순간 장내에는 우렁찬 박수가 울리였다.

각국 대표단단장들은 1번란에 활달하게 모셔진 그이의 존함을 뜨겁게 바라보며 수표를 해나갔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카르노대통령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가없는 하늘에는 축포가 터져올랐다. 붕카르노경기장에 차고넘치는 15만군중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였다.

기념행사에서는 수카르노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행사는 반제반식민주의투쟁전선에서 아시아, 아프라카인민들이 단결과 평화,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위업을 적극 다그쳐나가려는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되였다.

행사에서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도 있었다.

련환공연에 앞서 수카르노대통령은 공연종목을 세세히 검토하고나

서 공연종목 첫 페지에 다음과 같이 써서 의례국장에게 주었다.

《공연종목순서를 좀 고쳐야 하겠습니다.

첫막을 조선예술단에서 열게 하시오.》

이러한 사실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되였다.

사실 련환공연에서 우리 나라 예술단은 두번째로 출연하게 되여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인도네시아인민들앞에서 하는 련환공연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꽃핀 우리의 예술을 세계에 널리 시위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공연을 잘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을 본 국가수반들과 여러 나라 인사들, 외국손님들은 한결같이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김일성**각하를 모신 조선의 예술은 최고봉의 예술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인민들은 《훼듭 **김일성**! 훼듭 **김일성**!》라고 소리높이 웨치였다.

공연은 종목마다에서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우리 일군들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참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연의 나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예술을 세계에 시위하며 그것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성과 대외적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예술활동의 나날이였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 자랑스러운 나날이였다.

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대통령의 존경과 흠모의 마음은 반둥회의 10돐기념행사에 왔던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한 국가연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연회는 저녁늦게까지 진행되였는데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였을 때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이때 중국의 주은래총리가 누구에게라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노래라고 말하였다.

마주앉은 수카르노대통령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자기도 잘 아는 노래이라고, 전체 인도네시아인민들도 잘 부른다고 하였다.

사실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한 공식국가연회에서 손님으로 참가한 어느 한 나라의 수반에 대한 송가가 연주된다는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는가에 대하여 각방으로 모색하였다.

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의 흠모의 마음은 새로 건설하는 대회기념청사의 착공식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이날 수카르노는 여러 나라 대표들의 일치한 마음을 담아 수령님께서 착공의 첫삽을 뜨실것을 제의하였던것이다.

이렇듯 수카르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전기간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문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를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여간 섭섭해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난 자리에서 방문의 나날 늘 동행해주고 직접 호위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대통령은 그 사의를 받아들이기 난처하다는듯 손을 가로저으며 말하였다.

《**김일성**각하, 그 사의는 귀국의 〈젊은 사령관〉이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젊은 사령관〉의 정식 관직은 무엇입니까?》

그의 허심탄회한 물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는 자신의 신변을 책임진 《책임부관》이라고, 《책임부관》앞에서는 자신도 꼼짝 못

한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자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유쾌하게 따라웃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매혹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젊은 사령관》보다 나이가 40살이상이나 우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직분을 가진 수카르노가 20대의 청년장군에게 매혹된다는것은 흔치 않은 일이였다.

모진 풍파와 시련속에 자서전을 펼쳐온 수카르노는 자존심이 강한 대통령이였다.

하지만 군복차림 비슷한 차림새에 앞가슴이 무겁도록 훈장과 메달의 략장을 달고 검은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넘겨다보는 64살의 이 년장자도 자기 수령을 견결히 호위하고 보좌하시는 《책임부관》의 고결한 헌신과 치밀한 조직적수완에는 탄복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과 국제관계의 변화는 세계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과 그 위력을 강화하여 민족의 자주위업을 다그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기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 절박한 과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도네시아 고위관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에게 반제투쟁을 강화할데 관한 문제,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론리정연하게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만나뵈온 외국의 벗들은 《저분이시야말로 견결한 반제투사의 모범이시고 탁월한 지도자이시다.》라고 탄성을 올리였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문의 나날에 있은 일이였다.

우리 일군들은 다음날의 긴 려행을 생각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루밤만이라도 얼마간 휴식하실것을 간청드렸다.

다행히도 그이께서는 이 청을 받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밤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하는 사업

은 동무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며 침실로 들어가시였다.

허담은 밖에 나와 침실쪽 창문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침실의 불이 꺼졌다.

허담은 저으기 안도의 숨을 몰아쉬였다.

길 건너편에 자리잡고있는 초대소로 간 허담은 행사일정을 재확인하고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숙소를 돌아보고싶어 그쪽으로 가다가 장군님께서 쉬고계시는 숙소앞을 지나갔다.

숙소앞 정원은 자못 고요하였다.

목청이 쉬도록 지궂게 울어대던 이름모를 풀벌레들도 잠들어버린듯 주위에는 정적이 깃들고 창문들에는 한점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현관홀에서만 불빛이 새여나왔다.

허담의 마음은 무척 안심되였다.

그러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였다.

누구인가 정원의 나무밑을 거닐고있었던것이였다.

(누굴가?)

한동안 희붐비한 어둠속을 눈여겨보던 허담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주무시는 방의 창문밑에서 뭇별들에 눈길을 보내시며 소리없이 조용히 거니시는분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허담의 가슴은 그만 뭉클하였다.

어리신 시절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저택의 창가에서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시며 밤새도록 귀뚜라미를 쫓으시던 그이.

이 밤엔 타향만리 여기 머나먼 남방의 섬나라땅에서 밤이슬을 맞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또 한밤을 지새우고 계시는것이였다.

못박힌듯 그자리에 굳어진채 움직일줄 모르는 허담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혹시 말소리가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흘러들가싶어 그를 야자수숲으로 이끌고 가시였다.

삼라만상은 정적속에 잠기고 사위는 저으기 호젓하였다. 찌는듯한 불볕에 시름겨워 말라들었던 들풀도 이 밤에는 잠에 취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걸으며 허담은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불이 꺼졌길래 분명 주무시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담의 목소리는 도간도간 약간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안심시키려는듯 조용히 웃으시였다.

참 뜻깊은 남방의 밤입니다. 이다음에 남방의 밤경치를 구경하려 해도 헐치 않겠는데 무엇때문에 잠을 자겠습니까. 이왕 나온바에 나와 함께 거닐며 이야기나 나눕시다.

일이 이쯤되면 그이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허담은 그이를 따라 묵묵히 걸을수밖에 없었다.

밤하늘에는 뭇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있었다. 별빛에 어스름히 비치는 수려한 열대식물들은 이밤에도 남방특유의 향기를 유표하게 풍기며 흐느적거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며칠동안 인도네시아방문의 나날에 있었던 일들을 새겨보시며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이번 인도네시아방문의 나날은 매우 인상깊이 흘러갔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인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가 대단히 높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앞에서는 세상에서 제노라하는 지도자들도 머리를 수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대통령들도 경의를 표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야말로 우리 조선의 힘이고 재부이며 자랑이고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는 조선의 고유한 무기이다. …

고요한 밤에 조용히 흐르는 그이의 음성은 허담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이런 내용의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지키는것은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는것과

잇닿아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이 밤을 새우고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호위전사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는 성벽이 되고 갑옷이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생각하면 밤이 깊어 아무리 피곤해도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위대한 수령님께 안녕을 드리는 일이라면 백날밤이라도 밝히고싶다. …

참으로 가슴뜨거운 말씀이였다.

그이께서는 숙소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허담은 이슥토록 그이를 바라보며 말씀을 드리였다.

《이제 새날이 밝으면 먼길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문 얼마만이라도 좀 휴식을…》

허담은 말을 잇지 못하였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밤을 밝히는데 습관되였습니다. 날더러 이 습관을 고치라고 아무리 권고해도 나는 영영 고치지 못할것 같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새날을 맞을 때면 정말 기분이 좋고 새 힘이 솟습니다. 첫새벽을 맞고 첫 아침노을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잠을 못잤어도 행복합니다.

바야흐로 새날을 예고하는듯 뭇별들은 하나, 둘 소리없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허담은 동트는 반다해쪽 하늘가를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이역만리 남방에서의 열흘낮, 열흘밤을 고스란히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인도네시아공화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특별비행기로 쟈까르따를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은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에 진행한 첫 외국방문으로서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빛나는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귀국로정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행기소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작은 앞상우에서 무엇인가 쉬임없이 집필하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도네시아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후 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노력을 바치시여 3주일도 못되는 사이에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라는 고전적로작을 완성하여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반제투쟁에 과감하게 떨쳐나서며 나라들간의 협조와 친선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날의 처지와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은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자주권의 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하는것이라고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원칙은 세계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과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영원불멸할 단결의 기치, 원동력으로 되였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는 사상리론은 그 어느 위인이나 다 내놓을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과 자질을 천품으로 지닌 인민의 지도자에 의해서만 제시될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집필로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는 속에서도 해당 일군들과 함께 밤을 새우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을 수록한 영화문헌 《친선의 무지개》를 한

달도 못되는 사이에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시고 영화가 잘되였다고, 현재까지 만든 행사영화들중에서 제일 잘된것 같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영화가 화조가 좋고 편집이 잘되고 특히 촬영을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쁘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먼 후날에야 그 영화화면의 하나하나에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한편 비행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바래워드리고 궁전에 돌아온 수카르노대통령은 허전한 감을 어쩔수 없었다.

옛날 한 시인은 흘러가는 해와 달을 마음의 끈으로 동여매고 세월의 류수를 몸으로 막고싶다고 하였거늘 수카르노 역시 위대한 수령님을 인도네시아에 모신 귀중한 시간이 부디 흘러가지 말기를 바라였지만 대통령의 그 마음을 흐르는 세월은 알아주지 못하였다.

대통령의 머리속에는 문득 비행장에서 우리 일군들과 **김일성**화에 대한 재배기술을 더 완성하여 그 꽃을 1～2년사이에 꼭 조선에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이 떠올랐다.

그는 곧 보고르식물원 원장 수잔나 까싼을 전화로 찾았다.

원장은 대통령의 분부대로 **김일성**화의 재배기술을 완성하는데 최대의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수잔나 까싼은 **김일성**화를 수카르노의 저택에 가지고왔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이 그리울 때마다 그 꽃을 바라보군 하였다.

하지만 **김일성**화가 우리 나라에 도착하기까지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야 하였다.

숭고한 도덕의리

충격적인 사변

세월의 흐름이란 거창한 자연속에서 류수같다고 하지만 그 흐름은 결코 순탄치 않다.

세월의 흐름속에는 뜻하지 않은 사변도 많아 인도네시아에서는 9월 30일사건으로 불리우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거세찬 력사에 경련을 안아온 세월의 모진 풍파였고 이 충격적인 사변은 수카르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인생은 늙어도 하늘은 늙을줄 모른다고 하였지만 하늘도 이 근래에는 비구름으로 붐비고있었다.

수카르노는 하루가 새롭게 맥이 진해져갔다.

진정한 인간에게는 만복이 차례지고 악한자에게는 천가지 화가 미치련만 세월의 풍상에 안겨오는 예상치 않았던 화를 당하고보니 그 액운을 밀어제끼기란 조련치 않았다.

험악한 진창속에 밝은 리치가 뒤죽박죽이 되여도 어디에 탓할길 없었다.

이것은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한생을 바쳐온 수카르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루하루 번민속에 모대기던 수카르노는 그만 침상에 눕고야말았다.

이때로부터 병원의 침상과 정원은 수카르노의 안식처 아닌 안식처가 되고말았다.

휘영청 밝은 달이 동천에 떠올랐다. 쇠진한 마음을 진정할수 없게 된 수카르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습하는 피로를 쫓아버리

기 힘들었다.

수카르노는 갈수록 자기의 몸상태가 기울어져가는것을 느꼈다.

몸이 고달픈것은 쉬면 되지만 마음의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쫓을수 없었다.

수카르노는 좁은 방안이 답답하였던지 식은땀에 젖어든 목덜미를 닦으며 창문을 열어젖히였다. 그리고는 숨소리를 죽이고 고개를 숙이였다.

소리없이 내리는 서리발이 귀밑을 덮으니 수카르노는 자신이 매우 측은해보이였다. 그런 속에서도 수카르노는 감정이 순결하고 인망이 컸던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군중의 동정에서 저으기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

어느날 수카르노는 아들 수카르노 푸테라와 보고르식물원 원장 수잔나 까싼을 찾았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안해의 도움으로 간신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세웠다.

수카르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기후풍토에 적응한 **김일성**화를 1～2년사이에 평양에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눈을 감자고 하니 마음이 쓰리구만. 하지만 자네들이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라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카르노를 지켜보았다.

움푹 들어간 관자노리와 두뺨은 얼굴의 골격을 관조적으로 드러내였고 피기없이 메마른 입술은 림종을 예언해주는것만 같았다.

수카르노의 입에서는 가끔 얄팍한 신음소리가 그자신도 모르게 새여나왔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맏딸 메가와띠의 머리를 쓸어만지며 품에 꼭 그러안고 창

문밖을 내다보았다. 암흑속에서 광명이 흘러나오듯 두꺼운 구름장들사이로 후광이 새여나왔다.

메가와띠는 천진하게 수카르노에게 속삭이였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왜 누워만 계시나요. 내말이라면 무엇이든다 들어주시더니…》

《암, 일어나구 말구.

나의 메가와띠, 사랑스러운 딸아!》

그는 딸을 가슴에 안고보니 구만리창공에서 무한대의 광원을 받아안으며 꿈속에서라도 다시한번 자리를 털고 일어나 광활한 들판을 내달릴것만 같았다.

안해는 머리맡에서 행여나 하고 안타깝게 물을 권하였다.

하지만 수카르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방안은 희미하고 어둡침침하였다.

수카르노는 가까스로 초점을 모아 메가와띠를 바라보았다.

메가와띠는 마가을 가랑잎처럼 말라든 아버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사랑하는 딸의 가벼운 울음소리는 애도곡을 련상시키였다.

수카르노는 오장륙부를 쥐여짜는듯한 기침소리를 사정없이 련발하였다. 그는 침상에서도 나라와 인도네시아민족을 잊지 않고있었다.

수카르노는 1970년 6월 쟈까르따의 한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파란만장한 인생에 조용히 문을 닫았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쟈와와 쑤마뗴라의 높고낮은 산발을 타고넘으며 우등불처럼 타오르던 그 용용한 모습은 들창바람에 꺼진 초불처럼 고요하였다.

수카르노의 차거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부인은 윤기도는 머리채를 쑥덤불같이 풀어헤치고 일어날줄 몰랐다.

메가와띠는 어머니의 가슴을 마구 두드리였다.

꽃같은 얼굴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메가와띠의 눈물은 어머

니의 무릎을 적시였다.

정원의 야자수도 오열을 터뜨리는듯 몸부림치고 보고르의 남쪽 게데산의 폭포도 옥을 들부시며 광란하였다.

고요히 누워있는 수카르노의 희슥희슥한 귀밑머리를 가볍게 어루만져주려는듯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원바람이 조용히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사람들은 수카르노의 얼굴을 비통하게 지켜보았다.

허나 거치른 풍운과 인생의 재난속에서 거침없이 길러온 용맹과 미덕의 향기를 그에게서 쉽게 빼앗아낼수 없었다.

수카르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쟈까르따는 물론 지방의 이름없는 자그마한 섬마을에서까지 조객들이 물결처럼 모여들어 숙연하게 그를 조상하였다.

한생이 길었든 짧았든 생애의 장단에는 관계없이 사람마다 숨을 거둘 때까지 남다른 사연이 간직되여있다.

무맥한 인간의 삶에서는 걷어쥘것이 없지만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풍파사나운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일수록 그런 사연이 더 많기 마련이다.

그래서 수카르노를 추모하여 터뜨리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곡절많은 민족의 호곡이런듯 창공에 울려퍼졌다.

민족의 재생과 넋을 지켜 침략의 원쑤들을 미워하고 나라와 인민을 위해 줄기차게 싸운 그의 도리깊은 한생이 이끼짙은 세월과 더불어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전해질것을 조객들은 심심히 바라였다.

민심은 천심이였다.

그가 눈을 감은지 열여섯해가 지난 1986년 10월, 인도네시아정부는 나라의 독립을 선포한 초대대통령인 수카르노를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요구를 담아 민족영웅으로 복명해주었다.

그리고 수카르노훈장도 대내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2001년 6월 6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초대대통령이였던 수카르노의

생일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이날 수도 쟈까르따에 있는 붕카르노경기장에서는 기념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에서 연설한 인도네시아대통령은 수카르노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린 공적을 찬양하고 그는 인도네시아인민의 저명한 인사였다고 말하였다.

이밖에도 수카르노의 생일 100돐을 기념하는 토론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명절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모질고 거치른 풍파속에 흔적없이 타버릴번한 인생의 등잔심지를 력사와 인민은 잊지 않고 공정하게 돋구어주었다.

세상에는 철따라 망울을 터치며 피여나는 꽃들이 수천수만가지를 헤아린다. 하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화처럼 뜨거운 사연을 안고 피는 꽃은 없을것이다.

아름다운 꽃에는 자연의 거창한 품이 있고 유능한 원예사들이 있다.

허나 천하명화 **김일성**화에는 자연의 단비나 원예사의 정성에 앞서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월의 풍파속에 일시 자취를 감춘 **김일성**화를 꼭 찾아 조국땅에 만발하게 피우실 굳은 결심을 안고계시였던것이다.

묘연한 행적을 찾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일군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이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한쪽에 밀어놓으시고 그에게 옆자리를 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령님의 대외활동을 보좌해드리시던 뜻깊은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런데 그이의 안색은 어딘가 모르게 몹시 무거우시였다.

방안의 공기는 자못 숙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0년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피여난 **김일성**화는 20세기 후반기에 피여난 식물의 꽃이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한 인도네시아인민들의 흠모의 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음성은 조용하면서도 결단과 믿음에 넘치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 방안을 거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세의 파동속에서 종적이 묘연해진 **김일성**화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그토록 흠모하고 따르는 인류의 뜨거운 마음의 결정체인 **김일성**화.

이 위인칭송의 꽃을 하루빨리 조국에 가져오는것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더없이 숭고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실로 충신이 있어야 성인군자도 있다는 말은 진리이고 정의였다.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일군의 가슴을 울리였다.

며칠후 실무대표단은 려행길에 올랐다. 시창밑으로 가을단풍이 붉게 타는 도고한 산발들이 가볍게 흘러갔지만 대표단단장의 임무를 지니고가는 일군의 마음은 못내 무거웠다.

대표단을 파견하며 **김일성**화를 꼭 찾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가슴에 차고넘치였기때문이였다.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보고르식물원 원장이였던 수잔나 까싼이나 **김일성**화를 육종한 식물학자 씨. 엘 분트가 이미 어디

론가 행적을 감춘 뒤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세월이 흘러간 그때 이들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표단성원들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갔다.

단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동무들, 용기를 잃으면 안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이런 정황을 예견하시고 우리들을 떠나보내시면서 **김일성**화를 찾는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도네시아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깊기때문에 그들을 믿고 찾아가면 꼭 도와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대표단성원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라침판과 같은 것이였다.

그들은 적도의 열풍이 숨막힐듯 하였지만 쟈와에도 가보고 쑤마뜨라에도 가보았다. 인적이 드문 산간마을에서 며칠씩 지체하기도 하고 산짐승도 발붙이기 힘들어하는 가파로운 절벽의 지름길을 톺아오르기도 하였다.

남방의 섬나라 열대수림 아늑한 교외의 창문없는 말뚝집마을에서도 사람들은 《코레야, **김일성**》라고 하면서 조선의 벗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느날 그들은 수카르노의 호위부관이였던 란드 페도가 보고르 남쪽에 솟아있는 게데산기슭에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철리!

—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을 찾아가자!

그것은 진리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등산가들처럼 배낭을 걸머지고 또다시 길을 떠

났다.

어느덧 그들은 게데산기슭에 이르렀다.

게데산은 해발고만 하여도 2 900m를 넘었다.

그러나 수카르노의 옛 호위부관 란드 페도는 그곳에 없고 그의 아버지 페도 야민이 대표단일행을 맞아주었다.

대표단일행은 밤가는줄 모르고 페도 야민로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튿날 새날이 밝은 후 로인은 아들 란드 페도가 있는 곳으로 대표단을 안내하였다.

그리 가까운 곳은 못되였다. 페도는 관절염부종으로 다리를 자유자제로 움직이지 못하여 이곳에서 온탕치료에 전념하고있었다.

대표단을 만난 그는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

단장이 이곳에 온 경위를 조용히 이야기하자 란드 페도는 그의 말을 쉽게 리해하였다.

《원래 수카르노 전 대통령은 조선의 기후풍토조건에 익숙하도록 연구사업을 더 완성하여 몇해후에는 **김일성**화를 꼭 평양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세가 급변하여…》

란드 페도는 그만 말끝을 다 맺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먹이였다.

페도는 단장에게 외진 섬의 략도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이전 보고르식물원 원장 수잔나 까싼의 행처였다.

까싼은 국내정세가 급변한 후 발리섬의 외진 고장에 가서 관광호텔에서 정원사로 일하고있었다.

이 지대는 산호초가 파도우에 드러나서 세월과 함께 아름답게 굳어진 곳이였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으면 내가 동행하였으면 좋겠는데 지팽이에 의지한 몸이 되고보니 어쩔수 없구만. 그러나 이 애를 따라보냅니다. 이 애는 나와 함께 사는 조카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였다.

《페도씨, 아무쪼록 몸조리를 잘하기 바랍니다.》

단장은 그를 부축하여 걸었다.

란드 페도는 평퍼짐한 령마루에서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바래주었다.

일행은 택시를 타고 장시간 가다가 작은 나루배에 다시 몸을 실었다. 배는 둥실둥실 큰 물마루를 타고넘으며 쉬임없이 미끄러졌다.

섬나라의 파도는 그들을 놀래우지 않으려는듯 여느때없이 잔잔한 편이였다. 적도의 공기는 찌는듯 하였지만 바다의 경치는 황홀경이였다. 눈앞에 보이는 섬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봉우리를 련상시키였고 기슭을 빙 둘러싸고있는 천연절벽은 마치도 섬마을을 지켜선 성벽같기도 하였다.

그들이 오른 뭍의 자그마한 마을은 벗들을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푸른 숲으로 치장한 섬은 바다의 잔파도를 실증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마다 헤여졌던 친지를 만난듯 정답게 길을 안내해주고 창문없는 말뚝집들은 눈에는 설어도 퍼그나 인상적이였다.

누기진 실안개는 고느적하게 흐르고 키니네나무며 야자수잎새는 해풍에 가볍게 가지를 떨었다.

이 발리섬은 고대인도네시아문화의 중심지의 하나로서 휴양관광에서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곳이였다.

인도네시아에는 15세기 후반기에 아랍인들에 의하여 이슬람교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오직 이 섬에만 이슬람교문화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인디아로부터 전해진 힌두교가 유일하게 지배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오랜 힌두교사원과 신상, 고분, 조각품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특히 종교적풍습이 짙게 깔려있었는데 섬안에 사원만 하여도 1만개 이상이였다.

바다가에는 백사장이 무연하게 펼쳐져있고 썰물때에는 멀리 앞바다까지 은빛모래밭이 보인다. 그리고 섬주변은 산호초들로 둘러싸여있기때문에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여 아무때나 배놀이와 해수욕을 할수 있는 매혹적인 휴양지였다.

바다경치도 장관이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는 10여년전에 분출한 발리섬의 가장 높은 산인 3 140여m의 아궁산의 아름다운 자태도 한눈에 바라볼수 있었다.

대표단성원들은 발리의 전통적인 건축물인 《거대한 대문》으로 들어섰다.

눈앞에는 열대의 갖가지 꽃들과 푸른 금잔디, 코코야자나무가 보기 좋게 심어진 커다란 정원이 펼쳐졌다. 발리섬은 지난날에는 물고기비린내 풍기는 어촌에 불과하였지만 오늘은 세계 여러 곳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있었다.

그런데 애타게 찾고있는 수잔나 까싼은 이 섬에 내려와 파묻혔다가 그만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의 아들 립크 수잔나를 만난것은 대표단성원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를 통하여 대표단성원들은 수잔나 까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생전에 수잔나 까싼은 자기대로 **김일성**화의 재배기술을 완성하여 대통령의 분부대로 조선에 보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수잔나 까싼이 호텔에서 정원사로 일한데도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하지만 까싼의 몸에 침습한 병마는 그를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게 하였다.

락심천만한 까싼은 정신적비감과 육체적압박감으로 몸이 말할수없이 허약해진데다가 가끔 식은땀을 흘리며 때없이 허탈에 빠지고 혼수상태에서 헤매다보니 창백한 얼굴에 감도는 검은 그림자를 감출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온몸은 나른해지고 허리와 무릎이 시고 맥박도 겨우 알리는 정도였다.

그는 자기의 운명을 너무도 똑똑히 예감하고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까싼은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어느새 날이 밝아 어둑시근한 방안으로 한가닥 빛이 흘러들었다.

인생이란 영원과 비교해 볼 때 순간에 불과한것인데 인간과 식물세계를 영영 리별하고 눈을 감자고 하니 마음의 쓰라림이 뼈에 사무치였다.

수잔나 까싼은 상서로운 하늘의 녀신과도 같은 장미빛노을을 창너머로 가늠하며 림종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예감하였던지 아들 림크 수잔나를 머리맡에 불러앉히였다.

세월의 보습날은 그의 이마에 굵은 이랑을 파놓았지만 거기에는 진실하고 억센 의지가 간직되여있었다.

림크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분부를 기다리였다.

《림크야, 분트선생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까싼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친지인 분트선생을 잊어버릴수 있겠습니까. **김일성**화를 육종해낸 유명한 학자인 그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었습니까.》

《그래그래, 잊을수 없지. 내가 설사 눈을 감는다 해도 너는 이 편지를 가지고 꼭 분트씨를 찾아가보아라. 아마 그도 **김일성**화를 키우며 필경 나를 만나고싶어 할거다. 내 마음이나 그의 마음이나 다를바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산사람은 아무때든지 꼭 만나는 법이라는 속담이 있다.》

까싼은 아들의 두손을 잡고 놓을줄 몰랐다.

림크는 눈물을 억제하려고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었다.

…**김일성**화가 조선에서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자던 나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채 죽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김일성**화가 조선에서 무성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

그러면서 그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김일성**화의 육종가인 유명한 식물학자 분트선생을 찾아가 꽃을 꼭 **김일성**각하께 전해드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후 림크는 지체함이 없이 쑬라웨씨섬의 남단 우즁빤당에 있는 분트를 찾아 길을 떠났다.

—나는 너에게 재부도 명예도 넘겨줄수 없구나. 나는 평생에 **김일성**화를 잘 가꾸어 그분께 올리고 집안에 가보로 넘겨주자고 하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하여 **김일성**화를 만발하게 피워 조선에 보내주거라.

림크의 귀전에는 림종시 아버지가 남긴 이 말이 사라질줄 몰랐다.

림크 수잔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지칠줄 모르며 길을 재촉하였다.

기슭의 숲을 따라 한굽이, 기암을 따라 한굽이, 울창한 관목숲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악들은 거대한 조각품처럼 자기의 독특한 미와 매력을 자랑하고있었다.

섬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흘러가던 구름도 멈춰서고 날아가던 산새들도 나래를 접고 골짜기에 내리는듯하였다.

림크는 가다가도 해빛을 가리우는 그늘진 곳에 가서는 주먹밥으로 간소하게 요기하고 처량한 물소리를 정답게 듣기도 하였다.

림크는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지나 평퍼짐한 잔디밭에 올라섰다.

이때 짧은 샤쯔에 색낡은 바지를 입은 나이지숙한 장정이 성큼

성큼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밤색굴테안경을 낀 그는 식물학자 분트가 분명하였다.

그를 보는 순간 림크는 아버지를 보는것만 같아 그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내돋아있었다.

분트 역시 보고르식물원 원장 수잔나 까싼을 다시 보는것만 같았다.

《선생님,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아무렴,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이렇게 희여졌지.》

분트는 너무도 뜻밖에 림크를 만난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의 등을 쓸어만지였다.

분트와 림크는 작은 식탁에 마주앉아 흘러간 세월의 갈피를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분트는 수잔나 까싼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었다.

분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나서 림크를 자그마하게 꾸려진 온실로 안내하였다.

순간 림크는 환성을 올렸다.

그곳에서는 수카르노대통령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식물학자의 본분을 지켜 분트가 소중히 보존하고 가꾸워온 **김일성**화가 향기를 풍기고있었던것이다.

분트는 림크를 자기의 조력공으로 데리고 일하였다. 그것은 벗들사이의 의리를 지키는 도덕이기도 하였다.

분트는 수카르노의 소망대로 **김일성**화의 재배기술을 완성하여 꽃을 조선에 보내줄 열망을 안고 재배기술과 방법을 부단히 완성해나갔다.

이러한 분트에게는 클라라 분트라고 불리우는 귀여운 딸이 있었다.

그는 림크를 몹시 사랑해주었다. 그는 림크보다 두살 우였다.

처녀는 림크를 경박한 사내로 본적이 없었다.

림크 역시 질어가는 봄날 신록처럼 꽃피는 처녀의 모습을 말없이 눈동자에 익히였다.

얼굴생김이 해사하고 몸매가 탄탄해서인지 처녀다운 생신한 빛이 반짝이는 눈매와 하얀 귀밑에 은근히 흐르고있었다.

림크는 분트의 딸 클라라와 함께 **김일성**화재배방법에 대한 분트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아버지가 식물학자여서인지 클라라도 식물에 조예가 깊었지만 특히 그는 **김일성**화를 매우 사랑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연구완성하는 **김일성**화에서 꽃잎이 떨어지면 살점이 떨어지는것처럼 아까와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바다가의 작은 마을에 인생의 닻을 내린 분트는 자기의 여생을 **김일성**화재배연구에 묵묵히 바쳐왔다. …

어찌보면 하나의 옛말과도 같은 림크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표단성원들은 어려운 속에서도 **김일성**화의 육종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는 인도네시아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에 크게 감동되였다.

그들은 분트를 찾아 길을 떠났다.

북두칠성 저 멀리

대표단성원들은 보고르식물원 원장이였던 수잔나 까싼의 아들 림크 수잔나와 함께 **김일성**화육종가인 식물학자 씨. 엘 분트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에게는 림크가 그때 발리섬에서 아버지의 묘소를 정리하고있은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대표단이 분트를 찾아갔을 때는 주체63(1974)년말이였다.

때마침 분트는 온실에서 일하다가 창문없는 말뚝집우에서 부채로 바람을 청하며 더위를 쫓고있었다.

림크는 한발 앞질러 조선선생들이 **김일성**화를 찾아 이곳에 왔다는 것을 분트에게 알리였다.

분트는 놀란듯 림크를 넌지시 쳐다보았다.

《조선선생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분트의 가슴속에는 격파가 솟구쳐오르는것만 같았다.

이때 새들이 해빛이 포근히 비쳐드는 나무가지속에 날아들었다.

해빛을 즐겨서인가 새들은 저저마다 우짖고있었다. 그러다가 들장미가지에 옮겨앉아 부리로 날개깃을 다듬다가는 까만 눈알을 굴리며 제김에 푸르르 날아가버리군 하였다.

분트는 말뚝집사다리를 리용하지 않고 젊은 사람처럼 훌쩍 땅에 뛰여내려 옷매무시를 바로하였다.

《제가 분트입니다. 먼길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섬나라의 아름다운 경

치를 부감하며 피곤을 모르고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분트는 저으기 기쁨에 겨워하였다.

《존경하는 **김일성**각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분트는 정중하게 위대한 수령님의 안부를 물었다.

《고맙습니다. 분트선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신 몸으로 정사를 보고계십니다.》

단장의 대답이였다.

분트는 나이는 있지만 히여멀쑥한 얼굴에 첫인상이 무척 부드러우면서도 호방한 표정이였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체격이 늘씬한데다가 성격 또한 활달해보이였다.

단장은 분트에게 대표단성원들을 소개하였다.

분트도 자기네를 소개하였다.

《선생들과 함께 온 림크 이 사람이 보고르식물원 원장이였던 수잔나 까싼의 아들인것은 이미 알것이고 이 애는 저의 딸입니다. 이름은 클라라 분트라고 합니다.》

클라라는 가볍게 웃음지으며 다소곳이 머리를 수그리였다. 그윽한 눈길을 말없이 던지는 그 인사는 오히려 어여쁜 장식같기도 하였다.

림크는 손님들을 그늘진 곳에 안내하였다.

순진함이 질게 어린 밝은 얼굴로 클라라는 손님들에게 시원한 귤물을 대접하였다.

단장은 일행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분트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야기가 끝나기도 바쁘게 분트는 웃음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참, 꿈이란 좋구만. 지난 밤에 내가 조선에 갔다왔더란 말이요. 그랬더니 오늘은 이렇게 조선의 벗들을 만나게 되누만.》

분트는 락조가 비꼈던 인생에 재생의 활력을 받아안는것만 같

았다.

그는 조선의 벗들이 자기를 찾아온것을 커다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표단성원들이 땀을 들인 후 분트는 그들에게 온실부터 보여주었다.

후미진 산기슭에 있는 온실은 소담하였지만 그곳에는 식물학자의 깊은 마음이 엿보였다.

그윽한 향기를 한껏 풍기며 펼쳐진 화원도 그들을 반기는듯 하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류달리 산뜻한 정서를 풍기는 꽃이 안겨왔다.

대표단성원들의 가슴은 감격으로 끓어번지였다.

얼마나 찾고찾던 **김일성**화인가!

두달에 걸치는 고심어린 노력끝에 눈물겹도록 안아보는 **김일성**화였다.

우아하고 단아한 모양새, 탄탄하게 마디진 대나무 같은 줄기, 푸르싱싱한 잎새, 다발처럼 피여나는 진분홍보라색꽃송이들…

볼수록 천출위인의 풍모가 그대로 어려와 저저마다 북받치는 격정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분트선생, 수고많았습니다.》

단장의 진심어린 말이였다.

《선생님들, 이 꽃이 과연 어떤 꽃입니까? 육종품은 식물학자의 생명입니다.》

분트는 안경이 걸린 코를 문지르며 석쉼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예로부터 농부는 굶어죽어도 종자만은 베고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투사는 옥중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지요. 작가는 눈을 감으면서도 머리속에 시구를 다듬고 목동은 털을 깎아도 양가죽은 벗기지 않지요. 내가 숨을 쉬는 한 어이 **김일성**화를 저버릴수 있겠습

니까. 그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김일성**화의 재배기술을 완성해나가는것입니다.》

물기어린 분트의 두눈은 채광을 받은것처럼 번쩍이였다.

림크 수잔나와 클라라 분트도 어린애처럼 흐느끼였다.

흘러간 세월의 갈피는 그들의 가슴을 쾅쾅 두드리였다.

일단 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길에서 분트는 강한 정신력을 소유한 인간이였다.

《자식들은 부모가 죽으면 통곡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기절합니다. 식물학자 역시 자기의 육종품이 없어지면 심장이 멎고맙니다. 진정한 학자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려운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버리지 않는 인간입니다. 인재가 무서운 노력가이며 정열가라고 하는 표현은 학계에서 굳어진 말입니다. 세상에 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속에 속수무책인 사람은 학자가 아니지요.》

분트의 이야기는 열렬하였다.

창조와 육종에서 정의로운 기쁨을 모른다면 식물학자로서는 더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다는것이 분트의 지론이였다.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탐구와 열정, 존엄은 천하의 재부이며 그것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였다. 그것은 바란다고 해서 차례지는것도 아니였다. 그것을 잃는데는 순간이지만 얻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피타는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실로 분트에게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고통은 너무도 쓰라린것이였으나 열매는 비길데없이 단것이였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충격을 받아서인지 분트의 목에는 울대뼈가 가끔 도드라지고 피줄이 석연하게 부풀어올랐다.

분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김일성**화를 정성들여 피우고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대통령궁전에서 일하던 사람

들도 이 꽃재배와 보호에 무척 관심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철석같이 믿으신대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있는 인도네시아 학자들과 인민들은 **김일성**화를 정성들여 가꾸고 보존하고있었다.

대표단성원들은 이 소식을 빨리 그이께 보고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곳은 파도소리만이 유정한 외진 섬마을이였다.

섬기슭의 적막을 깨치려는듯 무성한 나무숲에서는 매미들이 승벽내기로 청을 돋구고있었다.

순결한 인간들속에서 아름다운 섬경치를 부감하며 며칠 묵어가고도 싶었지만 일일천추로 **김일성**화의 소식을 기다리고계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그리며 대표단성원들은 한시도 지체할수 없었다.

《모처럼 이곳에 왔다가 그래 하루이틀만에 떠나야 한단말입니까?》

분트는 섭섭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나 그도 대표단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고있는 이상 더 만류하지 않았다.

이날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였다.

상우에 놓인 락화생기름으로 켜는 장명등과 석유를 쓰는 남포등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빛을 던져주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기슭을 때리는 소리가 쉬임없이 들려오는데 달빛은 바다기슭에 유난히 흐르고있었다.

호젓한 집안의 소박한 가풍속에 식탁은 푸짐하였다.

먼저 그들은 이 지방에서 케리라고 하는 보리주를 맛보았다. 이것은 남방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토종음료였다.

좁쌀, 보리길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것으로서 그것은 자체의 달작지근한 맛과 고유한 신맛, 약간의 떫은 쓴맛이 조화롭게 어울려 상쾌하고 감미롭고 들큰 텁텁한 느낌을 주었다. 몇잔 쭉 내여도 머리가 거뜬한것이 소문을 내지 않고도 자랑할만 한 음료였다.

먼곳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찰수수밥을 해놓고 물고기구이에 각종 볶음을 식탁우에 올려놓으니 별미에 별미였다.

음식그릇마다 성의가 담겨있어 수저를 대기가 미안스러울 정도였다.

먼길에 시장기란 선떡을 주어도 꿀맛일텐데 상큼한 안주와 술잔을 얹은 소반까지 차려 들여오니 만류할수도 없었다.

분트는 원래 흰빵보다 거무스레한 식빵을 더 즐기였다. 그리고 초를 친 가두배추음식과 순대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 구미보다 조선의 벗들의 식성을 맞추느라고 무척 애를 쓴것이 확연히 알리였다.

식사후 그들은 해변가의 산길을 거니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생달모양의 구부정한 해안선을 따라 한쪽에 자그마한 반도를 안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들이 달빛에 아리숭하게 보이였다.

분트는 그 섬은 사람들은 살지 않고 새들의 보금자리여서 예로부터 알섬구역으로 불리워졌다고 하였다.

한 여름의 검질긴 찌물쿰은 이밤에도 쉽게 열기를 삭이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낫가락 같은 달이 사위를 비치고있었으나 그늘진 곳에는 어둠이 서리여있었다. 훈훈한 해풍은 바다가의 비린내를 실어다주었다. 유정하게 들려오던 뭇새들의 울음소리도 수림에 잦아들어 사위는 한결 아늑하였다.

기구한 운명의 가시덤불길에서 자기의 이악한 노력으로 **김일성**화를 육종해온 보람과 긍지로 하여 분트는 가슴에 차넘치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분트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도이췰란드계의 인도네시아사람이지만 외가는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외가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거의 모든 집들이 꽃창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때 먼곳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둔중하게 울려왔다.

분트는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에 이곳 사람들은 저쯤한 소리에는 뜨끔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분트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 지방 사람들은 꽃을 몹시 사랑합니다. 꽃명절은 유럽에도 있고 라틴아메리카에도 있지만 역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도 례외가 아닙니다.

24절기중에서 봄철이 지나갈 때면 여러가지 제물을 차려놓고 꽃신령을 위해서 화신제를 지내고있는것은 오래전부터 이 지방에서 굳어진 풍습입니다.

민간에서는 여름이 되면 봄꽃들이 지고 꽃신령이 물러가기때문에 그를 전송하고 다음해에 다시 오라는 뜻에서 이 풍습을 존중히 하고있습니다.

화신제꽃명절이 오면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꽃과 버들가지를 꺾어다 가는 봄을 편안히 태워보내기 위해 꽃가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꽃차에 여러 색갈의 비단천으로 띠를 만들어 색실과 함께 매달아놓기도 합니다.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그 단장이야말로 정말 볼만한것이지요.》

이번에는 단장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도 몇년전에 피지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유명한것은 붉은꽃명절이였습니다.

해마다 8월이면 수도 수바에서는 일주일간 이 명절놀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명절기간 수도의 거리는 온통 꽃으로 단장되고 꽃대문들마다에는 형형색색의 등이 드리워져있었습니다.

명절행사는 여러가지 의복과 탈을 쓴 사람들의 꽃행진으로부터 시작되였는데 행진대오의 중심에는 붉은꽃황후경쟁에 나가는 처녀들을 태운 차들이 늘어섰습니다. 행진대오는 시내를 지나 꽃명절행사장인 광장에 들어가는데 광장무대에서는 피지의 여러 민족들의 다채

로운 민속가무가 진행되였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이밤 그들은 오솔길을 밟으며 시간가는줄 모르다가 이번에는 수림속에 몸을 잠그었다.

하늘에 구름한점 없었으나 산꼭대기에서 내리는 물안개로 하여 달빛은 어딘가모르게 흐릿하였다. 누기진 바다바람은 실없이 밀림을 건드리였다.

이번에는 클라라가 한마디 하였다.

《아버지는 늘 식물학자나 원예사는 꽃을 잘 가꾸어 인간세계를 아름답게 장식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군 한답니다. 저나 림크씨는 식물학자의 자식들로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는것을 긍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화는 우리 가문의 가보이라고 늘 자랑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꽃이 우리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 조선에까지 가게 되였으니 그 기쁨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지…》

얼굴이 동실하고 침착하고 양순한 성미를 가진 클라라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났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속에서 마음은 밤알처럼 굳어졌다.

이번에는 림크가 말하였다.

《저는 학자도 연구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늘 원예를 배우고싶었습니다. 나무에 북을 돋구는것은 현재뿐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명심하고 **김일성**화의 만발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결심입니다.

꽃이 사랑을 받아야 명화인것처럼 꽃을 가꾸는 인간도 사랑을 받아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림크는 자기의 이야기를 끝내고 단장을 쳐다보았다.

단장은 림크의 다부진 어깨에 정답게 손을 얹으며 《옳은 말이요.》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밤가는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초한초 시간이 흐르는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날이 밝아서는 모두 꽃포장준비에 전념하였다.

어느새 하루낮, 하루밤이 또다시 흘러갔다.

대표단성원들은 쟈까르따로 가는 첫 배를 타기 위하여 아침 일찍 분트의 집을 나섰다.

분트와 림크가 동행하였다.

그 어디에서나 평온한것은 아침풍경이였다.

이른 아침이여서 오가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이슬에 젖은 나무잎만이 산뜻하고 그윽한 빛갈을 던지고있었다.

비수리나무들이 서있는 가파로운 비탈길은 점차 완만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앞에는 수백년 파도에 씻긴 금모래장이 나타났다.

회색공기에 잠긴 도회지보다 바다기슭촌락의 기류는 청신하였다.

찌물쿠는 더위를 예고하듯 섬유질 같은 얄팍한 구름은 장미빛색갈로 변하더니 차츰 불그스레해졌다.

어둠에 묻혀있던 나무며 이슬에 젖은 수풀이 잠에서 깨여났다.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해는 물기를 머금은 희붐비한 알섬우의 대기층을 뚫고 약간 시누렇게 물들기 시작한 무수한 나무잎새들사이로 눈부신 해살을 펼치고있었다.

해풍은 바다가의 비린내를 매캐하게 안겨주었다.

실구름이 연하게 질어가고 저 멀리 산발쪽에서 우뢰가 메마른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렸지만 하늘을 희롱하는 마른 번개에 지나지 않았다.

병풍처럼 늘어져있는 산골짜기쪽에는 안개가 가볍게 서려있었다.

그 안개는 안식처를 찾지 못하여서인지 실없이 고개마루를 배회하고있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고있는 바다가의 야릇한 풍경은 정답기만 하였다.

그들은 선창에 이르렀다.

파도는 쉬임없이 재롱을 부리며 밀려오고 밀려나갔다.

헤여질 시간이 되였다.

클라라는 대표단성원들의 목에 연분홍보라색꽃수건을 매여주었다.

대표단성원들은 그것이 **김일성**화잎새의 즙으로 물들인 수건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선생님들, 부디 무사히 돌아가주십시오.》

클라라는 머리를 수그리고 조용히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물기흐르는 깊은 눈동자, 도도하게 썰매진 코마루, 온화한 기분을 담은 얼굴표정은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언제 손이 마를새없이, 얼굴에 분칠할새없이 춘하추동 사계절 분과 초를 쪼개가며 아버지를 도와 부지런하게 일해온 클라라.

대표단성원들은 친딸, 친형제와 헤여지듯 그를 가슴에 품어주었다.

뜻깊은 상봉뒤에 엮어지는 아쉬운 헤여짐이란 결코 쉽게 말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가벼운 발동소리가 울리였다. 배는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클라라는 눈물을 씻다가도 손을 흔들고 손을 흔들다가는 눈물을 씻었다.

단장은 손수건을 꺼내여 남모르게 눈물을 닦았다.

기슭에서 어지간히 멀어지자 발동기소리가 요란히 울리더니 배는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따금 배전을 치는 물결소리가 가담가담 들려왔다.

자욱히 드리웠던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새벽빛속에 검푸른 파도가 물갈기를 날리였다. 멀리서부터 어둑시그레하게 륜곽을 던지던 동쪽켠 섬너머에서 양푼 같은 둥근해가 거불거불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흰물갈기가 배전에 부딪칠 때마다 물보라는 구슬처럼 흩어지였다.

붉은노을이 비낀 바다는 거대한 쇠물도가니처럼 이글거리며 출렁이였다.

갈매기들은 흰날개를 펼치고 조선의 벗들을 배웅하려는듯 배머리를 무리지어 감돌았다.

어느덧 배는 뭍을 퍼그나 멀리하고있었다.

뜨거운 해빛은 물결우에 눈부시게 부서지고 그 물결은 파도우에 금싸래기처럼 반짝이였다.

분트 역시 서운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지만 **김일성**화를 조선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자못 원기가 솟았다. 분트의 마음은 큰 바람을 일으켜 바다물을 끓게 하는듯 싶었고 큰 바위가 되여 높은 산에서 굴러떨어지는듯 싶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도 호걸대장부가 되여 거선을 타고 파도우를 질풍같이 내달리는것만 같았다.

파도는 야살스럽게 간질거리며 배전을 핥고있는데 잉어비늘 같은 구름이 비단필을 펼치고있는 하늘아래 점점 멀어져가는 섬기슭의 말뚝집마을은 이제 더는 보이지 않았다.

눈물을 머금고 손을 흔들어주던 클라라의 모습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배는 유명무명의 섬을 에돌며 유유히 앞으로만 흘러갔다.

수수천년 비바람에 씻기고 다듬어진 섬봉우리들과 깎아지른 절벽들은 참으로 기기묘묘하였다.

절벽에 뿌리를 박고 하늘높이 아지를 펼친 수려한 나무들은 남방의 풍치를 한결 돋구어주었다.

파도를 보면 파도경치이고 기슭을 보면 숲경치…

절경을 이룬 그 모습은 화면처럼 흘러갔다.

웅장한 산악이 지나가면 다시 절벽과 비탈이 다가섰다.

《참, 섬이 많기도 합니다. 한굽이를 돌면 또 새로운 섬이 나타나는구만요.》

단장의 말에 분트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섬의 나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다나니 인도네시아사람들은 예로부터 놀랄만 한 항해술과 용감성을 지니고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라침판이 없이도 카누

라는 통나무배를 타고 수백수천㎞의 먼 바다를 려행하였습니다. 단장선생, 지금 저기 보이는 저 통나무배가 바로 커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단장은 그 배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배는 오징어마냥 파도를 가르며 쏜살같이 달리고있었다.

오는 도중 배는 여러 곳에 정박하였다. 어느덧 해가 지면서 진하게 하늘을 물들이던 귤빛노을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일행은 어두워져서야 쟈까르따에 도착하였다.

밤의 적막한 어둠은 그들을 에워쌌다.

하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비좁게 붐비고있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생존경쟁으로 열을 올리는 도회지의 번화한 모습이란 어딘가 색조가 조잡하였다. 형형색색의 간판을 달고있는 음식점거리에는 불빛이 유난하였다.

야자수 설레이는 섬나라 남방의 아름다운 도시 쟈까르따의 하늘우에 뭇별도 여물대로 여물어 총총한 은하의 세계는 보석처럼 흐르고있었다.

눈에 멀면 마음속에서도 멀다 하지만 조국은 멀리 떨어질수록 마음속에 그리웠다.

단장은 창넘어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전보문초안부터 만들었다.

그날은 바로 주체63(1974)년 섣달 그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맞으시며 바쁜 일이 많으실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사들은 이 기별만은 순간도 늦잡을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새해를 축하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지도자동지.

김일성화를 찾았습니다.》

문맥은 간결하였다. 그러나 전파는 천근무게를 가지고 심야의 공간, 은하의 세계를 헤치며 대양을 넘었다.

대표단성원들의 마음은 격정에 넘치였다. 저마다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르며 숭배하는 그리움의 세계, 그것은 뜨거운 심장에서 솟구치는 열화의 분출이였고 마음속 깊은 곳의 순결한 눈물이였으며 뜨거운 동지애와 인정의 시가였다.

이것은 지어낼수도, 돈으로 살수도 없고 권력으로 강요할수도 없는 그렇듯 깨끗하고 절절하고 열렬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김일성**화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구의를 돌리시며 남방의 섬나라를 점도록 바라보고계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장군님께 지금 제일 추운 계절인데 꽃을 따뜻한 봄날에 조국에 가져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꽃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시며 될수록 빨리 **김일성**화를 조국에 가져다가 꽃피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조국에서 보내는 회답전보가 다시 우주공간을 메아리쳤다.

《조국은 지금 눈보라치는 겨울인 조건에서 열대식물인 **김일성**화를 특별히 잘 보온하여 가져오도록 할것.》

어느덧 시간은 새해의 달력에서 흐르고있었다.

대표단은 조국으로 떠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중요한것은 꽃포장문제였다.

이곳을 떠나면 추운 지대이므로 꽃을 먼거리로 운반한다는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였다.

지함과 가벼운 상자에 고정틀을 설치하고 포장을 잘하여 운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였다.

주름판지지함속의 고정틀은 발포수지로 화분의 형태와 크기에 맞게 만들었다. 발포수지와 화분은 밀착시켜 꽃이 더는 움직일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꽃이 넘어지지 않게 웃부분보다 밑부분을 더 무겁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공기갈이와 습도조절을 위하여 지함뚜껑을 유연하게 열어볼수 있게 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상하진동과 원심력상태를 고려하여 함에 넣을 때 꽃가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조심성을 다하였다.

분트는 꽃가지가 흔들리면서 쓸림에 의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부푼솜을 요소요소마다 정성스레 끼워주었다. 림크는 매 지함을 쉽게 들수 있게 손잡이까지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함에 취급주의표식을 하였다.

이제 비행기에 오르면 겨울지대를 날게 되므로 얼굼피해를 막을수 있게 식물체의 물기날기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데서도 여러가지 관리방법을 심중하게 론의하고 사전에 해당한 대책들을 깐깐히 세워나갔다.

일행은 께마요란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 비행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곳이였다.

단장은 무거운 마음을 진정하며 대기실쪽으로 갔다. 드디여 작별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였다.

분트와 림크의 눈에는 맑은것이 고이였다.

《단장선생, 부디 **김일성**화를 정히 가지고 평양에 무사히 도착해주십시오.》

분트는 대표단성원들에게 지함을 넘겨주면서 함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으며 서로 뜨겁게 포옹하였다.

대표단일행은 비행장구내에 나섰다.

려객들앞에 안내뻐스가 와서 멈춰섰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시창을 내다보았지만 마중나온 사람들이 많아 단장은 누가누군지 도무지 가려볼수 없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여 축축해진 눈언저리를 가볍게 닦았다.

비행기는 드디여 대공에 떠올랐다.

인디아양의 검푸른 파도가 눈앞에 안겨왔다.

쑨다제도의 크고작은 섬들이 비행기날개밑에서 멀리로 흘러갔다.

비행기는 동음도 가볍게 여러 나라 경내를 넘고있었다.

푸른 산천을 안고 돌던 대지와는 달리 비행기는 만년설산을 깨워 환희의 눈보라를 구름의 파도우에 휘말아올리는듯 싶었다.

주체64(1975)년 1월 중순, 이렇게 한겨울 정초의 추위속에 열대지방에서 자라던 두상의 **김일성**화는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다.

원종장을 꾸려주시여

예로부터 사람들은 란초꽃을 굳은 절개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의 상징으로 이르며 진귀하고 우아함에서 첫자리에 놓았다.

꽃의 아름다움에도 한계가 있어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김일성**화는 한번 피여 몇달동안 지지 않고 소담하게 피여있는 꽃이다.

김일성화가 조국에 도착한지 며칠이 되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꽃을 수령님께 올려 기쁨을 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주체64(1975)년 4월 15일 아침,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일성**화가 정교롭게 피여있는 사연깊은 꽃바구니를 받으시고 못내 반가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보고르식물원에서 그 꽃을 처음 보시던 10년전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감동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꽃이 곱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을 우러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화를 더 아름답게 피워나갈 결심을 무르익히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도네시아과학자들의 고심어린 탐구가 깃든 열대지방식물인 **김일성**화를 조선의 기후풍토에 적응시켜 대대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하여 중앙식물원에 **김일성**화를 보내주시였다.

대성산기슭에 훌륭히 꾸려진 중앙식물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연구기지, 식물지식보급기지,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우리 나라에서의 첫 본보기식물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8(1959)년 4월 30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식물원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식물원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중앙식물원을 주체적인 식물원으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앙식물원을 한번 돌아만 보아도 삼천리강산을 다 돌아본것처럼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앙식물원을 잘 꾸려 우리 근로자들이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느끼며 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키워나가는 로천배움터로 만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의 중요회의들과 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식물원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많은 종에 달하는 식물들과 자신께서 손수 키우시던 진귀한 식물들도 친히 보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모든 연구조건이 마련된 중앙식물원에 보내여 재배방법을 완성하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날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화를 조국에 가져온 다음 그 꽃을 중앙식물원에 보내주어 재배방법과 번식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난 **김일성**화를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키고 번식시킨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앙식물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것을 믿고 이 사업을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었습니다. **김일성**화전문온실과 연구실을 내오고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려주었으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자재들을 보장해주고 원종꽃모도 많이 마련해주었습니다.》

중앙식물원에 **김일성**화의 원종장을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은 실로 비범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화를 재배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단순히 자연이나 식물계의 희귀한 꽃을 피우고 보급하는 원예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숭고한 사업으로 전환시키심으로써 **김일성**화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뿌리내리도록 하시였다.

열대지방에서 기원된 여러해살이식물인 **김일성**화를 우리 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키우자면 그것을 재배할수 있는 온실이 있어야 하였다.

식물원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 일련의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된데 이어 식물원에서는 **김일성**화를 재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러던 주체68(1979)년 4월 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앙식물원에 현대적인 **김일성**화원종장을 꾸리도록 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중앙식물원에는 현대적인 란재배온실과 조직배양실이 따로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식물원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은 **김일성**화온실과 조직배양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식물원에서는 궐기모임을 가진 후 100여명의 성원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고 낮에 밤을 이어 건설전투를 벌리였다.

건설을 담당한 돌격대원들은 물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로학자들로부터 나어린 실험공들에 이르기까지 식물원의 모든 종업원들은 하루일을 끝마치기 바쁘게 건설장에 달려나와 건설자들과 함께 벽돌도 쌓고 미장도 하면서 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남김없이 바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온실건설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실건설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 유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무균조작대와 공기조화기, 랭동기 등의 실험설비와 비품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뜨거운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온실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과 중앙식물원의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8개월밖에 안되는 그해 말에 수백㎡에 달하는 **김일성**화온실과 조직배양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화에 대한 과학연구와 재배보급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중앙식물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김일성**화원종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연구를 거듭하여 생장점조직배양에 의한 **김일성**화재배방법에서 성공하였다.

하지만 날을 따라 **김일성**화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였다.

더우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많은 외국손님들이 **김일성**화온실을 참관할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김일성**화온실을 개건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77(1988)년 6월 이미 건설된 중앙식물원의 **김일성**화온실과 조직배양실을 중요건설대상에 맞물려 더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강력한 건설력량도 무어주시였다.

온실개건확장공사를 맡은 건설자들과 중앙식물원의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은 건설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김일성화온실이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된다는 소식에 접한 전국의 수많은 기관, 기업소들과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온실건설장에 자기들의 지성을 바치였다.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의 커다란 관심과 지원속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천수백㎡에 달하는 **김일성**화온실이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되였다.

주체78(1989)년 6월 30일 현지에서 개건확장된 **김일성**화온실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개건된 **김일성**화온실에는 **김일성**화의 생육특성에 맞게 온도와 습도, 빛을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재배온실과 전시실 그리고 현대적인 조직배양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꾸려주신 강력한 연구집단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김일성**화온실을 거점으로 당이 안겨준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고야 말 굳은 결심과 드높은 열정을 안고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이들은 식물체의 생태생리적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다음 재배와 꽃피우기조절을 비롯한 연구사업을 종전의 관념을 대담하게 갱신하고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러면서 문헌연구와 기초실험들을 재배에 도입하기 위한 생산확대시험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초시기 과학자들앞에 나선 가장 큰 애로는 열대지방에서 기원된 식물을 재배하다보니 연구사업경험이 부족한것이였다.

김일성화의 생물학적특성으로 하여 씨앗번식이나 포기자르기, 싹떼여심기 등과 같은 영양번식방법만 가지고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 수를 늘일수 없었다.

이것은 식물체의 조직이나 기관을 떼내여 무균상태에서 일정한 영양을 보장하면서 배양하여 조직을 증식시킨 후 그것을 다시 기관활성배양하여 옹근식물체를 얻어내는 조직배양방법을 적용하여 번식시켜야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원림식물의 조직배양은 시작에 불과하였고 특히 란과계통식물의 조직배양은 세계적으로 극히 적은 나라들에서만 진행하다보니 문헌자료도 충분하지 못했고 참고할수 있는 선행경험조차도 부족하였다.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의 기초로 되는 식물조직배양은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리, 생화학적과정들을 연구관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방법의 하나로 되고있었다.

연구집단은 조직배양방법으로 **김일성**화를 대량번식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를 진행하여 줄기쪼각으로부터 싹을 얻어 낸 다음 그것을

수백수천개로 증식시켜 어린모로 키워냈다. 그리고 시험관안에서 자란 어린모는 화분에 옮겨심으면서 순화시키였다.

이 과정에 수십번의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연구사들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김일성**화를 대량증식할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게 되였으며 식물체의 조직배양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을 쌓게 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김일성**화의 우수한 품종적특성을 보존하면서 그 꽃의 대량번식을 위한 모생산을 현대화하고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제때에 현실에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나날 과학자들은 **김일성**화의 조직배양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리론적으로는 영양번식과정에 형질변이가 없는것으로 되여있었지만 배양재료의 선택과 계대회수가 증가하는데 따라 꽃모양과 색갈에서 형질의 원종과 다르게 변이가 생기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연구집단은 **김일성**화조직배양에서 원종모생산체계확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원종모에 의한 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조직배양과정에 계대수에 따라 변이가 생기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부족점을 없애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감으로써 **김일성**화의 번식과 재배에서 원종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보존할수 있게 하였다.

한편 연구사들은 **김일성**화의 발육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진행하여 품종적특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과학연구와 재배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들을 부단히 축적해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화를 하루빨리 온 나라에 만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67(1978)년 8월 중앙식물원의 과학자, 기술자들로 대표단을 무어 인도네시아에 파견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화의 재배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세계적추세를 료해하고 시야도 넓히며 **김일성**화원종도 다시 고증하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꽃도 더 들여오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대표단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기간 **김일성**화를 육종한 씨. 엘분트와의 련계밑에 **김일성**화의 생물학적특성을 고증하고 란과식물의 조직배양법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초문헌자료들을 수집하고 **김일성**화도 더 가지고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표단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고 조선의 기후풍토에 맞게 **김일성**화의 재배와 번식방법을 빨리 연구완성하여 빠른 시일안에 많은 조직배양모를 자래워 전국에 보급할데 대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참으로 이것은 과학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였다.

과학자들은 연구사업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김일성**화의 조직배양모생산에 모든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2만포기의 **김일성**화모를 번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화의 번식방법이 연구완성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는 됐다고, **김일성**화를 대대적으로 피울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번식시킨 꽃모를 먼저 혁명사적부문과 중요단위들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과학자들도 **김일성**화의 생장과 발육, 빛합성, 영양생리, 형태해부학적구조 등 생물학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김일성화의 대량번식과 재배를 위한 생물학적특성이 명백히 밝혀진 조건에서 과학자들앞에 나선 과업은 **김일성**화를 보다 더 아름답게 피우는것이였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해째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주체70(1981)년 7월초에 중앙식물원과 각 도식물원들에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를 파견하여주시고 **김일성**화온실을 잘 꾸리며 해당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재배번식방법을 연구도입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8(1989)년 3월 8일 또다시 중앙식물원에 여러 부문의 과학자들로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를 무어 파견하여주시고 **김일성**화재배에 대한 연구사업을 보다 심화시키도록 하시였다.

김일성화를 사철 피우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식물원의 과학자들은 온도조절방법, 싹틔우기방법, 순치기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양생장을 조절하여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기간에만도 수백상의 **김일성**화를 피워 축전장을 이채롭게 장식할수 있게 하였다.

국가과학원 생물분원의 과학자들은 **김일성**화의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수무기영양원소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생육시기에 따르는 질소와 린, 칼리움의 흡수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마침내 합리적인 비료배합처방과 재배기질에 따르는 시비방법 등을 찾아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김일성**화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종합체계화하고 그 재배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과학자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시여 중앙식물원과 국가과학원 생물분원에 여러차례 감사문과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실로 **김일성**화연구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과학기술적성과들은 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였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국가적혜택을 받으며 아무런 걱정없이 마음껏 연구사업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

만민의 축원과 경모의 정이 담긴 **김일성**화가 세상에 태여남과 함께 그 태양의 꽃을 보존하고 영원히 꽃피울수 있게 된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일대 경사였다.

김일성화온실이 개관되자 어제날의 항일투사들과 공화국영웅들, 시대의 영웅들과 공로자들, 인민군군인들, 공장과 농장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들이 **김일성**화를 키우기 시작하였다.

김일성화의 재배와 보급사업은 열풍처럼 전국각지에서 활발해지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5대륙의 수십개 나라들에 밀물처럼 퍼져나갔다.

위도와 경도를 넘어 지구의 방방곡곡에 자주세계의 친선의 상징화로 피여나는 **김일성**화, 그 진귀한 화폭을 어찌 계절이 안겨주는 자연의 산물이라고만 하랴.

중앙식물원에 현대적인 **김일성**화원종장이 꾸려진 조건에서 **김일성**화가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게 하자면 지방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온실을 건설하여야 하였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재배시설이라고 하면 온실, 랭실과 같은 식물재배장소들과 재배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난방시설, 랭방시설, 보온시설, 해가림시설, 물주기시설 등 여러가지를 포괄하고있다.

김일성화를 그 생물학적특성의 요구에 맞게 원만하게 재배하자면 이러한 재배시설들을 갖추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온 나라가 위인칭송의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는 때에 인민군군인

들은 그 어느 단위에서보다 먼저 **김일성**화온실건설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혁명의 주력군, 선군혁명의 기수, 사회의 본보기로 자라난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뿐아니라 태양의 꽃을 키워내는데서도 앞장에 서고있었다.

그들은 온실건설에서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가장 투철한 당과 수령의 근위병들답게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인민군대안의 각급 부대와 단위들에서는 현대적인 온실을 건설해본 경험도 없었고 설비와 자재가 부족한 속에서도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이 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갔다.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들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불멸의 꽃을 과학기술적으로 재배보급할수 있는 온실들을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전국각지에는 300여개의 **김일성**화재배온실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수많은 현대적인 **김일성**화재배온실을 일떠세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흠모심이 얼마나 절절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절이 따로없이 피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화창한 4월의 봄이 오면 기후의 차이가 없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더욱 만발하게 피여나고있다.

꽃의 세계는 아름답다

친선녀 모란 유수프

친선녀 모란 유수프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주재 이전 인도네시아림시대리대사 유수프의 딸에게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다.

응고없는 세월이 소리없이 흘러가는 속에 1990년 어느날 열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땅에서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20대의 처녀 모란 유수프의 결혼을 축하하여 친히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사랑의 선물을 가슴한가득 받아안은 모란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세니아마을의 야자수들도 감격에 설레이는듯 쉬임없이 잎새를 흐느적거리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주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피워안고 멀리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는 얌전하고 유순한 모란 유수프, 그의 가슴은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하다면 이 평범한 모란 유수프는 어떤 처녀인가.

주체54(1965)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때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림시대리대사였던 수프리 유수프는 외교관례에 따라 대통령의 한 수행원으로 수령님을 모시는 사업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 과정에 유수프는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로숙하고 현명한 수령이시며 얼마나 인자하고 소박하고 겸손한분이신가를 직접 목격하

면서 그이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그의 마음은 갈수록 더욱 뜨겁게 굳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대외활동을 하는 기간 그는 귀여운 딸을 보게 되였다.

천리마로 이름떨치는 조선의 아름다운 수도에서 첫딸을 보게 된 유수프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는 딸에게 조선식이름을 지어주고싶었다.

점차 그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딸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자리잡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망녕스러운 생각을 자책하며 온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여보, 씨스바디. 나의 생각이 너무 엉뚱하지. 어찌보면 버르장머리가 없고…》

《아무렴 **김일성**주석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감히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뢰인단말이예요. 그건 안돼요.

수프리 유수프, **김일성**주석님은 세계가 칭송하는 대성인이시예요.》

안해의 가식없는 말이였다.

그들은 다 쟈까르따종합대학졸업생들이였다.

결혼하여 깨가 쏟아지게 살면서 남편이 무슨 의견을 내놓으면 언제한번 반대한 일이 없는 유순한 성격을 가진 안해였지만 오늘은 남편의 의견에 인차 동의하지 못하였다.

해당 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물이 아직 잠에서 깨여나지 않은 이른 새벽 이슬에 젖은 정원길을 조용히 걷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사색을 무르익히시며 서재에 들어서

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붓을 드시고 흰종이우에 《친선녀 모란》이라는 이름을 써놓으시였다.

가문의 혈통을 담아 아버지의 성에 모란꽃처럼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보신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붓을 놓으시며 조용히 웃으시였다.

평양에서 태여난 친선녀의 재롱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안겨드는 감을 느끼시였던것이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수프리 유수프에게 딸의 이름을 적은 친서를 그대로 보내주시였다.

태양같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수령님의 친서를 받아안은 유수프부부는 감격에 목메여 어깨를 들먹이였다.

씨스바디는 쌔근쌔근 잠들어 꽃동산에 가있는 딸을 껴안고 남편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세월은 류수같아 어느덧 모란 유수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신대로 모란꽃과 같은 어여쁜 처녀로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였다.

흘러가는 세월속에서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월의 흐름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난날의 일들을 희석해버리군 한다고…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지워지지 않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였다.

모란 유수프는 매일 아침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솟아오르는 태양을 반기며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꾸기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몸소 지어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고마움을 순간도 잊을수 없었다.

주체72(1983)년 2월, 모란 유수프는 어버이수령님께 뜨거운 감

사와 함께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축원하는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의 한 평범한 처녀가 삼가 올린 편지와 사진을 정겹게 보아주시였다.

그 사진은 쟈와섬의 중부 족쟈까르따에서 서북쪽으로 백여리 떨어져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불교유적 보로부두르앞에서 찍은것이였다. 보로부두르란 쟈와말로 고개우의 절간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돌로 다듬어서 높이 30m이상 쌓아올린 굉장히 큰 유적이였다.

력사의 흐름속에 흙모래에 파묻혔다가 8세기 말엽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된 발굴과정에 다시금 제모습을 찾고 《꿈에서 깨여난 유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곳에서 《꿈속에서 자라난 처녀》가 찍은 사진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펜을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란에게 사랑의 회답편지를 쓰시였다.

《사랑하는 모란 유수프에게

…

사진을 보니 모란이의 이름을 지어주던 일이 선합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모란이가 벌써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갈 나이가 되였으며 나에게 문안을 하고 축원의 인사까지 보내게 되였으니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그러시고는 모란이를 평양에 오도록 초청하시였다.

정녕 세상에 나라도 많고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도 많지만 한 나라의 수령이 이역만리에 사는 이국의 애어린 처녀를 위해 몸소 펜을 드시고 회답친서까지 보내주시는 그런 전설같은 이야기가 그 어디에 있었던가.

주체72(1983)년 9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 모란 유수프와 그의 어머니 씨스바디는 우리 나라를 방

문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공화국창건 35돐을 기념하고있던 때였다.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대표단과 대표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창건 35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의 수많은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만나주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모란의 모녀일행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친히 그들을 불러주시였다.

그들 모녀가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일군의 안내를 받아 어느 한 곳에 들어섰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빛같이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일어서시여 마주 걸어오시였다.

어느새 모란은 어려움도 잊고 《아버지》하고 흐느끼며 자애로운 그 품에 와락 안기였다.

정녕 그 품은 만민이 다 안겨사는 자애로운 어버이품이였다.

모란은 이제는 다 큰 처녀애답게 매사에 몸가짐을 잘하고 **김일성**주석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조언도 그만 잊어버렸다는것을 한순간이 지나서야 감수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인 씨스바디 역시 감격에 겨워 《주석님!》하고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수령님앞에 정히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씨스바디를 일으켜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을 손잡아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였다.

모란은 해말쑥한 얼굴에 쌍가풀진 감실감실한 눈, 얄팍한 입술, 꼭 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고 키는 벌써 어머니와 겨루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 안광과 미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물없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다심한 인정미가 흘러넘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날 저녁 모란 유수프는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앞에서 밤늦도록 일기를 썼다.

…

오늘은 가장 기쁜날이였습니다.

자애로운 **김일성**주석님은 저의 친아버지이십니다.

…

매 글줄마다에는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이 담겨져있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은 모란 유수프에게 있어서 삶의 자양분이였다.

순결한 새 세대의 마음속에 차고넘치는 뜨거움과 깨끗함이 그대로 어린 눈물이 그의 두볼을 타고내려 소리없이 일기장을 적시였다.

일기를 써내려가는 모란의 머리속에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행복의 무아경속에서 모란의 어머니도 밤이 지새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청류벽기슭으로 산책하며 모란봉에 올랐다.

가없이 넓은 하늘은 물을 들인듯 푸르고 이끼덮인 벼랑과 단풍이 들기 시작한 숲은 초가을의 정서를 한껏 안겨주었다.

가끔 푸른 하늘을 떼지어 날으는 학의 울음소리가 귀맛좋게 들려오고 다람쥐와 청서가 이 나무, 저 나무 오르내리며 재주를 부리였다.

꿈속의 환상같은 주위세계는 다소 우중충한 감도 있었지만 청신하기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었다.

기암절벽으로 병풍을 친듯한 릉선의 고즈넉한 숲속 단풍나무가지사이로 날아예며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래소리는 더욱 유정하였다.

모란봉기슭을 따라 지즐지즐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나타났다가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나타나군 하였지만 그칠줄 모르는 그 흐름은 모란 유수프의 가슴속에 노래가락을 안겨주었다.

원래 금수산으로 불리워온 이 명산은 산의 생김새가 모란꽃처럼 생겼다 하여 세월의 흐름속에 모란봉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

모란 유수프는 모란봉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저으기 매혹되였다.

《어머니, 모란봉이 이렇게 아름다운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흘러가던 구름도 여기서 자고 가고 지나가던 바람도 여기서 쉬여간다는 풍설이 있었다고 한다.

너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친선녀로 자라고 모란꽃을 닮은 이 모란봉처럼 미덥게 자라야 한다.》

그들 모녀는 말할수 없는 행복감으로 하여 시간이 가는줄 몰랐다.

그때로부터 7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란 유수프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의 결혼식에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이제는 다 커서 시집을 가는데 결혼식장에서까지 울기는…. 곱게 한 화장이 다 지워지겠다.》

어머니가 가볍게 혀를 차며 하는 말이였다.

《어머니,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주석님이 그리워서 그럽니다.》

《그래그래. 내가 왜 그걸 모르겠니.》

모란 유수프는 종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타이르던 어머니도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고 결혼식참가자들도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았다.

그러고보면 눈물이란 슬픔이 만드는것이 아니라 사랑이 만드는것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전시한 공예병풍 《모란봉》과 은귀중품함을 비롯한 갖가지 선물마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을 뜨겁게 느끼였다.

이것을 어찌 인도네시아의 평범한 녀성 모란 유수프에게만 베풀어

지는 은정이라고만 하랴!

정녕 이것은 만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였다.

모란 유수프는 수령님께서 첫날 옷감으로 보내주신 천으로 결혼식옷을 우아하게 지어입고 인도네시아인민들이 그처럼 사랑하는 **김일성**화다발을 정성껏 받쳐든채 신랑과 함께 나란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유수프는 먼 옛날 부지런한 농군이 생일날에 밥 한그릇도 대접받지 못하고 밭에 나가 일하다가 잠간 조는 사이에 하늘나라 선녀들이 옥황상제가 보내는 생일음식이라고 하며 산해진미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어 맛있게 먹다가 소슬한 바람소리에 놀라 깨여보니 꿈이였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위대한 국가주석께서 이국의 나어린 처녀에게 결혼식선물을 보내주시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었다.

세상에 고고성을 터뜨리였을 때에는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고 시집갈 때에는 국경너머로 결혼식선물까지 보내주신 **김일성**주석님.

실로 그이의 사랑은 정견과 신앙의 장벽을 넘고 언어와 피부색, 남녀로소의 차이를 몰랐다.

신랑신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때 수카르노대통령으로부터 새로 육종한 란과계통의 진귀한 꽃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 력사적인 화폭앞에서 수령님을 그리며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친선녀 모란 유수프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의 정서와 미래에 대한 정신적양양의 초석을 이루는것은 수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뜨겁고 정다운 사랑과 끝없는 믿음의 세계였다.

정답게 반짝이는 눈동자, 발그스레하게 물든 두볼, 항시 조용한 웃음을 머금은 붉은 입술은 모란 유수프의 유표한 모습을 더 짙게 해주었다.

봄날의 신록처럼 온 세상이 노래하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안

고있는 홍안의 그 자태는 볼수록 자랑스럽고 정에 겨웠다.

옛《비단길》을 넘어

1980년대 첫해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은 타이에로의 공연의 길에 올랐다.

중국의 울루무치에 내렸던 비행기는 곧바로 타이를 향해 날았다.

비행기가 떠서 얼마가지 않아 긴 락타무리가 흘러가는 사막이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황막한 모래불엔 들꽃 한송이 필것 같지 않았다. 허나 비행기안엔 보기만해도 미소가 절로 피여나는 꽃봉오리들의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났다.

옛날같으면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매달려 어리광이나 부릴 예닐곱살짜리 유치원어린이들로부터 열네댓살까지의 학생들, 그들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대외공연경력을 가진 평양학생소년예술단원들이였다.

구름에 가리웠다 나타났다 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 그 옛날 경주를 떠나 중국의 항주, 광주를 거쳐 이 사막길을 걸어 인디아에 갔다가 아프카니스탄, 페르샤를 거쳐 돌아온 혜초도, 또 락타를 타고 동남아시아나라들과 비단무역을 하러 다니며 사막에 《비단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놓은 중국사람들도 고구려의 애어린 후예들이 오늘 예술을 가지고 하늘길을 날아다니게 될줄은 몰랐을 것이다.

비행기는 약간 고도를 취하고있었다.

《비단길》은 아득히 멀어져갔다.

검푸른 파도와 같은 산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것이 타이의 룡마

루라고 하는 쿤탄산줄기가 아닌가싶었다.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푸른 파도같은 쿤탄산악이 광활한 벌판으로 이어졌다. 그 복판으로는 강줄기가 쭉 뻗어갔다. 그것은 타이의 젖줄기 메남강이였다.

비행기는 점차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와 타이사이의 관계는 한해전인 주체68(1979)년 9월 국회하원의장이 인솔하는 국회하원의원 40여명을 포함한 각계인사 136명으로 구성된 타이왕국 친선촉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 긴밀해졌다.

친선촉진대표단성원들은 사람위주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의 아름다운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회생활의 일단이라도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타이부인련합회가 평양학생소년예술단에 대한 기록영화를 요구해왔고 그후에는 재단리사회대표단이 소년예술단의 타이방문을 요청하였다.

이런데로부터 타이사람들은 조선의 나어린 예술사절들을 따뜻이 맞이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공연장소인 타마사트종합대학 극장과 대학교사는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였다.

타마사트종합대학 극장은 2 500석의 좌석을 가진 작지 않은 극장이였다.

극장과 호텔에는 두 나라기발이 휘날리고 환영구호가 나붙었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은 자선단체의 요구에 따라 계약되였지만 타이정부와 인민들, 청년학생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국회하원의장은 공연을 보고 학생소년예술단 단장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는 국회를 대표하여 **김일성**주석님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타이친선촉진대표단에 고무적지침으로 되는 말씀을 주신 잊지 못할 그날을 우리는 가슴속에 간직하고있습니다.

주석님께서 재능있는 소년예술단을 파견하여주신것은 타이인민을 크게 감동시키고있습니다.

나는 나어린 소년들의 완전무결한 예술적형상과 놀라운 기교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나어린 학생들의 소박한 공연을 보고 국회하원의장이 그처럼 흥분하게 되기까지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몸소 접견해주시고 큰 나라에 대한 숭배사상과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없애고 자기 힘을 믿고 나라를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그때 밝혀주신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를 그는 자기 나라를 방문한 조선어린이들의 예술공연에서 다시 찾아볼수 있었던것이였다.

흥분에 찬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선정해주신 어린이들의 공연종목을 하나하나 다시 새겨보았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만경대는 꽃동산》과 같은 종목에서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흠모의 마음과 그 품속에서 누리는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였는가 하면 가야금독주 《초소의 봄》, 경음악 《가마마차 달린다》, 손풍금독주 《통일렬차 달린다》와 같은 종목에서는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삶의 희열과 랑만에 넘쳐 투쟁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보여주었다. 장새납독주 《그네뛰는 처녀》, 무용 《소고춤》과 같은 민속적인 색채가 짙은 종목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었다.

한편 초청단체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와서 꼭 공연종목에 넣어달라고 했던 체육무용 《즐거운 등산야영》에는 어려운 난관을 기

뿜으로 헤치며 용감하게 전진하는 미래의 주인공들의 씩씩한 모습이 비껴있었다.

관람자들은 어린이들의 공연을 《인간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높이에서 응결된 결정체》라고 하면서 훌륭한 예술의 재사들인 귀여운 어린이들의 특징을 열가지로 즉 순박성, 솔직성, 근면성, 성실성, 명랑성, 겸손성, 문화성, 자각성, 조직성, 규률성으로 꼽았다.

그들은 앞날의 주인공들이며 미래인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사상의 거장이시고 인간완성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놓고보아도 타이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공연에서 무엇을 보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직감할수 있었다.

타이총리는 자기 나라를 방문하는 유엔사무총장 영접관계로 정부관방실장을 공연관람에 대신 먼저 내보내고 그로부터 며칠후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는 서광의 나라의 예술천사들을 한번 더 보고싶어 꽃바구니를 가지고 무대에 올라왔다고 하면서 20분동안이나 어린이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고 그 다음날에는 예술단단장과 지휘자를 따로 만나주었다.

그는 복잡다단한 국내외정세로 하여 예술단단장을 미처 만나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중하게 일어나서 《**김일성**주석각하께 보내는 저의 가장 깊은 축원의 인사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훌륭한 학생소년예술단을 보내준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미 총리를 한바있는 크리앙샤크는 공연을 본 다음 축축히 젖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가타부타 아무 말없이 돌아갔다.

며칠후 타이주재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 대표는 단장을 찾아왔다.

《단장동지, 나는 어제 이미 총리를 한바도 있고 오늘은 정치인으로 활동을 벌리고있는 크리앙샤크를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조선전쟁때 미제의 사촉을 받은 정부의 지시로 조선에 파견되여 불미스러운짓을 하였는데 그것이 가슴쓰리게 후회된다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권하였을 때 우리 나라와 국가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것이 큰 오유였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청을 받고도 어지러운 과거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의 이야기가 끝나자 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호텔밖을 내다보았다. 숨가쁘게 흐르는 대도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단장동지, 무슨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예, 대표동지. 나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지는구만요.

몇해전 우리 수령님께서 외국의 한 정객을 만나신 자리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외곡선전을 하여도 세계인민들은 우리가 인민을 위하여 하고있는 정당한 일에 대하여 어느때 가서든지 다 알게 될것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됩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누구에게나 정당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필연적입니다.》

공연은 날이 갈수록 초만원을 이루었다.

우리 평양학생소년예술단에 대한 사회적반향이 점점 커가고있을 때 국왕과 왕후의 지시를 받은 공주 라프 프라야가 왕족들을 이끌고 극장에 나왔다.

공주는 공연이 시작되여 끝날 때까지 기쁜 미소를 지으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화려한 꽃바구니를 무대에 올리였다.

라프 프라야는 단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훌륭한 공연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저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여주십시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갔다.

라프 프라야는 자기 어머니인 왕후의 생일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왕궁에 초청하였다.

공주는 단장을 왕후에게 안내하였다.

단장은 예술단의 이름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그러자 왕후는 《감사합니다. 나는 조선에서 온 나어린 천사들을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훌륭한 예술단을 보내주시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성**각하께 진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왕후는 어린 예술사절들을 생일손님으로 맞아들이기에 앞서 공주를 시켜 그들을 왕궁화원으로 안내하게 하였다.

예술단단장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중심화대에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짙은 향기를 풍기며 아름답게 피여있었다.

소년예술단은 환성을 올리였다.

공주는 조용히 설명을 붙이였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이 꽃은 인도네시아 수카르노대통령이 **김일성**화로 명명하여 주석님께 올린 진귀한 꽃입니다. 우리 타이사람들도 이 꽃을 피우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은 거대한 투쟁력과 창조력을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천재적투사이십니다.》

이날 왕후는 자기가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조직을 계약한 자선단체인 재단리사회의 회장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학생소년예술단이 타이체류기간에 있은 인상적인 날은 하루이틀이 아니였다. 타이에서 법절로 성대히 기념하는 날에 타마사트종합대학에서는 체육대회가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경기에서 우승한 팀들에 **김일성**화화분과 댕기가 수여되였는데 댕기에는 《**김일성**주석님 계시기에 행복한 우리》라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수여식은 관현악의 장중한 주악속에 진행되였다.

단장은 이날 종합대학의 명예손님으로 초대되여 뜻깊은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부풀어오르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식물학박사인 타마사트종합대학 총장 푸다 랑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기회에 **김일성**화모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명망높은 작가 파이툰 순톤은 저의 외삼촌입니다. 그가 쓴 걸작품은 〈폭풍전야의 정적〉입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미제의 고용병으로 1950년대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타이 병사 켈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김일성**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에 대한 지지와 국제적련대성의 감정을 실감있게 펼쳐보이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총장은 8년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천리마조선의 참된 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타이를 방문하여 타마사트종합대학 극장에서 공연하게 되니 총장으로서 긍지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단장 역시 이 종합대학에서의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나라에 대한 타이인민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이국에서 피여나고있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

정녕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의 결정체였다.

유정한 목걸이

프랑스의 남부지방도시 뚤루즈의 거리는 조용하였다. 국제성악콩클에 참가한 우리 나라 예술인들은 여기서 방글라데슈의 한 녀성을 만났다.

방글라데슈는 아시아남부의 벵갈만에 위치하고있는 나라이다.

옥같이 맑은 얼굴에 한껏 웃음을 짓고있는 그는 **김일성**화목걸이를 걸고있었다.

그는 평양을 방문한바 있는 한 다카예술단의 독창가수 아비다 숱타나였다.

새까만 곱슬머리에 썰매있는 유연한 코날, 윤기도는 눈동자로 하여 보기에도 어여쁨과 매력을 자아내는 그가 어떻게 되여 **김일성**화목걸이를 걸게 되였는지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느날 뚤루즈시내에서 교외쪽으로 멀리 떨어진 가론느강기슭 수림속에서는 콩클참가자들의 야유회가 있었다. 이 지방에서는 무성한 숲을 가리켜 마키라고 하였다.

그야말로 마키에는 각종 나무들과 관목류들이 제멋대로 섞이여 있었다.

가수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노래를 불렀다.

숱타나의 애창곡은 류별나게도 조선노래 《고마워라 어버이사랑》이였다.

어이하여 이 노래가 그의 지정곡으로 되였던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그때 아비다 숱타나는 조선노래 《고마워라 어버이사랑》을 조

선말로 독창하였다.

...

고마워라 어버이 그 품속에서
인민들은 화목하게 살아간다네
수령님 모시고 사는 이 행복
온 세상은 부러워 우러러 본다네

...

노래가 끝나자 수령님께서는 제일 먼저 박수를 쳐주시였다.

아비다 슐타나는 무대생활관례를 떠나 공연도중에 수령님께 무릎을 꿇고 조선절을 올리였다. 장내에는 박수소리가 더 높이 울리였다.

하나의 언어적수단을 대신하고있는 그 박수는 재청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슐타나는 다시 무대에 나섰다.

그는 방금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반복하였다.

공연이 끝난 다음 수령님께서는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예술인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시며 나가실 때였다.

갑자기 한 녀배우가 촬영대에서 뛰여내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쥐여져있었다.

예견치 않았던 이 놀라운 광경에 모든 시선들은 그에게 집중되였다.

그는 독창가수 아비다 슐타나였다.

원래 사람들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 방글라데슈녀성들의 성미를 그대로 지닌 그가 이렇게 행동하기까지에는 그 어떤 남다른 사연이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이 나라에는 이슬람교도가 많다. 슐타나 역시 어렸을 때 북쪽지방

의 이슬람교도 가문의 딸로 자라났다.

아비다 슐타나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아름다운 목청을 가지고 광막한 초원에서 노래부르기를 좋아하였다. 이것은 이슬람교도가문 녀자들이 외출을 잘하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에도 보통 부르카라고 하는 겉옷을 뒤집어쓰고 머루알같은 눈만 내놓고 다니는 습관과는 상반되는것이였다.

슐타나는 부르카를 뒤집어썼다가도 초원에서 노래부를 때에는 정히 벗어놓고 꽃수건을 날리군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고 영광의 기념촬영까지 한 그날저녁 방글라데슈예술인들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러나 아비다 슐타나만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눈물은 소리없이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건만 그 사연을 도무지 알수 없었다.

예술단 안내책임자인 우리 나라 예술교류협회 서기장이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슐타나양, 어디 몸이 편치 않아요?》

《아니예요, 괜찮아요.》

그는 눈섭을 내리깔며 저으기 미안해하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해있어요?》

한참만에 마음을 진정한 슐타나는 안내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평양으로 떠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해솟는 아침의 나라 조선에 대한 방문은 우리 가문의 더없는 행복이다, 만약 절호의 기회가 있어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오면 꼭 그이의 존함친필을 모셔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메카를 순례하지 않아도 우리 집은 더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가문이 된다, 만민의 태양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 공연하기만 해도 그것은 큰 행운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방글라데슈에서는 해마다 수십만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교의 발상지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의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것이 하나의 법도로 되고있었다. 이슬람교도들은 일생에 한번은 신에 대한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메카를 다녀와야 하며 그 어디에서 생활하든 하루에 다섯번씩은 메카쪽을 향하여 례배하는것을 숙명적인 의무로 간주하고있었던것이다.

조용히 마음속사연을 터놓는 처녀의 호수같이 고요한 눈동자에는 가랑가랑 눈물이 맺히였다.

아비다 슐타나의 아버지 카비르 챤다르는 방글라데슈의 수도 다카는 물론 지방도시에까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보석세공품제조업자였다.

그의 이름은 유네스코 재사들명단에도 기록되여있었다.

어머니는 보석의 나라로 불리우는 스리랑카의 콜롬보녀성이였다. 슐타나는 외동딸로서 다카종합대학 음악학부를 졸업한 가수였다.

그날 저녁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외국의 한 평범한 예술인이 품고있는 소원을 말씀드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애롭게 웃으시며 예술단이 어느날 떠나는가고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제 날이 밝으면 떠난다고 대답을 올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손으로 가볍게 책상을 매만지시다가 장군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데 그 소원을 풀어주시였으면 어떻겠는가고 말씀드리시였다.

금수산 푸른 숲에는 달빛이 유정하게 흐르고있었다.

정원의 풀잎도 잠들었는데 수령님께서는 다카의 처녀가 소중

하게 품고 온 수첩에 활달한 옥필체로 써주시였다.

《김일성》

페르샤의 폭양도 서늘케 하고 히말라야 얼음봉우리도 녹여갈 숭고한 인간애, 무상의 친화력이 그 존함에 흐르고있었다.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품은 한생을 안겨 살아도 뜨겁기만 하고 만민이 다 안겨도 끝이 없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였다.

어느 대륙에 살건 어느 나라 말을 하건 그 존함은 사전을 필요로 하는 번역의 장벽도 모른다.

친근한 그이의 존함은 인도네시아출판물은 물론 방글라데슈와 네팔, 또고와 말따, 뻬루 등 수많은 나라 소학교 교과서의 갈피에 새겨져있는데 오늘은 타향만리에서 살고있는 한 처녀가수의 수첩에도 친필로 수놓아지고있는것이다.

슐타나는 그 수첩을 뚤루즈국제성악콩클 참가자들의 야유회에서 보란듯이 자랑하였다.

딸이 조선을 방문하여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고 다카에 돌아왔을 때 카비르 챤다르는 아버지로서의 행복감을 금치 못하였다.

《여보, 잠이 오지 않누만.》

《정말 꿈만 같은 일이예요.》

안해의 젖은 목소리였다.

《김일성》

그들은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을 보고 또 보았다.

아버지는 귀여운 딸에게 보석목걸이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였다. 다른것 같으면 몇주일동안에 제작할수 있으련만 챤다르는 정성을 다하여 몇달 걸려서야 완성하였다. 그는 검정공단을 씌힌 작은 곽까지 정히 만들어 딸에게 보여주었다. 슐타나는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목걸이의 가운데에는 자연색 그대로 형상된 **김일성**화가 새겨져있었다.

실로 어둠속에서도 밝은 빛을 뿌리는 보석목걸이였다.

카비르 챤다르는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뚤루즈국제성악콩클에 떠날 때 사랑하는 딸에게 이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물론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애용하던 진주목걸이도 있었고 황금과 보석들을 박아넣은 기가 막히게 품위가 있는 베네찌야식의 십자가도 있었다.

그러나 슐타나는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손목에 진주보석이나 장식띠 같은것은 두르지 않았지만 **김일성**화목걸이만은 귀중하게 간수하고있었다.

세상에는 과학적발명이나 예술작품, 수공예품 등에 수여하는 상들이 얼마나 많던가.

하지만 슐타나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김일성**화가 새겨진 목걸이를 받고보니 오스카상이나 금닭상, 백합상이 부럽지 않았다.

조선에 대한 아름다운 감정,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감정은 끓어넘치는 기쁨으로 슐타나의 가슴속에 맑은 샘처럼 솟아났다.

청신한 뚤루즈수림의 무한한 공간은 슐타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었다.

한떼의 오리와 두마리의 게사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수 없다는 명곡을 노래하고있던 여러 나라 가수들도 그를 둘러싸고 명절날처럼 흥성거리였다.

목걸이에서 **김일성**화를 보는 순간 가수들은 그처럼 뜻이 깊고 값진 귀중품을 항상 몸에서 뗄줄 모르는 사연을 직감할수 있었다.

목걸이, 그것은 흔히 녀성들의 치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태양숭배의 마음이 깃든 **김일성**화목걸이는 아비다 슐타나에게 있어서 례사로운 장식품이 아니였다.

심장형장식에 **김일성**화의 꽃송이를 부각시키고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한 목걸이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만민의 순결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있었다.

머나먼 아프리카땅에서

수세기동안 식민주의자들의 발굽에 짓눌려있던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땅에 어느덧 광명의 빛이 비쳐들어 태양의 뜨거움으로 압제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참된 삶의 길이 열려졌다.

그 은인은 과연 누구이신가.

…

아프리카나라들이 피로써 쟁취한 독립을 수호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자면 자주의 기치를 들어야 하였다.

자주는 독립한 아프리카나라들에 있어서 유일한 생존의 길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세계정치의 관심밖에 있던 아프리카나라들의 자주화문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해결을 보게 되였다.

하기에 아프리카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자기들을 도와주고 갈길 몰라 갈팡질팡할 때 뜨거운 손길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운명의 구세주, 자주의 태양으로 끝없이 칭송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사상과 독창적인 정치로선에 공감하고 반제자주의 길로 방향전환을 한 아프리카의 정치인들속에는 또고의 이전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도 있다.

주체63(1974)년 2월초였다.

허담은 대서양연안의 나라 또고에서 날아온 전보문을 가지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드린 후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도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보문을 보시고 몹시 놀라와하시였다.

허담은 수령님께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또고는 오랜 세월 제국주의기반에서 자주권을 잃고 지내오다가 1960년대초에 독립을 달성한 나라였다.

또고는 세계적으로 린회석매장량이 많은 나라이다.

독립후 에야데마대통령은 부유한 나라의 경제적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린회석을 비롯한 나라의 광물자원을 국유화하였다.

그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면적도 크지 않은 이 자그마한 나라가 감히 자기들앞에서 떳떳이 머리를 들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이 몹시 비위에 거슬렸던 제국주의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암살음모를 조작하였다.

호위성원들은 모두 숨을 거두고 에야데마대통령은 경상을 입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도록 귀한 보약들도 보내주시였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저를 뜨겁게 품어주신 은인은 오직 **김일성**각하뿐이십니다. 그이는 나의 맏형님이십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정점이 있고 강이 아무리 깊어도 끝이 있지만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는 기슭이 없었다.

체격이 억대우같은 군부출신 정치가는 보약상자우에 굵은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보약들은 실로 불사의 명약이 되여 그의 온몸에 흘러들었다.

건강이 거의 회복되자 에야데마대통령은 또고주재 우리 나라 대사를 찾았다.

《대통령각하, 그 몸으로 어떻게…》

대통령은 자기의 조선방문결심을 대사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아니요, 나는 내발로 직접 조선에 찾아가 위대한 **김일성**각하께 최대의 존경과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인간적매혹과 다함없는 흠모심은 가슴속에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리하여 에야데마대통령은 주체63(1974)년 9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 나라를 찾아온 그를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이날 에야데마대통령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음모사건이 찍혀진 사진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란 이렇게 악독하다고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독립후에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독립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이 유일당인 인민련합을 창건한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하며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후날 국제정치외교사에 유명한 명언으로 기록된 당의 통일단결을 복숭아에 비유한 일화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야데마대통령과의 담화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였다.

그날 복숭아의 살은 인민대중이고 씨는 당이며 씨속의 씨앗은 수령이라고 말할수 있다, 꿀벌들이 왕벌을 중심으로 떼를 지어 규률있게 움직이는것처럼 민족도 진정한 국가수반을 중심으로 뭉쳐야 존엄을 시위할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그가 지금껏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명언중의 명언이였고 고견중의 고견이였다.

에야데마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생의 보호자이시였을뿐아니라 애국의 뜻을 실현할 방도를 가르쳐주신 고마운 스승이시였고 반제자주에로의 인생전환의 길을 열어준 은인이시였다.

체류기간 평양체육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에야데마대통령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연단에서 대통령은 힘있게 강조하였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하며 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현실적인 념원인 사람을 중심에 놓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연설할 때 60여명의 수원들이 무대에 올라 에야데마의 뒤에 서서 도중도중 위대한 수령님의 만세를 부르며 그이를 만민의 태양으로 칭송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자작시를 열정적으로 읊었다.

주체의 태양 **김일성**
당신은 우리의 령도자
김일성 당신께 감사드린다
세계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
당신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장내에는 폭풍과 같은 박수갈채가 일었다.

수행원들은 대통령이 읊는 시를 음악선률에 태워 전통적인 민속률동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박수를 쳐주시였다.

이 희한한 광경을 펼치기 위하여 대통령은 초대소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련습을 진행하였다.

실로 수령님을 경모하는 이 류다른 화폭은 세계외교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돌아간 에야데마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정치가로 되였다.

그는 귀국하여 미국의 앞잡이들과 관계를 단호히 끊는 결단을 내리였으며 강한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에게 당당히 맞서나갔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원에서 또고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시다가 자그마한 또고가 미국의 뺨을 호되게 후려갈겼다고 하시며 이 나라의 자주적립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얼마후 또고주재 우리 나라 대사는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되였다.

대통령은 대사를 통하여 자기 나라에 기념비를 건립하도록 도와달라는 제기를 해왔다.

수수백년 식민지강탈자들의 노예무역의 대상으로 숨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지내면서 제 나라, 제 땅에 표식주하나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던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강토의 많은 재부를 잃은채 독립하여 눈에 띄우는것이란 열대산림의 수풀과 태고연한 싸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삶이 약동하는 그 땅에 기념비를 세울 생각을 하였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통령의 제의를 귀중히 여기시여 여러차례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친히 대표단을 무어 그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여 현지에 파견하시였다.

그리하여 기념비건립대표단은 주체65(1976)년 여름부터 다음해초까지 대서양기슭의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조각창작 및 제작사업을 진행하였다.

기념비제막식은 민족해방 10돐이 되는 날에 수도 로메의 인민련합광장앞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제막식에는 여러 나라 대통령들과 또고주재 외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행사에 특사로 허담부총리(당시)를 파견해주시였다.

21발의 례포가 울리는 가운데 기념비제막포가 벗겨졌다.

대통령은 부총리의 손을 잡고 놓을줄 몰랐다.

《**김일성**주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비껴있었다.

공중에 높이 솟은 기념비를 바라보며 이웃나라의 대통령들도 감개무량해하였다.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은 감동된 나머지 지팽이까지 잊어버리였다가 경찰들의 도움으로 다시 찾아쥐였다.

대통령은 제막식에 참가한 위대한 수령님의 특사와 이웃나라의 대통령들과 함께 기념비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기념비건립대표단성원들에게 국회의 정령으로 훈장을 수여하였다.

귀국하기에 앞서 대통령은 그들을 만나주었다.

접견석상에서 대통령은 《아프리카라는 말은 라틴어로 태양이 불타는 땅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있습니다. 이 대륙에서 많은 나라들이 1960년대를 전후하여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정말 해가 불타오른 시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해는 지지 않고있습니다. 광활한 대지 아프리카땅을 비쳐주는 그 해빛은 바로 **김일성**각하의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철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이고 열대수림의 자양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대통령은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친서를 전달하면서 수령님의 건강을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흰대리석책상우에는 아름다운 화분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김일성**화였다.

대통령은 화분에 물을 주고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정답게 이야기하였다.

《**김일성**화에 물을 주는것은 나의 일과의 한부분입니다. 나는 얼

마전에 모리따니에 갔다가 이 꽃을 가지고왔습니다. 이 꽃이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이 **김일성**화로 명명하여 **김일성**각하께 올린 꽃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주와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20세기의 현대사에 뚜렷한 장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은 **김일성**화와 더불어 머나먼 아프리카대륙에도 빛나고있음을 대표단성원들은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기념비건립대표단은 조국에 돌아와 허담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에야데마대통령이 모리따니에서 가져온 꽃이라고 하면서 **김일성**화에 물을 주던 이야기를 인상깊게 하였다.

그러자 허담부총리는 추억의 안개를 헤치며 깊은 사색에 잠기였다.

주체64(1975)년 5월말～ 6월초였다.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만리 떨어진 서아프리카의 모리따니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때없이 황사가 일어나는 사하라사막의 나라에 수령님을 모신 일군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모리따니로 말하면 너무도 건조하여 땀이 나도 씻을 사이없이 마르고 시집가는 신부가 구름한점 보기만 해도 장수를 낳는다는 풍설이 굳어질 정도로 몇년가도 비방울은 고사하고 늘 열풍과 함께 개여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락타군들은 가도가도 끝이 없는 모래언덕을 넘고넘다가 물 한고뿌를 얻으면 액체금을 마셨다고 기뻐하였다.

아프리카의 그 어디에나 수려하게 우거진 야자수수림이 여기에도 있어 수령님께 한가닥 서늘한 그늘이라도 펼쳐드린다해도 허담의 마음 그리 저며들지 않았을것이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돌아다보아도 아득한 사막의 광야였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때 5대륙의 4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인 아프리카의 통일기구의 의장석을 차지하고있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두참관을 마치시고 정부초대소에 들어서시다가 1층홀 량쪽에 놓은 화분을 유심히 바라보고계시였다.

《수령님, 이 꽃은 **김일성**화입니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조용히 말씀을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꽃을 보시였다.

조국을 떠나 지구의 한 기슭 서아프리카에 와서도 불멸의 꽃을 보게 되니 동행한 일군들도 기쁨에 휩싸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의 추억을 더듬는 허담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명화중의 명화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의 지성

주체56(1967)년 11월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제66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프랑스로 떠났다.

어느덧 려객기는 빠리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안전띠를 매라는 안내원의 음성이 마이크에서 울려나왔다.

비행기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유유히 기수를 낮추기 시작하였다.

빠리는 시내중심으로 흐르는 쎄느강과 베르사이유궁전, 노테르담대사원, 에펠탑 등으로 이채를 띠고있는 도시였다.

빠리에 도착한 대표단은 올림픽위원회 회의장소인 그레노블로 향하였다.

하지만 대표단사업은 처음부터 난감하였다.

그레노블체육촌에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들 숙소조차도 똑바로 마련되여있지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안에서는 우리 나라 국호를 《북조선》이라고 온당치 못하게 부르며 우리 대표단을 경시하는자들도 있었다.

어느날 우리 나라 대표단보다 며칠 앞서 그레노블에 도착한 인도네시아대표단이 찾아왔다.

그들속에는 수카르노대통령의 맏아들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도 있었다.

2～3년전에 있은 수카르노대통령의 조선방문과 위대한 수령님의 인도네시아방문으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관계가 친숙해지고 또

서로 아시아나라들에서 온것으로 하여 호상 의사소통이 잘되였다.

이러한 감정은 미구에 **김일성**화의 향기와 더불어 더욱 깊어지게 되였다.

우리 대표단과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균터는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다.

《조선대표단에 대한 반목질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안에 있는 일부 조폭한 인물들의 비렬한 작간입니다.》

균터의 얼굴에는 격감이 서려있었다.

대표단은 먼저 친선국가, 친선단체대표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 대표단의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주었다.

그러나 흉심을 품은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나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직을 타고앉은 아베리 브란데지는 올림픽무대에서까지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집요하게 편승해나서면서 우리 나라의 성스럽고 존엄있는 국호를 제대로 쓰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담력으로 심장을 만탄창한 대표단성원들은 면담에서 이들의 파렴치한 기도를 짓뭉개버리였다.

단장은 조용하면서도 강기있게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되찾아주신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조국의 국호요. 감히 당신들이 조선이란 이름에 지리적개념을 구실로 〈북〉자를 덧붙여 북조선이라고 하면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분렬을 꾀한다면 우리는 브란데지라는 당신의 이름에서 세계적기호품주류의 미감을 살려 불필요한 〈지〉자를 빼고 브란데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래일 회의연단에서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위스키각하

혹은 브란데각하라고 불명예스럽게 호칭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족제비도 얼굴이 있다고 당신의 몰골이 올림픽면전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분명 올림픽무대에서 만담의 주인공이나 막간극 어리광대로 되고말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올림픽마당에서 국가명칭을 제멋대로 오도하는 온당치 못한 비행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테네의 돌사자도 격분할 노릇입니다.

위원장각하, 우리 대표단은 이 비정상적인 문제를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장은 앞상을 탁 치며 준렬히 언명하였다. 브란데지는 절망적으로 머리를 푹 수그리였다.

결국 그는 우리 대표단의 공명정대하고 사리정연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튿날 단장은 국제올림픽총회연단에 올랐다.

연설의 대목대목마다에서 그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박수소리는 국제올림픽운동안에 평화와 친선의 리념이 살아있음을 그대로 말해주고있었다.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올림픽팀명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확히 달아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실로 시간문제이지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허위는 드러나기 마련이였다.

올림픽봉화는 결코 불장난감이 아니였다.

수많은 나라 대표단들이 우리 대표단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때 인도네시아의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는 우리 대표단을 축하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우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 대한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1973년 3월 영국에 출장온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는 어느날《런

던 타임스》를 펼쳐들었다.

거기에는 영국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진행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수대예술단 무용단에 대한 호평기사가 대서특필되여있었는데 그 예술단단장이 바로 여섯해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무대에서 만난적이 있는 조선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단장이였다.

그런데 오늘 영국땅에서 또다시 만날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수 없었다.

균터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선예술인들의 공연도 보고 친지도 만날겸 택시를 잡아타고 공연장소인 쌔들리즈 웰즈극장으로 달리였다.

영국은 유럽주의 북서쪽에 위치하고있는 섬나라이다.

일반적으로 더운 바다흐름이지만 그린랜드쪽에서 불어오는 차거운 서북풍의 영향으로 기후는 온화한것 같으면서도 날씨가 변덕스럽고 안개가 많이 끼는 지대로서 수도 런던만 하여도 년중에 화창하게 개이는 날이 얼마 없었다.

안개가 짙은 때에는 몇발자국앞도 가려보기 힘들었다.

출장중인 균터는 런던에서 기자생활을 하는 친구 윌쏜과 함께 승용차에 몸을 실었으나 교통파업으로 도로가 차단되여 공연시작시간이 거의 박두해서야 겨우 극장에 도착하였다. 그는 어쩔사이없이 서둘러 제자리에 앉았다.

관람객들가운데는 런던의 이스허그톤 녀시장도 있고 여러 회사의 사장들과 리사들도 있었다.

15초, 14초, 13초…

한초한초 공연시작시간은 다가왔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막이 열리지 않자 관람객들속에서는 은근히 ―역시 동방의 나라에서 온 공연이니―하는 조소가 섞인 날말이 오갔고 점차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앵글로색손족에 대한 우월감으로 가득차 점잔을 빼는 사람들의 두터운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의혹

과 조바심이였다. 균터의 마음도 말없이 초조하였다.

그때 돌연히 장중한 관현악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장내에 안개같이 서리였던 거만한 멸시감을 한순간에 몰아내고 힘있고 기백있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리였다.

관중들은 일시에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노래의 웅근 한절이 끝나도록 열리지 않던 막이 2절이 시작되면서 쫙 열리였다.

순간 백설같이 흰 선녀옷을 입은 배우들과 민족의상차림을 한 예술인들의 모습이 관중들에게 안겨왔다.

음악이 계속 울리는 속에 소개자가 가벼운 걸음으로 무대로 나섰다.

음악이 끝나는것과 동시에 공연시작을 알리는 소개자의 은방울 굴리는듯한 소리가 장내에 울리면서 배경에는 밝은 아침의 나라의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객석에서는 일시에 와―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관객들은 눈부시게 청신한 하늘과 밝은 아침의 나라 선녀들의 황홀한 모습에 넋을 잃고있었다.

이것은 단 2～3분동안에 펼쳐진 서경이였다.

이어 무대우에는 새빨간 사과가 주렁진 과원이 펼쳐졌다.

경쾌하고 발랄한 선률을 타고 노란저고리에 빨간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달려나와 무용《사과풍년》을 추기 시작하였다.

하늘나라 선녀들인가, 땅우의 선녀들인가 그들은 빨갛게 익은 사과를 앞을 다투어 열심히 따고있었다.

이어 《양산도》, 《3인무》, 《부채춤》 그리고 《목동과 처녀》등 유구한 력사를 가진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풍습을 보여주는 춤들이 정서적인 음악과 률동, 화려한 색조의 조화속에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펼쳐졌다.

이번에는 무대에 군복을 입은 항일유격대 녀대원들이 나타났다. 진달래꽃을 안고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운 률동을 펼치던 그들이 그립던 조국땅의 흙을 부여안고 감격에 겨워하는 그 춤은 《조국의 진달래》였다.

먼 이국땅이여서인가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 펼치고있는 그 춤은 관람석에 앉아있는 균터에게도 뜨거운것을 삼키게 하였다.

여기저기서 공연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찬사가 터져나왔다. 박수에 린색하기 그지없는 출판보도계의 기자들도 리상적인 나라의 리상적인 공연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무용 《눈이 내린다》에서 불굴의 의지를 안고 항일의 녀투사가 사나운 눈보라에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서고 일어섰다가는 또다시 쓰러지면서도 붉은 기폭을 높이 휘날리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감동적이였다.

장면장면과 함께 교감하는 관중들의 심리는 와— 하는 함성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그 어떤 설명으로 표현할수 없는 례찬의 목소리가 이 외마디 함성에 응축되여있었다.

배경의 백두밀림이 평양의 행복한 야경으로 펼쳐질 때 관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였다.

옆좌석을 차지한 균터의 친구 윌쏜은 《나는 기자생활을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공연을 보았지만 이처럼 훌륭한 무대는 처음 보네.》라고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자못 가치있는 그 반향은 균터를 몹시 격동시켰다.

관중들속에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전쟁시기 국제조사단성원으로 조선에 와서 미제를 나치스 히틀러보다 더한 살인강도로 폭로단죄하면서 인류의 복리를 위해 조선땅에서 전쟁을 즉시 중지할것을 호소한 모니카 펠톤녀사와 같은 영국의 량심적인 사람들도 보

였다.

공연이 끝난 후 영국공연협회, 영국조선무역회, 영국런던화초사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은 꽃바구니와 꽃묶음을 우리 예술인들에게 안겨주었다.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으로 하여 런던 쌔들리즈 웰즈극장은 영국에서 더 유명한 극장으로 되였다.

공연을 보고 균터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이 공연은 균터로 하여금 조선을 더 잘 리해하고 **김일성**화를 가꾸고 등록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결심을 굳혀준 계기로 되였다.

어느날 씨. 엘 분트가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를 찾아왔다.

균터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금 조선에서는 **김일성**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리고있습니다. 국제적인 등록사업까지 끝나면 **김일성**화는 온 세상에 더 밝게 빛을 뿌릴것입니다.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여난 꽃입니다. 이 꽃에는 대통령의 지성이 깃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시지 않다보니 이 꽃은 아직 국제란과계통의 학회에 정식학명으로 등록되여있지 못합니다. 뜻하지 않은 풍파속에서 나라가 재난을 겪고 학자들도 흩어져버리다나니 어언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수카르노대통령께서는 생전에 **김일성**주석님께 이 꽃을 조선의 기후풍토조건에 적응시키도록 연구사업을 더하고 앞으로 꼭 평양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분트의 말이 끝나자 균터는 손수건으로 눈언저리를 닦았다.

《분트선생, 좋은 말씀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겸허하신 **김일성**각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께서 불같은 지성을 바쳐 그이의 존함을 모시여 세상에 태여나게 한 꽃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라고 어찌 잊어버릴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일성**각하에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에 대하여서도 알고있습니다.

분트선생, 선생이 요즘 건강도 나빠졌는데 **김일성**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기탄없이 제기해주십시오. 비록 아버님은 계시지 않지만 나도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균터의 마음은 밑창없이 깊어갔다.

세월의 풍란속에서 아버지는 저 세상에 가있지만 생전에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이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고 말할수 있으랴.

균터는 저도 모르게 또다시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갔다. 분트도 마찬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신 후 수카르노대통령은 여러차례 보고르식물원을 다녀왔다.

그는 **김일성**화를 저택에 가져오게 하고 수령님이 그리울 때마다 한동안씩 보군하였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였기에 그는 **김일성**화를 국제학회에 등록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김일성**화가 우리 나라에 만발하게 피여나자 그의 이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사실 **김일성**화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재보일뿐아니라 수카르노대통령일가의 가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김일성**화를 국제란과계통의 학회에 등록하여 세계에 더 널리 공포하기로 결심하였다.

김일성화의 국제란과식물잡종등록신청문건은 1980년대초에 영국왕립원예학회에 제출되였다.

란과식물은 국제원예학회의 위임에 따라 영국왕립원예학회에 등록하게 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이 학회로 말하면 국제원예학회의 인증권을 받은 력사가 있고 업적이 있는 학회였다.

오늘날 국제원예학회의 위임에 따라 베고니아과식물들이 미국베고니아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게 되여있는것도 바로 이러한 사업한계와 관련되는 문제였다.

하여 균터는 이 협회를 통하여 **김일성**화를 국제란과계통학회에 등록하는 사업이 자못 긍지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여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식물등록사업도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꽃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는 성스럽고도 책임적인 사업이 만민의 마음과 이어져있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자식된 도리로서 균터의 심중은 말할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감으로 소용돌이쳤다.

물론 모든 사업에서 흔히 부닥치게 되는 일이지만 이 사업에서도 난관과 장애가 없은것은 아니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김일성**화의 깊은 뜻과 독특하고 세련된 미와 완벽한 원예적가치는 론박할수 없는 진리로 되였다.

그리고 란과식물은 다른 과의 식물에 비하여 종의 분화빈도가 높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종을 한정짓기가 힘든 문제도 없지 않았다.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는 씨. 엘 분트와의 련계밑에 **김일성**화의 등록신청문건에 대한 료해를 심화시켜나갔다.

등록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신종을 만들기 위하여 선택한 종자엄지와 꽃가루엄지의 이름과 나라 및 소재지

· 교잡한 날자

· 종자모가 자라서 첫 꽃을 피운 날자

· 잡종의 외형적특징

· 신종에 붙이려고 하는 이름

· 잡종을 만들어 낸 육종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력관계, 연구사업년한, 학위학직소유관계, 부서, 직위

· 보증기관

· 신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자연색 사진자료

…

균터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국제란잡종심의위원회에서 **김일성**화의 등록신청서를 심의하고 제출된 상보가 정확하면 학명으로 등록하는 사업은 성과적으로 결실을 보게 되기때문이였다.

균터는 국제회의와 여러가지 사업차로 영국출장이 빈번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그에게는 런던에 대한 인상이 그리 희미한 편은 아니였다.

런던체류기간이면 균터는 영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에딘비리식물원에 자주 들리군 하였다.

이 식물원의 표본수는 약 120만점에 달하였다.

(좋다는 곳은 이리저리 다 유람해보아도 공해의 소굴이다보니 가는 곳마다에서 머리가 뗑하였는데 그래도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곳은 역시 식물원이구나.)

균터는 가볍게 웃음을 지으며 입속으로 중얼거리였다.

최근년간에 란과식물의 인공잡종에 대한 기록은 재배식물가운데서 가장 많은것으로서 이 등록사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재배가들과 학자들이 협동하여 진행하는 모범적인 국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진척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재배란과식물의 기록이나 정리만이 아니라 육종학, 유전학, 진화론의 귀중한 연구자료로서 세계적범위에서 란과식물의 학술적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었다.

이러한 정연한 등록제도는 란과식물의 인공잡종의 섞붙임경로를 야생원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잡종의 이름이나 계통에서의 혼란을 막는것은 물론 잡종을 개량하여 좋은 꽃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기초자료를 인류의 화초계에 제공해주는데서도 더욱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인공잡종의 유전적형질구성을 명백히 알수 있게 함으로써 주어진 꽃이 인류앞에서 그 어떤 오심이나 편심이 없이 옳게 평가되여 재배에 응당한 도움을 주게 하였다.

김일성화의 신청문건항목에 있는 인공잡종의 육종자는 엄연하게 주어진 식물개체에 대한 꽃가루받이를 한 씨. 엘 분트였다.

그러나 등록신청자는 인공잡종을 만들어 낸 육종자자신이 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었다.

그래서 등록신청서원본에는 신청자를 육종자의 위임을 받은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로 하고 쟈까르따 독립광장 17－28이라고 자기의 주소를 쓴 다음 육종자인 씨. 엘 분트의 주소를 썼다.

그 아래에는 **김일성**화의 육종에서 기본중심적역할을 논 자생지가 쑬라웨씨섬이라는것과 여기에 말루꾸제도, 뉴싸텐가라렬도의 발리섬, 롬보크섬, 쑴바와섬, 흐로렌스섬과 파푸아뉴기니아, 그 맞은켠인 오스트랄리아의 동북부 등 열대지방이 속한다는것을 첨부하였다.

꽃가루받이날자는 1962년 3월이라고 썼다.

균터는 수카르노의 뜻을 받든 **김일성**화의 등록신청자로서 신청문건에 기록한 사항들과 진술의 정확성을 자신의 최상의 신념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제원예계앞에 보증담보한다는것을 엄격히 서약하고 등록신청을 위한 수수료의 령수확인송장을 첨부한 후 인도네시아국회의원으로서 진중한 마음으로 국제란과식물잡종등록신청문건에 수표를 하였다.

그 서명날자는 1981년 11월 24일이였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도 그 어떤 석연치 못한 문제가 있어 6개월이내에 등록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면 문건은 자동적으로 기각되게 되여있었다.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만 하였다.

그러다나니 등록사업에서 일정한 시간을 소모하는것쯤은 학계에서 기정사실로 되여있었다.

세계원예계는 나라와 민족의 지경을 벗어나 누리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김일성**화의 무궁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너무도 명백하게 락관하고있었다.

이리하여 **김일성**화는 만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고있던 주체71(1982)년 4월에 국제란과계통의 학회에 정식 학명으로 등록되여 세계적으로도 명화중의 명화로, 천하정품 첫 위인칭송의 꽃으로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때 학회서기장은 《**김일성**화는 결작품입니다. 내용과 형식, 과학적항목에서 모든것이 완전무결합니다. 올해 4월은 **김일성**각하의 탄생 70돐이 되는 의의깊은 때입니다.

앞으로 **김일성**화는 명화의 거울로, 인류의 보화로 아름다운 자태를 온 누리에 더 찬란하게 빛내일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김일성**화는 당시 인도네시아국회의원이였던 인도네시아공화국 전 대통령 수카르노의 아들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에 의하여 국제란과계통의 학회에 등록되였다.

그때 인도네시아주재 로이터통신사 기자는 씨. 엘 분트와 회견을 가지였다.

《**김일성**화가 국제적으로도 정식 학명으로 등록되였는데 육종자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분트는 건강상 몸이 편치 않은 상태였지만 정열에 넘친 목소리로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기쁨이란 더 이를데 없습니다. **김일성**화가 국제란과계통의 학회에 정식 등록된것은 **김일성**각하께서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높은 국제적권위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진 란과계통의 꽃들가운데서도 진분홍보라색의 꽃잎과 꽃모양새가 정결하고 특이하게 우아하고 고상한 정서를 자아내는 꽃, 버들잎모양의 잎과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는듯한 긴 꽃대, 바로 이것이 일반꽃의 생김새와 대비할수 없는 탄탄한 구도를 가진 **김일성**화의 독특한 미감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후날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일성**화는 1980년대초에 영국에 있는 국제란과계통의 학회에 정식 학명으로 등록되여 세계적으로도 명화중의 명화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김일성**화의 탄생과 함께 그 꽃이 국제란과계통의 학회에 정식 학명으로 등록된것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며 긍지였으며 행복이였다.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김일성**화는 어린 모를 옮겨심어 3년이 되면 꽃이 핀다. 꽃대의 세번째 마디에서 첫 꽃이 피기 시작하여 석달동안 꽃을 볼수 있다. 한번 피여난 꽃은 언제 보아도 처음 필 때처럼 생생할뿐아니라 환경이 변하여도 꽃이나 잎사귀가 좀처럼 시들지 않는다.

참대같이 탄탄한 줄기끝에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반달모양으로 피여나는 **김일성**화는 참으로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지구상에는 수천수만가지 꽃들이 피고있지만 **김일성**화처럼 깊은 뜻을 담고 명화중의 명화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는 꽃은 없었다.

식물계에 새 품종의 꽃이 태여나 널리 알려지기까지에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러나 **김일성**화는 이러한 관례를 뛰여넘어 태여난지 얼마 안되여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등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 퍼지였다.

두포기로부터 시작된 **김일성**화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퍼져 수천수만포기로 늘어난 사실만 놓고보아도 **김일성**화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잘 알수 있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의 아름다운 가치가 곧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고매한 덕망을 노래하는 척도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였다.

김일성화는 란잡종에 등록된 다음 영국에서 발행되는 《란평론》과 미국의 란협회지에 게재되고 1985년 하반기에 발행된 《싼더의 란잡종목록 1981－1985》에 실리였다.

이 목록에서 **김일성**화의 학명은 속명을 약하고 조합소명을 모두 로마글자체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문장의 위치와 내용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부분은 굵은 활자체로 표기되였다.

재배란과식물의 명명규약에 준하여 정식 학명으로 등록된 **김일성**화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기되였다.

과　　:　　란과
아과　:　　란아과
속　　:　　석곡란속
종　　:　　**김일성**화

균터는 등록사업의 당사자로서 기명문건을 보고 또 보았다.

석곡란속의 여러 야생원종들사이의 교잡으로부터 시작하여 여

러 육종과정에 수세가 튼튼하고 왕성하여 긴 꽃대에 진분홍보라색의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많이 달리면서도 꽃꼭지가 세서 잘 떨어지지 않고 꽃잎살이 두꺼워 꽃이 오래 피여있는것과 같은 우수한 형질들을 조화롭게 결합한 **김일성**화는 명화중의 명화로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김일성화가 육종과정에 관상적가치를 비롯하여 보다 유용한 형질을 선택하기 위한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오늘과 같은 종으로 분화된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식물개체에서 새로운 종의 분화는 먼저 형질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뒤이어 그에 대한 선택적작용에 의하여 일정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아름다운 조형미로 하여 **김일성**화는 보는 사람들마다에 커다란 감흥과 매력을 안겨주고있는것이 아닌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대성산 동천호에서 진행된 친선모임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청년학생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의 식물원에서 **김일성**화를 보았습니다. 이 꽃은 우리 나라에서 태여나 오늘은 국제학회에도 등록되여 인류의 명화로 자랑떨치고있습니다.

예로부터 인도네시아사람들은 란꽃을 각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얼마나 진귀하게 여겼으면 민간에 〈란꽃속에서 태여난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풍설이 전해져오고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살려면 란꽃을 닮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김일성**화를 많이 가꾸고 특별히 보호하고있습니다.

김일성화는 그 깊은 뜻과 아름다움으로 하여 실로 매혹적인 꽃으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이 아닌 정의를 사랑하는 인류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하였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창립

1990년대에 이르러 태양의 꽃 보급사업은 국내외적인 규모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이러한 환경은 태양의 꽃 보급사업을 통일적으로 맡아하는 상설기구를 내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우러르는 만민의 존경과 흠모심이 끝없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불멸의 꽃 보급을 보다 광범히 하기 위하여서도 기구를 내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그러던 주체80(1991)년 5월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 브라찌슬라바에서는 제12차 국제화초전시회가 열리였다.

이 전시회에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이어 세상에 태여난 **김정일**화가 처음으로 출현한것으로 하여 국제화초무대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에는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 네데를란드, 벨지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13개 나라의 103개 화초생산회사와 단체 및 연구소에서 내놓은 820여종의 화초들이 출품되였다.

5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류달리 크고 붉은 꽃송이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정열적인 생기를 풍기는 매혹적인 꽃잎, 청신하고 억센 느낌을 안겨주는 심장형의 푸른 잎새…

볼수록 마음을 끄는 이 꽃은 **김정일**화였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김정일**화는 특별상과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10여일간에 걸쳐 진행된 전시회는 유럽의 황금시간이라고 하는 저

녁 8시 30분부터 TV방송을 통해 보도되였다.

15분간의 보도시간에 **김정일**화가 7분동안 방영된 날도 있었다.

이 나라의 중앙신문들과 지방신문들에서는 **김정일**화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김정일화에 특별상과 금메달이 수여된 소식은 네데를란드,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등 린접 나라들에서도 널리 보도하였다.

김정일화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체84(1995)년 3월 스웨리예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유럽국제화초전시회에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였다.

스톡홀름은 북유럽의 이름난 도시였다. 이 도시에는 15개의 작은 섬이 있고 물길과 다리가 조밀하게 형성되여있다. 스톡홀름이란 이름은 원목이라는 뜻인 스톡과 작은 섬이라는 뜻인 홀름이 합쳐 이루진것이였다.

북유럽의 아름다운 맬라렌호와 가없이 펼쳐진 발뜨해가 합쳐지는 곳에 있는 이 도시를 가리켜 사람들은 물우에 떠있는 베네찌아라고 부르고있다.

3월 9일, 40여상의 **김정일**화와 60여그루의 모를 가지고 조국을 출발한 우리 나라 재배전문가들은 비행기와 배를 갈아타며 한주일동안 려행하여 현지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려행끝의 피로를 풀새없이 즉시 수도 스톡홀름에서 100여리가량 떨어진 《아네아펠》온실에 꽃을 들여놓고 관리사업에 착수하였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대륙과 대양을 넘는 머나먼 로정에서도 꽃상태는 매우 좋았고 19일에는 모든 개체들에서 어여쁜 꽃들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여 개막당일에는 약속이나 한듯 활짝 피여났다.

3월 23일, 스톡홀름시내의 쏠렌튼나화초전시회장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스웨리예, 노르웨이, 네데를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7개 나라에서 온 160여개의 원예협회, 식물련합단체, 회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유럽국제화초전시회가 비경쟁적인 방법으로 성대히 열리였다. 이 전시회는 3월 26일까지 진행되였다.

한개 전시장면적이 1만여㎡인 두개의 전시장으로 이루어진 쏠렌튼나화초전시관안에는 선전과 교환, 상업적목적을 위하여 전시한 760여품종의 화초들과 800여종의 꽃종자, 꽃관목, 원예도구 및 기공구들이 고정 및 이동전시대들에 차있었는데 우리 나라 전시대에는 34상의 **김정일**화와 56그루의 모 그리고 **김정일**화의 조직배양공정이 전시되였다.

먼거리를 려행하다나니 다른 나라 전시대처럼 요란한 광고나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이 없이 소박하게 전시되였지만 국제화초무대에 색다른 분장이 없이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한 불멸의 꽃의 황홀한 모습은 전시회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였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붉은 꽃을 처음으로 본다. 이 꽃이름은 무엇인가?》

관람자들마다 호기심을 안고 물었다.

재배전문가들은 **김정일**화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참관자들은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꽃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전시회에 꽃을 출품한 유럽의 화초재배가들은 그들대로 우리 전시장에 찾아와 자기들도 불멸의 꽃을 재배할수 있도록 호상협조를 요청하였고 또 어떤 원예기업가들은 공동재배문제와 꽃모를 대대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도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국제화초무대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화는 세계적으로 화초재배업에서 이름을 날리고있는 유럽의 화초업자들과 인민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멸의 꽃을 세계적인 명화로 만발하게 피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북유럽화초전시회를 계기로 주체84(1995)년 3월 30일 스톡홀름 아펜그렌화초원에서는 북유럽**김정일**화협회가 조직되였다.

이 협회는 세계 5대륙에서 제일 먼저 결성된 조직이였다.

결성식에는 북유럽화초전시회에 참가한 대표단이 초청되였다.

대표단은 아펜그렌화초원 원장 아내 아펜그랜의 안내를 받으며 모임장소에 갔다.

결성식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타향만리에서 대표단성원들은 이름할수 없는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결성식은 스웨리예, 노르웨이, 단마르크, 핀란드 등 여러 나라의 화초전문가들과 꽃을 사랑하는 정계, 사회계를 비롯한 각계층의 수많은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였다.

결성식에서 노르웨이 트럼쇠종합대학 식물원 원장인 박사 토스페인 엥겔스전이 북유럽**김정일**화협회결성 발기인들의 공동명의로 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는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한지 50돐, 인류가 파시즘을 격파한 50돐이 되는 의의깊은 해에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품격을 보여주는 우아하고 매혹적인 꽃을 칭송하여 북유럽**김정일**화협회를 결성하게 된다는 내용이 지적되여있었다.

결성식에서는 협회규약과 행동강령이 토의결정되였다.

결성식에서는 박사 토스페인 엥겔스전이 북유럽**김정일**화협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서기장으로는 스톡홀름시 서기장 베르그란이, 집행위원으로는 아내 아펜그랜과 단마르크종합대학 교수가 선거되였다.

모임에서는 세계의 화초애호가들, 진보적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에는 모든 지역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를 따라배우며 **김정일**화의 품위있는 원화를 보존하고 널리 보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가지 형태의 **김정일**화협회를 대대적으로 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내용이 밝혀져있었다.

세계 화초계에 장미협회, 란협회, 꽃창포협회, 베고니아협회 등이 조직되여 화초재배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나누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이처럼 북유럽**김정일**화협회가 결성된 현실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범위에서도 꽃의 보급선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시키며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태양의 꽃 보급선전을 위한 상설적기구를 내올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주체84(1995)년 6월 2일 불멸의 꽃을 보급하기 위한 상설기관으로서 조선**김정일**화련맹이 창립되였다.

조선**김정일**화련맹의 창립과 함께 태양의 꽃 보급선전사업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전례없는 규모로 확대발전되였다.

조선**김정일**화련맹은 그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련맹으로 그리고 다시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로 개편되였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의 일군들은 불멸의 꽃들인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가꾸어 보급선전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꽃을 키워내는데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있다.

영원한 꽃향기

인류력사는 세기를 두고 새것과 낡은것, 정의와 부정의와의 치렬한 대립과 투쟁속에서 발전하여왔다. 이 과정에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존재로 되기 위해 력사의 반동들의 필사적인 도

전을 쳐물리치며 새 사회를 창조해왔다.

한세기전 유럽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사조는 마침내 지구상에 사회주의 새 사회를 낳게 하였으며 새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력사앞에 진리로 증명되기까지는 실로 곡절많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1989년 11월, 도이췰란드에서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것은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의 사회주의붕괴를 예고하는 비극적사태의 전주곡과도 같은 사건이였다.

그로부터 2년후인 1991년 12월 25일,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교나라와 지역들에서 예수의 성탄을 기념하고있던 바로 그날 인류력사상 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세상에 선언하였다.

크레믈리상공에서 74년동안이나 자랑스럽게 휘날려온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명을 바쳐싸운 영웅들을 추모하는 무명전사묘앞의 붉은 꽃마저 발밑에 짓밟히게 되였다.

쏘련이 붕괴되고 동유럽사회주의가 좌절되자 제국주의자들은 마치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한듯이 떠들어대였다.

혼탁된 세계 정치기류속에서 이것은 흑백진상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있던 사람들속에 사상적혼란을 야기시키였다.

붕괴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의 배신자들은 제국주의와 야합하여 자본주의를 복귀하는데 열을 올리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천재적인 예지와 안목으로 일

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은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에서 볼 때에는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좌절감에 모대기던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의 등대로 되였다.

하지만 지구우에서 사회주의를 한사코 없애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극도에 달하여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뜻밖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상실의 아픔까지 당한 우리 조국앞에 처한 이러한 정세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제국주의의 포위환속에서 린접도 없이 사회주의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의 운명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이 국제사회계의 한결같은 우려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것이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사회주의조국수호의 길에 결연히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사상으로 《조선의 붕괴》, 《사회주의의 종말》을 줴치던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위협과 봉쇄책동을 산산히 짓부셔버리시였던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이라는 장엄한 포성으로 민족의 앞길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밝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세계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격찬으로 설레이였고 심지어 적수들마저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비상한 령도력, 절세의 위인상앞에 머리를 수그리였다.

세계최대의 군사강국이라고 하던 쏘련이 총 한방 쏴보지 못하고

붕괴되였을 때 작은 령토를 가진 조선이 바람세찬 반제전선에 거연히 일떠선것은 세계를 경악시킨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독한 앙심을 버리지 않았다.

《유일초대국》의 위세를 휘두르며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제멋대로 침략과 전쟁, 압력과 전횡을 일삼으며 오만무례한 강권정책에 매달리였다.

과연 누가 승리할것인가.

50여년간이나 지속된 장기적인 대결에서 끝내 쏘련과 같은 적수를 꺼꾸러뜨리고 이라크를 패배시킨 미국의 폭력에 조선은 과연 무슨 힘으로 맞선단말인가.

만전쟁에서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제는 공격의 예봉을 꺼리김없이 우리 나라에 돌리였다.

미제는 철면피하게도 《핵의혹》과 《강제사찰》로 조선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망상하였다.

미제는 사회주의진영이 일조에 붕괴되고 호혜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운영되던 사회주의시장이 완전히 없어진 형편에서 21세기는 사회주의가 없는 세기로, 붉은 기발도, 붉은 꽃도 없는 세기로 될것이라는 궤변을 늘여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였다.

조선혁명의 진두에는 언제나 뛰여난 사상리론과 비범한 지략, 강철의 신념과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로 적들의 온갖 도전과 위협, 봉쇄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조선은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가 바라보는 존재로 되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조국이 있어 제국

주의자들이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어용나팔을 불어대고 사회주의배신자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짓밟고 사적지들과 전적지들에 보습을 들이대고 붉은 꽃마저 뿌리채 뽑아버리고있을 때 평양에서는 불멸의 꽃화원이 물결치였다.

남들이 《세계화》의 풍랑에 휘말려들어 사회주의를 집어버리고 몇푼의 딸라에 민족의 존엄마저 버리고있을 때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유혹이나 강권행위에도 끄떡하지 않고 **김일성**화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펼치였다.

그 화원의 그윽한 향기는 신앙과 정견, 국경과 제도의 계선을 넘어 천만리에 퍼져나갔다.

단떼신곡의 《지옥》을 련상케 하는 몸서리치는 주변의 홍역세계에서 더러운 배신자들의 신념이 사막화되여 사회주의를 버리고 진창길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 불멸의 꽃을 보며 미래를 확신하고있었다.

인민은 그 마음과 함께 **김일성**화를 피워가고있는것이다.

위인숭배의 마음이 그대로 뿌리가 되고 태양을 우러르는 신념의 맹세가 잎새로 되여 피여나 영원한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김일성**화와 함께 우리 인민은 이 땅에 흐르는 달과 해를 언제나 4월처럼 안고 산다.

태양절을 맞으며

봄의 노래

사람들은 예로부터 봄이 있어 꽃이 피고 꽃이 피여 봄이라 하며 이 계절을 두고 꽃계절이라고 일러왔다.

하지만 우리의 4월은 단순히 백화가 만발하여 그토록 환희로운 것이 아니다.

태양절을 맞이하는 4월은 어버이수령님의 태양과도 같은 영상을 더 뜨겁게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이 화산같이 분출하는 끝없는 흠모의 정으로 하여 유정하기 그지없는 계절인것이다.

주체87(1998)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4월 15일 뜻깊은 태양절이 오면 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어버이수령님을 못잊어 더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기뻐하게 **김일성**화전시회를 크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였다.

김일성화전시회, 진정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불멸의 꽃 **김일성**화의 꽃향기와 더불어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해당부문 일군으로부터 **김일성**화전시회를 조직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조선**김정일**화련맹(당시) 의 책임일군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

정녕 얼마나 깊은 뜻을 안고있는 꽃인가.

소용돌이치는 정세의 흐름속에 사라져버릴번 하였던 **김일성**화를 이 땅에 아름답게 피여나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온 나라에 아니 전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만발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깊은 의도를 불멸의 꽃선전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신들이 미처 받들지 못한 자책감이 책임일군의 가슴에 더욱 파고들었다.

그는 곧 협의회를 열고 **김일성**화전시회를 진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일군들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잠시후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한 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이지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고보니 우리가 지난 기간 일을 쓰게 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더욱 사무쳐옵니다. 저는 빠른 시일안에 **김일성**화전시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련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화전시회를 훌륭히 조직하여 장군님께 꼭 기쁨과 만족을 드릴것을 결의다지였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진행하게 될 **김일성**화전시회와 관련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조직되였다.

일군들은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전시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제일 어려운것이 **김일성**화를 태양절에 꽃피우는 문제였다.

우리 나라에서 **김일성**화가 자연적으로 꽃피는 시기는 9월부터 11월이다.

그래서 태양절을 맞는 4월에 꽃을 피우자면 그에 알맞게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꽃피우기조절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꽃을 피운 묵은 줄기의 결눈에 약제처리를 하는것이였다.

실지 현실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군들은 처음으로 **김일성**화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우려감도 없지 않았다.

게다가 주체87(1998)년 겨울의 날씨는 몹시 춥고 변덕스러웠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괜한것이였다.

주체88(1999)년 4월 태양절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온 나라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속에 받아안았다.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대국상을 당한 그때로부터 5년세월 수령님을 못잊어 노래를 불러도 수령님의 노래를 부르고 꽃을 피워도 수령님을 절절히 그린 우리 인민이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꽃속에 모시려는 한마음을 안고 강추위를 이겨내며 조국보위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그리고 가정들에서까지 위인흠모의 꽃 **김일성**화를 심장의 열기로 정성껏 피웠다.

그 누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도 이런 한마음이 불타고있었다.

정말 우리 인민들이 **김일성**화를 그토록 사랑하고 온갖 지성을 다해 가꾸는것은 단순히 꽃이 우아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이 꽃을 보면 볼수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 가슴뜨겁게 젖어오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피우는데 가장 성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는것이리라.

깊은 밤이였다.

어느 한 기관의 일군은 다급히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걸려오는 전화였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다니 …, 무슨 일일가?)

집을 뛰쳐나선 일군의 생각은 번거로왔다.

여느때도 아니고 태양절을 가까이 하고있는 때에 **김일성**화의 생육조건을 더 잘 보장해주어야 하는것만큼 퇴근전에도 온실에 들려 온습도가 과학기술적으로 보장되여있고 불멸의 꽃 재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정성껏 하고있는 담당일군들과 관리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목격한 그였던것이다.

이 밤 그는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온실에 들어섰다.

눈앞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자기보다 먼저 온실에 달려온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온도가 내려간 원인을 찾아내고 아직 달아있는 보이라의 화실안에 서슴없이 뛰여들고있었다. 벌써 화실안에서는 용접불꽃이 세차게 날리고있었다. 하나의 지향으로 높뛰는 심장들이 있어 짧은 시간에 터졌던 보이라화실은 원상복구되였다.

증기가 제대로 관을 통해 흐르면서 온실안을 서서히 덥히기 시작하였다. 밖에서는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불멸의 꽃을 더 잘 피울수 있게 된 기쁨으로 하여 피곤한줄 몰랐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키우는 사업이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을 때 중앙식물원과 국가과학원 생물분원을 비롯한 우리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김일성**화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날 한 녀성과학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와 마주 앉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기자선생, 이자 방금 나에게 어떻게 **김일성**화를 4월에 더 잘 꽃피울수 있게 하였는가고 물었지요.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우리 나라 온실조건에서 가을에 꽃이 핍니다. 물론 가을에 피는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김일성**화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피여나야 보다 더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우기 뜻깊은 4월에는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은근히 발편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아마 나뿐아니라 다른 과학자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것입니다. 그후 여러차례의 시험과정에 우리는 가을에 한번 피고난 묵은 줄기를 생장조절물질로 처리하여 봄에 다시 한번 꽃피게 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찾을수 있게 되였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그의 눈앞에는 밤을 새워가며 6-BA라놀린연고를 만들어 그것으로 꽃피기조절실험을 해오던 과정이 선히 떠올랐다.

《기자선생, 첫 꽃이 핀 다음 20～25일정도 지나면 꽃대당 평균 10송이정도의 꽃이 피고 그 우로는 3～4개의 꽃망울이 달리게 되는데 정말 그때의 기쁨이란 참…》

고심어린 연구과정에 이룩한 성공의 기쁨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리해할수 없다 .

기자와 만난 그 녀성과학자도 한가정의 주부였고 딸을 가진 어머니였다.

어느날이였다. 딸이 미술창작사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다.

《여보, 그래도 집에 한번씩이야 들어와야지.

경심이가 어머니를 무척 보고싶어하는데 …

당신이야 연구사이기 전에 어머니가 아니요.》

그러는 아버지의 말을 밀막으며 딸은 이렇게 속삭이였다.

《어머니, 일없어요.

아버진 괜히…》

그리고는 들고있던 보자기를 조심히 풀었다.

《어머니, 이 기념품은 아버지가 그린 조선화 〈**김일성**화〉예요.》

그것을 보는 녀성과학자의 두눈에는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거기에는 **김일성**화꽃피기조절방법을 하루빨리 완성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말없는 부탁이 슴배여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김일성화의 생물학적특성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국가과학원 생물분원의 연구사들과 **김일성**화를 사철 꽃피우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중앙식물원의 과학자들…

이들의 가슴속에 하나로 굽이치는것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더욱 아름답게 피워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더 높이 모시려는 불타는 일념이였다.

김일성화를 키우는 과정에 그 어디에서나 직종이나 직위, 나이 그리고 전문가나 비전문가에 관계없이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미풍이 발휘되였다.

과학자들과 연구사들은 **김일성**화를 번식시키는 사업에서 기관, 기업소는 말할것도 없고 각계각층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고 그들에게 **김일성**화의 과학적기초와 재배기술을 심어주는데서 선도자가 되고 주인이 되였다.

이렇듯 불멸의 꽃 **김일성**화재배에 바쳐가는 온 나라 인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김일성**화는 뜻깊은 태양절을 마중하여 아름다운 꽃망울을 하나, 둘 터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는 크고작은 규모의 수많은 화초전시회들과 원예박람회들이 진행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김일성**화축전과 **김정일**화축전과 같이 한가지 꽃을 위주로 진행하는 전시회는 없었다.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를 앞두고 조선**김정일**화련맹(당시)에서는 **김일성**화를 어떻게 전시하겠는가에 주의를 돌리였다.

그리고 과학원과 중앙식물원의 과학자, 연구사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평양시와 각 도화초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망라하여 협의회를 여러번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였다.

첫째로, **김일성**화전시회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이 진귀한 화폭속에서 뚜렷이 안겨오도록 선군시대의 요구와 해당

참가단위의 특성에 맞게 주제를 명백히 설정하고 형상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꽃전시회의 특성을 명백히 살려야 한다.

전시대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여 **김일성**화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전시대의 형상에만 치우치면 안된다. 그러므로 꽃을 전시할 때에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중심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꽃축전의 특성에 맞게 장식요소들은 될수록 지피식물들로 조성하는것이 좋다.

셋째로, 전시대도안은 고정격식화하지 말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립체감이 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협의회에서 강조된 내용들은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의 **김일성**화전시회참가대상들에 즉시 통보되였다.

성, 중앙기관들은 물론 각 지방들에서도 보다 아름다운 **김일성**화를 전시하기 위한 준비로 들끓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관, 기업소와 개별적사람들이 전시대를 설치하겠다고 제기해오는 수가 부쩍 늘어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주조외교대표부들과 여러 나라의 친선단체들, 국제기구들에서까지 **김일성**화전시회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해왔다.

지어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에서는 전시대위치를 제일 중심에 해줄것을 제기해왔다.

미적인 가치를 자연속에서 의식하고 자기의 생활속에 받아들이는것은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다.

자연이 안겨주는 타고난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화초식물들은 인간의 이 고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생활을 장식하여주는 수단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깊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속에서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져왔다.

이로부터 인류력사에는 장미시대, 튤립시대, 카네숀시대, 란초

시대와 같이 당대 인간들의 생활에서 사랑받던 꽃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시대구분도 생겨나게 된것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도덕적감정을 표현하는 화도라는 개념과 그 발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고 자기의 미적정서와 결부시키는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심리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헤아릴수 없는 유명무명의 꽃들중에 태양의 꽃 **김일성**화처럼 그렇듯 시대와 인류의 관심속에 만민의 격찬을 받으며 위인칭송의 명화로 사랑을 받아온 그런 꽃은 쉽게 찾아볼수 없다.

온갖 꽃이 만발하여 청신한 향기가 강산에 감도는 주체88(1999)년 4월 10일,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7돐을 맞으며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세계 5대륙에서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가운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1차 **김일성**화 전시회가 성대히 개막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의 영광스러운 혁명실록에 또 하나의 불멸의 장을 아로새기신 뜻깊은 사변이였다.

세계 화초사에 처음으로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자주시대의 꽃으로 세상에 나온 때로부터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만민의 념원속에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아름답게 피여나고있었다.

전시회장인 평양국제문화회관에는 전국각지의 수많은 단위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이 아름답게 꽃피운 2 000여상의 **김일성**화가 조형예술적으로 전시되여 황홀경을 이루었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김일성**화가 특색있게 전시되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전시회에 불멸의 꽃을 내놓은 인민무력부, 내각의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각 도의 일군들, 각계각층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관광 및 예술문화상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문화대표단과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와 대사관성원들,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조선**김정일**화련맹(당시)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번 전시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4년전인 주체54(1965)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마음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태양의 꽃은 오늘 위도와 경도를 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전시회는 **김정일**화전시회와 함께 세계 화초전시회력사에서 새로운 장을 펼치며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전시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 자주의 새 세기에로 나아가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관광 및 예술문화상 마루주끼 우스만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경사스러운 때에 대단히 훌륭하고 뜻깊은 **김일성**화전시회가 마련된데 대하여 충심으로 환영한다고 하였다.

그는 기억도 새로운 1965년 **김일성**주석님께서 존경하는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방문기간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보고르식물원을 참관하시였다고 하면서 식물원에는 한 식물학자가 새로 육종하여 아직 이름을 달지 못한 아름다운 란초꽃이 있었는데 수카르노대통령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신뢰의 표시로 그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인도네시아인민은 두포기로부터 시작된 **김일성**화가 오늘은 수천수만포기로 만발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김일성**화들을 감명깊게 돌아보았다.

실로 숭엄한 화폭으로 펼쳐진 전시장은 꽃으로 본 조선의 면모였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였다.

인류가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화들로 황홀경을 이룬 전시회는 참관자들속에서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키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 당 및 정권기관, 내각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급 기관일군들, 조선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전시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자수는 무려 26만여명에 달하였다.

세상에 각양각색의 꽃축전이 많지만 그리움과 칭송의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모여 펼쳐지는 숭고하고 열렬한 위인흠모의 꽃전시회는 실로 력사에 보기 드문 일인것이다.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려도 수령님생각, 버들개지가 움터도 수령님생각, 록음이 설레이고 단풍이 져도 마음은 언제나 수령님생각으로 젖어드는 간절한 그리움속에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리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용해장의 붉은 노을이며 협동벌의 푸른 전야, 어장의 풍어기들이 한눈에 안겨오는 전시대들…

그 어느 전시장에 가보아도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어려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셔주었다.

정녕 **김일성**화전시회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기쁨이고 희망이였다.

전시회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절대적인 숭배심과 끝없는 흠모심은 절정을 이루었다.

전시장을 참관한 항일의 로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으로 희한한 전시회입니다. 우리 인민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전례없는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시련을 겪고있는 지금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주시하고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절망이나 비관이 아니라 웃으며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펼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새 세기의 언덕에 올라서는 조선의 락관적인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꽃전시회입니다. 이 화원은 만민이 수령님께 드리는 최상의 꽃바구니입니다.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4월은 조선의 봄이며 인류의 봄입니다. 계절의 봄은 자연이 안아오지만 력사의 봄은 위인이 안아옵니다. 봄이 와서 백화가 만발하는것이 아니라 꽃이 만발하여 봄이 완연히 무르녹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화원을 수령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훔치였다.

로투사는 전시장을 떠나기에 앞서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어버이수령님은 **김일성**화와 더불어 영생하신다.》

전시회는 태양의 꽃을 보고 또 보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하여 계획했던 날자보다 2일간 더 연기하여 4월 19일에야 폐막되였다.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는 만민의 뜨거운 마음과 함께 자주시대의 꽃으로서의 고결한 뜻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력사적인 꽃축전이였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 **김일성**화재배경험발표회도 진행되였다.

발표회에는 **김일성**화를 재배하고있는 여러 단위의 연구사, 원예사, 재배공들이 참가하였다.

경험발표회에서 출연자들은 《**김일성**화의 계단식재배와 변온처리에 의한 속성번식방법》, 《태양절에 **김일성**화를 꽃피운 경험》 그리고 《**김일성**화를 가정에서 꽃피운 경험》등의 제목을 가지고 **김일성**화재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기술적인 해답을 제기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또한 발표회에서는 병해충을 철저히 막는것은 꽃의 품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해서도 강조되였다.

이때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해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화전시회(후에 **김일성**화축전으로 됨)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단비 내리고 봄바람이 산들산들한 태양절에 잎새마다 시가락을 담고 아름답게 피여나는 **김일성**화.

그 령롱한 진분홍보라빛꽃송이는 볼수록 포근한 미감을 안겨주고 그윽한 향기는 따뜻한 인정미마냥 가슴에 흘러넘치였다.

태양절뿐이랴. 춘하추동 사시절 온 나라 강산에 빛을 뿌리고 온 누리에 향기 넘치는 태양의 꽃은 명화중의 명화로 날이 갈수록 무궁찬란하게 만발하고있는것이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

혁명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를 감돌아 유유히 흘러흐르는 대동강에는 성룡강, 마탄강, 금천강, 비류강, 보통강, 남강 등을 지류로 하여 언제나 맑은 물이 출렁인다.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대동강을 무척 사랑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지으시고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는 설한풍속에서 즐겨부르신 《사향가》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대동강의 해맞이》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대동강의 모습이 비껴있는것인가.

예로부터 조상들은 대동강을 릉라도 여울목의 물이 반짝이면서 흐른다고 하여 옥류라고도 하였고 대동강반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에 담아 읊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날의 대동강은 자연경치를 뒤에 남기고 떠나고 보내는 사람들의 리별의 나루터에 지나지 않았다. 오죽하면 12세기 전반기 한 시인이 지은 시 《대동강》을 《송별시》라고까지 하였겠는가.

이 대동강반에 오늘은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고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이 전시관도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훌륭히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0월 21일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더 잘 가꾸어가며 앞으로 **김일성**화전시회를 성대히 진행할수 있도록 꽃전시관을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시관건설과 관련하여 10여차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전시관을 건설할 자리까지 몸소 선정해주시였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건설부지는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한눈에 안겨오고 주체사상탑이며 당창건기념탑, 5월1일경기장 등이 안겨오는 곳으로서 장군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장소였다.

볼수록 정말 명당자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 전시관형성도안을 보아주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수 있도록 중요대상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힘있는 기업소를 기본으로 하여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고 국가적범위에서 건설을 적극 도와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와 함께 내각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 기업소들에서 전시관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련관단위들에서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주체88(1999)년 6월 15일,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건설착공식이 진행되였다.

전시관건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원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가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군대와 인민에게 크나큰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적인류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건설자들은 전시관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완공의 보고를 드릴 일념을 안고 공사의 첫시작부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건설자들은 뜨거운 해별이 내리쪼이는 무더위와 폭우가 쏟아지

는 장마속에서도 공사를 줄기차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수천㎥에 달하는 기초굴착작업을 해제끼였다. 기초콩크리트작업은 대소한의 추위속에서도 계속되였다.

공사지휘성원들은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힘있는 정치사업, 경제선동을 벌리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건설자들은 원형지붕유리공사를 끝낸데 이어 주체90(2001)년 10월부터는 전시관 2단계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건축면적이 수천여㎡이고 연건축면적이 8 000㎡에 달하는 2단계건설공사를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타개하며 짧은 기간에 완공한다는것은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기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평양산원, 만수대예술극장과 같은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운 힘있는 기업소의 건설자들에게 있어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었다.

불멸의 꽃 전시관건설에로 불러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한 건설자들은 그야말로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사장주변에서 수천㎥의 질좋은 모래와 자갈원천을 찾아내였다.

건설자들은 공사에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공사기일을 앞당겨나갔다.

이들은 벽체축조에 필요한 부재도 건설현장에서 만들어 보장하였다.

—선군의 기상으로 더 높이, 더 빨리!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전시관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대형자동차와 기중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운수기술수단의 동음이 건설장을 들었다놓았다.

이러한 때 이미 주체사상탑건설과 **김일성**광장 돌포장공사를 맡아한 공로가 있는 돌격대원들이 전시관건설의 돌공사장에 달려나왔다. 그들은 추운 겨울에도 정대와 함마를 억세게 틀어잡고 이악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수백㎡의 돌을 가공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인민군군인들도 전시관은 후손만대에 물려줄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자재와 자금, 설비들을 선참으로 보내여왔다.

내각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련관단위들, 중앙과 지방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전시관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내오고 사심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으며 많은 련관단위들에서도 건설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었다.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당, 정권기관일군들, 로동자, 기술자, 교원, 예술인, 대학생 등 각계각층 인민들모두가 건설장에 찾아와 전시관건설을 도와나섰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원예학자, 화초애호가, 주조 외교대표부, 무역대표부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살고있는 화교들도 자금과 건설자재, 현대적설비들을 기증하면서 자기들의 지성을 아끼지 않았다.

전시관내부벽체와 천정장식, 바깥벽체돌붙이기, 경사면유리넣기 등 방대한 량의 작업과제들을 지상과 공중에서 립체적으로 밀고나가는 공사에서 모든 건설자들은 작업시간과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따로없이 현장에서 침식을 하다싶이하면서 긴장한 투쟁을 벌리였다.

건설착공식이 있은지 이틀후인 주체88(1999)년 6월 17일 야간지원돌격대가 조직되였다.

돌격대원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3년 8개월동안 전시관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다.

지원자들속에는 중앙기관의 정무원과 휴가를 온 인민군군인도 있었고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들과 교원도 있었으며 TV화면에서 늘 보군 하던 예술인들도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주체91(2002)년 4월 14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이 자기의 개관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이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어느날 조선신보사에 있는 한 녀기자가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을 찾아왔다.

《전시관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전시관일군을 만나면서 터치는 기자의 감탄이였다.

《그렇습니다. 선군시대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은 볼수록 그 우아함과 황홀경으로 사람들 모두를 경탄시키고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전시관을 불멸의 꽃 재배보급의 거점으로 꾸리시려고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전시관건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면서 기자를 전시관으로 안내하였다.

《전시관은 해빛을 마음대로 받아들일수 있는 수직 및 경사유리면과 궁형지붕이 조형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룬 특색있는 건축물로서 여기에는 불멸의 꽃축전과 꽃모생산 및 재배에 적합한 조건과 현대적 설비들이 충분히 구비되여있습니다.》

《예. 전시장의 건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시장은 연건평이 8만여㎡이고 높이는 수십m입니다. 온실의 온도, 습도, 빛, 공기갈이 등과 같은 재배환경조건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조건들이 불멸의 꽃 생육단계에 따라 정확히 보장될

때 꽃의 발육과 생장이 원만히 진행되고 유전적잠재력도 충분히 발휘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관리조건들을 부단히 변화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시관입구에 다달았다.

수감장치에 의한 자동현관문을 지나 들어서니 800여㎡에 달하는 전시홀이 눈앞에 어려왔다. 전시홀의 정면에는 절세의 위인들을 끝없이 칭송하고 우러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경모의 정에 떠받들려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속에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었다.

그앞에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전시되여있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관상용식물들과 화분꽃들이 주위에 이채롭게 놓여있었다.

전시홀측면에는 불멸의 꽃을 명명하고 육성보급하는데서 공헌을 한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 수카르노, 일본원예학자 가모 모도데루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과 해외동포들,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회원들의 이름과 불멸의 꽃을 칭송하여 남긴 글을 새긴 돌표식판이 전시되여있었다.

그들은 이어 선전실로 들어갔다.

선전실에는 불멸의 꽃의 육성경위와 그 보급과 여러 축전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 품위있게 전시되여있었다.

홀바닥가운데는 꽃의 아름다운 황홀경을 한껏 돋구어주는 분수가 아름다운 음악선률에 맞추어 춤추고있었다.

이어 그들은 승강기를 타고 전시장으로 올라갔다.

《기자선생,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좌우계단은 보시다싶이 승강기로 되여있습니다. 꽃전시회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조절장치에 의하여 문이 닫겨지면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를 편리하게 차단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

전시장 1층에는 참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문화후생시설이 있고 2층과 3층에는 꽃축전을 할수 있는 전시홀이 있는데 이 넓은 홀은 공기조화기로 공기를 순환시킬수 있게 되여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온도와 습도, 빛 등이 모두 콤퓨터로 조종되고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많은 량의 꽃모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시관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재배기술을 높이기 위한 강습과 경험발표회, 실습도 조직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시원하게 트인 전시관앞마당에 나섰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벗삼아 일떠선 전시관은 볼수록 장관이였다.

《참으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떠받들려 솟아난 만년대계의 창조물입니다.》

녀기자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주체사상탑을 바라보고나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오늘 동방조선은 주체의 홰불로 누리를 비치고있습니다.

만민이 사랑하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도 세월이 갈수록 누리에 더욱 아름답게 만발해갈것입니다.

꽃은 인간세계에 고상하고 풍만한 정서를 안겨줍니다. 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러가지 감정과 느낌,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것은 그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녀성이여서 그런지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며 즐겁고 선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속에는 악한이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서도 꽃이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부정한것을 멀리하게 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자선생, 꽃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서도 메마릅니다.

사람들은 꽃을 가꾸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지식을 배울뿐아니라 고향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서를 키워나가고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취재한 이 기사에 〈아름다운 태양의 꽃궁전〉이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기자선생의 집필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전시관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녀기자는 어제날 지리적관념에서만 동방의 나라로 부르던 조선을 오늘은 세상사람들이 동방이나 서방이 아닌 세계의 중심으로 바라보고있다, 후세의 지리학자들은 그리니치천문대가 있는 영국이나 적도의 기념비가 있는 에꽈도르가 아니라 주체사상탑이 있는 평양을 거점으로 지구의 경도선과 위도선을 긋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만 되면 앞으로 세계정치지도는 아름다운 **김일성**화, **김정일**화의 화폭속에 주체사상탑을 좌표원점으로 하여 그려지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락관과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면서 전시관을 떠났다.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에 의하여 태여난 **김일성**화를 온 누리에 만발하도록 하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김일성**화전시회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92(2003)년 태양절을 맞으면서부터는 **김일성**화축전으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축전형식과 방법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을뿐아니라 축전마크를 제정하고 축전기발도 띄우도록 해주시였다.

오늘 **김일성**화축전과 **김정일**화축전때마다 울려퍼지는 《불멸의 꽃 축전가》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완성된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천리방선을 종횡무진하시며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불멸의 꽃 축전가》를 훌륭히 완성하도록 노래창작사업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어느해인가 **김일성**화축전을 며칠 앞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금까지 태양절을 맞으며 여러차례의 김일성화축전을 진행하였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위인칭송의 꽃바다, 충성의 꽃바다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화초전시회나 화초박람회와 같은것을 조직하여 갖가지 진귀한 꽃들을 펼쳐보이고있지만 김일성화축전처럼 한가지 꽃을 가지고 온 축전장을 충성의 꽃바다로 일색화하는 화초전시회는 없습니다.》

김일성화축전들에는 내각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인민군부대들에서 키운 수만상의 **김일성**화가 전시되였다.

그가운데서 사람들이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해하는 전시대는 인민무력부전시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펼친 인민무력부전시대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모시고 400여상의 **김일성**화를 전시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일당백군인들의 억센 기상과 신념을 보여주었다.

어느 한 군부대에서는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안아온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있던 백두밀영의 푸른 이끼에 뿌리내리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고산진의 맑은 물로 키운 **김일성**화를 전시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김일성**화를 재배하는데서나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고있다고, 인민군대에서는 **김일성**화재배온실을 잘 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태양의 꽃을 잘 키우고있으며 **김일성**화축전에 성의있게 참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보아도 인민군대안에 수령관이 확고히 섰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꾸바에서 온 한 무관은 인민무력부전시대를 돌아보고 조선인민군은 자기 수령에 대한 결사옹위에서도 무적필승이고 꽃축전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정말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 **김정일**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대야말로 평화의 락원을 지키는 인민의 군대이라는것을 이 꽃무대를 통해서도 똑똑히 알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화초축전이나 박람회, 전시회를 보았습니다. 축전이 안겨주는 깊은 뜻과 꽃의 아름다움은 말할것도 없고 여기에 참가하는 대상들가운데 군대가 성의껏 참가하고있는 문제를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군대라고 하면 무장력이 중심이고 그들의 임무는 싸움일것입니다. 특히 조선으로 말하면 비정상적인 군사분계선이 놓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이 꽃축전에 성의껏 참가하고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인민군병사들이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발전소언제도 쌓고있는것을 TV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유치원어린이들이 병사들을 보고 개울을 건네여달라고 매달리고 나어린 사양공처녀가 물에 빠진 염소를 건지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있을 때 군인들이 여울물에 뛰여들고있으며 군대가 인민들에게 닭목장을 건설해주고 토지까지 정리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화폭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이시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무적대오의 령장이십니다.

김일성화나 **김정일**화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사랑의 꽃, 희망의 꽃으로 되고있으며 특히 초병들에게는 신념의 꽃으로 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근위대, 결사대입니다. 그들은 원쑤와의 싸움에서는 맹호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선에 와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돌아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조선인민군장병들은 그 언제 어디서나 자기 수령과 최고사령관의 존함을 새긴 꽃을 해칠 때에는 그가 누구이건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그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있을 때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룬 한쌍의 신랑신부가 **김일성**화축전장에 들어섰다.

군관복차림에 붉은 꽃송이를 달고있는 의젓한 신랑과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아름다운 단색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유치원교양원이라는 신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먼저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그들에게 사람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김일성화전시대를 배경으로 웃음가득 기쁨가득 결혼사진을 찍는 그들의 행복스러운 모습을 외국의 벗들도 점도록 지켜보았다.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한 해외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축전장에서 우리 수령님의 생존의 모습을 다시한번 뵈옵는것만 같습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그대로 한송이한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만발하고있는것이 아니랴.

해외동포의 길지 않은 이 말을 들으며 일군들은 축전을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조직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로씨야의 한 문학예술부문의 일군은 《**김일성**화축전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첨예하게 대치되고 애국과 매국이 대결하여 항시적으로 충돌의 불꽃이 튈수 있는 땅에 향기그윽한 화원을 펼치고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일성**주석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꽃바다입니다. **김일성**화축전에는 자기의 수령과 령도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문명하고 고상하고 정서가 깊은 조선인민의 참된 의지가 차넘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꽃축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자작시 한편을 읊었다.

에덴동산에서도 볼수 없으리
세상에 처음보는 희한한 축전장
기슭을 모르는 충성의 꽃바다
철과 철이 부딪치는 열점지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평화의 화원

이 땅을 호시탐탐 넘겨다보며
고립압살을 노리는
오만무례한 원쑤들
력사의 반동들

위성TV앞에서 기절초풍하리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화산의 진폭보다 더 강한
김정일선군조선의 일심단결화폭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오스트리아 윈 음악극장의 연주가는 음악은 그 사상적내용과 리용가치에 따라 총검이상의 큰 힘을 나타낼수 있다, 노래가 아름다운 선률을 타면 그것이 예측할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처럼 꽃도 깊은 뜻과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을 새겨준다, 그 향기는 국경의 계선이나 민족의 풍습과 언어에 관계없이 온 누리를 물들여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축전에는 **김일성**화와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뜻깊은 연고관계를 가지고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들과 비정부국제기구들, 조선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제려행사들과 관광사들까지 광범하게 참가하였다.

어느해 4월 **김일성**화축전개막식에 참가한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 수카르노의 아들인 인도네시아예술단 그루 수카르노 뿌뜨리단장은 축하연설에서 36년전 자기 나라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더듬으며 수령님을 흠모하고 두 나라의 친선관계를 상징하는 **김일성**화는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더 많이 전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대사관 전시대에는 우리 나라 주재 전 인도네시아대사관 부하리 에펜디대사의 뜨거운 진정도 담겨져있었다.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때부터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는 **김일성**화는 조선인민의 민족적자랑일뿐아니라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해마다 4월의 봄이 오면 축전에 성의껏 참가하기 위해 여러번 협의회를 가지였다. 그리고는 모든 성원들이 전시대도안형상응모에 참가하여 집체적인 지혜를 모았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대사관가족들모두가 정성을 다해 피운 수십여상의 **김일성**화들로 전시대를 특색있게 형상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제3차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귀인의 꽃을 보호한다는 뜻

에서 전시대의 량쪽에 동남아시아나라의 민속장식인 붉은양산과 모형독수리를 설치하고 그가운데 활짝 핀 10상의 **김일성**화를 전시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체90(2001)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조선**김정일**화련맹(당시)에서 인도네시아에 기증하는 90여상의 **김일성**화를 본국에 전달하고 돌아온 에펜디대사의 생각은 깊었다.

(다음해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돐을 맞는 인류공동의 뜻깊은 해이다. **김일성**화의 고향인 인도네시아를 대표하여 우리 대사관에서 태양절기념 **김일성**화축전준비를 그 어느때보다 잘해야 한다.)

대사는 축전참가를 위한 준비사업에 남다른 지성을 바쳤다.

꽃재배는 물론 전시대형성안작성, 자재확보 등 어느것하나 놓치지 않고 관심해온 그는 주화인 **김일성**화를 부각시킬 보조화분을 해결하는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대사는 **김일성**화가 란초과에 속하는 꽃이므로 보조화초도 마땅히 인도네시아에서 피여나는 란초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쟈까르따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김일성**화축전을 위하여 각종 란초들을 구해 평양에 보낼것.》이라는 전보를 날리였다.

그로부터 보름후 란초들은 정확히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이미 작성한 전시대안에 기초하여 **김일성**화를 특색있게 배치하고 그 옆에 란초들을 하나하나 전시하였다.

이들은 전시대의 배경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전시대의 배경판을 주름무늬천으로 장식하기 위하여 대사부인과 대사관의 가족들이 현장에서 이동식사를 해가며 한주름 두주름 정성껏 천을 누벼가는 모습은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축전개막을 앞두고 완성된 전시대는 에펜디대사가 직접 착상한대로 **김일성**화의 꽃잎에 날아드는 나비를 형상함으로써 동서고금에 있어본적 없는 위대한 인덕정치로 하여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으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대사자신과 인도네시아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을 그

대로 보여주었다.

제5차 **김일성**화축전때에도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는 전시대의 정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카르노대통령과 보고르식물원을 참관하시면서 **김일성**화를 보아주시는 사진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에서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인도네시아인민들의 흠모의 정이 담긴 불멸의 꽃을 전시하였다.

축전장을 뜻깊게 장식하려는 인도네시아인민들의 남다른 지성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 깊어만갔다.

외국의 한 문필가가 쓴 글의 한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무엇때문에 세계 5대륙의 정계와 사회계, 출판계 인사들이 시선을 모아 조선을 바라보는가? 이 나라가 큰 나라이기때문인가? 아니다. 문제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발전되였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다. 그 나라가 과연 인류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는가 하는데 있다.

지금 전세계가 조선을 우러르며 거기에서 울려나오는 한마디의 말, 모든 로선과 정책, 찬란하고 번영하는 현대 조선을 건설하는데서 이룩되는 경험들을 주목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령도사는 제국주의침략과 간섭, 방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안아오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진보적인류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대백과사전으로 되고있는데 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국제적명성을 지니시였기에 그이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는 세계적인 명화로 더욱 널리 알려지고있는것이다.

제5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한 일본**김정일**화애호회대표단 단장은 《이번 축전에 참가하고보니 세계의 선량한 마음들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를 얼마나 따르고있는가를 감명깊게 느낄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멸의 꽃을 보급선전하는 사업에 적극 분투하겠다는 결심

을 굳게 다지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정녕 **김일성**화축전장이야말로 절세의 위인을 흠모하는 꽃향기속에 온 세상의 마음과 마음들이 친선의 감정과 우정을 나누는 화원인 것이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신뢰를 담아 그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는 민족의 자랑이며 국보인 불멸의 꽃 **김일성**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태양의 꽃을 시구에 담고 선률에 담아 친근하게 노래하였고 매혹적이고 진귀한 그 모습을 사진기렌즈에, 미술작품에 그대로 형상하였다.

어느날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의 한 연출가가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 찾아왔다.

그가 가지고 온 과학영화문학과 연출대본을 전시관의 일군들은 조용히 륜독하였다.

연출가는 전시관의 일군들에게 **김일성**화재배와 관련한 연출대본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였다.

《연출가동무, 대본이 안겨주는 감흥이 큽니다. 만민의 한결같은 념원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시고 태여난 불멸의 꽃인것만큼 기관, 기업소들과 가정들에서도 꽃을 쉽게 키울수 있도록 화면을 통속적으로 잘 련결하여주었으면 합니다. 과학영화인것만큼 이 진귀한 꽃의 생김새와 구조, 그 특징을 설명해주고 꽃이 자라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일성**화를 마음껏 꽃피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현대적설비를 갖춘 실험실들에서 세포공학의 방법으로 수많은 꽃모를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린 꽃모를 가꾸어 꽃피우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해설해주면 보다 더 재미있고 실효성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화는 참으로 미묘한 꽃입니다.

김일성화는 밤이 되면 숨구멍을 열고 탄산가스를 빨아들였다가 낮에는 숨구멍을 막고 해빛을 받아 빛합성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연출가동무, **김일성**화는 밤이 되면 방안의 공기를 맑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꼭 시사해주어야 합니다.》

《미속도촬영으로 이 진귀한 꽃이 꽃대를 따라 내려가면서 3일에 한송이씩 차례로 피여나는 신비로운 장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기록영화가 더욱 립체감이 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영화에서 미속도단매촬영으로 꽃이 피여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 꽃송이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을 고상한 정신세계에로 이끌어주는데서도 효과가 클것입니다.》

의견 하나하나에는 어떻게 하면 불멸의 꽃을 더 잘 보여줄수 있겠는가 하는 욕심이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연출가는 지체함이 없이 영화창작과 제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영화는 한달사이에 완성되여 TV화면을 아름답게 물들이였다.

시청자들은 기록영화를 보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절감하였고 **김일성**화를 과학기술적으로 더 잘 피워나갈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였다.

김일성화명명 40돐에 즈음하여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태양절과 불멸의 꽃 **김일성**화 명명 40돐을 앞둔 주체94(2005)년 4월 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여난 불멸의 꽃이다》라는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김일성**화가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수령님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영광의 꽃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굳게 다지게 하는 충성의 꽃이라는것을 정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인도네시아방문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김일성**화가 세상에 나오게 된 력사적경위와 꽃에 어려있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세계 저명한 인사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심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분석하시였다. 그리고 모진 풍파와 시련속에서 **김일성**화가 어떻게 굳건히 보존되여 조국땅우에 뿌리를 내리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시고 꽃재배와 보급사업을 잘하는데서와 해마다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김일성**화축전을 위인칭송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에 관한 사상리론을 완전무결하게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였고 위인칭송의 꽃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정립한 고전적문헌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로작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어버이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뜨거운 충실성의 결정체인 불멸의 꽃 **김일성**화의 세계적지위와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히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어버이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 간직하게 되였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운 꽃이나 식물학발전의 창조물이 아니였다.

위인이 있어 위대한 사상이 있고 위대한 시대가 있듯이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불멸의 꽃이 탄생할수 있는것이다.

인류력사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같이 세기와 더불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면서 인민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펼친 그런 위인은 없었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위대성과 절대적권위를 보장하는것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다.

불멸의 꽃이 태양의 존함을 모시고 세상에 태여났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김일성화가 일시 행적을 감추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민이 있는 한 꽃은 꼭 보존되여 고이 자라고있을것이라는것을 믿으시고 해당 부문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끝내 찾아오도록 하신 은혜로운 그 손길, **김일성**화가 온 세상에 만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손수 가꾸기도 하시고 그것을 중앙식물원에 보내여 빠른 시일안에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시키고 많이 번식시키며 그 재배를 널리 일반화할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떠받들려 태양절때마다 성대하게 펼쳐지는 불멸의 꽃축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금 있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며 꽃의 육종과 재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널리 보급하여 불멸의 꽃이 국내는 물론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더욱 활짝 피여나게 할 일념으로 불타올랐다.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온 누리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는 가운데 주체94(2005)년

4월 12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명명 4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진행되였다.

태양의 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어언간 40년 세월이 흘러간것이다.

보고회에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내각성원들, 성, 중앙기관책임일군들 그리고 제7차 **김일성**화축전참가자들, **김일성**화의 재배보급에서 모범적인 일군들과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김일성**화명명 40돐 기념행사와 제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인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 전 대통령일행과 초대대통령 수카르노의 부인 라트나 사리 데비 수카르노일행을 비롯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성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특이하게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를 자아내는 란과계통의 꽃에 자주시대 인류의 태양의 존함을 모신 력사적인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40년이 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40년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물원에 피여났던 위인칭송의 꽃이 오늘은 대양과 대륙을 넘어 수천수만송이로 만발하여서인가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였다.

보고자는 지구상에 꽃식물이 생겨나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인종과 민족, 사상과 정견, 지역과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만민의 한결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을 모아 위인의 존함을 꽃의 이름으로 명명한 실례는 일찌기 없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20세기의 걸출한 위인이시였기에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그이의 존함을 모신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세상에 태여날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정세의 파동속에서 일시 종적을 감추었던 **김일성**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에 의하여 세상에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다시 드러내고 우리 나라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재배보급되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 인민이 력사상 최악의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수령영생위업의 영광스러운 혁명실록에 또 하나의 감동깊은 혁명전설을 수놓으며 **김일성**화축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성대한 꽃축전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대동강기슭에 웅장화려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을 세워주시고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김일성**화를 대대적으로 재배보급하기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와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가 있어 태양의 꽃은 온 누리에 만발하게 되였으며 **김일성**화와 더불어 어버이수령님은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영원불멸할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만년국보로 간직한 크나큰 민족적긍지를 안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면서 보고자는 7천만겨레의 자랑인 **김일성**화와 함께 **김정일**화를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피워 온 나라 가정과 일터, 그 어디서나 태양의 꽃이 만발하게 할뿐아니라 온 누리에 더욱 찬란하게 개화만발하도록 하고 불멸의 꽃축전을 뜻깊게 장식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것을 호소하였다.

중앙보고회가 진행된 다음날인 4월 13일 평양에서는 제7차 **김일성**화축전이 성대히 개막되였다.

축전장에는 우리 인민들과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을 비롯하여 70여개의 주조외교대표부들, 국제기구대표부들, 세계 여러 나라

의 친선단체, 사회단체들, 30여개의 해외동포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이 정성다해 피운 1만여상의 **김일성**화가 전시되였다.

개막식에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명명 40돐 기념행사와 제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인 인도네시아공화국 전 대통령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일행과 초대대통령 수카르노의 부인 라트나 사리 데비 수카르노일행이 참가하였다.

축전참관자수는 연 75만여명에 달하였다.

그때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멸의 꽃은 온 세상 방방곡곡에 만발하고있다. **김일성**화는 단순한 식물의 꽃이 아니다.

이 꽃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가장 열렬히 흠모하고 칭송한 수카르노대통령과 전체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진정어린 마음이 담겨져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40년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김일성**주석님께 이 꽃을 올리면서 **김일성**화로 명명하였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회가 깊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고 너무 기뻐 춤까지 추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40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가슴속에 남아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으로 명명된 꽃이기에 우리는 **김일성**화를 지켜내였고 **김일성**화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스러지지 않고 아름답게 피여날수 있었다.

축전장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함께 전시되여있기때문에 더 잘 어울리고 볼수록 아름답고 황홀하다. **김일성**화와 더불어 **김정일**화도 온 세상 방방곡곡에 만발하고있다.

나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김일성**화뿐아니라 **김정일**화도 더 광범히 보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천해준데 대하여 커다란 신임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조선친선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더 힘껏 일하겠다.》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는 1947년 1월 중부쟈와섬에서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 수카르노의 맏딸로 출생하였다. 그는 반둥판쟈차대학과 인도네시아대학을 졸업하였다. 인도네시아의 5대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일하는 기간 그는 국내에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의 부인 라트나 사리 데비 수카르노는 주체96(2007)년에 진행된 제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또다시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때 그는 잡지 《불멸의 꽃》에 《**김일성**화의 고향은 조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

오늘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 태양의 꽃이라 불리우며 만발해가고있는 **김일성**화는 꽃모양과 색갈이 특이하게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그 원산지인 인도네시아의 더없는 자랑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나는 조선방문의 나날 **김일성**화의 진정한 고향은 바로 조선이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게 되였다.

온 세계가 태양절이라 노래하는 4월의 봄명절에 제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게 되는 나의 감정은 류달랐다.

그것은 내가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명예회장이여서만이아니라 **김일성**화는 나의 남편이였던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수카르노가 생전에 **김일성**주석님께 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올린 선물이기때문이였다.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그러했듯이 친근한 조선의 벗들과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웅장하고 훌륭히 건설된 도시가 나를 정답게 맞이하였다.

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부터 찾았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5돐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그이의 고향집을 방문하는 나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비록 수수한 초가집이건만 만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성지를 찾았으니 어찌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수 있으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은 주석님일가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말없이 설명해주는 귀중한 유산들이였고 방안에 전시된 일가분들의 사진은 대대로 나라와 혁명을 위하여 싸워오신 위대한 애국자들의 참모습이였다.

고향집을 돌아볼수록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가정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며 바로 이러한 가정에서 탄생하신분이여서 인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진정한 인민의 세상을 세우실수 있은것이라는 생각이 더더욱 가슴속깊이 새겨졌다.

특히 쏟아져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경대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은 나를 크게 감동시키였다.

지금까지 여러 성지들을 돌아보면서 좋은 날, 좋은 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이렇듯 비바람 부는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인민들이 자기 수령의 고향집을 찾는 광경을 목격하기는 처음이였다.

(언제나 인민을 마음에 안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분이시니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김일성주석에 대한 나의 존경과 흠모심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았을 때 더욱 강렬해졌다.

국제친선전람관은 그 규모의 웅장함과 정교함, 내용에 있어서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인칭송의 보물고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식합각지붕에 현대적미를 부여하여 건설된 전람관에는 **김일성**주석님을 흠모하여 전세계에서 보내온 아름다운 예술작품들과 인간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진귀한 세공품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흔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자기가 받은 선물들을 개인소유물로 만드는것이 례상사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진귀한 선물들을 하나도 향유하지 않으시고 나라의 국보로, 인민의 재부로, 민족존엄의 상징으로 되게 하여주신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덕망은 나를 한없이 경탄시켰고 인구도, 땅도 크지 않은 조선이 미국과 같은 횡포한 나라와 당당히 맞서 승리하고있는 힘의 원천에 대하여 다소나마 느낄수 있게 하였다.

나는 국경과 신앙을 초월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보내온 선물들이 진렬된 이곳을 만민의 어버이를 우러르는 세계의 마음들이 모여드는 위대한 태양의 집이라고밖에 달리는 표현할수 없었다.

하기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전 대통령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여 42년전 보고르식물원에 아름답게 피여난 진귀한 란꽃에 그이의 존함을 모셔드리였을것이다.

저의 남편이였던 수카르노로 말하면 당시 국제무대에서 이름난 정치인이였고 300여년간의 외세의 식민지로부터 인도네시아를 독립시키고 미군의 전횡을 반대하여 투쟁한것으로 하여 인도네시아인민들속에서 독립의 아버지로 신뢰와 존경을 받고있었다.

이러한 그가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 깊이 공감하고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여 인도네시아의 이름있는 식물학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 육종한 진귀한 란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주석님께 선물로 드리였던것이다.

그때 수카르노대통령이 주석님을 모시였던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물원은 수백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원으로

서 많은 종류의 진귀한 식물들을 가지고있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주석님을 우리 나라의 자랑이기도 한 이 식물원에 모시기 위한 영접준비를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하도록 하였고 새로 육종한 아름다운 란꽃을 그이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방문날자를 맞추어 꽃을 피우게 하였다.

그는 식물원을 찾으신 주석님께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리면서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의 존함을 꽃에 모시고싶은 자기의 소망을 말씀드리였다.

복잡한 국제적환경과 조건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한 로선을 밝혀주시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데서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신 주석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이런 간절한 청을 올린것은 그의 마음이기 전에 인류의 념원이 반영된 시대의 요구였다.

하건만 한없이 겸허하신 주석님께서는 사양하시면서 꽃에 자신의 존함을 모시는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였다.

허나 위인의 꽃을 이 땅에 아름답게 피워 그이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수카르노대통령의 마음은 세대를 이어 **김일성**화의 학명등록에로 이어졌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보급열풍을 불러일으키였다.

아름다운 나라 조선에서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고있는 **김일성**화축전도 **김일성**주석님을 따르고 받드는 인류의 위인칭송의 마음의 분출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김일성**주석님을 흠모하여 못잊어하는 인류의 마음을 제9차 **김일성**화축전장에서 더욱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42년전 그날 인도네시아에 피여났던 **김일성**화가 오늘은 기후도, 토양도 다른 곳에서 수천수만송이로 피여나 꽃바다를 이루었으니 **김일성**주석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우러르는 조선인민들의 충정의 세계를 어찌 몇마디의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내가 더우기 감동된것은 축전장에 여러 단위들에서 전시한 전시대들과 함께 평범한 개별적사람들이 온갖 지성을 다하여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 축전장에 전시한것이였다. 그들속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도 있었고 총대로 조국을 지키는 군인도 있었으며 과학자도, 음악가도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지성이 어린 **김일성**화들과 인도네시아와 중국, 로씨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온 **김일성**화들도 축전장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었다.

절세의 위인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모시여 만민의 사랑을 받으며 그토록 아름답게 피여나는 **김일성**화.

김일성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태양의 꽃바다의 황홀한 세계.

김일성주석님을 못잊어 그리는 만민의 마음이 펼쳐놓은 황홀경의 꽃바다앞에서 나는 세계를 향하여 웨치고싶었다.

〈**김일성**화가 태여난 곳은 인도네시아이지만 **김일성**화의 고향은 조선입니다.〉라고…

김일성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꽃이다.

나는 만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를 보급하는 후원회 명예회장이 된 긍지를 안고 주석님의 뜻대로 지구상에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라며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세계에 만발하게 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결의다지며 나의 글을 마치려고 한다.

…

《ㅌ.ㄷ》결성 80돐을 맞던 주체95(2006)년 10월 중국의 길림육문중학교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수난에 찼던 그 세월 암흑의 강산을 불사르며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날의 감격을 못잊어서인가 아름답게 피여난 태양의 꽃들은 불타는 화광으로 길림시가를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이 전시회는 중국에서 사는 해외동포부부가 주최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원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를 조직하고보니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금할수 없다고 하였다.

꽃다운 청춘시절부터 오늘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길림육문중학교에 건립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과 사적지관리사업을 정성껏 해오고있는 수많은 동포들의 얼굴마다에는 수령에 대한 깨끗한 량심과 도덕적의리의 참모습이 비껴있었고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오고 시련에 찬 난관이 조성된다 해도 태양의 꽃을 더 붉게, 더 아름답게 피워갈 결의가 차넘치고있었다.

명화의 향기속에서

제8차 **김일성**화축전때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전시대는 특색있는 구도로 하여 참관자들의 경탄을 자아내였다.

《**김일성** 1994. 7. 7》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이 정답게 빛나는 속에 통일된 강산을 형상하여 만병초 그윽한 백두산천지에서부터 남해기슭까지 백두대산줄기를 따라 하나의 지맥으로 뻗어내린 삼천리 조국강산에 피여나는 **김일성**화는 볼수록 유정하였다.

두 녀인이 팔을 벌리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받드는 기념탑모형을 세우고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특색있게 장식한 전시대는 참관자들 모두에게 통일의 열기를 북돋아주었다.

나라의 분렬은 우리 인민과 친혈육을 서로 갈라놓은 민족분렬인 동시에 아름답고 풍요한 조국산천이 두 동강난 국토분렬의 비극이

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는 민족이 하나이듯이 이 땅, 이 강토도 하나이다.

하여 불멸의 꽃 화폭속에서 우리 인민은 통일된 조국강산의 찬란한 려명을 아름답게 피워나가고있는것이다.

제3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취재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기자들이 서울에 갔을 때 남조선주민들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세상에 태여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태양의 꽃은 해외동포들속에도 널리 보급되고있다.

참으로 태양의 꽃 **김일성**화의 탄생은 일본, 중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숭배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총련에서는 **김일성**화조직배양모를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보급하였으며 산하단위들에서도 태양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중국에 있는 동포들속에서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잘 꾸리고 정성을 다해 태양의 꽃을 훌륭히 키워나가고있다.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태양의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조국의 넋이였고 꽃으로 본 조국의 모습이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인 유크니드화원 원장 리병상도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의 보급에 모든것을 바치고있다.

아메리카**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회장인 그는 **김정일**화를 국제원예학회 미국베고니아협회에 공식등록하는 사업을 맡아하였고 캘리포니아주 싼디아고시에서 진행된 국제베고니아전시회에 직접 키운 **김정일**화를 출품하여 1등상 댕기를 수여받았다.

그는 한생을 원예사로 살아왔다.

직업이 원예사이다보니 자연히 꽃을 사랑하게 되였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꽃, 아름답다고 하는 꽃들을 정성들여 직접 키워보기도 하

였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이 많아도 **김일성**화, **김정일**화와 같이 그토록 매혹적인 꽃은 없었다.

진분홍보라색빛을 신비롭게 던지며 맑은 정기를 한껏 뿜는 **김일성**화는 그야말로 위인숭배와 흠모의 결정체였다.

그 향기속에서 리병상은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풍모를 그대로 느끼게 되였고 불멸의 꽃들을 미국의 곳곳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으며 그 과정에 **김일성**화재배를 위한 연구론문 《란과식물의 생물학》을 내놓았다.

그는 론문에서 **김일성**화의 분류학적위치와 생물학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론문은 **김일성**화재배를 보다 광범히 진행하게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로씨야와 오스트랄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도 태양의 꽃재배에 자기들의 지성을 다 바치고있다.

오늘도 세계 수많은 나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태양의 꽃을 자기 나라에서도 피우고싶다는 내용의 편지들을 보내여오고있다.

인간이 인간을 숭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숭배하는것은 그 어떤 의무감에서 나온것이 아니다.

인간적매혹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심장의 자각은 의무감보다 훨씬 위력하다.

천태만상의 수많은 꽃들과 함께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피워나가는 것은 날이 갈수록 내 나라의 가풍으로 굳어지고있다.

김일성화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있고 수령님에 대한 만민칭송의 고결한 마음이 흘러넘치고있다.

위인을 경모하는 만민의 마음은 국경을 모르는 법이다.

김일성화는 단순히 미의 개념에서 그 가치가 귀중한것이 아니다.

해마다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김일성**화축전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와 4월의 봄명절을 뜻깊게 장식하는 흠모의 결정체로 태양절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펼치고있다.

영원한 4월의 봄노래가 울리는 이 축전에는 세월이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다.

축전장에는 위대한 선군령도로 내 나라의 무궁번영과 자주시대의 광휘로운 미래를 꽃피워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최대의 경의가 뜨겁게 흐르고있다.

김일성화는 깊은 뜻과 아름다운 미감과 조형적이고 단아한 립체감에서, 그윽한 예술적감정에서 극치를 이루고 식물학적견지에서도 손색이 없다.

심지는 돋굴수록 등불이 밝아지고 꽃은 정성담아 피울수록 화폭이 아름답다.

김일성화는 결코 관상용장식꽃이 아니며 선군시대와 더불어 찬란한 조국의 래일을 펼쳐주는 불멸의 꽃이다.

어느 대륙에 살건 어느 나라 말을 하건 **김일성**화는 광활한 우주의 푸른 하늘아래 우리모두를 친근하게 불러주고 정의로운 인간들의 마음을 그윽한 향기속에 품어준다.

거치른 비바람이 회오리칠 때 밑뿌리없는 꽃은 그 존재를 잃지만 군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김일성**화는 인생의 영원한 꽃으로 만발하고있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전시회준비로 들끓던 주체88(1999)년 4월 우리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에서는 조선**김정일**화련맹(당시)에 다음과 같은 각서를 보내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은

조선**김정일**화련맹에 경의를 표하면서 다음의 문제를 풀어줄것을 제기합니다.

1.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개막을 수록한 록화테프
2. 최근에 창작된 **김일성**화와 관련한 노래록음테프
3.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개막을 수록한 록화촬영테프

사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 부하리 에펜디

1999년 4월 8일
평양

각서를 전달하면서 대사관 서기관은 본국에서 이제 **김일성**화전시회가 끝난 후 **김일성**화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더 광범히 벌리기 위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여왔다고 하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세계 진보적인류가 **김일성**화축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김정일**화련맹에서는 몇달후 만수대예술단에서 새로 창작한 노래《천만년 피여나리 **김일성**화》를 보내주었다.

만민의 정다운 꽃으로 만발한 불멸의 꽃
꿈에도 그리운 수령님 그 모습 새겨주네
(후렴) 아름다운 **김일성**화 태양의 꽃이여
영생의 노래속에 천만년 피여나리
…

유구한 세월 사람들은 꽃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 꽃에 대한 미감은 사람마다 민족마다 서로 다르다.

그것은 그 화폭에 시대의 감정, 민족의 정서와 취미가 담겨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와 제도, 정견과 신앙, 지식정도와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여 사랑을 받는 **김일성**화는 무성의 언어를 가지고도 인간세계와 깊은 정을 가지고 통하고있다.

이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는 그가 선량한 인간이라면 먼 사람이 따로 없다.

이 꽃은 우리모두를 화목하게 해주고 사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폭으로 어린이들까지도 쉽게 리해하고있다.

날이 갈수록 이 명화는 그 숭고한 뜻과 아름다움으로 하여 노래악보우에서도 유정한 선률을 안겨주고있는것이다.

누리에 만발하는 태양의 꽃

로혁명가의 진정

김일은 생전에 그 누구보다도 **김일성**화를 사랑하였다.

그는 늘 꽃에 물을 주고 밤이면 자신이 직접 보충조명도 하였다.

아름다운 꽃잎을 한껏 펼치고 향기를 풍기는 김일성화를 바라볼 때면 그의 눈앞에는 자기에게 생의 활력을 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주체54(1965)년 섣달 그믐날이였다.

《수령님, 김일동지가 암이라고 합니다.》

책임서기의 보고였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였다.

한해를 마감하고 래일 하실 신년사를 보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놀라와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진단을 조금도 믿고싶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의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하였다.

그런데 한 의사만은 위암이라는 진단을 부정하고있었다.

사랑하는 전사가 사형선고와도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리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 이상 마음놓고 집무를 보실수 없으시였다.

그 보고가 얼마나 큰 충격적이였으면 그이께서 새해 주체55(1966)년 신년사를 못하시였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혁명의 험준한 산악들을 무수히 넘고 헤치던 나날에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김일은 태양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의 참된 혁명가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얼마나 투철하고 진실하며 열렬한것인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준 자랑스러운 혁명의 제1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전화로 외교부장을 찾으시였다.

이 세상의 의료진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김일의 병이 위암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하시려는 수령님의 결심은 단호하고 확고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일동무의 병세를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전문의사들을 요구하여 어느 한 나라에 긴급전보를 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보다 뜨겁고 무한대한 인간사랑이 담겨진 전파는 우주공간을 날았다.

양력설을 맞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국가연회에 참가하였던 그 나라의 유능한 의사들은 설날 오후에 평양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사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빨리 왔는가고 재삼 물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 취하신 조치라고 하면서 그 나라 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전투기에 태워 보내였습니다.》

외교부장의 대답이였다. 그는 손등으로 눈언저리를 닦았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의사들과 함께 외국의사들을 친히 부르시여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외국의사들은 한 전사의 건강을 보살피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기들이 초보적으로 검진한데 의하면 암이 아닌것 같다고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말씀을 올리였다.

순간 어버이수령님의 안광에는 환하신 미소가 어리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새해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청취하는것이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에 귀를 기울이였다.

인민과 함께 승리의 기쁨속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시며 희망찬 새해의 설계도를 펼쳐주시던 수령님께서 해마다 신년사를 하시여

군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가슴뜨거운 일화를 남기시였는데 이 해에는 수령님의 신년사를 청취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게 되니 온 나라 인민들의 그 서운함이란 어디에 비길데 없었다.

세계의 출판보도물들도 라지오주파수를 조절하며 록음기를 준비하고 신문과 통신의 귀중한 지면들을 남기고있었지만 소득이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암이든 암이 아니든 김일을 지체하지 말고 의사들과 함께 그 나라에 보내여 진단도 확증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새해 첫날에 한 전사를 태운 특별비행기가 눈보라를 가르며 대공을 날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신대로 김일은 암이 아니였다.

김일은 그후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음을 푹 놓고 휴식하라고 하시였지만 사회주의건설장에 나가 늘 로동자들과 같이 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김일을 널리 소개하도록 기자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때마다 김일은 《문필가들은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글을 많이 써야 하오. 내가 자료를 줄것이 정말 많소.》라고 하고는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을 저택으로 데리고 갔다.

《이 꽃에 대하여 쓰는것이 좋겠소. **김일성**화요. 문필가들이니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수령님께 **김일성**화로 명명해올린 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을것이요. 그러나 아직 모든 사람들이 이 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있소.》

김일은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놓인 **김일성**화에 정답게 물을 주며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고있었다.

어느날 항일혁명투사 전문섭이 김일의 저택으로 문안을 간적이 있었다.

방에 들어서니 김일은 창문가에서 **김일성**화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런데 김일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시답지 않은 기분이였다. 전문섭은 은근히 미안해하였다.

그는 《자주 오려고 하였는데 그만…, 용서하십시오.》하고 제딴에 말끄리를 씹었다.

《용서는 무슨 용서, 용서할 일이 따로 있지.》

전문섭은 난처한 기색을 감출수 없었다.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섭동무, 이제라도 빨리 떠나면 용서해주겠는데 내가 뭐 대감이오?! 자네들이 정신이 있소? 우리 항일투사들이 수령님곁을 순간도 떠나서야 되겠소? 특히 호위사업을 맡은 자네임무야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소?!

이 순간도 수령님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찾으실수 있는데 도와드리지 못할망정 왜 제멋대로 자리를 뜬단말이오?! 내 몸이 어쨌다고 나를 찾아오오. …

동무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오히려 혈압이 오릅니다.》

원래 말수더기가 적은 김일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였다.

항일의 준엄한 불길속을 헤쳐왔고 전쟁의 포화를 뚫고왔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까지 혁명과 건설의 폭풍우속에서 뼈를 굳혀온 백전로장들은 서로 붙안고 어깨를 들먹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앞둔 어느날 김일은 여느날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김일성**화에 물을 주고 수령님의 저택으로 향하였다.

이른 새벽에 댁에 나타난 그를 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수령님, 제 한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무슨 문제인가고 물으시였다.

수령님의 물으심에 김일은 찾아온 용건을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전날 중앙인민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비준을 받아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그이의 탄

생 4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력사적인 정령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겸허하신 장군님께서는 그 정령을 발표하지 못하게 엄격히 막으시였다.

하여 출판보도물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은 말할것도 없고 그이의 존함마저도 싣지 못하고있었다.

김일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나서 이렇게 간청을 올리였다.

《수령님께서 비준하여주신 정령이니 꼭 발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직비서를 위해서 왔구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조직비서가 정령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것일거요.

김일동무, 나도 당원이고 김일동무도 당원인데 당에서 하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수령님, 이 문제는 당원들의 당생활과는 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 인민들이 추대한 인민의 령도자이십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민들과 일군들에게 해주실수 있는것은 다 해주시면서도 자신께 차례지는 영광은 거절해오시였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의 성의를 받아주실 때가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때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의사입니다.》

김일의 이 절절한 심정에 수령님께서도 수긍하시는듯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그럼 본인에게 한번 건의해보자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장군님을 찾으시였다.

《…지금 여기에 김일부주석이 와 있소. 그가 왜 새벽길을 왔는

고하니 … 》

이렇게 서두를 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투사의 제기를 그대로 전달하시였다.

김일은 자기의 제의가 부결되지 않겠는가 하여 마음을 조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얼마간 통화를 하고나신 수령님께서는 한손으로 송수화기를 막으시더니 그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였다.

《안되겠소. 조직비서가 반대하오. 그는 로간부들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때마다 송구스럽다고 하오.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사정하고있소. 그의 마음을 리해해주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김일은 고집스럽게 버티였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쫓으셔도 안가겠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설득시키지 못하신 수령님께서는 몹시 딱해하시였다.

그러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며 김일은 다시금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수령님, 수령님을 모시고 산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유한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희들이 살아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모시다가 가야 먼저 간 동지들을 볼 면목도 있고 또 후대들앞에도 떳떳하다고 봅니다.

제 깊이 생각하고 온 걸음이니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의 깨끗하고 가식없는 충성심에 감동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금 장군님과 통화를 하시였다.

《조직비서가 승인하지 않으면 부주석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오.

완강하게 항변한단 말이오.

내 생각에는 그의 제기에 동의를 주는것이 좋겠소.》

이리하여 또다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사이에 긴 시간의 대화가 오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이 불편한 부주석이 새벽걸음을 한 그 성의를 봐서라도 승인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거듭 설복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난하다고 사양의 말씀을 되풀이하시였다.

김일은 줄곧 가슴을 조이며 결과를 기다리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웃음어린 안색으로 송수화기를 놓으시며 《떼가 통할 때도 있구만. 조직비서가 하는 말이 부주석이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고 거기다가 나까지 합세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소.》라고 하시였다.

김일은 그만에야 숨이 나갔다.

《그렇습니까. 그건 반승낙이나 같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미 승인하셨고 본인으로부터 반승낙을 받은셈이니 저는 그럼 돌아가서 정령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은 수령님께 방해될가싶어 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일어섰다.

《수령님. 제가 새벽부터 뛰여들어 부산을 피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팔을 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런 말 마시오. 나는 조직비서를 내세워주려고 뛰여다니는 김일동무의 마음이 고마와 눈물이 납니다.

방금 조직비서도 전화로 자기를 생각해주는 부주석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였소. 그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보니 제 목소리가 아니더군. 갈린 목소리더란 말이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부축하시고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

였다.

김일은 차에 오르기에 앞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였다.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공기는 어둠을 채 거두지 않고있었다.

얼마후 주체71(1982)년 2월 15일부 《로동신문》에는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력사적정령이 발표되였다.

온 나라 인민들은 끝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이였다.

그러나 김일은 그때부터 병석에 누워있게 되였다.

김일은 **김일성**화가 옆에 놓인 침대에서 베개를 높이 베고 정령을 다시 읽어나갔다.

그로부터 2년후 그는 병원에 실려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그 뜨겁고 무한대한 인간사랑의 세계에 안기여 김일은 근 20여년 가까이 생명을 더 연장할수 있었다.

우박치는 탄우속에서도 수령결사옹위를 위해 박동치고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식을줄 모르던 김일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비통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의 서거에 대한 부고초안을 한자한자 구체적으로 검토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부고내용이 미흡하다고,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전쟁과 당과 국가건설, 새 사회건설에서 큰 공로를 세운 우리 당과 국가의 저명한 활동가라는 높은 평가를 안겨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혁명가의 한생을 가장 값높은 영예로 빛내여주시려 김일에게 베푸신 최상의 배려이고 혁명선배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의 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도곡을 들으시며 저 추도곡은 우리가 산에

서 지은 노래였다고 하시면서 김일이는 죽지 않았다고, 그는 우리 곁에 살아있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김일이 서거하여 사흘째 되던 날 평양시 교외에서는 고인과의 영결식이 거행되였다.

이날따라 봄철같지 않게 날씨는 몹시 차거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삽을 드시고 유가족들과 함께 김일의 령구에 흙을 얹으시였다.

바람세찬 언덕우에는 봉분이 생겨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옷자락을 휼날리며 그앞에 말없이 서계시였다.

《장군님,

날씨가 찬데 그만 내려가십시오.》

김일의 부인이 장군님께 말씀드리였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나 돌아갔을 때에나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주시고도 그를 떠나보내는것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좀처럼 움직일념을 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유가족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댁에 돌아온 자녀들은 김일의 방에 들어갔다.

인적기 없는 방은 조용하였다.

창턱에서는 **김일성**화가 소리없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남편이 꽃에 꼭 물을 주려 올것만 같아 부인은 그만 어깨를 들먹이고말았다.

항일의 로투사가 그토록 사랑하던 **김일성**화는 오늘 그의 자식들이 아니 혁명의 3세, 4세들이 온 나라에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다.

평양에 온 국제수목학회 회장

벨지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굳어진 버릇처럼 프랑스와 련결시키군 한다. 그것은 벨지끄가 프랑스와 린접한 나라로서 프랑스에 평화가 깃들면 벨지끄에도 꽃바람이 불었고 프랑스가 력사의 세례를 받으면 벨지끄도 그 참화를 면할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주체67(1978)년초 벨지끄에서 공연을 진행하고있던 평양교예단은 첫 휴식일에 브류쎌에 있는 국제수목학회의 초청을 받았다.

교예예술과는 인연이 없는 수목학회의 초청을 받은것은 예견치 않았던 일이였으나 외교관계도 없는 땅에서 어쨌든 고마운 일이였다.

국제수목학회건물은 브류쎌교외의 한끝에 있었다.

로베르뜨 데 벨데르회장은 정원에 나와 조선의 교예사절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당신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합니다. 나는 전달에 빠리에 가서 유네스코리사회에 참가하였다가 회관에서 진행된 공연을 보았습니다. 말로써 쉽게 표현할수 없는 조선교예단의 훌륭한 공연이였습니다.

교예업자가 아닌 우리와의 상면은 기이한 일일수도 있지만 당신들은 응당 수목학회의 환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김일성**화를 특별히 사랑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평양에서 온 벗들을 그대로 돌려보낼수 없었습니다. 나의 안해 마리카의 마음도 다를바 없습니다.》

로베르뜨는 **김일성**화가 전시되여있는 웃층으로 교예사절들을 안내하였다.

《보십시오. **김일성**화는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피여나고있습니다.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 수카르노가 **김일성**각하께 드린 력사적사변을 만민의 경모의 마음과 함께 이야기해주는 진귀한 꽃이 아닙니까.

이 꽃을 육종한 분트씨는 인도네시아식물학자이지만 도이췰란드계의 사람으로서 유럽의 학자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나 역시 그와 친분관계가 깊습니다. 나도 프라망족이고 분트씨도 프라망족이지요. 그러나 우리집 사람은 왈롱계사람입니다. 원래 프라망사람과 왈롱계사람은 가정을 이루는것은 고사하고 신앙적으로 손을 잡는것마저도 허용되지 않고있는데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재미나게 살고있습니다.

김일성화의 공식적인 란과식물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영국왕립원예학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심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국제수목학회 회장으로서 선참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일성**화는 전망적으로 좋은 결실을 보게 될것입니다.》

로베르뜨의 설명이 끝나자 마리카는 손님들에게 음료를 권하였다.

교예단단장은 수목학회회장이 어이하여 오늘 자기들을 학회에 초청하였는가를 이때에야 정확히 알수 있었다.

단장은 **김일성**화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그들모두의 가슴속에는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올랐다.

《회장선생의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우리의 귀중한 친지들이 유럽의 네거리로 불리우는 벨지끄땅에도 있다는 행복감을 간직하게 됩니다.》

《암, 그렇구말구》

이번에는 레미젤리스가 한마디 하였다.

그는 벨지끄—조선친선협회의 사업을 맡아보고있었다.

《일본 히로시마의 시골녀인이 천진란만한 어린애에게 들국화송이를 쥐여주고 핵참화의 길을 막아나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

을 쓴 침략무리들은 장갑차로 그들을 사정없이 깔아뭉개였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도꾜의 사꾸라미술방주임 하시모또 마사루는 격분을 참지 못하여 그날부터 반전포스타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포스타는 도이췰란드의 국제포스타전람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실로 화원이란 문명미덕의 산물입니다.

꽃동산에 포화를 들씌우고 절간에 폭탄을 퍼붓는것은 최대의 범죄이며 인륜도덕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지에는 파편이 아니라 밀을 심고 보리를 심고 꽃을 심어야 합니다. 네데를란드의 하를렘지방에 있는 리써는 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뗀 레미젤리스는 언뜻 로베르뜨에게로 시선을 돌리였다.

《참 로베르뜨, 나는 며칠전에 유네스코에서 발행한 잡지에서 앞으로 달나라에서 화초축전을 할수 있다는 과학환상담을 흥미있게 읽었네.》

마리카는 넌지시 레미젤리스를 쳐다보며 《그것이 바로 저분이 쓴것이예요.》라고 말하였다.

《그래그래, 로베르뜨, 자네가 쓴것이였어. 정말 흥미있었네.》

《레미젤리스, 그 글은 내가 련재로 쓴것이네.

이제 다음호에 결속을 지으려고 하네. 무슨 글에서나 끝이 중요하지. 이제 달나라에서 화초축전을 하면 어느 꽃을 지구의 상징화로 출품할수 있겠는가고 하는 유네스코 녀기자 뽕데르 까떼린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정말 의미심장하고 흥미진지한 문제입니다.》

회장은 점도록 말이 없다가 다시 이었다.

《비록 과학환상담이지만 나는 이 글을 유네스코앞에서, 세계 화초계앞에서 책임적으로 결속하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국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자기의 숭상화를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정견과 신앙, 대륙과 대양, 나라에 관계없이 세계는 지

금 자기 조국과 인민, 인류를 위하여 공헌한 **김일성**각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상을 꽃에 담아 격찬하고있습니다.

민심이 하늘이고 거울이라고 세계는 그이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를 태양의 꽃으로 노래하고있습니다.

김일성화야말로 명실공히 위인숭배화이지요.

날새는 나래가 있어 장벽을 모르고 꽃은 나래가 없어도 그 향기만은 국경을 모르는 법입니다.

하긴 엄혹한 추위도 꽃향기를 얼굴수 없고 총칼도 그 아름다움을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로베르뜨는 담배를 피우는 성미가 아니건만 신중한 표정으로 연신 로스만연기를 날리였다.

나이는 지숙하지만 학자의 기백이 넘치는듯한 은빛눈섭밑으로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회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김일성**화는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일뿐아니라 인류공동의 재보입니다. 한생을 식물학계에 바쳐오는 나로서는 우주에서 꽃축전이 열린다면 명실공히 천하일품 절세의 명화 **김일성**화를 출품하고싶습니다.》

방안에는 우렁찬 박수가 차고넘치였다.

그것은 회장의 고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였고 일치한 찬동이였다.

그후 로베르뜨 데 벨데르는 부인 마리카, 식물학자인 아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었다.

로베르뜨가 조선을 나날이 동경하기까지에는 레미젤리스나 벨지끄녀성법률가 마리 루이즈 모에랑의 영향이 컸다.

모에랑은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었다.

그때 그는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조사하

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성원으로 활동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조사단성원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평양은 도시가 아니라 완전한 페허였던것이다. 얼마나 참혹하였던지 조사단성원들이였던 영국과 뽈스까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자기들이 겪은 히틀러파시스트의 런던과 와르샤와에 대한 폭격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혹심하게 파괴된 평양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미국이 도발한 전쟁의 참화를 목격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진리를 받아안게 되였다.

지상에서 폭탄이 연방 터지는 속에서도 그들은 평양의 지하극장에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였던것이다.

—조선인민은 이기는 전쟁을 하고있다.

조사단성원들은 이렇게 확신하였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맞서 영용하게 싸우는 조선인민을 적극 지지옹호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끓어올랐다.

조사단성원모두가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인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세상에 폭로하는것은 조선뿐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에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활동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 모에랑은 미국놈들이 떨군 폭탄으로 파헤쳐진 도로에서 자동차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때가 야밤이였는데 전조등이라도 켰더라면 사고는 면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미공중비적들때문에 안심하고 불을 비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쁘신 나날에도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사단성원들에게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는데 대하여, 조선인민군과 인

민이 발휘하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나서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앞에 저지르고있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적만행과 야수적본성에 대하여 신랄하게 폭로규탄하시였다.

쩌렁쩌렁하신 수령님의 음성이 방안을 무겁게 울려주었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확신하기때문에 원쑤격멸의 붉은 화살표를 그으며 다른 한쪽으로는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그리고있다고 하시였다.

승리의 신심이 넘쳐 흐르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조사단성원들의 가슴속에는 크나큰 격동의 파도가 일어번지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사단의 사업정형을 친히 료해하시면서 모에랑이 입은 상처를 걱정하시였다.

모에랑은 수령님께서 유능한 의사를 붙여 상처가 빨리 아물수 있게 하고 본래 자기가 가지고있던 다른 질병까지도 고쳐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기에 이제는 상처가 다 아물고 아무일 없다고 수령님께 말씀올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모에랑은 조선에 와서 부상당한것은 싸우는 조선인민을 조금이나마 도와나섰다는 증거로도 되고 후날 잊지 못할 추억으로도 될것이라고 수령님께 허물없이 말씀드리였다.

그때 모에랑은 26살의 꽃시절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모에랑의 두눈에는 맑은것이 반짝이였다.

담화시간도 퍼그나 많이 흘러 조사단성원들이 떠날 시간이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을 문밖에까지 나와 바래워주시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 다시 조선에 오라고 정답게 말씀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미국놈들의 폭격이 심한데 모두들 조심해서 다니라고 뜨겁게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사단을 만나주신 장소는 모란봉기슭의 자그마한 반토굴집이였다. 언덕은 낮아도 그 력사의 집은 오늘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만사람을 순간에 매혹시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모에랑은 자기의 글에서 《그날에 받은 감동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라고 썼다.

어느덧 모에랑의 머리우에도 흰서리가 내리였다.

60년 세월이 흐른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 눈물겨웁도록 소중히 간직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였다.

모에랑이 불순세력들의 끈질긴 방해속에서도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활동을 국제적규모에서 중단없이 벌릴수 있은것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열렬한 매혹과 변함없는 신뢰의 정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우리 수령님을 뵈옵던 그날의 감격을 한생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추억으로 심장속에 새겨안은 모에랑이였기에 그는 언제나 수령님을 그리며 살아왔다.

나라와 민족, 사상과 정견, 피부색과 언어는 서로 달라도 터치는 심장의 웨침은 오직 하나 **김일성**주석은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것이다.

말그대로 그 품은 영원한 태양의 품이였다.

하여 모에랑은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로베르뜨에게 늘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선에서 목격한 사실을 가지고 유네스코와 국제수목학회에서 강연도 하고 증언의 글도 많이 써내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 가족들과 함께 중앙식물원에서 불멸의 꽃 재배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배운 로베르뜨는 귀국하여 학회성원들

에게 그에 대한 강의도 하고 실습도 조직하였다.

로베르뜨의 영향을 받고 벨지끄는 물론 네데를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도 불멸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열망이 높아졌다.

베를린달렘식물원창립 행사에 참가하여

주체93(2004)년 5월이였다.

우리 나라 원예실무대표단은 베를린달렘식물원창립 100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이췰란드로 갔다.

달렘식물원으로 말하면 1904년에 창립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식물원이다.

이 식물원은 그 표본수만 하여도 400만여점이라는 수자를 기록하고있다. 식물원은 수종이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꽃으로 하여 이름이 있었다.

달렘식물원창립 100돐기념행사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300여명의 식물학자들과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체류기간 대표단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공동연구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유전자전이에 관한 기술자료들을 보다 폭넓게 연구하고 분석실험도 진행하는 사업에 기본을 두고 활동하였다.

기념행사에서는 《꽃에 관한 미적견해와 인간의 감정세계》라는 제목으로 국제과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의 전시대중심에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유표하게 전시되여있었다. 그리고 행사장 여기저기에 불멸의 꽃을 형상한 선전화

가 전시되여있었다.

대표단성원들의 마음은 감격으로 설레이였다.

오후 첫 시간에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은 과학토론회연단에 나섰다.

그는 먼저 베를린달렘식물원창립 100돐기념행사에 초대하여준데 대하여 주최측에 대표단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하고나서 《꽃을 통한 미학의 인식교양적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

현실세계에는 미적대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꽃에 대한 미적인식능력, 아름다운 꽃에 대한 창조능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민족의 문화정서생활에서 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남달리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좋아한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꽃을 정서생활의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에 벌써 자연속의 꽃을 아름답게 감상만 한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꽃을 심고 가꾸면서 정서있게 생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물론 도이췰란드의 력사문헌에도 군자의 나라로 불리운 고조선주민들이 마을과 집주변들에 무궁화를 비롯한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심고 가꾸었다고 기록되여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주변에 화초로 담을 조성하고 마을의 곳곳마다에 향기 그윽한 꽃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파일나무들을 심어 풍치를 돋구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방안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리는데서도 꽃을 많이 리용하였습니다. 선조들은 방안을 여러가지 향기로운 꽃들로 장식하였으며 모란을 비롯한 아름다운 꽃무늬들을 방안장식용으로 즐겨 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풍습은 유네스코에서 진행된 조선문화주간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고구려시기의 안악무덤벽화와 쌍기둥무

덤벽화 등에 생동하게 반영되여있습니다.

특히 고려시기에 와서는 꽃을 형상한 병풍이 많이 류행되였습니다. 이 시기의 이름난 병풍들중의 하나였던 사계절분경병풍에는 소나무, 참대와 함께 모란 등을 새긴 장방형, 사발형, 항아리형의 각종 꽃화분들과 여러가지 꽃병들이 계절에 맞게 그려져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제일 좋아한 꽃은 진달래, 국화, 무궁화, 철쭉, 봉선화, 장미, 모란, 백일홍, 해당화 등이였습니다. 그 색갈은 대체로 흰색과 연분홍색, 붉은색과 같은 부드럽고 다정다감한것이였습니다.

이러한것들은 정의감이 강하고 정열적인 우리 민족의 정서적미감에 잘 어울리였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시기의 청자꽃병들에도 국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꽃무늬들이 아름답게 부각되여있습니다.

꽃을 형상한 문예작품도 많았습니다. 고구려시기부터 불리워온것으로 알려진 가요 《동동》이라든가 고려시기의 가요 《정석가》, 《동백꽃》, 《해당화》 그리고 리조시기 리득원의 시《국화를 심노라》, 녀류시인 신사임당의 시 《봉선화를 물들이며》 등을 실례로 들수 있습니다.

리상좌의 《꽃과 새》들을 비롯한 우수한 미술작품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꽃주제의 작품들은 당시 사람들속에서 각별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즐거운 민속명절날이면 진달래꽃전, 국화전, 진달래술, 국화술 등 꽃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음식들을 즐겨먹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꽃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비단에 꽃무늬를 연하게 새기고 명주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료로 꽃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꽃을 아름다움과 순결의 상징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문명한 정서생활을 누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꽃의 세계에서 인간의 미적지향이나 미의 창조능력을

배제하거나 거세할수 없습니다. 풍만한 화원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이며 사활적인 요구입니다.

꽃은 단순히 생활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꽃을 가꾸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인생도 화원처럼 순결하게 가꾸어갈것을 희망하고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구속이나 물질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주적인 삶을 누리게 될수록 정신활동과 육체로동 그리고 정서적측면에서 미적요구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서 그 어느 령역을 투시해보아도 미적요구와 무관계한 분야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가 참답고 진실할수록 고상하게 행동하고 아름답게 말하며 물건 또한 훌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이 사회와 대중앞에서 아름다운 조명을 받으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도 아름다워질것을 요구하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인 요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미학도 바로 이러한 사명을 띠고 생겨난 학문일것입니다. 이로부터 미학은 응당 인간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참신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되여야 합니다.

미학은 말그대로 현실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미적파악의 일반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때문에 미학관이란 아름다운것에 대한 견해와 관점 다시말하여 어떤것들이 아름다우며 가장 아름다운것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통털어 포괄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아름다움이 있지만 기본은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입니다.》

객석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단장은 군기침을 몇번 깇고나서 토론을 계속하였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 사상정신적풍모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수령,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입니다.

때문에 꽃을 통한 미학분야도 단순히 꽃세계를 감성적으로 인식하는것을 밝히는것만으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향기 그윽한 꽃도 오직 사람에게 복무한다는데서 유용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름다운것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으며 참된 인간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진실하게 파악되는 사물현상이라는 독창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견해를 정립하여주시였습니다.》

순간 장내에서는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졌다.

원래 학자들이란 생활에서는 웅심이 깊으나 박수에서는 린색한 성미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의 웅성거림은 고조되였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졌다.

우리 대표단단장의 토론은 계속되였다.

《사람들은 흔히 꽃을 대할 때 자연적인 미를 그대로 감수하군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는 숭고한 요구와 지향에 기초하여 꽃의 진가를 평가해주시였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진귀한 보화라고 하여도 사람과 무관계하고 인간의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는것은 미의 참다운 대상으로 될수 없습니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력사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바로 근로하는 인민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인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락관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것이 아름다울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그 깊은 뜻과 아름다움으로 하여 미의 최고절정에 이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알고계시는바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태양절과 뜻깊은 2월에 **김일성**화축전과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축전들에서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차넘치고있습니다.

정말 꽃을 피워가는 마음도 아름답지만 꽃을 따라 피는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 연단을 빌어 여러 선생님들과 화초애호가들이 **김일성**화축전과 **김정일**화축전에 뜨거운 지성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연단에서 내리자 유네스코 특파기자가 우리 대표단을 찾아와 연설원문을 요구하였다.

여러 나라 학자들도 좋은 연설을 들었다고 단장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베를린자유종합대학 생물학부 응용유전학연구소 박사 토마스 슈멜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그로박테리움에 의한 유전자전이식물육종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토의하고 기술협조와 인재양성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견해일치를 보았으면 합니다.》

네데를란드엔자자덴종자회사의 재정책임자 마르코비넨지크는 원예식물육종과 재배, 생물공학분야에서의 기술교류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영국 큐식물원 원장 피터 크레인박사는 식물원에서 앞으로 《세계

재배식물목록집》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편집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미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론의하여 왔습니다.

고대그리스의 철학가 플라톤은 〈미는 곧 리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헤겔은 〈미는 리념의 감성적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리론들이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외면한 추상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베를린달렘식물원창립 100돐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조선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귀국에 앞서 우리 대표단은 피터 크레인을 비롯한 여러 원예학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력사적으로 리로운 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한것이 식물원이 나오게 된 동기로 되였고 각 곳에서 재배한 꽃들을 한곳에 진렬하여 그 품종과 형태, 질적수준 등을 실물로 알려주고 꽃재배기술을 발전시키며 상업적인 리윤추구와 과학적교류를 목적으로 조직하여오던것이 국제화초박람회나 전시회로 발전하여왔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병치료에 쓰이는 약초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과정에 약초원이 생기게 되였고 또 여기에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과 진귀한 품종들이 보충되여 많은 사람들의 참관 및 식물연구대상으로 되면서 식물원은 부단히 확대되고 화초업도 눈에 띄울 정도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단단장의 말이였다.

이번에는 영국 큐식물원 원장 피터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우리 큐식물원에는 수목이 7 000여종, 초본이 8 000여종이 자라고있고 온실에서 재배하는것은 13만여종입니다. 그리고 표본실에는 600만여점의 식물표본이 있고 식물도서실에는 12만여부의 도서가 있습니다.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식물원도 큰 식물원입니다. 이 식물원 역시 600만여점의 식물표본을 가지고있습니다.

공원으로 잘 꾸려진 식물원으로는 〈팜펠무쓰〉를 꼽을수 있지요. 이 식물원은 인디아양의 푸른 파도우에 떠있는 한알의 보석과 같은 모리셔스섬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가보았는데 공원안에 〈강〉도 있고 폭포와 련못도 있어 관광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가 좋은 식물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화초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는것은 조선입니다. 그것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세계 화초계는 수억년의 이끼질은 력사를 기록하고있지만 조선에서처럼 위인칭송의 꽃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이 명화들은 이미 국제학회에 등록되고 많은 출판물들에 소개되였습니다.

이번에 이 명화들에 대한 새롭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준데 대하여 조선대표단에 사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피터박사는 수염을 쓸어만지였다.

체류기간 우리 대표단은 달렘식물원은 물론 여러 나라 화초회사들과 련계를 맺으면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더 널리 보급해나가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벌리였다.

어느날 데페아통신사의 녀기자 슈타인 베르다가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우리 대표단을 찾아왔다.

데페아통신사는 함부르그시에 본사를 두고있는 도이췰란드통신사로서 여기에서는 국내의 모든 일간신문사, 방송국들과 세계 80여개 나라의 550여개의 통신사, 방송국, TV방송국 및 공보단체들에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주고있다.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를 자연속에서 의식하고 그것을 자기 생활에 받아들이는것은 인간고유의 창조적이며 미학적의식의 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베를린달렘식물원창립 100돐기념 국제과학토론회에서 발언한 조선대표단의 토론에서 많은것을 감수하였습니다.

인간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무명의 꽃들중에서 **김일성**화나 **김정일**화처럼 그렇듯 시대와 인류의 절찬을 받으며 만민의 흠모속에, 격찬속에 위인칭송의 명화로 사랑을 받아온 그런 꽃은 이 세상에 아직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베르다는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박사선생, 정말 꽃은 령묘하고 민감하면서도 아름다운것입니다.

나는 전달에 취재차로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 나라 출장이 처음이 아니였지만 이번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에는 원형으로 된 천연색꽃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여㎡의 부지에 자리잡고있는 커다란 꽃시계인데 그 시계는 각이한 색갈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여있었습니다.

바깥에는 꽃을 세겹 둘렀는데 제일 바깥둘레는 누른색으로 장식되고 시계의 원판은 진록색으로 되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열두개의 큰 원점과 60개의 작은 원점이 고르롭게 배렬되여있었습니다. 붉은색바탕에는 1부터 12까지의 아라비아수자가 표시되여있고 중심부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이 배합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여 꽃잎으로 장식되여있었습니다.

두개는 굵고 한개는 가느다란 바늘이 꽃시계의 맨우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것은 이 꽃시계의 제일 웃부분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피여있는것이였습니다. 정말 희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계인류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를 얼마나 흠모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지 않습니까?

시계의 기계구조는 꽃밑에 설치된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줄 알지요. 특히 스위스의 〈오메가〉는 시계생산부문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거대한 사업과 생활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민감한 시계도 역시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여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천연꽃시계의 맨 웃부분에 놓여있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불멸의 꽃 **김정일**화!

정녕 그것은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뜨거운 흠모의 마음의 총체였다.

《기자선생, 그래서 세상에는 피여나는 첫물 들꽃을 가지고 찬화회를 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지는 꽃이 아쉬워 꽃제를 지내는 종족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세의 위인을 칭송하는 꽃을 태양에 비겨 노래한 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우리 대표단단장의 말이였다.

태양의 존함은 꽃에만 모셔져있지 않았다.

세계의 방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워지는 얼마나 많은 거리들과 학교, 도서관, 농업과학연구소 등이 있는것인가.

수리아에서는 수도 디마스끄의 가파르 쑤신구역에 새로 건설된 거리를 **김일성**거리로, 캄보쟈에서는 수도 프놈펜시의 288거리를 **김일성**대원수거리로 명명하였다. 모잠비끄정부는 수도 마뿌뜨의 중심에 위치한 종합대학거리를, 레바논의 두웨리예에서는 중심거리를 **김일성**거리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네에서는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가, 마다가스까르에서는 **김일성**서점이, 꾸바에서는 **김일성**농업전문학교가, 뻬루에는 **김일성**회관이 생겨났다.

단장을 바라보며 기자는 말하였다.

《박사선생, 이 행성에서의 **김일성**화, **김정일**화출현은 참으로

20세기 원예사에 특기한 사변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태양의 꽃을 자양해주고 사랑해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로운분들에게 심심한 고마움을 전하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나는 태양의 꽃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기자선생의 문필활동에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조용한 걸음으로 식물원구내를 거닐었다.

하얀꽃, 연분홍꽃, 자주꽃, 빨간꽃 등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나 훈훈한 봄바람에 하늘거리였다.

오색찬연한 꽃물결은 싱그러운 공기속에서 짙은 향기를 한껏 풍기고있었다.

세계원예박람회의 금상

세계원예계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적규모의 원예박람회는 화초와 남새, 원림 등 원예업과 그 련관분야들을 자기의 사업대상으로 포괄하고있다.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원예박람회를 중시하고 나라의 원예와 문화발전수준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하여 저마다 경쟁적으로 여기에 참가하고있다.

세계원예박람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원예계인사들과 학자들을 망라하는 국제심사위원회가 여러차례에 걸쳐 종합심의와 개별심사를 진행하여 엄밀한 평가점수를 낸데 기초하여 가장 우수한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급수별로 시상을 한다.

2006년 4월 30일,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규모의 2006중국심양세계원예박람회가 중국의 심양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였다.

거세차게 흐르고있는 료하의 지류 훈하의 북쪽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심양은 중국의 경제문화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동북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의 하나이다.

박람회장은 시내에서 60여리 떨어진 아늑한 교외에 자리잡고있었다.

심양의 크고작은 거리마다에는 박람회를 소개선전하는 대형그림판들이 나붙어있었다.

참관자들을 태운 수많은 관광뻐스와 승용차들이 끊임없이 박람회장으로 모여들고있었다.

중국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제56차총회 결정에 의하여 2006심양세계원예박람회개최권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21세기의 첫 세계원예박람회였다.

중국정부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련계를 강화하는 한편 박람회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리였다.

2005년 1월 중국정부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통하여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 이 박람회에 참가해줄데 대하여 제기하여왔다.

그해 3～4월에는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책임일군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화명명 40돐 기념행사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 단장은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2006심양세계원예박람회는 21세기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조직되는 박람회입니다.

특히 박람회장소인 심양은 길림이나 연변지구와 가까운 곳으로서 거기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

신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심양박람회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꼭 출품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세계원예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가를 다시금 잘 알수 있다.

그해 7월 중국정부의 초청으로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실무대표단이 심양을 방문하였다.

현지 재배조건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주체95(2006)년 3월부터는 재배전문가들이 박람회가 진행되는 심양에 도착하여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재배사업에 착수하였다.

중국정부에서는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단독으로 전시대에 전시할수 있게 자리를 잡아주었다.

드디여 2006심양세계원예박람회는 막을 올리였다.

박람회에는 우리 나라와 주최국인 중국, 네데를란드, 로씨야, 프랑스, 이딸리아, 영국, 도이췰란드, 미국, 오스트랄리아, 타이, 카나다 등 23개 나라의 76개 원예단체들이 참가하여 각종 화초들과 수만점의 분재, 분경들을 출품하였으며 수백개의 건축물과 수천그루의 각종 나무들로 하나의 큰 화원구역, 원림지구를 형성하였다.

개막식에는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재를 비롯한 외국의 손님들, 식물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주재하고있는 각국 외교사절들이 초대되였다.

개막식장에는 참가국들의 국기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기발이 게양되였다.

람홍색공화국기발은 국기게양대의 중심에서 나붓기고있었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여 박람회에 참가한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는 박람회장에 《조선원》을 특색있게 꾸려놓고 거기에 진귀한

화초들을 보조꽃으로 하고 수백상의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아름답게 전시해놓았다.

《조선원》안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위인칭송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조선원》을 찾은 참관자들은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흥취나는 민요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는 분수못에는 평화와 친선을 상징하여 5명의 귀여운 어린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뛰노는 가운데 두 어린이가 비둘기를 맞잡고 날리는 아동조각군상이 있었고 《조선원》 첫 입구에는 기념문이 세워져있었다. 기념문을 통과하여 들어서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꾸려놓은 전시장이 펼쳐져있었는데 거기에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이 세상 그 어느 꽃에도 견줄수 없는 뜻이 깊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격찬하였다.

하도 아름답고 진귀한 꽃이여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명판을 들여다보고나서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참관자들과 전시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위인의 존함을 모신 꽃을 영원히 간직하려는듯 오랜 시간 태양의 꽃을 렌즈에 담는 사람들로 하여 전시대앞은 늘 흥성거리였다. 그리고 민족적형식에 현대적미감이 짙은 특색있는 《조선원》의 건축술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조선전시대는 박람회의 주제와 일치되고 평화와 친선, 사랑에 대한 인류의 지향과도 잘 결합되여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람회는 그해 10월말까지 반년동안 진행되였다.

이 기간 방송과 TV에서는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에 불멸의 꽃에 대하여 보도하였으며 여러 신문지상도 자기의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심양시내의 크고작은 사진관들과 봉사단위들, 호텔들에서는 저저마다 광고소개판에 **김일성**화, **김정일**화사진을 붙이였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재이며 박람회심사위원회 위원장인 화버 듀케는 우리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조선전시대의 주화일뿐아니라 이번 세계원예박람회의 주화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공생한다〉, 〈친선, 평화, 단결〉이라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를 이끌어나가는데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불멸의 꽃에 대한 만민의 칭송은 **김일성**각하와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인간,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나는 세계원예업을 발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총재로서 아름다운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이번 박람회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원예박람회에 태양의 꽃이 전시됨으로써 박람회는 황홀하면서도 더욱 무게있게 자기의 특색을 드러내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화버 듀케를 보며 우리 일군들은 태양의 꽃을 더 잘 피워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박람회 심사위원인 심양식물원 원장 류연강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보고 만사람이 다 매혹되는데 정말 이 꽃들은 뜻이 깊은 명화입니다.》라고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박람회에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식물개별심사항목의 최고상인 금상을 수여받았다. 《조선원》에는 박람회 종합최고상으로서 최우수상이 수여되였다.

이는 세계화초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크나큰 경사였으며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칭송속에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도무지 잠들수 없었다. 생각할수록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령도자로 모시고 사는 영광과 긍지가 가슴속에 끓어올라 마음을 좀처럼 진정할수 없었던것이다.

박람회를 통하여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는 보다 밀접한 련계를 맺게 되였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세계 여러 나라 원예계생산자들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46년에 창립된 기구였다.

오랜 활동력사를 가진 이 기구는 최근시기 원예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와 인민들의 관심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데 따라 원예계의 권위있는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기구는 세계적으로 새로 육종되여나오는 원예품종의 지적소유권보호와 우수한 품종에 대한 보급과 선전, 세계원예박람회 개최와 참가신청에 대한 료해검토와 승인, 그 심사사업 그리고 세계원예업계의 각종 정보를 담은 년감형식의 출판물발행과 원예발전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을 자기 활동의 기본목적으로 하고있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재인 화버 듀케는 청년시절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와 아프리카지역에서 농업과 원예발전,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적사업을 진행해오는 과정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주시대 만민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는 진보적인류의 흠모의 감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화버 듀케는 자기는 직업적으로도 꽃속에서 사는 인간이기에 마음도, 리상도 꽃처럼 아름답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간직하고있었다.

화버 듀케는 심양에서 조선방문희망을 표명하였다.

우리 대표단단장은 그의 의향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렇게 되여 총재는 심양세계원예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며 심양원예박람회가 한창 진행중에 있던 그해 8월말～ 9월초에 조선을 방문하였다.

평양에 도착한 다음날 화버 듀케는 **김일성**화**김정일**화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자신의 경모의 마음이 담긴 지성어린 선물을 올리였다.

이어 그는 태양의 꽃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것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선방문기간 화버 듀케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을 참관하였으며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김일성**화, **김정일**화는 꽃중의 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선에 와서 체류한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동안 나는 일생에서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서방의 보도매체들이 하는 선전을 들으면서 조선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고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진행된 2006심양세계원예박람회에 출품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직접 보고 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세상에 태여난 경위를 들으면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받고계시는 인류의 존경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으며 세계원예박람회장에 꾸려진 〈조선원〉의 어린이조각군상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평화를 사랑하고 친선을 지향하는 민족임을 직감하게 되였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세계원예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원예생산자협회총재로서 귀국의 아름다운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심양세계원예박람회에 출품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럽게 여기게 되였으며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욱 탄복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조선을 직접 방문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대한 나의 충심으로 되는 존경을 표시하고싶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조선을 방문할것을 열렬히 희망하였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 나의 고향에서 400년전부터 내려오는 도자기제조술로 제작한 접시에 평화를 상징하여 아름다운 꽃속에서 나래펴는 새를 그려넣은 선물을 성의껏 마련하였습니다.

2006심양세계원예박람회 조직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을 방문할수 있도록 초청해줄것을 요구한 때로부터 얼마 안되여 나는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습니다.

사실 조선에 대한 나의 이번 방문의 목적은 아름다운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꽃피워 훌륭한 원예원을 펼쳐놓은 조선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조선방문의 첫순간부터 나의 감동은 대단히 컸습니다.

특히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면서 나는 한평생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위인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무한한 정력과 헌신, 탁월한 령도력으로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이러한 공헌에 경탄하며 주석님께 나의 진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리였습니다.

나는 주체사상탑을 참관하면서 《주체》라는 말의 참뜻을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김일성**주석님의 이 사상에 나는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걸출한 지도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이 솟아있는 주체사상탑의 모습은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주체적인간의 강의한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는데 거기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귀중한 선물모두를 인민의것으로 되게 하여주신것은 절세의 위인들만이 하실수 있는 인덕

입니다.

국제친선전람관에 보존된 이 선물들은 자기 인민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인들의 빛나는 업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경탄과 경모의 마음을 반영하고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을 방문하여 짧은 기간을 보내였지만 마치도 오랜 기간 있은것 같은 친근한 감정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이 평화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귀국에서 어린이들에게 안겨주고있는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과외활동은 우리 네데를란드는 물론 서방나라들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후대들에 대한 관점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방은 이것을 망각하고있습니다. 서방에는 어린이궁전이라는 말자체가 없습니다.

참으로 조선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선에 와보니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가 있는데 그 뜻이 리해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내놓으신 구호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그이의 위인상에 대하여, 미래관에 대하여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조선에 와서 제일 감동된것은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그들모두가 품고있는 존경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매우 진실한것이였습니다. 이것은 지어낼수도, 만들어낼수도 없는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과 조선인민은 한식솔이라는것을 페부로 느끼게 되였습니다.

조선체류기간 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과 김정숙녀사의 혁명력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도서들을 탐독하면서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적풍모와 헌신의 력사를 깊이 알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세계가 칭송하고 흠모하듯이 세계자주화위업과 평화를 위한 길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십니다.

나는 이 모든것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위대한 령도자들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존함으로 명명된 아름다운 꽃들에 대한 리해를 깊이하게 되였습니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을 참관하면서 이것을 더 깊이 느끼였습니다.

조선과 조선인민은 경탄할만한 나라이고 인민입니다.

평양은 도시가 깨끗하고 규모가 정돈되여있으며 소음공해현상이 없어서 기분이 대단히 좋고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 내가 젊은 시절을 다시 시작할수만 있다면 안정되고 깨끗한 나라, 인정있고 솔직하며 미래를 위하여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인민과의 사업으로부터 시작하고싶습니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귀국과 귀국인민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령도를 받고있기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이겨낼것이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위대한 사상, 고매한 덕성, 뜨거운 덕망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 세계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걸출한 사상과 령도력으로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안아오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존함을 모시고 피여나는 **김일성**화, **김정일**화야말로 꽃중의 《왕》입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기구를 통하여 꽃중의 최고인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널리 보급선전하며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귀국과의 관계발전을 촉진시키는것과 함께 귀국이 절박하게 념원하는 조국통일위업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아낌없이 해나갈 결심입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재 화버 듀케

이 글은 《불멸의 꽃》잡지에 그의 사진과 함께 실리였다.

실로 **김일성**화, **김정일**화에 대한 세계적인 반향이 날로 커가고

있는것은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의 표시이며 이것은 곧 조선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였다.

그윽한 향기속에 영생하시리

아름다움의 극치, 매력의 정수를 지니고있는 태양의 꽃이 국제화초계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는 때에 태양절과 **김일성**화명명 42돐에 즈음하여 주체96(2007)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식물원에서는 **김일성**화전시회 개막 및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방문 사적표식비제막식이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있던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대표단이 초대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인 수카르노의 안내를 받으며 보고르식물원을 돌아보시던 날에 남기신 력사적인 사진화폭앞에서 쉬이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행사에서는 먼저 식물원입구에 건립된 사적표식비가 제막되였다.

표식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져있었다.

1965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령도자께 수카르노대통령이 **김일성**화를 올린 온실. 2007년 4월 13일

김일성화전시회 개막을 축하하는 연설에서 인도네시아 과학원 부원장 엔당 수까라교수는《오늘 우리는 42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수카

르노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주석각하께 **김일성**화를 드린 력사적인 사변을 회고하게 됩니다. **김일성**화는 유명한 란초식물학자인 인도네시아의 분트선생에 의하여 육종되였으며 수카르노대통령의 아들 균터 수카르노 푸테라선생에 의하여 영국왕실원예학회에 공식등록됨으로써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문화 및 관광성 총국장 하지 운또르 드라드챠트는 연설에서 《나는 전시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의 영생을 바라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존경하는 수카르노대통령과 귀국인민들의 뜨거운 환대속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식방문을 진행하신 력사적인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그때 수카르노대통령이 위대한 수령님께 인도네시아인민들의 흠모와 존경을 담아 삼가 올린 **김일성**화는 오늘 인도네시아와 조선 두 나라 지경을 벗어나 세계 방방곡곡에서 인류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며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다고 말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전시회는 3일간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수많은 참관자들로 흥성거리였다.

보고르식물원 원장 이라와띠는 우리 나라 대표단단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김일성**화전시회는 42년만에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의의있는 전시회로서 보고르식물원뿐아니라 전체 인도네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습니다.》

그 다음날인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4월 15일.

인도네시아의 신문, 방송들에서는 보고르식물원에서 진행된 **김일성**화전시회 개막식과 사적표식비제막식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국제일보》 4월 15일부는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대통령 수카르노가 명명하여 올린 위대한 꽃》, 《**김일성**주석탄생 95돐기념》이라는 표제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웃면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좌우에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평양의 개선문사진을 편집하였다.

그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때의 력사적화폭들을 수록한 사진들을 정중히 모시였다.

그리고 《보고르식물원은 **김일성**화의 고향》, 《평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이밖에 신문지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카르노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 보고르식물원을 돌아보시는 사진, 명예공학박사칭호를 수여받으시는 사진이 편집되였다.

이 사진들을 보는 대표단성원들의 가슴속에는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왔다.

4월 18일에는 태양절과 **김일성**화명명 42돐에 즈음하여 보고르시 뿐짝에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 새로 건설되여 개관되였다.

이날 한 녀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 대표단 단장앞에 다가섰다.

보고르식물원 원장 이라와띠는 그를 소개하였다.

《**김일성**화를 육종한 식물학자 분트선생의 딸 클라라 분트입니다.》

클라라는 단장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만 어깨를 들먹이였다.

《42년전에 아버지가 오랜 고심끝에 이 꽃을 육종해내던 때가 감

회깊이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육종한 진귀한 란꽃을 수카르노대통령이 **김일성**화로 명명하여 인도네시아에 오신 **김일성**주석각하께 드리였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김일성**주석님이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하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김일성화를 가지고있는것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우리 가정의 더없는 행복이고 자랑입니다.

저는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회원으로서 아버지의 소원까지 합쳐 불멸의 꽃 재배보급사업에 헌신하겠습니다.》

추억이란 지나온 인생길을 돌이켜보게 하는것이지만 그것을 되새겨보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참으로 분트가 인생의 총화작으로 육종한 아름다운 란꽃은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은 더없이 소중한것이였다.

대표단성원들의 마음도 이름할수 없이 달아올랐다.

그런데 조선치마저고리차림을 한 40대의 중년녀인이 또 다가왔다.

《뉘신지요?》 단장은 그를 지켜보았다.

《저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친선녀 모란 유수프입니다. 저는 평양산원에서 태여났습니다. 태양절과 **김일성**화 명명 42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쑤마뜨라섬의 빠당에서 배를 타고 오늘 아침에야 쟈까르따에 도착하였습니다.》

호수같이 고요한 유수프의 두눈은 해빛에 반짝이였다.

《아, 알만합니다.》

단장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였다.

《이 애는 누구입니까?》

《저의 딸 케라입니다. 제가 아버지 **김일성**주석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가 열여덟살이 되던 해였는데 이 애가 벌써 그 나이가 되였습니다. 세월은 정말 류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하

지만 그 어느 순간도 저는 **김일성**주석님을 잊고 산적이 없습니다. 주석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유수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 조선치마저고리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아버지 **김일성**주석님께서 보내주신 천으로 조선대사관 녀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은 옷입니다.》

단장은 치밀어오르는 격정을 가까스로 억제하였다.

그는 케라의 손을 잡고 모란 유수프와 함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로 들어갔다.

유수프의 눈가에는 진주같은 눈물이 고여있었다.

단장은 그가 북받치는 감정을 가까스로 참고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과 **김일성**화명명 42돐에 즈음하여 2007년 4월 7일 인도네시아에서는 **김일성**화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소조책임자로 쥐. 에쓰. 훼임경제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인 싼디 쁘라띠위가 선거되였다.

결성식에서 소조책임자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태여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꽃을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상을 더 널리 소개선전할것을 호소하였다.

소조원들은 **김일성**화가 태여난 곳에서 사는 긍지를 안고 인도네시아에 새로 건설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거점으로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며 나아가서 많은 나라들에 보급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체류기간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도네시아땅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신 그 로정을 따라 쟈까르따와 반둥, 보고르 등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수도의 독립광장이며 반둥박물관, 찌빠나스궁전 등에서는 오늘도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

하신 음성이 그대로 들려오는듯싶었다.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남기신 우리 수령님의 뜻깊은 사적이 력력히 새겨져있는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고귀한 추억으로만 이어지는 곳이 아니였다.

단장은 가끔 눈언저리를 닦았다.

안내자인 문화 및 관광성 일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게 땀을 씻는것을 보니 더위를 먹겠습니다. 병에는 좋은 약이 있지만 남방의 더위에는 약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숙소로 떠납시다.》

안내자는 대표단성원들에게 출발을 재촉하였다.

《괜찮습니다.》

단장의 젖은 목소리는 약간 떨리였다.

그들이 손수건을 적시는것은 결코 땀때문이 아니였다.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선뜻 걸음을 옮길수 없었던것이다.

대표단성원들은 타향의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그들은 다음날 쟈까르따를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인류의 뜨거운 흠모와 지성이 담긴 태양의 꽃을 누리에 만발하게 피우며 민족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있다고 생각하니 대표단성원들의 마음은 이름할수 없는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비행기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줄곧 구름의 언덕을 쉬임없이 넘고있었다.

× × ×

김일성화는 자연이 안겨주는 화초계의 범상한 꽃이 아니다.

김일성화는 이름그대로 위인칭송의 꽃이다.

이 세상 유명무명의 꽃들에는 다 피고지는 계절이 있건만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김일성**화는 사시장철 아름답게 피고피여 영원히 그 향기를 잃지 않는다.

백만금이면 이보다 값있고 억만재부이면 이보다 더 소중하랴.

인류마음의 무게를 담고있는 그 송이송이는 제도와 정견, 국경이 따로 없는 만민칭송의 보귀한 결정체이다.

하여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고위정객들, 저명한 인사들과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수령님을 그처럼 경모하고 세월이 흘러도 못잊어 하고있는것이다.

력사를 개척하고 시대의 앞길을 밝히는것은 위대한 사상과 뜻을 지니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한몸에 체현한 절세의 위인만이 감당할수 있다.

우리 수령님은 만민이 공감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자주의 새 력사를 개척하고 민족과 인류의 운명전환의 시대를 펼치신 희세의 정치가이시다.

진보적인류는 특출한 정치로 세계혁명운동사에 미증유의 획을 그으며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을 희세의 정치대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조선을 방문하여 수령님을 뵈옵고나서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죠지 워싱톤, 토마스 제피슨, 아브라함 링컨 3대대통령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격찬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때로부터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나라와 민족, 정견은 다르지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위인상을 잊지 못해하고있는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2009년 11월 23일 타이신문 《더 네이숀》기자와의 회견에서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던 때를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김일성**주석은 참으로 탁월하고 모든것에 정통한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매우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계시였다. 어느 건물이 언제 건설된 무슨 건물이라는데 이르기까지 모르는것이 없으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소탈하고 겸허한 품성을 지니신것으로 하여 그이와의 담화도 잘되였다.

주석께서는 서거하시기 전까지 줄곧 북남수뇌회담에 대해 생각하시였다.

나는 조선의 북남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질것이라고 확신한다.

현 미행정부가 조선과 직접 대화를 하기 바란다.

이 회견내용을 타이는 물론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여러 나라들에서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은 해마다 진행되는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고 그들이 남긴 글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고 캄보쟈왕국 친왕 노로돔 유바나트는 《이런 축전을 처음 본다. **김일성**화는 정열적이고 우아하고 생신한 아름다움의 최절정, 고상한 뜻속에 신비의 무한대한 힘을 가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국대사관 일군은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였다.

봄기운 완연한 오늘
김일성화 만발하였네
축전장에 피여난 진귀한 꽃
송이송이 그 아름다움 떨치거니

마음으로 키운 꽃
사람들 제일로 사랑하네
언어로는 통하지 않지만
사람들 정으로 이 꽃과 통한다네

정말 여운이 짙은 시구이다.

일조음악예술교류회 회장 오가사와 미쯔꼬는 《인자하신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의 미소를 펼쳐주는 **김일성**화화원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할것이다.

태양이 있어 자연의 무궁한 봄이 있듯이 **김일성**화가 만발하여 인류의 아름다운 봄은 더더욱 화창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인간에 대한 존경과 흠모는 심장의 매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그 어떤 권력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순결하고 진실한 감정에서 분출되는것이다.

날이 갈수록 **김일성**화의 향기 넘치는 이 땅에 부강조국의 희망찬 래일이 찬란히 비끼고있다.

나라와 제도, 신앙의 계선을 넘어 만민이 한결같이 칭송하는 불멸의 꽃은 눈부신 광채를 뿌리며 인민의 가슴속에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다.

친구나 이웃에도 가깝고 먼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 꽃에는 그가 선량한 인간이라면 먼 사람이 따로 없다.

그 아름다움이 선과 악을 쉽게 구별한다.

그 광원 철쇄로 묶을수 없고 총칼로 막을수 없다.

그 향기 지구의 한끝에 퍼져가도 더위와 폭양에 질줄 모르고 추위와 찬바람에 잃지 않는다.

언제부터였던가.

아름답게 피는 꽃을 희망의 상징으로, 기쁨과 행복의 상징으로 노

래한것은 …

그 누가 말하더냐.

산에 들에 피여나는 천태만상의 꽃들에는 제나름의 아름다움과 풍기는 향기 있어 만사람의 사랑을 받는다고 …

허나 피는 꽃에 숭고한 뜻을 담아 영원히 시대앞에, 력사앞에 경탄을 자아내는 꽃이 세상에 과연 그 몇이던가.

어느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가 **김일성**화 축전장에 찾아왔다.

그는 원자탄에 의하여 참변을 당한 곳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본의 나가사끼에서 출생하였다.

원자탄의 세례로 사망자와 불구자가 부지기수였던 곳에서 자라나서인지 오가미 겡이찌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법관이나 교육자가 되여보려던 꿈을 버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의학대학에 입학하였다.

의학을 희망해본적이 없던 그가 이러한 용단을 내리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것은 정의와 자비의 수술칼을 들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행에서 구원하는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의학대학에 입학한 후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던 중 군마현소재지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병원에서 실습의 나날을 보내던 그는 한 동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매혹은 커가기만 하였다.

오가미 겡이찌는 동료로부터 귀중한 책 한권을 얻게 되였다. 그것은 《**김일성**전》이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그 책을 탐독하였다. 읽어나갈수록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의 풍모가 안겨왔다. 그의 마음은 칠칠야밤에 등불을 받아안은 감정이였다.

그는 가슴속에 조선에 가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받았다.

오가미 겡이찌는 마침내 조선을 방문하였다.

평양에서 그의 일과는 마음의 고향 만경대를 찾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 나날 그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조선에 건설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는 주체사상의 현실적의의와 보편성, 그 끝없는 생활력을 만천하에 실증하고있었으며 인류의 미래를 밝게 비치고있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자주적으로 개척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나의 심장속에 자리잡게 되였다.》

조선방문은 그의 인생에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담임선생과 대학동창생들은 그의 의학적재능을 아까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학탐구의 길로부터 주체사상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길에 대담하게 들어섰다.

오가미 겡이찌는 로마조선문제연구회를 뭇고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만민이 우러러 받들어야 할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그이의 주체사상은 인류의 념원을 꽃피우는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신념으로 더 깊이 새기게 되였다.

그후 도꾜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그는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 대표단 단장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접견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비록 처음 만나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것 같다고 하시며 다같이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같은 전우, 같은 동지라고 뜨겁게 불러주시였다.

그날 밤 그는 그처럼 뵈옵고싶던 위대한 인간, 위대한 스승을 만나뵈온 행복감으로 하여 잠들수 없었다.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를 비롯하여 일본전국에 결성된 20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는 주체사상신봉자로 된 커다란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해 피타는 열정을 바친 오가미 겡이찌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오가미 겡이찌를 여러차례나 만나주시고 그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오가미 겡이찌의 흠모심과 주체사상에 대한 열렬한 신봉은 남다른것이였다.

오늘도 그는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하기에 그는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면서 보니 **김일성**화는 볼수록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물들이고있습니다.

김일성화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모의 마음은 끝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에 의하여 오늘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둠속을 밝히는 홰불마냥 력사개척의 진두에 거연히 서계시는분》, 《자주의 궤도우를 주름잡으시며 인류해방의 새벽종을 울리시는분》…

세계의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 정치인, 종교인들이 다양하게 쓴 수천수만권을 넘는 《**김일성**주석접견기》들과 조선방문기, 인상기, 감상문들에 이런 칭송의 명구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있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외국의 한 문필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나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고있다》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류앞에 제기된 방대한 력사적과제가 탁월한 위인의 출현이 없이 해결된 실례는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위인의 총명성, 정력, 조직적수완은 세계위업수행에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놀며 수십수백년동안 력사의 면모를 규정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바로 이러한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가리아를 방문하시였을 때 그이께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던 와씰까 니끼포로바녀성은 한없는 그리움과 추억을 안고 주체84(1995)년 4월에 《**김일성**도서실》을 설립하고 현관입구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유화로 형상해놓았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인 인디아의 사회활동가 비슈와나스는 어려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을 따라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남다른 꿈을 안고 참다운 인생의 길을 찾아 방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에게 삶의 정확한 좌표를 정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

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글줄마다 맥박쳐 흐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체득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목마르게 그려온 참다운 인생의 길을 찾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디아의 평범한 인사인 비슈와나스를 여러차례 접견하여주시면서 참다운 인생행로도 정해주시고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도 부어주시였다.

정녕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스승이시였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우리 나라에 와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을 우러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불같은 웨침을 터치군 하였다.

(아!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정녕 가시지 않으셨다!

그이는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의 현실은 그에게 더욱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은 극도로 악랄해졌다. 게다가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조선혁명앞에는 실로 커다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서방세계는 조선에서의 그 어떤 《정치적변화》를 꿈꾸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는 시간문제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였다.

바로 이러한 때 적들의 온갖 어지러운 망상과 궤변을 짓부시며 백두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뢰성같은 의지의 선언이 울려퍼졌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정녕 그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옹호하고 계승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는 위대한 선언이였다.

절대불변의 그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려주시고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해주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헌법의 구절구절이 전파를 타고 온 우주로 메아리쳐갈 때 비슈와나스의 심장은 형언할수 없는 격정으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세계정치사를 돌이켜보면 국가수반이 서거한 다음에는 시간을 다투어 그 후임을 선정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오지 않았는가.

허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나 주석추대행사를 미루어오시고서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직함을 **김일성**동지께 삼가 드리시였으니 과연 동서고금의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 이런 충직한 수령의 전사가 있었던가.

수령님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과 의리를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속에서 **김일성**화축전도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고 《나는 **김일성**주석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물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신 주석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항일전과 반미전을 벌려 악을 징벌하시고 인민대중에게 지상락원을 마

련해주시였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김일성**주석님을 칭송하여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아름답게 펼쳐지고있는 **김일성**화축전이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마련되였다고 생각하니 이 가슴이 더욱 뜨거워진다.》고 자기의 소감을 말하였다.

공화국창건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더욱 성대하고 특색있게 진행된 제10차 **김일성**화축전에만하여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인민군부대들과 성, 중앙기관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해외동포조직들, 세계 여러 나라의 단체들과 벗들이 광범하게 참가하였다.

이 열번째 축전까지 전시장에는 6만여상의 **김일성**화가 출품되였고 참가단위수는 460여개, 참가자수는 380여만명에 달하였다.

정녕 **김일성**화축전이야말로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대지의 거창한 숨결이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과 생기를 북돋아주는 은혜로운 태양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송가였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되새기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불멸의 꽃에 대하여 격찬의 목소리를 터치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언제나 **김일성**화재배와 보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화의 재배보급사업을 몇몇 전문일군들의 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전환시키며 **김일성**화를 통하여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며 **김일성**화를 키우고 보급하는 과정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김일성**화를 대중적으로 재배보급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부

단히 연구완성하여나가면서 해마다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김일성**화 축전을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꽃축전으로 성대하게 진행함으로써 **김일성**화를 내외에 널리 보급선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피여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다.

그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꽃이 되고 잎이 되여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여나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속에 천하극치의 명화로 피여난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를 영원한 꽃향기속에 담아갈것이다.

군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민족의 마음속에 피고피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며 아름다운 태양의 꽃은 민족의 국보, 민족의 재보로 선군시대와 더불어 천년만년 무궁토록 누리에 만발할것이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만민의 흠모와 숭배, 간절한 그리움속에 오신 날은 있어도 정녕 가신 날이 없는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인류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화와 세계

저 자 김택영

편 집 리영순, 박사 리춘원

장 정 리정실 편 성 송옥화 교 정 김선월, 손정애

낸 곳 공 업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2010)년 8월 17일 발 행 주체(2010)년 8월 23일

ㄱ-05222 값 250원

김일성화와 세계

ISBN 978-9946-25-001-4